3103
340.911

南과 北－그 理念과 展望

－第4次統一問題 國際學術會議録－

日時：1978. 11. 1～11. 3
場所：世宗文化会舘 小講堂
主催：國 土 統 一 院
後援：大韓民國學術院

國土統一院 政策企劃室

● 本 資料는 1978年度 當院主催 第4次 統一問題國際學術會議 "南과 北"—그 理念과 展望— 結果報告書임.

● 本 資料에 收錄된 內容은, 當院의 見解를 반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니며, 民族史的 正統性 理論体系確立에 參考資料로 提供되는 것임.

刊行責任 研究官 金 炳 璘

補佐官 金 炳 國

國土統一院 政策企劃室

目 次

長官 인사말씀 ………… 1

<第一日：発表論文 및 討論> ………… 9

南北의 民族理念－理論 ………… 11

南北의 民族理念－実際 ………… 81

<第二日：発表論文 및 討論> ………… 171

特講：独逸에서의 分裂国家 成立과 統一의 課題 ………… 173

南北同質化의 諸問題 ………… 195

<第三日：発表論文 및 討論> ………… 277

北韓社会의 長期展望 ………… 279

特講：民族統一－그 文化的 背景 ………… 337

統一韓国의 未来像 ………… 369

閉会辞 ………… 469

※ 会議日程 ………… 475

※ 附録：北韓의 異質化実態（슬라이드 및 슬라이드 解説文）

인 사 말 씀

國土統一院長官 李 用 熙

国土統一院長官 李用熙 人事올리겠읍니다.

제가 国土統一院에 있는 李用熙올시다. 좀 時間이 이른것 같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이 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特히 우리 統一院에서 모시고 있는 우리 国家의 元老되시는 顧問先生님 또 여기 와 주신 저의 동료 発表者, 討論者 여러분 그리고 平素에 자주 모시게 되는 우리 統一꾼 其他 聽衆 여러분에게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읍니다.

다 아시는 일입니다마는 저희 統一院에서 昨年에는"南北間의 異質化"라고 하는 「심포지움」을 했읍니다. 그리고 年末께에는 "民族史의 理念"이라고 하는 좀 까다로운 이름으로 学術会議를 한 일이 있읍니다. 저희들은 지금 생각컨대 南北間에 基本的으로 統一에 대한 다른 接近方式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대단히 심각한 것이라고 생각했읍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大韓民国으로서는 南北의 統一을 南北関係의

平和로운 改善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接近하자고 하는 立場을취하고 있고, 한편 北쪽 사람들은 그런 것이 아니고 一方的인 變革 다시말하자면 南쪽에 대한 인위적 変革을 通해서 統一을 하자고 하는 立場을 취하고 있기때문에 사실상 서로 基本的 으로 다른 方法観을 가지고 치열한 対峙状態에 있읍니다. 저희 들의 立場은 어디까지나 南北関係의 平和스러운 改善이기 때문에 따라서 前提되는 것이 対話고 交流입니다. 対話하고 交流를 한다고 하는 立場에서 저희들이 생각하건대 싫든 좋든간에 이미 30 余年이라고 하는 歲月이 지났읍니다. 과연 南北関係를 対話로서 改善하는 경우에 그 30余年의 歲月이 뭘 意味하느냐 그런 문제에 対해서 생각안할 수가 없어서 그 문제를 '異質化문제'라고하여 昨年에 取扱을 해 봤읍니다. 그다음에는 저희들이 対話를通해서 다시한번 民族으로서 뭉치자 하는 경우에 서로 뭉치자는 基準概念은 民族이올시다. 따라서 이 民族이라 하는 基準概念을 서로 '名分 또는理念'으로 삼고있는데 기실은 南北이 같은 말을 하면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式이 될지도 모릅니다. 뿐만아니라 民族이라고 하면은 結局은 단순히 한 民族이니까 같이 모인다는 그러한 소박한 생각에 그칠 것이 아니고 民族으로

서 장차 잘 살게하는 편이 歷史의 흐름으로 보아서 정당한 統一을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立場에서 事実은 昨年 늦게 民族史의 理念이라 하는 概念을 내세워서 学界의 여러 碩学을 모시고 얘기를 나누어 봤읍니다.

昨年에 異質化라 하는 문제를 했을 적에는 솔직한 말씀이 저희들은 異質化문제를 그당시에 저희들이 入手했던 資料를 中心으로 해서 整理해 가지고 그리고 그다음에는 学界 여러분한테다가 그것에 대한 批判, 討論, 論究를 通해서 말씀해 주십사하는 態度를 取했읍니다. 그랬더니 의외로 異質化 문제라고 하는 것이 즉 30余年間을 서로 떨어져 있었고 또 인위적으로 소위인간개조를 한다는 정책탓으로, 더구나 서로 더 달라진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重要한 意味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 노출되었읍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平和的으로 南北関係의 改善을 할려는 것으로 한편이 한편을 억누르고 억압하는 그런 統一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미 달라진 状態를 어떻게 同質的으로, 같은 民族으로서의 一体感을 갖게 할 수 있느냐 하는 同質化문제를 … 異質化의 문제라는 것이 포함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昨年 後半부터는 근 1年半을 결쳐가지고 異質化의 実態를 철저하게 科

学的으로 研究를 해 봤읍니다.

그 結果의 일단은…… 여기에 아마 들어 오시는데 내 놨나요 …"異質化 実態調査"에 대한 抜萃本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쪽에 귀순한 분 或은 越南하신 여러분을 연령별 職業別 또 経歷別 或은 時期別로 나누어서 철저한「인터뷰」조사를 通해서 客観的으로 또 조금도 선입견이 없이 어떻게 달라졌나 하는 것을 生活의 各方面에 걸쳐서 調査해 봤읍니다. 실은 그것을 오늘 討論이나 発表하시는 분한테 미리 提示해 드렸읍니다.

또 장차 來日에는 그것을 다시 여기에 슬라이드로 要略해 가지고 提示하려고 합니다. 하여간 이런 엄연한 事実에 立脚해서 今年 저회들이 다시 이 모임을 갖게 된 것은 첫째로는 昨年에 했었던 여러가지 衆智를 듣고서 다시 되풀이 해서 예지를 새롭게 모음으로서 우리가 南北関係改善을 合理的으로 또 同時에 더 빨리 接近할 수 있는 方法이 나변에 있을까 하는 것을 찾을려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지금 우리 서울 近郊까지 땅굴을 파오고 있는 状態를 생각하면서 또 우리를 一方的으로 軍事力이든 其他 모든 方法으로써 一方的으로 変革을 하므로써

統一하겠다는 사람들을 相対로 하면서 그러면서 어디까지나 南北 関係를 平和的으로 改善하는 方式을 택하여 하자고 한다는 것은 솔직히 이 시점에서 생각할적에 어쩐지 迂遠 하기도 하고 쓸모없는 것같은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民族의 먼 将来를 생각할때는 역시 그 길밖에 없지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서 今年도 다시 우리 統一의 基本概念 즉 民族이라고 하는 概念의 문제를 가지고 오늘 討論会를 갖겠읍니다. 午前中에는 民族이라는 概念이 共産圏에서 어떻게 쓰이고 具体的으로 北韓에서 어떻게 使用되는 것이냐, 우리와 같으냐 다르냐 하는 것을 따지고, 다음 실제 그 사람들이 내놓은 名分上의 民族概念과 大衆操作을 하는 段階에 있어서 民族이라는 概念을 어떻게 실제로 쓰느냐 하는 문제를 午后에 論할까 합니다.

그리고 來日은 그런 基準概念과 동시에 現実的으로 벌어져있는 異質化의 実態가 어느程度 심각하냐 하는 것을 다시한번 문제삼아서 午前에는 그 実相을 얘기하고 午后에는, 그러나 異質化는 黙過할수 없지않느냐 結局은 뭉쳐야 되니까 뭉칠려면 同質化에 어떠한 方法, 어떠한 문제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論하

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지금으로서는 요원하게 보이는 統一에 대한 문제를 좀 長期的인 展望을 가지고, 学界에서 그동안 共同研究의 形式으로서 작업하신 北韓社会의 10年後 長期予測을 簡略하게 紹介드리겠읍니다.

그리고 끝으로 모래 午后에는 우리 韓半島에 平和스러운 統一이 됐다고 하는 경우에 그 統一된 社会의 미래상은 과연 무엇이 될까 하는 것을 学界의 著名한 権威를 通해서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것과 마찬가지로 한편이 変革을 위주로해서 統一할려고 하는 그런 마당에 우리는 南北의 関係를 改善의 方法에 의해서, 対話의 方法에 의해서 할려고 하는 이러한 얘기는 말로는 簡単합니다마는 실제로는 보통일이 아닙니다. 将来의 歴史의 運命을 판가름하는 것같은 그러한 치열한 対立속에 있는 이 마당에서 저희들이 내세우고 있는 이러한 対話의 方法을 통한 南北間의 統一을 여기서 論한다고 하는 경우에 반드시 나와야 되는 문제로서의 民族문제와 現実의 異質化와 同質化의 方法의 문제와 그다음에 未来에 대한 展望과 予測, 그 다음에 統一되는 경우에 있어서의 우리들이 지향하는 理念 혹은 未来像

은 뭐냐 하는 문제를 말씀드리게 됐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실은 저희들의 착상인것 보다도 여러분께서 昨年以来에 저희들한테 충고해 주시고 衆智를 모아서 도와주시고 특히 여기에 계신 統一院의 顧問先生님께서 평소 말씀해 주신 德으로 그런 程度로 문제를 展開했읍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이번 하는 이 모임에서 모든 문제가 解決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解決되기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오히려 제생각은 基本的인 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南北関係 改善이라고 하는 民族의 앞날을 길게 내다보는 이러한 接近을 매년 開催해 가면서 理論上 或은 現実的인 方法論의 부족한 것을 고쳐가는 동안에 어언간 対話의 길이 틀때를 準備한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아마 来年에도 또 来後年에도 같은 문제를 가지고 맴돈다는 印象을 받으실지 모르겠읍니다만 실은 그렇게 함으로써 정부로서는 문제의 内容을 더 밝히고 새로운 接近方法을 開拓하고 동시에 이런것을 通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北쪽에 있는 동포들에게 이러한 努力이 伝達된다고 하는 確信下에서 이러한 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統一院의 見解를 여기서 発表할려고 이 모임을 하지

않았읍니다. 統一院의 見解보다는 오히려 지금 現在 言論界 学界 其他 文壇같은 여러 方面의 權威 大家들을 모시고 그분들의 見解를 自由스럽게 発表시키므로서 衆智를 모아서 그것을 통해 国民의 意思를 받들어서 政府는 새로운 接近方法을 開発한다는 그러한 立場에 있읍니다. 그러한 意味에서 여러분들도 성원해 주시기를 바라며 직접 토의에 참가하여 意見를 発表하시는 여러 先生님과 討論者와도 여러분이 호흡을 같이 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변변치않은 말씀으로서 人事에 代身하겠읍니다.

78年 11月 1日

第 一 日：發表論文 및 討論

論語與文論發微：目 錄

南北의 民族理念 - 理論

○ 發表論文 ………………………………………… 13

發表 金　容　九 (서울大 敎授)

○ 討　　論 ………………………………………… 41

司會 梁　好　民 (朝鮮日報 論說委員)

討論 梁　秉　祐 (서울大 敎授)

李　萬　烈 (淑明女大 敎授)

崔　相　龍 (中央大 敎授)

〈発表論文〉

南北의 民族理念－理論

金 容 九(서울대교수)

一. 民族概念－時代的 状況속의 問題

먼저 제가 말씀드릴 것은 南北의 民族概念 내지는 民族理念에 대한 理論的인 考察입니다.

따라서 理論이라고 하는 副題가 붙어있기 때문에 여러 先生님들께서 아마 좀 지루하다고 느끼실지 모르겠읍니다만 좀 지루하시더라도 連3日間 계속되는 이 会議하고 어떤 関聯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대로 참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 생각에 우리는 解放以後부터 韓国民族主義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번 얘기를 했읍니다. 民族主義에 대해서는 글도 많고 또 여러번 「심포지움」을 열었었읍니다. 그러나 民族自体에 대한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아마 얘기를 하지않은 것같아요. 왜그러냐 하면 韓民族이라고 하는 것은 歴史的으로 單一民族이고 누가 뭐라해도 血統 文化意識 言語 地域등, 소위 理論에서 말하는 理想的인 모든 形態를 가지고 있는 單一民族으로 存在해 왔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事実이 아니냐. 따라서 萬人이 共知하는 事実은 証拠가 필요없듯이 韓民族 自体에 대

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았었읍니다. 대개 民族을 얘기할 때에는 그 民族의 結集力, 즉 그 共同体라고 하는 結集力이 弱化될때 하게 되는데 19 世紀 「휘테」가 소위 独逸民族에 고함이라든가 또 이태리独立운동이 한창 時節일때 「마치니」라든가 하는 사람이 民族을 얘기한 것이 実은 民族이 그만큼 結集力이 弱化되었다고 할 때에 그 民族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같이 歷史的으로 單一民族이고 누가 뭐래도 다같은 핏줄인 우리 韓民族을 다시 이 時点에서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제나름대로 어떤 時代的인 事項이 있지 않겠느냐 다시말하자면 우리가 보편타당하고 당연한 것이 아니냐고 하는 「民族」이라고 하는 생각, 理論的으로는 꼬집어서 뭐라고 얘기는 못하지마는 그러나 歷史的 実体로서 엄연히 存在하여 온 韓民族이라는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韓半島 一部에서 지금 進行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時代的인 状況에서 다시 우리가 当然視되었던 民族의 槪念을 말하게 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 한 40分동안 말씀드릴 順序는 첫째 民族이라고 하는 것하고 民族主義라고 하는 것하고 자꾸만 혼동해서 생각이 되기 때문에 民族主義하고 民族하고는 어떻게 区別이 되느냐 하는 것을 잠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안에 民族의 理念이라고 할까 民族槪念이라고 할까 하는 것을 말씀드릴려면 伝統的인 民族槪念 또는 伝統的인 民族理念 이것을 말씀 안드릴 수

없기때문에 그것에 대한 간단한 論及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큰 틀속에서 우리 韓国이 가지고 있는 民族槪念 내지는 民族理念 또 그 民族理念이 가지고 있는 問題点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다음에는 저쪽 共産主義로 가서 以北의 소위 民族문제를 볼려면 共産圈에서 民族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을 簡單히 말씀 안드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現在 알려져 있기로는 北韓의 民族理念이라든가 槪念은 蘇聯의 「스타린」의 民族槪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런 面이 있읍니다.

따라서 共産圈의 民族槪念이라고 하는 안목에서는 主로 蘇聯에서 民族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民族槪念이 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끝으로 北韓에서 民族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 말씀을 그치겠읍니다.

二· 民族과 民族主義

먼저 民族과 民族主義関係입니다.

원래 民族과 民族主義가 政治学者들에게 主要한 政治概念이 된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불란서革命과 20世紀에 들어 오면서 소위 反植民地運動이었었읍니다. 따라서 불란서革命이 欧羅巴全体에 波及되면서 民族主義도 함께 波及되었읍니다. 따라서 고전적인 意味에서 또 理想형적인 意味에서, 理論的인 意味에서는 民族이라고 하는 실체가 있고 거기에서 어떤 契機를 통해서 民族主義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欧羅巴에서 보는 원형적인 「케이스」였었읍니다. 그러나 20世紀에 들어 오면서 소위 反植民地運動의 경우에는 民族이라 하는 것이 先在하고 民族主義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民族主義가 먼저 나오고 그리고 나서 民族의 形成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民族主義와 民族은 不可分離의 관계에 있지마는 반드시 同時的인 概念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民族이 있다고 반드시 民族主義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民族은 있었읍니다마는 民族主義의 運動을 일으키지않은 무수한 民族이 歴史上에 있읍니다. 또 民族主義가 일어나고서 国家가 생기면서 다시 民族主義가 나오고 또다시 거기에서 民族의 形成문제가 또 나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民族과 民族主義는 不可分離의 関係에 있지마는 반드시 同時性의 概念은 아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民族主義는 무엇인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近代国家化하려는 운동이라고 볼 수 있읍니다.

民族主義는 近代国家라고 하는 歷史上의 독특한 政治形態의 출현하고 밀접한 関係가 있다고 우선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문제에서 보면 民族主義라 하는 것은 韓末에 西欧羅巴勢力과의 충돌에서 일어났다고 봅니다. 물론 韓末에 西欧羅巴勢力과의 충돌로서 民族主義가 일어났읍니다마는 韓国民族主義의 基底로서의 民族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歷史的으로 先在해 있었읍니다. 따라서 제가 몇번 말씀드립니다마는 民族主義하고 民族하고는 불가분리의 関係에 있지마는 同時的인 概念은 아니며 民族主義가 없는 歷史的인 실체로서의 民族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소위 民族主義的 運動에 들어선 民族을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萬若에 여기서 그렇지않고 民族主義가 일어나기 前에 民族을 얘기한다면은 高麗初 以前의 얘기도 해야 되고 中央亜細亜의 소수民族 얘기도 해야 됩니다마는 그런것은 다 차치해 놓고 民族主義的 民族이라고 하는 것만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다음은 伝統的으로 民族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는 문제를 잠시 말씀드리겠읍니다.

民族은 지금 말씀드린 民族主義의 人的 構成員입니다. 民族主義라고 하는 것이 近代国家化한다고 하는 運動이기 때문에 民族은 다시 말하자면은 近代国家化할려고 하는 運動의 主体입니다.

그런데 이런 主体가 生命이 없이 존재하는 主体가 아니고 그것

은 自己 나라라고 하는 귀속감과 정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정감만 가지고 있을 뿐만아니라 내가 내나라의 主人이라고 하는 意識을 바탕으로 한 權利의 名分으로서 規定되는 人間의 集団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며는 民族主義의 主体라고 하는 意味의 民族이라고 하는 것은 내나라라고 하는 情感을 가지고 있는 人間과 集団의 集結体고 또 內部的으로는 내가 主人이라고 하는 主人意識이 權利의 源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基準下에서 어떤 人間의 集団을 民族이라고 規定하느냐 하는 基準의 문제가 나옵니다. 이 基準이 뭐냐하는 것에 對해서는 民族主義에 관한 研究마다 다르며 学者마다 얘기가 다릅니다.

따라서 여기서 제가 다 그것을 말씀드릴 수 없읍니다마는 대개 얘기하는 것을 보면 두가지로 나누어져 있읍니다.

하나는 客觀的인 要素라고 하는 것하고, 둘째는 主觀的인 要素라고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客觀的인 要素라고 하는 것의 構成要素가 뭐냐 하는 것도 論者마다 달라서 여기서는 共通的인 것 몇가지 重要한 것만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열거되는 것이 政治機構입니다. 같은 政治機構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現在 같은 政治機構를 가졌다는 意味와 더불어 過去에 같은 政治機構를 갖지않았느냐는 회상도 필요한 것이고 또 現在 같은 政治機構를 가졌으면 더욱 좋고 과거 現在뿐

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運動을 일으키면은 장차 같은 政治機構를 갖지않겠느냐 하는 어떤 希望 이 세가지를 다 合해서 客觀的인 基準으로서의 政治機構를 얘기합니다.

둘째 들고 있는 것이 領土입니다. 地域 그것은 近代国家라고 하는 것이 地域国家, 혹은 領土国家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아마 簡單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近代国家가 発生하기 以前에 중세国家라든가 또는 우리가 西欧羅巴의 国際政治秩序의 圧力이 오기 以前에 우리의 儒教圏에서 나라와 나라사이에 볼때에 国境이 線이 아니고 事実은 平面이었읍니다. 따라서 近代国家의 여러가지 特徴中에 하나가 領土国家인데 지금 客観的인 要素로서 地域이라고 하는 것을 들은 것은 近代国家가 領土国家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은 아마 간단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言語도 들고 歴史도 들고 文化도 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상형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떤 基準을 設定할려면 그 基準에 맞지않는 現実이 있기 때문에 모든 現実을 망라할 수 있는 基準을 세울수는 없읍니다. 하여간 学者들이 말하는 客観的인 要素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政治機構 地域 言語 文化 領土等等을 들고 있읍니다.

물론 民族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客観的인 要素로서 자생되는 것이 아닙니다. 学者에 따라서는 다른 要素를 또 主張하고 있읍니다. 그것이 소위 主観的인 要素라고 하는 것입니다. 主観的인

要素라고 하는 것은 意識 意志 또는 共同体感 또 우리 先輩들께서 많이 쓰신 民族의 얼이 여기에 該当되는 것입니다. 남에 대해서 나라고 하는 共同体感 그것이 가장 重要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점을 가장 重要視했던 사람은 「민족이란 무엇이냐」라는 글을 쓴 「르낭」의 말일것입니다. 「르낭」은 소위 民族이라고 하는 것은 얼이다. 民族은 精神的인 原則이며 民族의 存在라고 하는 것은 人民投票의 結果로서 얻어지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읍니다. 말하자면 民主主義를 가지고 있는 対内的인 面, 民族의 構成員이 다같이 主人이라고 하는 意識, 그 意識이 가장 重要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것을 強調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말씀을 대충 그치고 그러면 伝統的인 概念이 가지고 있는 特徵만을 말씀드리겠읍니다. 伝統的인 民族概念은 民族主義的 民族입니다. 民族主義的 民族은 特定한 歷史段階에서 発生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불란서革命以後에 소위 近代後期와 밀접한 関係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民族主義運動이 完成되지 않았을 때는 그 民族의 完成이 그 集団의 最高 理念입니다.

이 말씀은 약간 좀 부연할 必要가 있읍니다. 지금 西欧羅巴에서는 民族国家가 다 完成이 되어가지고서 民族国家가 完成된 경우에는 또 다른 形態로 갈려고 그럽니다. 地域国家와 같이 우리가 戦後 欧羅巴에서 보는 여러가지 形態로 나갑니다. 그러나 民族主義라고 하는 運動이 進行되는 동안에는 民族의 完成이 最高의 理念입니다. 이것이 첫째 特徵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이 最高의

理念이기때문에 民族主義的 民族이라고 하는 것은 統治의 名分입니다. 또 政治統治의 名分은 바로 民族에서 나옵니다. 이 政治統治의 名分으로서의 民族이라고 하는 것은 全体로서의 民族을 말합니다. 伝統的인 民族概念에 있어서 政治統治의 名分으로서의 民族은 民族의 어떤 一部 構成員을 말하지 않고 全体로서의 民族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 伝統的인 民族概念의 두번째 特徵일 것입니다. 셋째 문제되는 것은 모든 集団이 그렇겠읍니다마는 民族에도 主導勢力이라는 것이 있읍니다. 그래서 共産主義社会에서는 이것을 다른 角度로 해석을 해가지고서는 伝統的인 民族概念을 공격하고 있읍니다마는 우리는 또 우리대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모든 集団에도 主導勢力이 있듯이 民族에도 主導勢力이 있으며 그 主導勢力이 가지고 있는 理念이라 하는 것은 소위 民族構成各人의 개권의 伸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個權의 伸張을 通해서 民族의 活性化를 기대한다고 하는 것이 民族의 主導勢力의 最大의 理念이 아니냐 하는 것이 셋째번째 特徵입니다. 물론 民族의 構成員間에는 알력 투쟁이 있읍니다.

그러나 伝統的인 民族概念에서 볼때에는 이것을 알력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면에서만 보지를 않고 調和라고 하는 面에서 全民族을 主導勢力이 代弁한다라고 하는 式으로 名分化시킵니다.

따라서 이렇게 볼때에는 伝統的 民族概念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의 結論으로 한다면은 民族 全体가 主人이라고 하는 意識으로 뭉쳐지고 그것이 統治의 名分이 되는 独特한 政治形態의 人的 構

成이라고 結論을 지울 수 있읍니다. 이런 一般的인 얘기는 지금 우리의 피부로 느끼는 우리 南北間 문제하고는 약간 거리가 멀기 때문에 될 수 있는대로 빨리 끝내겠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解放以後 民族을 어떻게 생각하여 왔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린 소위 伝統的인 民族槪念이라고 하는 큰 틀속에 있읍니다. 解放以後에 民族主義 関係 또는 韓国의 民族主義 関係의 著書들을 보면은 대개 이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제意見입니다. 이 関係의 研究가 많습니다마는 제가 重要視하는 것은 그것이 어떤 個人 研究라고 그런것이 아니라 그러한 個人研究의 結果가 우리 韓国에서 하등 拒否反応없이 통용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重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제가 조금 前에 말씀드린 우리의 民族槪念 즉 우리가 民族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은 伝統的인 民族槪念이라고 하는 큰 틀속에 있지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큰 틀속에 있읍니다마는 우리는 우리대로의 特殊性이 있읍니다. 그 特殊性을 잠시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의 民族은 다 아시겠읍니다마는 우리 民族主義運動이 일어나기 前에 歴史的으로 先在해 있었읍니다.

또 그 民族은 西欧羅巴 欧美学者들이 뭐라고 그러든 어떤 学者들이 뭐라고 그러든 그 学者들이 내거는 모든 基準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읍니다. 理論的으로 볼때는 아마 가장 이상적인 形態일

것입니다. 그런데 現実은 가장 곤난한 処地에 処해 있읍니다. 이것이 아마 비극이라고 하면 비극일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韓国的民族主義의 民族이 가지고 있는 歴史的인 制限性이라고 하는 것에 対해서 잠간 말씀드리겠읍니다.

韓末에 우리의 民族主義라고 하는 運動이 外勢의 抵抗이라 하는 데에서 뭉쳐졌읍니다. 이말은 다시 말하자면 韓末서부터 내려오는 우리 韓国民族主義의 民族의 内部的인 문제에 대해서 整理하고 정돈하고 돌아볼 겨를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나라를 빼앗기고 1910年서 부터 独立争取運動으로 들어갑니다. 따라서 이 当時에 우리의 韓国的民族主義에 民族이 가지고 있는 結集力이라고 하는 것은 独立이라 하는 것에 모든 対外的인 지상목표가 集結되었읍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民族의 内部的인 문제는 돌아볼 겨를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 아마 歴史的인 制約일 것입니다. 그러다가 解放이 된 以後에 잠시동안 韓末서부터 내려오는 우리 韓国的 民族主義의 民族이 가지고 있는 이런 制約性에 대한 현실이 폭로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民族의 内部的인 문제를 정돈못한 혼란상태를 解放後 우리 눈으로 봤을 것입니다. 解放後 얼마있다가 우리는 또 다른 制約을 받게 되었읍니다. 그말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좋든 싫든간에 韓半島라고 하는 것이 国際政治的인 面에서의 변경国家라고 하는데 부닥쳤읍니다. 또다시 韓国民族主義的 民族이라고 하는 것은 対外的인 面에 의해서 対外的인 적개념에 의해서 뭉쳐지기 始作을 했읍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民族의 対内的인 문제 다시 말하면은 欧羅巴 社会에서 볼때에는 市民民族主義의 初創期의 任務를 遂行하는 것이 이만큼 늦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韓国民族主義的 民族이 이태까지 걸어온 歷史的인 制約性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큰 틀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民族主義의 문제점 내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民族理念의 重要한 것만 몇가지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는 제가 몇번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우리 韓国의 民族概念이라고 하는 것은 좀 前에 말씀드린 伝統的인 民族概念의 큰 틀속에 있다. 理論的으로는 우리는 두말할 나위없이 理想的인 民族形態에 있다. 따라서 그 民族의 完成이라 하는 것이 現時点에서는 우리의 最大의 나아갈 方向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가 韓国民族主義的 民族은 伝統的인 民族概念에서 보듯이 그 全体로서 統治의 名分입니다. 名分이란 말씀에 더 유의를 해 주시기바랍니다. 따라서 이런 名分은 民族 全体에 있는 것이지 民族 一部에서 나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따라서 이 民族 一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民族 全体에서 나온다고 하는 문제는 다시 말하자면 民族間의 調和 協助 이런 문제와 関聯되는데 事実 이것은 民族主導勢力의 形成이라고 하는 문제하고 결부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主導勢力의 形成과 더불어서 民族의 個権의 伸張 또 民族의 活性化 이런 것이

現在 韓国民族主義的 民族이 갖고 있는 最大의 課題가 아니겠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主導勢力 形成문제에 對해서 좀 前에 韓末서부터 지금까지가 기나긴 歷史를 몇마디로 그러한 歷史的인 制約을 말씀드렸읍니다. 아마 이 主導勢力形成문제는 우리가 現時点에서 안고 있는 가장 큰 긴급한 문제가 아니겠느냐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아마 討論에서 더 길게 나오면은 그때 대답하겠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民族主義의 民族에는 두가지 큰 挑戰이 지금 나타나고 있지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첫째의 挑戰이 国際政治的인 挑戰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은 제가 우리 韓国民族主義的 民族이 나갈 方向이 뭐냐 고 하는 것을 잠시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우리의 民族이 指向하고 国際政治的인 움직임 또는 国際政治勢力들이 나가는 方向하고 一致했으면 좋겠는데 어떤때는 正反対 方向이 나오고 또 상극적인 効果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큰 挑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挑戰을 우리가 이 挑戰에 対処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우리의 主導勢力문제 또 民族의 活性化 이런 여러가지 문제가 또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두번째의 挑戰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韓半島 一部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民族과는 좀 다른 意味의 民族理念 내지는 槪念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 挑戰입니다.

三·共産主義와 民族概念

먼저 以北은 理論的으로 그르나 안그르냐 하는 것은 차치하고 共産主義 国家라는 것은 萬人이 공지하는 事実입니다. 民族문제만이 아니고 여러가지 社会科学概念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마는 共産主義国家를 볼때에 하나의 出発点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出発点이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共産主義国家라고 하는 것은 近代国家라고 하는 政治形態를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反近代国家的인 共産主義 「이데오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両面性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간단하지않은 문제입니다. 이 民族문제도 다 여기에 걸려 있읍니다. 共産主義国家라고 하는 것이 現在 民族国家라고 하는 形態를 取하기 때문에 民族国家를 얘기하고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反近代国家라는 共産主義 「이데오로기」를 갖고 있기때문에 다른 것을 最高의 理念으로 내걸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율배반적인 것 같지마는 그 두가지를 現歴史的인 発展段階에 있어서 볼때에는 그들은 두가지 形態를 取하고 있다 하는 것이 아마 共産主義문제 研究하는데 있어서 出発点이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冒頭에서 제가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以北의 民族理念이라고 하는 것이 「스타린」民族概念을 받았다라고 하기 때문에 「스타린」의 民族概念이 뭐냐 蘇聯에서 어떻게

民族을 생각하느냐 하는 것을 잠시 말씀드리겠읍니다.

「맑스」나 「엥겔스」는 民族国家문제에 対해서 体系的으로 研究하지는 않았었읍니다. 물론 그런 몇마디의 글은 있읍니다마는 그 문제를 体系的으로 研究했다고는 저는 생각을 안합니다. 이 문제를 그래도 体系的으로 関心을 갖고 있었던 것은 「레닌」이나 「스타린」이 革命이라고 하는 것을 눈앞에 두고 실천적인 目的下에서 이것을 形成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研究를 위해서 「레닌」하고 協議下에서 「스타린」이 아마 난생 처음으로 1913年 正月인가 「비엔나」에 가서 1個月동안을 머물었었읍니다. 따라서 지금 「스타린」이라고 하는 그 이름자체가 事実은 1913年 論文을 発表할때에 原名인 「꼬바」라고 그러지를 않고 「스타린」이라고 匿名을 썻는데 그 匿名이 지금도 「스타린」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지요. 1913年 「비엔나」에서 1個月동안 머물면서 그 当時 「트로츠끼」라든가 「부카린」라든가 하는 사람을 아마 처음 만났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1個月동안 書籍을 뒤지고 나와서 発表한 것이 소위 「맑스」主義와 民族主義라고 하는 조그마한 책자입니다. 여기에서 「스타린」이 有名한 民族에 대한 定義를 했읍니다. 그 民族의 定義는 이런 것입니다. 民族이라고 하는 것은 言語, 地域, 経済生活의 공동체, 文化共同体에서 나오는 心理状態에 立脚한 共同体라는 것입니다. 이 네가지 要素로 構成된 人間間의 공고한 集団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民族이라고 하는 것은 「부르조아」生産関係가

나올때 始作이 되고 「부르조아」生産関係가 소멸이 되고 社会主義로 가는 경우에는 소멸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읍니다. 그 特徵은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읍니다. 1913 年에 그 有名하다고 하는 「스타린」의 民族概念이 일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重要한 것은 이 네가지 中에서 한가지만 빠져도 그것은 民族이 아니다라고 아주 획일적으로 規定을 했었읍니다.

그러다가 1929 年에 「스타린」이 民族문제와 「레닌」主義라고 하는 조그마한 論文을 発表했읍니다. 여기에서는 「부르조아」民族과 社会主義民族이 있다. 이렇게 区別을 했읍니다. 그러면 民族이라고 하는 것은 資本主義制度下에 사는 「부르조아」民族 또 社会主義革命을 하고난 다음에 社会主義民族 그런 둘이 있다는 両分法을 択했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니까 무슨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은 民族을 資本主義生産関係 発生과 같이 보기때문에 그러면 資本主義 生産関係가 일어나기 以前에 歴史的인 실체로서의 民族이라든가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을 어느 程度 解釈을 해 놓은 것이 1950 年 「스타린」의 「막시즘」에 있어서의 言語学이라고 하는 「프라우다」誌 論文에서 소위 準民族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웠읍니다. 準民族이라고 하는 것은 원시 共同社会가 해체되고나서 資本主義生産関係가 될때까지의 人間의 어떤 集合体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1953 年 「스타린」이 죽을때 까지의 民族概念의 特徵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가 네가지 要素를 들고 있다는 것

입니다. 이 네가지 要素를 同価値的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同価値라고 하는 것은 萬一에 이中에 하나만 없어지면은 그것은 民族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心理状態라고 하는 얘기가 있읍니다마는 基本的으로는 客觀説에 입각하고 있읍니다.

제가 伝統民族概念과 관련하여 客観説 主観説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基本的으로 客観説에 입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네가지를 同価値的으로 보고 어떤 하나도 거기에서 없어지면은 民族이라는 것은 成立되지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 戦後에 여러 新生国家에는 맞지않게 되어 있읍니다. 더군다나 우리같이 分断国家에 있어서는 二民族 理論으로 発展할 可能性이 있는 民族概念입니다. 또 戦後에 民族主義가 먼저 나오고 民族이 뒤따르는 경우에 도저히 이것을 解釈할 수가 없읍니다. 또 「스타린」概念에 보면은 民族의 発展이 첫째 종족 그 다음에 準民族 民族 社会主義民族 그 다음에 民族의 융합 이렇게 봤는데 이러한 人種의 共同体의 発展과정이 그들이 말하는 歴史的 法則과 一致가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읍니다.

물론 또 하나의 特徴은 1929年「부르조아」民族 社会主義民族을 区別해 갖고 社会主義民族이라고 하는 特徴中에 「프로레타리아」国際主義를 第一 前面에 내세우고 있는데 그 内容이 蘇聯의 強大国 理論이라고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읍니다. 「스타린」배격운동이 일어나고 여러가지 理論을 배척받는 경우에 「스타린」의 이 민족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持続될 여지가 없었읍니다.

스타린의 民族理論에 대한 討論이 제가 알기로는 1966 年에서 1972 年까지 계속된 蘇聯에서 나오는 歷史의 諸문제라고 하는데 있어서의 討論입니다. 그 討論의 자세한 內容은 여기서 말씀 안 드리겠읍니다. 그것은 個人的인 学說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蘇聯의 公式的인 見解를 代弁한다는 소위 蘇聯의 大百科辭典이 지금 三版이 나와 있읍니다. 民族이라고 하는 項目이 나온 첫번 版本이 1939 年, 두번째 版本이 1954 年 그러니까 「스타린」이 죽던 그 다음해에 나왔었읍니다. 1954 年에 蘇聯의 大百科辭典에서 나온 民族項目의 해석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스타린」의 그것을 그대로 옮겼읍니다. 一字一句修正없이요. 그것은 그 時代로 보아서는 당연한 것이겠읍니다.

그 다음에 第三版이 얼마 前 1974 年에 나왔읍니다.

거기서는 1953 年의 民族槪念하고는 다릅니다. 단지 「스타린」이라고 하는 이름 석자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스타린」과 같이 이 民族의 基準을 네개로 보고 있지않고 여러가지로 보고 있읍니다. 또 「네이숀홑」 소위 国民들 共同体感 이것을 굉장히 強調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主觀的인 基準을 強調합니다. 또 経済生活의 共通性이라는 것을 強調합니다. 또 「스타린」이 얘기하는 바와같이 네個의 要素中에 하나만 없어져도 民族이 아니다. 이런 독단적인 것이 다 없어집니다.

따라서 蘇聯의 大百科辭典에서 1954 年版과 1974 年版만 比較해도 「스타린」槪念하고 상당히 다르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

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証拠가 또하나 1977 年이니까 昨年입니다. 昨年 蘇聯共産党 中央委員会에 所属되어 있는 「막시즘」「레니니즘」研究所에서 나온 「레닌」主義와 民族문제라고 하는 책에서 보면은 完全히 이 「스타린」概念하고는 다릅니다. 여러가지가 다릅니다마는 한 세가지만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가 客観的인 要素에 대해서 主観的인 要素를 強調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소위 国民들의 共同体感, 얼 이런것을 強調해야 된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은 여기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共同体感 意識이라고 하는 主観的인 要素는 階級的인 것입니다. 民族 全体的인 意識은 절대로 아닙니다. 階級意識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아주 重要한 것은 昨年에 나온 책에 보면 저는 이 책을 어떤 個人的인 研究의 업적이라고 그러지않고 蘇聯의 어떤 公式的인 見解에 가깝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마는 経済生活의 共同体라고 하는 것이 가장 基本的인 것이다. 経済生活의 共同体가 없으면은 다른 基準이라는 것은 다 必要가 없다. 이렇게 쓰고 있읍니다. 이것은 우리같은 分断国家에 있어서는 상당히 조심할만한 民族概念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번째 또 주목할 点은 民族의 構成에 있어서 社会構成 이것을 強調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스타린」時代부터 強調되고 그들의 基本態度니까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읍니다만 뭐라고까지 말하느냐 하면 資本主義가 発達하면 民族的 任務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라고 하는 애기를 하고 있어요. 따라서 資本主義体制 下에서 資本主義가 発展되는 경우에는 그들은 民族이라고 하는 것은 없고 「푸로레타리아」, 農民階級 밖에 없다 이런 애기입니다. 그러니까 資本主義가 発展하면은 民族的 任務라고 하는 것은 소멸된다 라고 하는 애기입니다.

四. 北韓에서의 民族概念

이런 큰 틀 속에서 以北과의 関係를 잠간 보겠읍니다. 北韓에서는 民族이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저는 北韓 硏究하는 사람이 아닙니다마는 얼핏봐도 民族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내세우고 民族理念이라고 하는 것을 民族自負心 民族的矜持 여러가지를 내 세우고 있읍니다. 北韓에서 民族문제를 얘기할때 듣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듣는 사람이 평양에 있는 사람인 경우하고 듣는 사람이 우리나 日本사람이나 美国사람한테 들으라는 경우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이 납니다. 外国사람 들으라고 하는 경우에 民族문제를 얘기할 때는 물론 우리 統一 문제하고 관계되는 것입니다마는…… 여러가지 例가 있읍니다마는 지난 9月9日날 소위 9.9節에 金日成의 演説을 그대로 한번 얘기를 해 보겠읍니다. "朝鮮民族은 歴史的으로 하나의 民族이다. 따라서 南과 北이 서로 思想과 制度가 달라도 民族大団結의 이름과 原則을 떠나서는 결코 祖国의 平和的 統一에 対하여 생각할 수 없다. 이러므로 祖国平和를 実現하기 위해서는 南北이 各各 共産主義理念과 資本主義理念을 들고 나올 것이 아니라 共通된 하나의 民族的 理念을 내 세워서 그에 基礎해서 온 民族의 大団結을 이룩해야 된다"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이설보면은 우리 民族이 우리가 생각하는 民族하고 거의

하등의 差異가 없지 않느냐 民族 全体를 얘기하고 歷史的으로 내놓은 民族 얘기를 하고 똑같은 것이 아니냐 그러나 기실은 아마 그렇지가 않을 것입니다. 만일 金日成이가 여기에서 民族이라고 하는 어떤 社会現象을 초계급적이고 범계급적인 것으로 얘기를 했다면은 그 사람은 아마 共産主義者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対外関係用으로 쓸때의 民族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하고 거의 비슷하고 外国사람들 생각에는 다 韓国에서 말하는 民族 北傀에서 말하는 民族이 같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살 可能性이 많읍니다. 그러나 共産主義者들이 말하는 科学的인 것, 소위 学術的인 것 그 内容 또 対内的인 用으로 썼을 때 民族의 概念이 조금 다를 것입니다.

그 얘기를 잠간 말씀드리겠읍니다.

以北에 있어서 民族主義말고 民族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는 참 接近하기가 힘듭니다. 왜그러냐하면 이 関係의 資料가 아주 적기 때문이며…… 이뿐만이 아니라 唯一思想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社会에서는 学問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스타린」時代에서와 같이 「스타린」時代보다 더 합니다마는 이런 民族문제에 対해서 学術的인 論文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상당히 接近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제가 몇가지 보니까 以北에서 民族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것이 時機的으로 조금 달라졌던것 같읍니다.

첫째 1957年 初版이 나오고 59年에 2版이 나오고 3版이

1964 年에 나온 大衆政治用語辭典이라는 것이 있읍니다. 거기에 보면은 民族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고 하는 項目에 보면은 조금아까 말씀드린 「스타린」의 그것을 그대로 옮기고 있읍니다. 一字一句 틀리지 않습니다. 言語 地域 經濟生活의 共同性 그 다음에 心理狀態 이 네가지로 集結되고 소위 봉건적인 할거주의가 해체되고 資本主義的인 生産關係가 이루어졌을 때 民族이 나타난다.
(이 네개중에 어떤 하나만 빠져도 民族은 아니다) 이 民族이라고 하는 것은 歷史性의 「카테고리」다 歷史的인 「카테고리」기 때문에 始作이 있고 끝이 있다. 始作은 資本主義生産關係에 따라서 始作이 되고 資本主義가 亡하므로서 民族은 끝이다. 이런 「스타린」式대로 그대로 얘기를 했읍니다.

그런데 1973 年에 政治辭典이 나왔읍니다. 이 政治辭典의 規定은 조금 달라요. 이런 「스타린」의 概念을 前面에 내 걸지않고 自己式대로 조금 가미한 경향이 나옵니다.

뭐냐하면은 첫째 다른 것이 「스타린」이 내걸고 있는 基準中에 文化와 혈통이라고 하는 基準을 첨가하고 있읍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가 言語를 이 사람들이 상당히 重視를 합니다. 그것은 1967 年인가 金日成敎示에도 나옵니다. 이 敎示가 지금 1974 年 政治辭典에 民族의 槪念規定에 그 敎示가 그대로 들어가 있읍니다. 「民族이라고 하는 것을 規定하는데 있어서 言語가 가장 重要한 것입니다. 같은 領土에 살고 같은 文化가 있어도 言語가 다르면은 民族이라고 할 수 없읍니다」라고 하는 얘기에요. 그것은 물

론 우리를 놓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韓民族을 놓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言語가 달라도 民族이라고 構成된 例는 歷史上 얼마든지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우리를 위한 우리 韓半島를 위한 어떤 「프로파간다」的인 概念이지 이것이 무슨 理論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셋째 두드러진것이 1964 年에는 그런 얘기가 없더니 1974 年에는 우리 문제를 거론하고 있읍니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우리 人民의 民族的 共同性은 우리나라에 일찍부터 強力한 中央集權的인 國家가 세워지고 여기에서 言語 地域 經濟生活의 共同性이 이루어진다"했읍니다. 일찍부터의 우리나라의 歷史 이것이 언제를 얘기하는 것인가 이것이 상당히 이율배반적인 것입니다. 왜그러냐하면 이 사람들의 얘기에 의하면은 民族이라고 하는 것은 資本主義生產関係가 발달되어 나올때에 民族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는데 우리나라에 일찍부터 라고 하는 것이 얘기가 되지않는다고 봅니다.

또 1972 年에 나온 朝鮮歷史에 金日成의 서문에 보면 우리民族은 悠久한 歷史를 가지고 있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民族은 「부르조아」生產関係로부터 나오기 始作하기 때문에 二律背反的인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사람들 民族의 重要한것은 「부르조아」民族하고 社会主義民族을 区別을 해요. 이 「부르조아」民族이 뭐냐 하는 것에 対해서 1964 年 大衆政治用語辞典은 蘇聯것을 그대로 베끼고 있읍니다. 1973 年에 나온 政治辞典에 보면은 「부르조아」

民族이란 項을 빼버렸어요. 그것을 빼버린 代身에 「부르조아」民族運動이라고 하는 것을 집어 넣었어요. 1970 年에 나온 政治用語辞典에는 「부르조아」民族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읍니다. 그러나 1964 年에는 「부르조아」民族이라는 것을 現在 資本主義制度에 살고 있는 民族이 全部 「부르조아」民族이다라고 아주 일괄 規定을 하고 있었읍니다.

그런데 1970 年에 나온 政治辞典에는 그것만 그대로 뺏어요. 그것이 어떤 意図에서 그랬는지는 잘 모릅니다마는 이 사람들 規定에 의하면 우리들 大韓民国은 아마 「부르조아」民族이라고 해야 現実的으로 가까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社会主義民族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自己들은 社会主義革命以後에는 民族間에 여러가지 갈등도 없어졌고 資本主義制度下에서 보는 民族하고는 다르다라고 해서 社会主義的民族이라고 하는 概念을 만들어 냈읍니다. 이것은 1929 年 「스타린」의 両分法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은 제가 처음 말씀드린바입니다. 그런데 以北에서도 1964 年 大衆政治用語辞典에는 「스타린」의 社会主義的民族概念을 그대로 받고 있어요. 그 特徴이 뭐냐하면 소위 「프로레타리아」 国際主義精神에 입각한 高貴한 品性을 가지고 있는 道徳人이라는 것이지요. 말은 그렇습니다마는 이것은 蘇聯의 強大国들의 立場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973 年 政治辞典에는 조금 달라요. 蘇聯의 内容을 그대로 받지를 않고 「프로레타리아」国際主義라고 하는 対内的인 面은 그

대로 사생을 하고 물론 以北에서 「푸로레타리아」国際主義를 배척했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을 딱 빼놓고 対内的인 문제에다가 核心을 둡니다. 核心을 둔다는 얘기는 社会主義的 民族이라고 하는 것은 勤労者들의 政治思想으로 統一된 民族이다. 소위 労動者 農民 勤労「인테리」가 合致된 어떤 民族이다라고 해서 対内的인 문제에다가 集中을 시킵니다.

따라서 이렇게 볼때에 北韓에서 보는 여러가지 얘기가 있읍니다마는 제가 討論을 위해서 몇가지 아주 基本的인 것만 말씀드리면 特徵은 대개 세가지가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첫째는 民族의 発生을 「부르조아」生産関係의 登場하고 결부시키기 때문에 우리 韓国史에 있어서 상당한 部分이 해석할 수가 없게 되어있지 않겠느냐. 「부르조아」生産関係가 나타나기 以前의 우리 韓民族史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물론 蘇聯式의 槪念에 의하면 準民族이라고 하는 것이 있읍니다. 準民族이라고 번역해야 할지, 民族体라고도 번역하고 準民族이라고도 번역합니다마는 준민족이라고 하는 槪念이 蘇聯에는 있읍니다. 지금 以北에서 준민족이라고 하는것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읍니다. 따라서 우리 民族史에 어떤 단절을 보이고 있읍니다. 「부르조아」民族이라고 하는 것은 資本主義生産関係로부터 나오기때문에 아마 대개 18 世紀末 19 世紀初서 부터 소위 우리나라의 資本主義生産関係의 맹아가 나타나기 始作했다고 그러는데 萬一에 그때부터 잡는다고 그래도 그 前의 것을 어떻게 잡겠느냐 高麗初 以後서 부터 있어

왔던 우리 韓民族의 歷史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民族의 正統性에서 볼때에 이런 것이 문제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基本的인 문제가 「부르조아」民族 社会主義民族이라고 하는 両分法입니다. 마치 対外的으로는 民族이 하나같이 말하고 있으나 社会主義革命을 일으키고 난 民族은 社会主義的인 民族이고 우리같이 아직 그 段階에 도달하지 못하면은 「부르조아」民族이다라고 하는 그 両分法이 우리 문제에 결부되어서 상당한 심각한 문제를 提示하지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는 이 사람들의 統治의 名分으로 民族 全体를 보지않고 民族의 一部를 統治의 名分으로 보는데 문제가 있읍니다. 民族이라고 하는 自体를 이 사람들은 절대로 否定을 안합니다. 例를 들자면 現在 進行되는 事件이 自己들의 唯物史観에 立脚해서 어떤 役割을 할 수 있는 現象에 대해서는 절대 否定은 안합니다. 民族은 또 그 現象의 하나입니다마는 그러나 統治의 名分으로 民族全体를 결코 보지 않읍니다. 民族全体를 본다하면은 그사람 非「막스」主義者일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가 나오기 始作합니다. 民族이라는 말은 같이 쓰지만은 그 内容이 상당히 다릅니다. 北韓에서는 아마 民族이라고 하는 伝統的인 形式에다가 그들이 잘 쓰는 말입니다만 階級이라고 하는 社会主義的인 内容이 거기에 결부되어 있지않겠느냐 하는 結論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제자신 좀 서먹서먹해 지는

面이 있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南北間의 統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民族이라고 하는 公約数 하나밖에 없는데 그 公約数가 좀 달라지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이상합니다마는 그러나 民族을 基礎로 해서 南北間에 統一이 되는 경우에 그 民族을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달라지고 또 달라질뿐만 아니라 다르다고 強力한 政治運動이 一部에서 進行될때에 이제 앞으로는 아마 反共이다 自由다라고 하는 対立이 아니라 民族이냐 階級이냐 라고 하는 対立의 側面이 또다시 나타나지않느냐 하는 것이다.

< 討　　論 >

司会：梁好民

討論：梁秉祐，李萬烈，崔相竜

○ 司会：（梁好民）：감사합니다. 상당히 방대한 문제를 소상하게 分析을 해 주셨읍니다.

한 50分의 時間에 걸쳐 여러가지 基本문제를 全部 「타치」를 하셨는데 時間의 制約上 다 하시고 싶어도 하시지못한 말씀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마는 그것은 또 討論때에 맡기기로 하고 우선 어려운 문제를 정연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分析해 주신데 대해서 謝意를 表明합니다.

時間이 지금 予定보다 많이 지났으므로 이 문제를 제가 되풀이 하지는 않겠읍니다.

그저 簡単히 말씀드린다면 民族의 概念에서부터 始作해서 民族과 民族主義에 同時的인 概念이라고 하는것 꼭 같지는않지마는 同時的인 概念이라는 것에서부터 始作해서 民族主義라는 것은 結局 近代国家化를 뜻한다 하는데에서부터 論旨를 폈읍니다.

그리고 民族의 要素로서 主観的인것과 客観的인 것, 그 다음에 民族이라고 하는 집단의 여러가지 문제점 名分上의 民族 主導勢力이란 문제点을 指摘했었읍니다. 그리고 韓国에 눈을 돌려서 韓国에 있어서 民族理念이 뭔지 그리고 여기에서 韓国의 特殊性

또 韓国에 있어서의 문제점 가운데에서 歷史的인 制約性에서 나오는 民族運動등에 論及을 하셨읍니다. 그리고 民族 全体에 대한 名分이라든다. 韓国의 民族 내지는 民族主義에 대한 挑戰이 무엇인지 이런것도 国際政治的인 条件이라든가 또 새로운 民族理念의 対立에 의해서 挑戰을 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끝으로는 北韓에 있어서 民族理念이 基本的으로 어떤것인지, 그것이 어떻게 若干씩 現実政策에 부응하기위해서 条政되어 왔으며 오늘 무엇을 追求하고 있는지를 論했읍니다.

그리고 結論을 맺었는데 이 모든것은 상당히 広大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충분히 말씀드리자면 한 冊이 될 것입니다. 아마 傍聽席에서 듣는 분들이 特히 이 「페이퍼」가 아주 짧아서 이것만가지고는 참 理解하시기가 어렵고 또 여기서 말씀드리는 時間의 制約때문에 충분히 理解를 하시지 못했는지도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重要한 문제点들을 거의 다 「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論評, 補充, 自己自身의 생각등, 어떤 形式도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討論을 始作하겠읍니다.

먼저 梁교수님, 順序대로 그쪽에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 梁秉祐 : 金先生님께서 아주 잘 整理해서 들려주셔서 저같이 民族主義같은 문제에 대해서 平素에 깊은 研究가 없는 사람으로서는 매우 開発되었읍니다.

무엇부터 말씀드려야 좋을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우선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면 이 民族 民族国家 民族主義라는 것을 그야말로 얽키고 설키고 있어서 하나의 現象에 여러가지 面이라고 볼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近代에 있어서는 民族이 있으면은 民族国家를 形成하거나 指向하게 마련이고 그 民族国家를 形成하거나 이룰려고 하는 움직임이 결국 民族主義에 重要한 局面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金先生님이 民族主義的 民族이라고 하는 상당히 괴로운 표현을 그때문에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전에 이 民族主義라고 하는 것이 우선 여러가지 양상을 띈다는 것이 学者들에 의해서 主張되어 있읍니다. 「힌스전」같이 이 民族主義의 아주 權威者고 하는 사람도 그렇고 独逸의 「테어도루시라」같은 사람은 民族国家가 어떻게 形成되느냐에 따라서 民族主義의 性格이 달라진다. 이러한 指摘을 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에 韓末以来의 民族主義를 金先生이 抵抗的 民族主義라 이렇게 規定하셨읍니다마는 事実 西洋에서도 그러한 点이 指摘되어 있읍니다. 独逸같이 軍事的 外交的 手段을 使用해서 民族国家를 形成하지 않을수 없었던 나라에서는 그 民族主義가 戦闘的인 性格을 띄었읍니다.

우리나라에서도 韓末에 丹齊 申采浩先生같은 분의 표현에 의하면은 歷史自体가 我와 非我의 闘争인데 실상 현실적으로 보

면 非我라고 하는 外国勢力 特히 日本을 물리치지않으면 我가 설 수 없는 立場이니라 実上 抵抗이라하는 표현이 弱할 程度입니다. 그런 戦闘的인 性格의 民族主義가 있는다 하면은 또 그 独逸하고는 비슷한 処地에 있는 「이태리」의 「마치니」같은 사람의 民族主義는 民族権의 調和라 할까 이런 우리의 理論으로서의 各民族의 調和를 생각하는 것이 대조적이 었읍니다. 이것은 仏蘭西같이 民族主義가 民主主義革命의 일환으로서 이룩된 나라에서 歴史가 「유루미슈레」같은 사람이 표방하고 있는 民族主義의 性格이기도 했읍니다. 「미슈레」같은 사람은 이 民主主義의 구현을 통해서 찾고 平等한 「유럽」의 各民族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읍니다.

그런데 이렇게 民族主義自体의 性格이 다르기도 하고 그 民族主義는 아까 金先生님께서 対内的인 문제, 内部의 문제에 있어서의 우리나라의 취약점같은 것을 指摘하셨읍니다마는 그러한 面에 있어서는 다른 여러가지 主張과 複合될수있는 面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自由民族主義, 自由主義와 民族主義에 결합 이게 「미슈레」같은 사람이 主張한 것입니다.

주권의 伸張문제를 아까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이 自由民族主義가 그러한 유형에 属하지않을까 생각이 됐고요 또 이 歴史가 「후리드히마네게」가 独逸의 悲劇의 서두에서 쓰고 있읍니다마는 民族主義가 社会

主義가 幸福한 結合을 할수도 있었으련만 이러한 푸념을 하고 있었읍니다.

그것은 아시다시피 独逸의 「나치스」라는것이 「Nationalism」結局 이 民族主義와 社会主義를 結合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같은데에서는 国是로서 民主主義를 표방하고 福祉社会 福祉国家의 具現을 目的으로 하고 있읍니다만 그러한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方向의 結合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우리가 民族의 理念이라고 할때 아까 金先生이 말씀하셨듯이 民族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느냐 또 어떤 것이다 하는 그것은 結局 이러한 結合이 따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면은 南北의 対立이라고 하는 것은 結局 原点으로 되돌아가서 共産主義와 우리가 표방하고 있는 民主主義의 差異로 상당히 아마 民主理念에 差異가 거기에 귀착한다. 이런 매우 상식적인 結論으로 되지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 생각나는 대로 몇마디 말씀드렸읍니다.

○ 梁好民 :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順序대로 李萬烈先生님 말씀하시지요.

○ 李萬烈 : 一個 国史学徒로서 民族문제 特히 民族主義와 民族문제를 얘기하는 이러한 곳에 와서 많은 계시를 우선 받았읍니다.

政治的인 그런 側面이라고 할까 이에 대해서 잘모르기때문에 오늘 우리 이 討論을 위해서 先生님의 抜萃講演을 듣는 동안에 어떤 概念規定이 조금 必要하지않을까 하는 그런 느낌을 가져

봤읍니다.

아주 소박한 그런 質問이 되겠읍니다마는 民族에 대한 槪念規定을 오늘 여기에 나왔읍니다. 그러나 民族主義가 뭐냐하는 것은 近代国家와의 關聯下에서 民主主義가 운운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읍니다마는 이것이 民族運動과 오늘 말씀하신 그냥 民族運動같은 그런 느낌을 가졌는데 民族主義와 民族運動 나아가서는 民族意識 이런데 대한 일단의 최소한도의 어떤 槪念規定 여기서 討論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約束같은 것이 먼저 必要할 것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가져봤읍니다.

둘째 質問이 되겠읍니다마는 나중에라도 이 質問에 대해서 答弁을 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伝統的인 民族槪念下에서 学者들은 大体로 客觀的인 要因으로서 政治機構와 領土와 言語 歷史 文化 이런 것을 그要因으로서 얘기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읍니다.

그러면 이 伝統的인 民族槪念下에서 가령 政治機構가 없는 民族은 생각할 수 없는 것인지 그것은 한번 나중에 質問에 대해서 答弁을 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나중에 以北의 얘기를 하시면서 이것은 조금 「데리케이트」한 質問이 되겠읍니다마는 가령 P·9 節에 金日成의 얘기 例를 들면서 그것을 民族이란 말을 듣는 사람에 따라서 그 民族槪念이 다르다 하는 말씀을 주셨읍니다. 그러면 그문제를 역으로 우리한테 넘어가지고 우리는 国家로서의 어떤 民族槪

念이라고 그럴까 이것이 철저히 되어 있느냐 現在……아까 先生님께서는 우리 韓國의 民族概念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伝統的인 民族概念의 큰 틀속에 넣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몇가지 그 要因을 伝統的인 民族概念에 큰 틀속에 넣을수 있고 그다음에 民族은 全体로서의 政治의 名分이 나온다 하는 말씀을 주시고 나중에 主導勢力形成문제는 나중에 討論時間에 얘기하시겠다 이랬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오늘날 우리 社会가 多様한 그러한 계층을 갖고 있읍니다. 그렇다면은 그것이 우리 民主主義의 長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多様한 階層속에서 얘기하고 있는 民族이 事実은 統一이 되어 있느냐 国会에서 가령 民族을 운운한다고 할적에 그 民族은 事実은 누구를 말하느냐? 가령 資本家들이 財閥들이 民族을 云云한다고 할적에 그사람들은 실제로 民族을 어느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느냐 우리는 지금 그 民族의 문제가 듣는 사람 대상 또는 말하는 사람 대상에 따라서 실제로 그것이 統一이 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 그것을 한번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아마 政治学側에서는 그것이 整理가 되어 있는 줄로 아는데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다음에 오늘 全体的인 先生님의 拔萃講演을 民族主義的인 그러한 理論下에서의 民族을 말씀해 주셨읍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는 民族主義的인 그러한 理論下에서 民族을 얘기해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다. 이것은 拔萃講

演의 全体的인 方向하고 좀 関聯이 있을것 같습니다. 왜그러냐하면 事実은 우리 民族은 民族主義的인 運動을 통해서 民族이 存在한 것은 아니라고 먼저 말씀을 해 주셨읍니다. 우리는 單一民族으로서 西欧의 民族主義的인 運動을 통해서 民族파악한 것과는 다르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말은 다시말하면은 우리는 이러한 特殊한 状況 特殊한 民族 어떤 실체를 갖고 있는데 그러면 그 特殊한 実体는 特殊한 理論이나 이런것을 가지고 파악이 되어야 되지않겠느냐 다시말하면 歴史的인 認識을 통한 어떤 民族파악이 있어야 되지않겠느냐 그렇게 해야만 이것이 以北에서 얘기하는 民族正統性의 문제라고 할까 이것과 関聯해서 重要한 面이 있지 않는가 이러한 느낌을 가졌봤읍니다.

다음에 質問이 되겠읍니다마는 韓末民族主義運動과 関聯해서 民族主義와 関聯해서 얘기가 될 수가 있읍니다. 民族主義가 近代国家의 形成과 関聯이 있다 할적에 그런 次元에서 볼적에 韓末의 民族運動을 참 民族主義運動이라 할 수 있겠느냐는 문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저희들이 살펴본 바로는 韓末에 愛国啓蒙運動은 事実上 君主権의 회부이라는 이러한 次元을 벗어나지 못했읍니다. 오늘날 史学界에서 独立協会의 性格이라든지 大韓帝国의 性格을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읍니다마는 그러나 愛国啓蒙運動은 사실은 君主権의 회복運動이라는 이런 次元을 넘지를 못했읍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民衆全体에 대한 民族全体에 의한 国家

建立이라 하는 것은 日帝下에 들어가야만 사실은 이러한 認識이 나오게 됩니다. 가령 아까 丹斉 이야기가 나왔읍니다마는 丹斉 申菜浩의 朝鮮革命宣言같은 것이 1922年에 나오고 그다음에 韓末때에 가령 우리가 日帝下에 들어가기 前에 韓末의 歷史家들 申采浩다 朴殷植이다 하는 분들은 歷史의 주체를 事実은 영웅으로 봤읍니다.

그런데 그들이 日帝下에 들어가서 비록 歷史의 주체를 全民族民衆이라는 이런 次元에서 봤읍니다 그것은 白巖 朴殷植先生의 통사가 13年以後에 나오고 아까 말씀드린 申采浩의 朝鮮革命宣言이 22年에 나왔는데 그때가서 비로소 나타나기 始作합니다.

그러면은 近代国家가 아까 槪念規定을 한번 해 주십사 그랬는데 近代国家가 民族 全体 特히 民族主義가 名分으로서 全体民族을 상대를 한다. 이렇게 했을적에 그러면 韓末에 이러한 民族運動이라고 할까 이것을 이런 次元에서 볼적에 民族運動이라고 民族主義라고 槪念規定을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이런 문제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政治学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때문에 이러한 몇가지 소박한 질문을 드렸읍니다.

나중에 다시 또 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 梁好民 네 감사합니다.

끝으로 崔相竜先生말씀 하시지요

○ 崔相竜 어제 밤에 金先生님의 論文을 正読을 하고 오늘 좀더 확대된 發表를 들었읍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論旨가 너무 명쾌하고 民族에 대해서 関心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共通된 要因만 봐서 간추려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직접 관련된 질문은 없읍니다.

그러나 이 主題가 民族과 民族主義에 관한 것이고 또한 우리 韓国民族概念의 정립과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그와 関聯된 間接的인 느낌 세가지하고 마지막 두가지 質問을 하겠읍니다.

첫째 民族概念에 대한 發表를 듣고 저는 세가지를 확인을 했읍니다.

하나는 이 民族이라고 하는 概念은 東의 世界든 西의 世界든 共産圏이든 西方側이든 間에 하나의 반드시 나쁜 의미로 쓰이지는 않는다. 우리말로 하면 가치중립적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辞典에 뺐다가 또 넣었다가 초점을 또 言語로했다가 또는 経済生活로 했다가 強調点은 이해는 합니다마는 民族自体에 대해서는 다분히 그저 있다고 또는 가치중립적으로 보고 있지않느냐 하는 것을 하나 確認했읍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明白히 蘇聯의 辞典을 보나 北韓의 辞典을 보면 民族主義는 否定的인 말로 「부르조아」民族主義라고 하는 明白한 価値判断을 하고 있읍니다. 그것을 確認했고 두번

째는 우리의 南北韓 関係에 있어서 自主 自立 自衛等等 또는 主体 民族의 言語 또는 상징은 共同으로 쓰면서도 그 意味 內容이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도 오늘 発表를 통해서 또 確認을 했읍니다.

마지막으로 세번째는 역시 우리 南韓은 民族主義가 하나의 目標다. 우리가 만약 民族主義를 내 세운다는 것은 民族国家의 完成이라고 하는 目標로서 보는 것이고 北韓은 民族主義를 어디까지나 하나의 手段 方法 그들의 戦略 戦術의 眼目에서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을 確認을 했읍니다. 이것이 民族概念에 대한 金教授님의 発表를 듣고 느낀 제 所感이고 그다음에 民族主義에 대한 제 質問입니다마는 이 質問도 梁教授님과 李教授님의 質問과 重複이 됩니다.

그러나 저는 조금 具体的으로 한번 물어 보겠읍니다.

이것은 発表者에게 대한 質問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문제가 아닌가 해서 문제를 提起합니다.

첫째 民族主義는 運動이요 思想입니다 民族主義가 하나의 運動이라면 그 運動의 主導勢力 또는 担当勢力 担当階層이 반드시 있읍니다. 発表者께서는 発表者中에 그것을 상당히 重要한 「포인트」라고 말씀하시고 그 자세한 內容은 討論으로 미루자고 하셨는데 歴史的으로 보면 革命期 불란서의 民族主義의 担当勢力은 中産層입니다.

우리의 戦前 特히 植民地下의 韓国民族主義에 担当主体 또는

担当基盤은 소수의 対日協力者 또는 親日派를 제외한 全民族입니다. 그렇다면 戰後의 韓国民族主義를 우리가 거론하고 또는 그것이 意味가 있다면은 戰後에 韓国民族主義에 主導勢力은 있느냐 없느냐 있다면 어떠한 階層이며 없다면 今後 어떠한 階層이 바람직한 主導階層이냐 하는 문제를 반드시 질문에 대한 答弁이라기 보다는 平素의 생각을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두번째는 民族運動은 運動인 同時에 思想입니다.

우리의 歷史的인 経驗으로 보면 民族運動은 東이나 西나 반드시 다른 政治的 「이데오로기」와 結合을 했읍니다. 아까 梁教授님께서 그 事例도 分明히 말씀을 해 주셨읍니다마는 革命期 불란서의 民族主義는 自由民主主義와 結合을 했고 또 戰前 独逸이나 日本의 民族主義는 「나치즘」이나 「파시즘」과 結合을 했읍니다. 戰中에 国民党과 中共사이에서 그러니까 中国에 있어서의 抗日 民族過程은 中共에 있어서의 社会主義와의 結合이라는 양태 「에치카」教授가 말하는 소위 民族主義 社会主義와의 同盟이라고 하는 形態로 나타났읍니다. 그러면 現在의 民族主義 또는 今後에 民族主義는 만약 어떤 政治的 思想 내지는 보편적 「이데오로기」와 結合을 한다면 어떠한 理念과 結合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문제를 平素에 생각하신바를 피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以上입니다.

外
3
경

○ 梁好民 : 세분이 論評兼 여러가지 어려운 質問을 提示하셨읍니다. 되풀이 하지 않겠읍니다.

직접 이 主題発表를하신 분에게 答弁하도록 부탁드리겠읍니다.

○ 金容九 세가 이런 質問이 나오면 골치아프지않겠느냐 하고 생각한 문제를 다 말씀해 주셨읍니다.

첫째 梁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民族主義의 民族이 여러가지 形態의 政治理念하고 結付되지 않겠느냐는 문제입니다.

先生님 意見하고 저도 同感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중에 은연중에 그러한 것이 内包되 있을것 같아요 우리 韓国民族主義的 民族은 어떤 理念하고 結付되어야 되느냐 方向이 뭐냐 하는 것은 言中에 들어가 있을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소위 주권의 伸張 民族의 活性化라고 하는 그 概念에 다 포함이 되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李萬烈先生님 여러가지 質問을 해 주셨는데 첫째 제가 答弁을 해드리겠읍니다.

学術上의 얘기인데 政治機構에 対해서 客観的인 基準으로서의 政治機構가 없는 경우 어떻게 되겠느냐 할때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記憶이 돼요 現在는 政治機構가 없더라도 앞으로는 같은 政治機構에서 산다고 하는 希望 그 希望이 있으면 된다. 萬一에 民族이 이완되어가지고는 뭉칠려고 하는 運動에 있어서의 人的 構成員이 앞으로 같은 政治

機構밑에서 산다고 하는 希望이 지금 現在는 없지마는 未来에 있으면 그것도 客観的인 基準에 들어간다 하는 말씀이었읍니다.

그다음에 韓末의 民族主義를 萬一에 民族主義라고 하는 것이 그 構成員이 내가 主人이고 近代國家化한다고 일단 規定을 했다는 얘기는 왜냐하면은 제가 이자리에 앉아서 近代國家가 뭐냐라고 하는 장장설서를 하기가 좀 죄송해서 그렇게만 얘기를 했었읍니다.

그리고 韓末에 対해서 抵抗民族主義라고 할때 李萬烈先生님이 아주 명쾌하게 指摘을 해 주셨는데 제가 그 문제를 왜 「타치」를 안했느냐 하면 저는 歷史学者가 아니고 韓末史를 하시는 분들한테 여러가지 論争点이기 때문에 그것을 약간 좀 비추었어요 물론 저도 李先生님같이 소위 韓末에 있어서의 衛正斥邪運動 그다음에 始害事件으로 나타난 소위 抗日運動 이런것을 저는 民族主義運動이라고는 저는 생각 안됩니다.

따라서 民族的 抵抗, 民族主義的 抵抗이 아니고 民族的 抵抗 이렇게 表現을 합니다. 또 지금 李先生님같이 따라서 그렇게 되면 3·1運動 아주 상당히 우리 歷史에 있어서 民族主義史에 있어서는 가장 아마 획기적인 事件이 아닐수가 없지요

그런데 日本에서는 이렇게 主張하는 사람이 있어요

即 開化派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문제가 또 나온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것은 歷史学界에서 상당히 論争点이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一般的인 애기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結論的으로는 韓末에 있어서의 歷史上에서 보이는 내가 내나라 主人이다. 또 近代国家化한다 라고 하는 意識없이 일어나는 것이 있읍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저도 民族主義的이라고 보지 않읍니다. 그것은 民族的 抵抗이라고 일단 定義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 概念規定 문제 民族主義의 概念規定문제입니다.

民族이 있으면 民族主義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해요 萬一 高麗時代에 우리民族이 있었으니까 韓国民族主義가 있지않겠느냐 또 高麗時代에서도…… 高麗末期에 몽고의 침입이라든가 하는 경우에 우리의 抵抗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조금 아까 말씀에 제가 民族的 抵抗이라고 말씀드렸읍니다. 마는 民族主義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다른 「카테고리」에 屬한다고 생각해요 近代 国家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다른 「카테코리」에 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近代国家라고 하는 틀속에 살기때문에 이것은 当然하지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中世国家와 또 儒教圈에 있어서의 나라와 나라사이를 생각하면 이것은 簡単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첫째가 領土国家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가장 重要한 것이 나와 남이 法的으로 平等하다고 하는 意識입니다. 法的으로 平等하지만 내가 남보다 優越하다고 하는 나라고 하는 意識이 가장 重要하고 国際法的으로는 平等意識입니다. 国家平等意識 中世国家에서는 그런 現象을 보지못했고……

歷史하시는 大学先生님들 앞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며는

죄송합니다마는 우리가 近代国家의 출현이전의 名分上 얘기입니다. 法的으로 国家間에 平等하다는 概念은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가 첫번에 舊末에 우리의 韓国民族主義라고 하는 것은 西欧羅巴의 近代国家를 바탕으로 한 国際政法秩序가 나타나기 始作한 것입니다. 이것이 좋으냐 나쁘냐 하는 価値判断은 일단 除外해놓고……그런것입니다.

○ 梁好民: 李萬烈教授님께서 여러가지를 물으셨는데 좀 빠진것이 있나봅니다. 民族을 形成하는데 있어서의 政治機構를 말씀하셨지요?

즉, 한 政治機構의 틀안에 살지않느냐 그렇게……

○ 李萬烈: 答弁주셨읍니다.

○ 梁好民: 그다음에 国会같은데에서 民族, 民族하는데 누구를 두고 가르키느냐? 우리나라에 民族이라는 것이 歴史主体에서 볼때에 한때는 영웅을 歴史主体로서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는 民衆으로 넘어갔는데 요즘에 와서는 다 흔히 民族, 民族하지만은 이것이 과연 누구를 具体的으로 指称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答弁을 해 주시지요.

○ 金容九: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것은 民族문제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政治人들이 萬一에 自由民主主義가 뭐냐 이렇게 애기할 때에는 이걸 해석할 길이 없읍니다.

하다못해 우리 倭政時代 누구입니까? 병참기지만든 총독 「우각기」인가요 그의 日記에 보면 朝鮮人의 幸福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애기가 나온다 말이에요

또 지금 民族뿐만이 아니라 모든 政治用語를 어떤 政治人이 애기할때에 그 뜻이 뭐냐고 하는 것을 우리는 참따지기가 힘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를 않고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 重要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또 우리는 概念이 많읍니다.

民族主義가 뭐냐 하는 것을 冊에 보면은 다 各各 自己나름대로 해석을 해요. 저는 이것은 우리나라에 상당히 強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自由主義社会의 特徵中에 하나에요

따라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러가지 学者 学派가 있읍니다마는 거기에서 될수 있는대로 共通的인 것만 빼가지고서 한다는 애기입니다. 그다음에 主導勢力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이것같아요 어디든지 主導勢力은 다 있읍니다. 그러나 그 主導勢力이 다른 勢力과의 압력関係라고 하는 否定的인 面에서는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압력이 있었지요 歷史的으로 압력이 없는 社会 結集이 어데 있읍니까?

그러나 歷史의 発展法則을 그런 압력과 투쟁에 의해서 변증법적으로 発生한다고 저희는 생각안해요 어떤 歷史의 歷史觀이 아마 進步의 歷史가 아닌것이 없지요 그렇지를 않고 다만 一方에서는 主導勢力이라고 쓰지않고 階級이라고 써가지고서 階級間에 갈등 鬪争으로만 보기때문에 우리하고 자꾸만 달라진다 말입니다.

따라서 主導勢力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가 지금부터 해 나가야 할 문제가 아니겠느냐 하는 程度입니다.

○ 梁好民 : 마지막에 韓国의 民主主義가 現在나 앞으로 어떠한 理念과 結付되어야 좋겠느냐 하는 質問입니다. 이에 대한 答弁이 없으셨는데 그것도 좀 「타치」를 해 주시지요

○ 金容九 : 제가 잠간 말씀드린것 같은데 똑같은 말씀이 됩니다마는 우리의 韓国民族主義的 民族이 나아갈 길은 첫째가 個權의 伸張 民族의 活性化가 가장 큰것입니다. 지금 우리 社会가 안고있는 最大의 課題입니다.

따라서 対内的인 面 우리가 여태까지 歷史的인 制約때문에 하지못했던 이 対内的인 문제의 착실화 또 個權의 伸張이라고 제가 몇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것은 自由民主主義的인 理念하고 結付되어야만 이 문제가 解決이 되지않겠느냐! 個權의 伸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目前에 보이는 그 目標라고 한다면은 이것이 어떤 다른 集団主義的인 概念하고 結付시킨다면

個權의 伸張하고 굉장히 거리가 먼 概念이지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梁好民: 감사합니다.

아직 時間이 있으니까 討論에 參加하신 세분중에서 이번에는 順序없이 그대로 또 다시 이제 말씀하신 것을 보충하는 의미에서 무슨 새로운 착상이나 의문이 있다면은 順序없이 생각나시는 대로 提示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 梁秉祐: 제가 좀 말씀드리겠읍니다.

韓末의 경우를 民族的 抵抗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 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이를테면 저는 좀 國史에 문외한이 되어서 잘은 모릅니다마는 独立協会思想같은 것을 研究해 놓은 것을 보면 國權과 民權의 確立 이것을 民族主義가 아니라고 하기는 어렵지않을까 생각이 되요

그리고 李萬烈先生이 民族主義運動이 全民族이 參加해야만 民族主義라고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같이 들렸읍니다마는 반드시 그런것이 아닙니다. 主導勢力의 문제가 나왔읍니다마는 과거의 民族主義運動을 主導한 것은 아까 崔先生님이 말씀했듯이 西欧에서는 中産階級이었고 特히 知識層이 큰 役割을 했읍니다. 그러니까 바람직한 것은 民族의 모든 成員이 祖國을 위해서라는 意識

뭉치는 것이 바람직한 일입니다마는 꼭 그래야만 民族主義運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말 할수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하나 李萬烈先生이 丹斉先生을 專門的으로 研究하시니까 저같은 사람이 말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丹斉의 영웅史와…… 分明히 韓末에 있어서 丹斉가 英雄의 伝記를 쓰고 또 英雄이 많이 나오기를 바라는 글을 쓴 것은 事実입니다마는 그러한 史観하고 民族主義하고는 상호 배제하는 槪念이 아닙니까. 独逸에 있어서도 民族主義史学으로서 有名한 「프로이센」学派의 사람들은 英雄史観的인 경향이 있었고 特히 「투라티케」같은 사람이 농후합니다. 歷史를 偉人의 행적으로 보는 것이 두드러진 特徵으로 指摘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아까 金先生님은 좀 数的으로 韓末의 경우를 말씀하셨읍니다마는 全部가 그것이 아니라 대개 이러한 말씀이었는데 저도 事実 그 範囲가 어느 程度인지 모르지마는 이것을 一括해서 民族主義的이 아니고 民族的인 抵抗이었다. 이렇게 말하는데는 의심이 나는 것입니다.

○ 梁好民 : 答弁하시지요.

○ 李萬烈 丹斉史観문제는 오늘 여기 얘기하고는 別 関係가 없으니까 다른 機会에 얘기를 하기로 하겠읍니다.

제가 아까 마치 民族主義運動이 民族全体가 参与하는 것으로 표현을 했다면 그것은 저의 失手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단지 近代国家라는 次元에서 볼적에 韓末에 愛国啓蒙運動이라든지 또는 民族的인 抵抗運動같은 것이 民族主義的 運動이라고 民族主義라고 할 수 있느냐 民族主義運動이라고 할 수 있느냐 民族主義에서 말하는 그 民族運動 그것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제가 물었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近代国家와 다른 面이 있다면 아까 말씀하신 民族 各人의 權利伸張 그런 側面에서 본다면은 韓末에 民族的인 抵抗運動같은 것을 民族主義運動으로 볼 수 있느냐 그런 표현이 아마 마치 民族 全体가 參与해야만 民族主義運動이다 하는 것으로 아마 잘못 표현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까 저로서는 상당히 용기를 내가지고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에 対해서 金先生님께서 살작 피하시는 것 같읍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以北에서…… 우리가 오늘 이런 「심포지움」을 하면서 무조건 以北의 民族이라는 概念을 듣는 사람에 따라서 달리 이해한다 하는 그런 표현은 反対로 우리 社会에서는 없느냐 하는 것을 철저하게 규명해야만 저들의 그 論理에 대해서 우리가 대항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여기 国土統一院 政府에서 하는 것이에요 제가 요즘 国会에 上程되어 있는 몇몇의 法律같은 것 그 문제를 가지고 할적에 아마 언필칭 国民을 위한다. 公概念으로서 国民을 위한다 조금 소박한 概念으로서 民族을 위한다 하는 얘기가 나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의 民族은 뭐냐 오늘날 与論에 어떤

主導下에서 얘기된 것과 關聯해서 불적에 상당히 우리는 혼란을 느끼고 있읍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側에서는 그 民族이란 말을 듣는 사람에 따라서 말하는 사람에 따라서 상당히 整理가 안된 狀態가 아니냐 단순히 自由民主主義国家에서는 여러가지 多樣性에 어떤 長点이 있는데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냐 하는 것보다는 우리側에는 적어도 그런 要素가 없는가 하는 것을 한번 반성하고 여기에 对해서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데에서는 이런 얘기를 못할텐데 우리 政府가 主管하는 機関이니까 용기를 내서 제가 얘기를 해 봅니다.

○ 金容九: 제가 알면서 안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重要한 문제는 다른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政治人이 A건 B건 国民을 위해서 한다 하는 것은 政治社会가 있어서 부터 지금까지 있었읍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사람이 統治의 名分 그사람이 말하는 名分으로서 쓴다는 것이 重要하다는 얘기입니다. 民族을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한다 할때에 듣는 사람이 아 민족 그것이 나를 지배해도 좋다고 하는 어떤 名分이 있다 이렇게 수긍간다고 하는 그 価値体系가 重要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지를 않고 以北에서는 憲法에도 나와있지 않읍니까? 朝鮮人民共和国 主権은 労働者 農民 勤労「인테리」에 있다. 딱 못박았다 말이에요 또 社会主義的인 民族이 뭐냐 政

治 思想으로 統一된 勤労者들이 人民이다. 이렇게 또 있어요 이것이 우리하고는 상당히 다르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어떤 自由民主主義도 마찬가지고 모두다 마찬가지입니다. 自由民主主義가 뭡니까? 남아 있는 것은 좋다는 것밖에 없어요. 政治用語라 하는 것은 머리의 概念이 아니고 가슴의 概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以後서부터 여태까지 発達되지 못한 要因中에 하나가 가슴의 概念을 머리로 자꾸만 学者들이 썼기때문에 이것이 괴리상태가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에요.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은 民族의 構成 民族이 뭐냐 누가 얘기했을 때 그 民族의 内容이 뭐냐 하는 것보다도 民族이라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아무말도 못한다. 그것이 우리 社会를 支配하는 統治理念이다. 이걸 누가 막겠느냐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또 지금 現段階에 있어서 理念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한편에서는 그렇지않다고 그러니까 이것이 問題가 되는 것이지요. 만일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一派가 있다말이에요. 以北의 얘기가 나왔읍니다마는 以北에는 조금아까 社会主義民族이라고 하는 것은 政治思想으로 統一된 勤労者들이 人民이다 하는 경우에 거기에 政治思想이 뭡니까? 金日成主体思想이지요 1972年4月에 양영성이라는 사람이 소위 金日成이 60살 生日祝賀로 社会科学者 임무에 대해서라고 하는 것을 発表했읍니다. 긴 論文입니다.

그 긴 論文에 테제가 뭐냐하면은 自己들의 社会科学者의 最大의 숭고한 任務라고 하는 것은 金日成 同志의 主体思想을 해석 선전한다고 하는것이 最大의 임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社会는 各者 다릅니다. 民族主義라는 것도 民族主義「레벨」이 많아요. 우리와 UN에 対해서 낼 때에 民族主義가 다르고 国家政策의 「레벨」에서 民族主義가 다르고 또 大衆이 생각하는 民族主義「레벨」이 다릅니다. 그러나 民族이라고 하는 概念 우리가 어딘지 모르게 머리속에 歴史的으로 悠久한 歴史的으로 우리가 같은 血統이라고 하는 것 이 全体가 우리 政治의 名分이다. 이것이 저는 重要하다고 생각합니다.

○ 崔相竜: 発表者께서 조금 감격을 하셨는데 역시 民族主義는 감동적인 것인 모양입니다.

그런데 民族이 政治의 名分이라고하는 発表者의 애기는 100% 同感을 합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制限된 歴史意識으로 봐도 民族主義의 主導勢力이라고 그럴까 民族主義를 担当하는 勢力이 全面的으로 構成員이 되었던 歴史는 한번도 없읍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勢力앞에 主導란 말이 붙는데 政治의 名分으로서의 民族과 主導勢力이 뭐냐 하는 문제는 別문제라고 봅니다.

그런 点에서 主導勢力은 역시 重要한 문제고 두번째 아까 梁教授님께서 民族主義가 반드시 어떤 特定의 「이데오로기」나

理念과 結合할 必要性이 없지않느냐 同感입니다. 事實 우리의 民族主義는 結合하지 않았읍니다. 그런데 우리의 民族運動의 歷史를 보면 民族運動에 처절한 그 抵抗에 비장한 歷史의 서술은 많은데 그 抵抗, 反对 그 反市民의 反对냐 물론 独立을 為한 것입니다. 独立 「프라스」「알파」라고 할 수 있는 무슨 보편적인 価値 가령 自由면 自由 平等이면 平等 이런 보편적인 理念에 매개되어 있지않다는 것이 韓国民族主義에 가장 思想的인 빈곤이 아니냐 하는 그 저나름의 平素의 所信때문에 하는것이고 반드시 그것이 結合되어야 한다는 必然性을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때문에 그 点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 梁好民 梁先生님 더 말씀하시겠읍니까?

○ 梁秉祐 제가 崔先生 말씀하신 소위 結合문제인데요 結合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것 하고 結合된다하는 얘기입니다. 저의 意見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選択의 可能性이 있고요……

事實 民族의 概念이라 할때는 客観的인 規定이 될텐데 民族의 理念이 南北이 다르다 할때는 事實은 崔先生 말씀하신 「프라스」「알파」差異가 아니냐 이런 意見입니다.

○ 梁好民: 그러면 여기에서는 일단 이것으로 첫段階를 마무리짓기

하겠읍니다. 傍聽席에는 여러 大先輩님도 나와 계시고 親旧들도 계신데 主題発表하신 분이나 或은 여기에 討論에 参加하신 분자신의 말씀 어느것도 좋읍니다. 論評이나 或은 質問을 하실 수 있으면 해 주셔도 감사하겠읍니다.

단지 論旨는 可及的 여기에서 発言된 그 範囲안에서 제한시켜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発言時間을 절약하기위해 요령있게 짧게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러면 손을 들으시면 제가……

質問도 좋으시고 또 論評도 좋으시고 本人의 見解를 말씀하셔도 좋읍니다.

없으신가요…… 네 말씀하시지요

○ 質問: 金教授님의 発表를 정말 감명깊게 잘 들었는데요 그 中에서 제자신이 물론 배우는 学生의 立場이기 때문에 知識이 천박하다고 그럴까 그런 理由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좀 理解가 안되는 点이 한 두가지 있어서 質問을 드리겠는데요 金教授님 말씀 中에서 마지막으로 가장 重要한 것은 韓国民族主義를 論하는데 있어서 個権의 伸張이라는것과 또 民族의 活性化를 아주 強調하신것같은데 제자신의 立場이 個権의 伸張에 대해서 若干의 理解는 가는데 明確한 概念파악을 할 수 없는것 같았고 또한 民族의 活性化라는 문제 역시 상당히 추상적인 애기같아서 그 自体에 대한 具体的인 보다 좀 理解하기 쉬운 説明이 必要하지않을

까 해서 거기에 대한 쉬운 說明을 付託드리고요 또 한가지 문제는 물론 제자신이 金敎授님이 政治学을 專攻하고 제서서 政治学者로서의 政治学的 側面에서의 民族主義考察에 제 經驗으로 보아서는 처음 듣는 것같아서……좀 생소한 것이 또 한가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은 그것도 역시 상당히 強調하신 論旨의 하나인데 政治者의 名分으로서의 民族主義는 全体 國民을 대상으로 한 政治者의 名分으로서의 民族主義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지금 우리나라 社会에 있어서 政治者의 名分으로서의 民族主義가 어떻게 作用을 하고 있으며 또한 과연 政治者는 그 名分으로서의 民族主義를 실제 生活에 活用하고 적용하고 있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의심스러운 点이 있어서 그에대한 具体的인 內容을 좀 들었으면 하는데요

○ 梁好民 네 알겠읍니다. 말씀하시지요

○ 金容九 民族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槪念規定을 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용희先生님께서 말씀하신 개권의 伸張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民族의 活性化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쉽게 얘기를 하라고 그래서 쉽게 얘기를 하겠읍니다.

民族이라고 하는 어떤 人間의 集結体라고 하는 것이 그 공고화라고 하는 것은 時間的으로 同等하지는 절대 않습니다. 어떤때는 이완되었다가 어떤때는 공고화되고 어떤때는 흩으러질려고

그러는 것을 다시 묶고 이렇게 기폭있는 概念이에요

따라서 제가 그것을 強調한 것은 지금 이 時点에서 그러한 結集을 해야 여러가지 挑戰을 받지않고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쉽게 얘기를 해서 금방 알아들으실 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民主主義가 政治의 名分이다하는 것은 아마 잘못 들으신것 같고… 民族主義라고 하는 말은 共産主義社会에서는 그것은 매도되는 概念입니다 있을 수 없는 概念이에요 그러니까 民族主義하면은 蘇聯이나 以北이나 어데든지 民族主義하고 첫번째 나오는 것이 「부르조아, 이데오로기」 이렇게 금방 나옵니다.

그러니까 民族主義가 어떤 政治의 名分이 있어서 그런것이 아니고 民族主義的 政治의 名分이 나오고 거기에서부터 名分이 나온다 하는 얘기를 제가 했읍니다. 그말은 뭐냐하면 政治의 名分때문에 아마 그러시는 모양인데 아주 쉽게 얘기를 하면 지금 質問하신분의… 여기 이 社会에 살지마는 質問하신분의 머리속에는 지금 아직 우리가 民族国家가 完成되지않았기 때문에 民族国家의 完成이라고 하는 名分이 아마 제일 큰 것일 것입니다.

제가 여기 오기 前에 講壇에 서가지고서 学生들 한테 죄송합니다마는 学生들한테 民族이 뭐냐고 해서 종이를 한번 나누어주어가지고 그냥 2매 내지 3매程度씨라 그랬더니 다 우리가 생각하는 伝統的인 民族概念을 다들 쓰고 있더군요 그 머리속에는 다 그런것이 들어가 있다 말이에요 바로 그것입니다.

○ 梁好民 : 네 말씀하시지요

○ 李萬烈 : 오늘 여기 나오기 前에 午後에 얘기될 梁好民先生님의 글도 같이 좀 읽어 봤읍니다. 혹시 発表者께서 그것을 좀 갖고 계시면 같이 좀 보시면서…

아까 우리 北韓의 民族理念을 얘기하면서 特徵은 民族의 発生이랄까 이것을 「부르조아」 즉 資本主義社会와 関聯해서 말씀하신 것같습니다. 그런 見地에서 보면은 発表者께서는 韓国史에 상당한 部分을 어떻게 資本主義発生以前의 時期를 어떻게 해석 할 것이냐 「스타린」의 民族概念에 있어서는 准民主概念에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 北韓에서는 解釈할 길이 없지않느냐 그런 要旨로 말씀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梁好民先生님의 発表要旨 1「페이지」에 보면 이런 内容이 있읍니다. 「北韓의 民族理論에 있어서는 「스탈린」의 그것과 약간 다른 点이 있다. 「스탈린」은 유럽의 歴史를 背景으로 民族을 「資本主義時代의 歴史的 範疇」요. 「封建制度가 해체하고 資本主義가 発展해 가는 과정과 동시에 사람들은 民族으로 構成해 가는 과정」이라고 分析했읍니다. 이에 대해 北韓은 우리나라의 民族的 共通性의 形成은 일찍부터 세워진 封建的인 強力한 中央集権的인 統一的인 国家의 틀안에서 悠久한 歴史를 通하여 이루어졌다고 主張하고 있다. 이밖에 1973年부터는 民族을 特徵지우는 이상 다섯째는 아까 말한 言語라든지 地域 経済生活

文化 心理 이 다섯개를 아마 指摘을 하셨읍니다. 共通性에다 같은 血統을 添附하고 있다. 午後에는 民族理念의 실제를 얘기 합니다마는 아마 理論을 背景으로 해서 그렇게 하신것 같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아마 아까 発表者께서 말씀하신 韓国史의 상당한 部分을 여한히 해석할 것인가 그것은 일단 이정로서 整理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어서 午後에 発表해 주실 梁好民先生님이 그 要旨를 조금 얘기를 해 주시면 혹시 이 문제解決에 도움이 될까싶어서 두분께 같이 質問을 제가 같이 드립니다.

○ 金容九 죄송합니다마는 梁선생님께서도 梁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이 있고… 또 저는 천박합니다마는 그냥 쓴 것이고 하니까 梁선생님 글은 午後에 討論때 거론하시고 여기서는 거론 안하시는것이 좋고 제 関係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答弁을 드리겠읍니다.

말씀드렸읍니다마는 北韓에 1973年에 政治辞典에 보면은 「부르조아」民族이라고하는 項目이 없고 「부르조아」民族運動이라고 하는 項目은 있어요. 1970년에 政治用語辞典에는 「부르조아」民族이라고 되어 있읍니다. 그 民族項目에 規定이 封建的인 할거주의가 붕괴되고 資本主義生産関係와 더불어서 생긴 民族이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民族.民族 여러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民族을 「부르조아」民族 社会主義民族 이렇게 나눌때에는

民族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資本主義生産関係가 나타날때부터 나타난 것입니다.

지금 梁先生님께서 글쓰신 悠久한 歴史와로 부터 우리民族이 있어 왔다 하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1972年 朝鮮歴史에 金日成서문에도 나옵니다.

그러나 그때에 悠久한 歴史가 뭘 애기하는 것이냐 이사람들이 말하는 科学的인 用語의 民族이라고 하는 것은 蘇聯이 쓰고 있읍니다만 준民族이라고 해서 호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以北에서 준民族이라고 하는 項目이 지금 보이지를 않는다 말이에요 따라서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韓国社会에 있어서 資本主義生産関係가 이루어지기 以前에 우리 韓民族을 科学的으로 저쪽에서 해석하기가 곤란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昨年에 国土統一院에서 民族主義「심포지움」을 했을 때에 그때에 主題中에 하나가 蘇聯에서 왜 「미카일박」이 몇사람이 해가지고서 「부르조아」史学에서 본 韓国史라고 하는 冊이 있지않습니까? 거기에 「미카일박」이 첫번에 뭘 썼느냐 하면 韓国史学者들은 소위 民族 준民族 国民 이런것을 区別 못한다 하는 애기가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그런데 以北史学界에서는 준民族이라고 하는 概念을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

○ 梁好民 제 애기가 나왔으니까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지요

그런데 왜 「스타린」의 規定을 약간 修正했느냐 하면 그것이

韓国의 歷史에는 맞지않기 때문이지요 韓国에는 資本主義形成과정 以前에 벌개民族이 形成되었던것을 北韓에서 否認하지않지요. 金先生님 말씀하신대로 民族이<悠久한 歷史>를 通해서 形成이 되었고 벌써 資本主義以前에 封建的 中央集権的 国家가 나왔다는데 그것이 언제인지를 그들은 잘 밝히지않았어요. 한데 北韓에서 그러면 完全히 「스타린」을 떠났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스타린」도 資本主義 以前에 民族이 形成되는 과정을 「오지리」라든가 「러시아」라든가 東欧여러나라에서 民族이 나타났다는 例外를 두고 있읍니다.

하나 資本主義가 発展하면서 더욱 공고화 되었다는 것을 強調하지요. 그러니까 반드시 스타린을 떠난것은 아니지요. 北韓하고 「러시아」하고사이에 民族理論을 展開하는데에서 약간의 「뉴앙스」차이가 있는 것은 歷史的 背景을 봐야 할 것입니다. 왠고하니 「네져넬리티」(英語)「러시아」에서 말하는 「民族的인 것」즉 「나로드노스찌」라고 하는 이 概念은 우리 社会에서는 別로 문제가 안되지요, 왠고하니 저쪽에는 複数国家거든요. 帝政「러시아」에는 세분하면 180가량의 民族이 있었읍니다. 한데 韓国民族은 거의 単一民族이란 점입니다. 하니까 以北에서는 남의 나라의 것을 그렇게 잘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터치」를 할 필요없이 우리나라만 초점을 두고 論하니까 複数民族国家에서 民族문제를 展開했던 스타린 과는 자연 差異가 나타났다고 일단 보겠읍니다.

그다음에는 傍聽오신 분가운데에서 말씀하실 분이 있으면 손들으십시요…

네 말씀하시지요

○ 質問 - 2 - 조금 제가 簡単하게 말하겠읍니다.

民族主義가 重要하냐 民族이 重要하냐 하는 문제인데 民族主義는 時代的으로 나오는 하나의 思潮의 무엇이고 우리에게 重要한 문제는 지금 民族이라고 하는 얘기가 重要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民族主義는 弱하게 되었다 強하게 되었다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들의 至上課題는 역시 民族의 統一이 歷史의 至上課題고 우리들의 最高의 目標인데 지금 그 民族이라고 하는 것이 억압된다고 할 것같으면 統一이라고 하는 자리를 잃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北쪽에는 歷史的으로 우리의 伝統性的인 歷史에 바탕한 民族이라고 하는 概念은 점점 弱해 가거던요 그것이 우리의 異質化에 문제와 다른 重要한 문제인데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希望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우리의 最大의 문제거든요 또 共産主義도 고정된 것이 아니고 変해 가는 것이고 民族主義도 바뀌어 가는 것이니까 以北에서 事実 歷史学이라고 하는 것은 金日成자체가 全体의 歷史지 다른 歷史는 없어요 歷史的으로 어떻다 하는 것은 지금 거론이 안되고 北쪽의 문헌에 뭐가 나왔느냐 하는 것도 歷史的으로 別로 문제가 안될 것

같아요 우리의 最大의 課題는 民族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統一할 可望이 있는냐 없느냐 그것이고 또 지금의 形態가 그대로 존속해 갈 것이냐 그것이 제일 重要한 課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역시 韓国사람이 蘇聯에서 말들도 모르고 하는 사람들도 서로 만나면 그렇게 반가워하고 韓国사람이 뭐하면 좋아하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당한 歲月이 흐르고 그 환경이 다른데에 가서도 역시 民族이란 감정이 역시 오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北쪽에 대해서 너무 실망안해도 좋지않은가 그래서 꾸준하게 우리가 우리의 歷史와 우리의 現実을 改善해서 장래에 希望을 가지는 것이 우리의 자세가 아니겠는가 저個人으로는 그렇게 所感이 듭니다.

○ 梁好民 그러니까 先生님은 論評을 해 주신 셈이지요.

○ 梁秉祐 아까 以北에 있어서 民族의 槪念이 「부르죠아」民族 운운해서 李萬烈先生이 質問하시고 하는 것하고 關聯해서 약간 보충적으로 說明을 드리겠읍니다.

金先生님이 말씀하시는 民族主義的 民族이라고 하는 것이 「네이션」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네이션」이란 말을 우리는 民族이라고 번역하기때문에 그 以前의 民族하고 하나가 되어서 区分이 안되지요 그런데 이 「네이션」은 国民이라고도 翻訳되고 그것이 国家입니다. 「네이션」이 成立되면은 民族国家가 成立되는 것이에

요 그러니까 그 以前에 그것은 「네이션」은 아니지요. 그러나 金先生말씀하시는 民族主義의 基礎로서는 엄연히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西洋에서 쓰는 말을 그런 말로 번역하기 때문에 혼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마 준民族이라고 하는 것이 나는 共産圈의 理論은 잘 모릅니다마는 「호프」라든가 独逸말에 「훌크」에 대등한 말이라고 생각되는데요. 「훌크」는 있지요 즉 国家가 成立될때에 金先生이 말씀하시는 民族主義的 民族이라는 것이 되는 것이지요

○ 金容九 그사람들이 얘기하는 준民族이라는 것은 이런것입니다. 준民族의 基準이 領土하고 言語에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民族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領土言語를 기반으로 한 共同体 政治 経済文化的인 것 그리고 人種的인 지각이 아주 맹아적인 共同体라고 解釈합니다.

따라서 이런 「내러즈너스트」(Narodnost)라고 하는 民族前段階에 어떤 人種의 共同体가 지금 「아프리카」事態를 그렇게들 해석을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아까 유先生께서 적정을 해주시고 대단히 감명깊게 들었읍니다. 以北에서는 梁先生님께서 午後에 말씀하시겠읍니다마는 소위 72年입니까? 3大革命運動이 나와가지고 技術 文化革命을 推進하고 있읍니다. 技術만 빼놓고 文化思想이라고 하는 것은 上部構造의 革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構造는 社会主義的인 生産関係가 構造가 되었다 그렇지만은 그런 下部構造

가 되어 있다고 그래서 上部構造가 금방 変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따라서 上部構造를 급격히 変化시키자 라고 해서 지금 급격히 進行되고 있읍니다. 또 여기 一部가 理論입니다마는 昨年에 発表도 昨年 77年 9月달입니다. 発表된 社会科学教育에 테제에 보면 이런 애기가 나옵니다.

一般理論 순수理論이라고 하는 것은 存在하지않는다 라고 애기가 나와요. 以北에서 理論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革命실천의 理論과는 절대 격리되어 있는 理論이라는 것은 있을수가 없읍니다. 그 教育테제도 보면은 共産主義 人間化 모든 人間을 共産主義式으로 바꾸어버리자 하는 애기거든요 이것이 그냥 우리하고 남하고 民族의 内容이 다르다 그런 客観的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一部에서는 아주 자기들이 옳다고 모든 総力을 기우려가지고는 적극적으로 推進하기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지않겠느냐 思想의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式으로 밀고 나가면 人間의 思考方式은 바뀐다고 하는 애기 이 主題와는 関係없읍니다마는 옛날에 「잔자쿠루소」가 「코루시카」에다 憲法을 評할때 「훌시카」에는 人間들의 意識構造에 맞추어서 憲法을 規定하느냐 그렇지않으면 어떤 이상적인 것에 憲法을 規定하느냐 하는 아주 큰 「딜레마」였읍니다마는 이렇게 共産主義 人間化가 推進되고 하면은 長期的으로 가면은 이것이 상당히 문제点이 되지않겠느냐 우리가 여기서 全民族이 統治名分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상당히 反民族的이고 反動的인 것으로 생각하지않겠느냐

그러한 時点에 있지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 梁好民 다른 質問 없으신가요 한분만…
時間이 다 되었읍니다. 한분만 말씀을 하시지요.

○ 質問-3- 너무나 좋은 말씀을 들었읍니다마는 소박한 質問을 하나하고싶습니다 質問이 좀 천박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기바랍니다.
지금 現在 우리가 統一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質問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모순되는 얘기가 되겠읍니다마는 지금 現在 國家結合하고 人種에 우리가 現在 民族이라 할때에 있어서 우리가 왜 꼭 結合을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統一을 왜 해야 되는가 그리고 民族이라는 그 概念에 根拠를 해가지고 꼭 統一을 우리가 부르짖어야 하는 理由가 무엇인지를 좀 알고싶어요 그것이 우리 國家하고 다른 國家하고 結合을 하는 것하고 어떠한 우리에게 實利的인 差異가 있는지 말이지요. 그러한 것에서 우리가 民族이라는 그 概念을 왜 이렇게 자꾸만 끄집어내서 우리가 꼭 얘기해야만 하는 것인지 그런것을 좀 원초적인 質問인것 같습니다마는 좀 그렇게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우선 이것 하나…

○ 金容九 이것 여러 大先輩 先生님들 앞에서 제가 이런 말씀드려

서 정말 죄송합니다마는 世代差라고 하는 것을 약간 좀 느끼네요

(웃 음)

죄송합니다.

民族統一이라고 하는 것은 제 親旧들 저희 先輩님들 한테는 이것은 至上명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걸 왜그러느냐 미리 안하고 南과 北 三八線 갈라놓고서 편안히 두나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은 아마 요새 젊은분들께서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의 歷史속에서 볼때에 큰 착오적인 概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긴 歷史를 볼때에 우리가 앞으로 10年이 될지 20年이 될지는 모릅니다마는 긴 歷史로 볼때에 우리 같은 핏줄같은 血統 같은 文化 같은 말 쓰는 사람들이 統一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이것은 至上命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은 萬一에 그렇지않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後孫들 한테 크나큰 오점을 남겨놓을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梁好民 具体的으로 오점이 뭐인지?

○ 金容九 이 문제가 重大한 것이 제가 韓国民族主義的 民族의 課題라고 그래서 몇가지 내 건것이 있읍니다. 民族의 活性化가 바로 이것입니다. 빨리 우리 個權이 伸張해서 民族이 活性化해가지고서 民族이 結集해야 이런 문제가 저는 해결이 된다고 생각해

요 앞으로 얼마 안가면은 統一 안되어가지고 오는 우리 韓民族에 대한 피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날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은 理論 以前의 문제인데 이걸 理論的으로 따지려고 그러시니까 이것이 상당히 어렵군요.

○ 梁好民 時間이 다 되었읍니다. 한데 이런문제를 그 前에도 어디서 論하도록을 제가 들었어요. 제 친구 한사람이 討論者로 나왔었다. 그 왜 統一을 해야 하느냐 하는 質問을 받고 대답하기를 왜 統一해야하느냐의 물음은 왜 漢江은 흘러가고 해는 東에서 떠야하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하고 마찬가지다라는 答弁을 했다고 합니다.

予定時間이 다 되었읍니다. 그러므로서 이 「세미나」는 끝내겠는데 다 아시는바대로 「세미나」라든가 심포지움은 어떤 統一的인 結論을 꼭 내가지고서 무슨 決定文을 채택하는 그런것은 아니올시다. 여러가지 우리의 共通된 意見 또는 의문 혹은 이点을 서로 기탄없이 論議하면서 各者의 思考를 整理하고 그리하여 統一的인 意見에 접근해나가는데 의미가 있읍니다.

그러니까 「세미나」는 討論의 과정에 意味가 있지 반드시 꼭 하나의 一致된 結論이 나오지않았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 문제들이 여기에 나와계신 여러 先生님 또 傍聽席에 계신분들에 의해서 論議가 되었읍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한 의의를 느끼면서 여기에 參席해 주신 주신 여러 先生님과 傍聽나오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서 끝내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南北의 民族理念－實際

○ 發表論文 ………………………………… 83

發表 梁　好　民 (朝鮮日報 論說委員)

○ 討　　論 ………………………………… 115

司會 金　容　九 (서울大 敎授)

討論 具　　　常 (詩　　人)

金　哲　洙 (서울大 敎授)

南　時　旭 (東亞日報 論說委員)

〈発表論文〉

南北의 民族理念－實際

梁 好 民（朝鮮日報 論説委員）

一．序 言

우선 제가 말씀드릴 것은 北韓에 있어서 民族문제가 현실적으로 어떤 政策的인 軌道에서 실천이 되고 있는가 입니다. 事実은 이 것을 正確하게 제일 잘 아는 사람은 평양에 있으니까 평양에서 어떤분이 와서 発表를 했으면 제일 좋았는데 그만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지요. 그래서 제가 대신 말씀드립니다. 하나 제가 무슨 평양의 代弁者는 아닙니다. 제가 이해하는 대로 論文을 써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번지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상당히 여러가지로 우리하고 달라서 우울한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속시원한 소리 후련하게 이게 됐다 統一이 가까웠다 이렇게 양심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을 퍽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앞날에 統一을 展望하면서 우리는 우선 現実을 正確하게 把握해야 하니까 現実을 숨김 없이 把握한다는 뜻에서 北韓에 展開되고 있는 実情 政策的인 課題 方向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이것이 많이 생소한 用語들, 저쪽에서 쓰는 用語가 나오고 그 다음에 金日成의 말이 상당히 많이 인용

이 되어 있읍니다. 왜고하니 그것은 正確性을 期하기 위해서 제멋대로 하는 것보다는 저쪽것을 그대로 伝하기 위해서 많이 쓰여져 있는데 그것을 必要한 것은 읽어드리겠읍니다.

다 아시는바대로 지금 北韓에 있어서 民族理念이라는 것은 南韓과는 달리 소위 그들의 国是인 「막스레닌」主義의 民族理論에다 기초를 두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 理論의 엄격한 테두리안에서 形成되어 왔읍니다. 이 理論에 관해서는 午前에 金容九先生님이 많이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제가 論旨를 펴는 그 順序가 있기 때문에 簡單히 몇마디 하겠읍니다.

二. 共産主義者의 民族概念

「막스레닌」主義에서의 「레닌」의 民族이라는 것은 좀 特殊해서 帝国主義時代에 있어서의 階級闘争과 「푸로레타리아」革命 「푸로레타리아」独裁라고 하는 観点에서 展開가 되었읍니다.

그리고 그 실천적 課題는 어데 있느냐하면은 첫째는 「러시아」革命이요. 둘째는 世界革命이였읍니다. 「레닌」은 장차 社会主義革命이 全世界에서 승리하고 그後 일정한 과도기를 거쳐서 共産主義社会가 世界的으로 실현된다고 하면 지금 個個의 民族들은 하나의 人類, 人間的인 共同体로 융합될 것이다. 이렇게 상정은 하고 있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번이 말하듯이 共産主義者들이 民族을 否認한다는 비판은 잘 맞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共産主義者들은 「막스」나 「레닌」이후로 現存하는 民族自体를 否認하는 일이 없을뿐만 아니라 民族의 과도적인 存在를 대단히 重要視하고 있고 특히 피압박민족들의 民族自決権을 열렬이 主張하였다고 하는 오랜 歴史를 가지고 있읍니다.

이 「레닌」은 「푸로레타리아」革命의 戦略的 구상에서 일찌기 1903 年부터 民族理論에 権力을 제시해 왔고 1912 年 16 年에 수다한 論文을 発表했읍니다. 그레서 자기의 理論을 심화하고 어느程度 体系化했던 것입니다. 世界 最大의 複数民族国家인 제정「러시아」에서 出生해 가지고 「러시아」民族과 「러시아」民族의 지배를 받고 있던 비「러시아」民族들 사이에 착잡한 갈등을 観察

해온 「레닌」은 民族문제의 重要性을 明白히 파악하고 있는 동시에 民族문제 또는 民族主義의 문제를 어떻게 戰略的으로 다루느냐에 革命의 成敗가 달려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러시아」革命家였읍니다. 「러시아」革命家로서 「짜아리즘」제정「러시아」의 전제주의 「짜아리즘」을 전복하기 위한 戰略으로서 자기의 民族理論을 확립했읍니다.

그는 한편으로는 「러시아」都市에서 成長하고 있는 「푸로레타리아」즉 工業勞動者 階級을 組織하면서 전제주의 투쟁을 선동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러시아」人들에 의해서 억압받고 있는 「러시아」帝国內 180여 비「러시아」人들의 民族的平等과 「러시아」제국으로부터 이들의 分離權을 핵심으로 한 民族自決權을 열열이 強調했읍니다. 이것은 複數民族国家인 「러시아」帝国을 붕괴시킬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던 뿐입니다. 그의 이러한 구상은 国際的 帝国主義時代에다가 확대 적용시켜 가지고 独特한 世界革命戰略을 定立했읍니다. 「레닌」은 이 「푸로레타리아」革命의 成功 可能性을 「맑스」처럼 단순히 先進資本主義 国家內에 두 階級이라고 하는 「부르조아」階級과 「푸로레타리아」階級에 필연적인 闘争 그리고 「푸로레타리아」의 필연적인 승리에서만 달려있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 帝国主義 열강에 대한 植民地 또는 종속국 民族들의 해방투쟁에서 승리의 관건을 파악코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레닌」은 무엇보다도 帝国主義時代의 民族을 피압박민족과 억압민족과 피억압민족으로 区分을 하고 植民地 종속국의 被圧

迫民族들을 帝国主義的 圧迫民族의 支配로 부터 이탈케하는 民族自決権의 획득이 国際社会主義革命을 위한 闘争이 승리할 수 있는 제일보라고 인식하고 있었읍니다.

要컨대 「레닌」에 있어서는 「푸로레타리아」革命 즉 그들이 말하는 社会主義革命이라는 요청하에서 民族문제가 植民地문제와의 関聯下에서 제기되있읍니다. 이 「레닌」이래로 共産主義者들은 植民地従属国에 被圧迫民族들을 帝国主義国家로 부터 分離独立시키는 것을 革命闘争의 主要한 目標로 삼아왔읍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植民地従属国 民族들이 帝国主義勢力으로 부터에 分離 独立은 資本主義의 錯誤段階라고도 부르고 独占資本主義라고도 規定하여 소위 帝国主義 힘의 원천을 앗아버리므로서 帝国主義를 파멸로 이끌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共産主義者들의 이러한 反帝民族解放闘争이 植民地従属国에 있어서 民族主義者들의 独立運動과 同一한 것인가 하면 결코 그런것은 아닙니다. 民族的 自由다 혹은 民族的 闘争이다 或은 民族的 自決権이다 하는 等等 現代 民族主義運動과 표면상 동일한 目標를 표방하면서도 共産主義者들은 植民地従属国의 民族主義運動을 불신 비방하면서 「부르조아」다 또는 기회주의다 하는 낙인을 찍어서 根本的으로 배격하는 伝統을 確立해 왔읍니다.

「레닌」은 植民地의 民族運動을 戦術上 대단히 성원했읍니다. 그後 共産主義者들은 民族主義者들과의 統一戦線 形成을 시도도 해왔지만은 이것은 이 植民地 民族主義運動이 지니는 反帝国主義的인

性格의 과도기적 이용가치 때문이며 「막스레닌」主義의 「이데오로기」에 있어서는 非共産主義的인 民族主義는 필경은 「부르조아」民族主義 즉 資本主義의 政治的 표현인 「부르조아」民族主義라고 생각을 해옵니다. 「막스레닌」主義에 있어서는 「부르조아」民族主義에 대해서 아직은 장차는 모르겠읍니다마는 「푸로레타리아」民族主義라고 하는 것은 용인이 되지않고 있읍니다. 「푸로레타리아」 즉 共産主義者들에게는 오직 國際主義가 지금 그들이 말하는 「푸로레타리아」國際主義가 있을 따름이라는 것이 지금의 現実입니다.

이 中蘇分争을 계기로 해서 國際共産主義는 사분오열되었읍니다. 이른바 多元化 현상이 共産主義 世界의 時代的인 조류가 되고 있읍니다. 그리고 인도지나반도에서 보듯이 共産主義의 越南과 「캄보디아」는 國境戦争까지 벌리고 「레닌」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상황에 부닥치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各国의 共産党들은 아직도 「이데오로기」의 정통성을 내세우기 위해서 지금은 그 이름밖에 남지않은 「푸로레타리아」國際主義를 계속 強調하고 있읍니다. 이 共産主義者와 民族主義者와의 이 民族문제에 대한 見解는 現存하는 民族을 시인하느냐 부인하느냐 하는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民族이 発生하는 것과 그 生存양식과 発展과 미래를 어떻게 認識하고 民族革命의 方法을 어떻게 設定하고 独立을 達成한 民族国家들 혹은 複数民族 国家들의 政治 経済 社会制度를 어떻게 建設하고 文化的 伝統을 어떤 方向으로 고수 발전시키느냐에 共産主義者와 一切 非共産主義者的인 그 民族主義者들과 根本的으로 対

立하게 됩니다. 共產主義者들이 그 戰術의 多様性에도 불구하고 일괄해서 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푸로레타리아」革命의 수행과 「푸로레타리아」의 独裁라고 하는 이름에서 進行되는 共産党에 의한 일당독재의 確立입니다. 民族主義運動은 결코 單一的이요, 同質的인 것이 아니며 民族主義는 自由民主主義와도 「파시즘」과도 革命主義와도 또는 점진적인 改革主義와도 資本主義와도 무슨 社会民主主義와도 다 結付가 될 수 있읍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경우에도 民族主義는 「푸로레타리아」革命과 「푸로레타리아」独裁, 「푸로레타리아」国際主義를 표방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根本的으로 다릅니다. 이 点에서 民族主義는 伝統的인 「막스레닌」主義와는 対立이 됩니다. 이 対立은 무슨 무슨 対立이냐 하면 政治理念의 対立이요. 원칙적으로는 世界観의 対立으로 부각이 됩니다. 따라서 両者의 対立은 일시적으로 戰術上 共同戰線을 펴므로서 화해하는 것 같이도 보입니다. 그러나 結局 両者의 잠재적인 対立은 도처에서 政治鬪争 權力鬪争으로 発展해 왔던 것입니다. 이런 現状은 日帝下에는 물론 오늘 北韓의 共產主義者들과 韓国의 民族主義者들과의 関係에서도 결코 例外는 아닙니다. 共産主義者들은 「레닌」이 말하기를 모든 民族主義를 反対한다 하는 이 教訓을 아직도 잊지않고 있읍니다. 「레닌」의 民族理論은 午前에 金容九先生 말씀대로 「스타린」에 의해서 보다 더 정교화 체계화 되었읍니다. 그리고 이것은 10月革命以後 蘇聯共産党의 民族政策의 기조가 되었읍니다. 「스타린」에 의하면 누누이 말씀드렸읍니

다마는 民族이라는 것은 言語, 地域, 経済生活, 文化의 共同性안에 나타나는 心理状態 이 5個要因을 共同基盤으로 해서 発生한 歷史的으로 形成된 사람의 공고한 共同体다 하는 것은 아까 여러번 強調했는데 이것이 바로 「스타린」의 定義입니다. 이 定義가 반드시 正確한 것은 아니라는 것은 이를테면 「스위스」같은데는 네個의 言語를 使用하는 国民들이 살고 있읍니다마는 하나의 国家는 물론이고 지금은 하나의 民族으로 形成이 되고 있다는 点에서 찾을 수가 있읍니다.

그러나 民族의 特徵으로서 다섯개 즉 다섯개의 共通性 言語라든가 地域이라든가 経済生活, 文化, 心理状態 이것을 들고 있는 것은 民族에 대해서 比較한 分析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1970年까지 北韓에서 党的으로 正統的으로 公開되고 있는 理論도 이 定義를 그대로 복사하고 있었읍니다. 「카피」하고 있었어요. 즉 北韓의 規定은 다음과 같읍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했읍니다마는 民族이란 무엇인가. 言語, 地域, 経済生活, 文化와 心理等에서 共通性을 가진 歷史的으로 形成된 사람들의 공고한 集団, 「스타린」 定義하고 꼭 같은 것입니다.

이 北韓은 우리나라에 民族的 共通性을 갖다가 조금 달리해 가지고 資本主義時代가 나오기 前에 즉 일찍부터 세워진 封建的인 強力한 中央集権的인 統一国家를 이루면서 悠久한 歷史를 通해서 우리 民族은 이루어졌다. 이렇게 主張을 하는데 이 封建的인 中央集権的인 統一国家가 어느 것인지 具体的으로 잘 제시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밖에도 1973年부터는 이 民族의 特徵에다가 아까 「스타린」이 내세운 다섯개의 共通性에다가 핏줄 즉 血緣을 添加하고 있읍니다.

73年以前에도 金日成이는 벌써부터 朝鮮人民은 핏줄과 言語를 같이 하는 하나의 民族이다 하는 것을 強調를 해 왔읍니다. 그래서 우리 民族의 共通性안에서 血統의 特徵을 指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北韓에 있어서의 民族理論은 아직도 당시에 당면한 政策의 次元에서 제시가 되었을뿐 民族自体에 대한 깊은 社会科学的 내지는 人類 文化史的인 開拓상태로 남아 있다고 하는 것이 제가 아는 限度의 知識입니다.

그래서 北韓에 있어서 民族理論은 別로 잘 깊이 연찬이 되지않았다 하는 見解를 갖고 있읍니다.

二· 變質되는 民族概念 (實踐上의 課題)

잠간 눈을 밖으로 돌리면 이제 격화되는 中蘇紛争에서 国際共産主義運動의 多元化現象이 일어났읍니다. 그 결과로 지난 20年동안의 統一이라는 意味에 의하여 「프로레타리아」 国際共産主義는 観念上으로 밖에는 存在하지 않았읍니다. 그리고 많은 나라의 共産党들은 中蘇 両国의 圧力으로 부터 벗어나서 独自的 社会主義로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追求하는 現象이 到処에 나타나고 있읍니다. 아직도 「이데올로기」상은 「막스레닌」主義에 대한 普遍的国際主義的인 그 教理에 대해서 忠成을 表하면서도 제나라의 経済的 特殊性이라든가 제民族의 独自的인 歴史 제나라의 「러시아」化의 否認 그리고 최근에 自主性 강조 등을 追求해왔는데 이것을 仏蘭西의 社会学者인 「레몽아롱」이라는 사람이 이른바 民族的인 것에 대한 긍정이라 이렇게 불렀는데 이것은 「스타린」以後에 国際共産主義運動에 나타난 大変化올시다. 그래서 北韓에도 이러한 조류속에 들어있는 北韓도 共産主義나라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인도지나半島에서 共産主義者들이 民族解放闘争과 그후에 相互間의 国境戦争도 蘇聯과 対立하여 中共路線 그리고 東欧羅巴의 탈선路線 蘇聯으로부터 離脱한 路線, 中蘇紛争에서 中立을 堅持하라는 金日成이나 무슨 「루마니아」의 「차우세스큐」의 自立路線등 모두 일괄해서 民族主義의 概念化라고 單純化시키는 경향이 非共産主義世界에 한때 知的인 流行처럼 되었었던 때도 없지않습니다. 그래서 毛沢

東에서 胡志明까지 「티토」에서 「차우세스큐」 金日成 一連의 이런사람을 엄밀한 理論的 検討없이 各 新聞에서는 主観的으로 民族主義라 이렇게 規定하는데 대해서 서슴치를 않았읍니다. 그러나 그들 자신의 말을 들으면 自己를 절대로 民族主義로 自称하는 일이 없을 뿐만아니라 제 나라의 政治体制의 本質을 民族主義라고 規定한 일이 없읍니다. 이 「막스레닌」主義 「이데올로기」에서는 民族問題가 대단히 중요시 되고 있지마는 民族問題에 관한 基本的인 観点과 입장에 있어서는 非共産主義系의 사람들 특히 民族主義者나 民主主義者나 社会主義者나 상당히 本質的인 差異가 있다는 것만을 指摘을 합니다.

그러면 둘째로 가서 北韓에 있어서 民族의 理念이나 民族理論은 어떠한 立場에서 提起가 되고 있느냐하면 첫째로는 北韓에 있어서 民族理念이나 理論은 한마디로 하면 民族解放革命이다 하는 것으로 귀착이 됩니다. 金日成은 그밖의 것은 별로 論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째 北韓에서는 이 民族理論은 北韓自体의 社会主義革命과 社会主義建設 둘째로는 祖国統一의 方法으로서의 反帝 反封建的인 人民 民主革命, 南韓의 人民主義革命 세째로는 反帝 民族解放闘争의 第3世界에 있어서의 革命 이 세개의 実践的 課題를 中心으로 해서 民族問題를 論하고 있읍니다. 이 세개의 課題는 무엇으로 帰着이 되는고하니 우리나라에서 美帝国主義者들을 몰아내고 民族解放革命을 完遂한다 하는 金日成의 말에다 焦点을 두고 展開가 되고 있읍니다. 金日成은 1964年 2月 그것이 처음이겠지요. 体系的

으로 民族解放革命을 完遂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서는 세가지 革命力量을 키워야 한다 하는 것을 重要示했읍니다.

첫째는 北朝鮮의 革命力量을 키워야한다.

둘째는 南朝鮮의 革命力量을 키워야한다.

세째로는 国際革命力量을 準備해야 한다는 것을 公式化했읍니다. 조금 더 그의 말을 든다면 北韓은 南半部 人民들을 美帝国主義者들의 抑圧에서 解放하고 祖国의 統一을 達成하기위한 革命根拠地가 되어야 한다. 이것을 革命基地라고도 그럽니다. 이렇게 規定하고 있읍니다. 그리하여 北韓에서 社会主義革命과 社会主義建設을 다구쳐서 이 革命基地를 빨리 政治, 経済, 文化, 軍事의 모든 面에서 百方으로 強化해서 이것을 土台로 해서 統一해야 한다하는 것을 강조했읍니다. 이것이 北朝鮮의 革命力量을 準備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北朝鮮의 革命力量을 強化한다는 것만으로 우리나라의 共産主義統一은 되지않습니다. 그래서 南朝鮮에서도 이것을 強化해야 하는데 그러려고 할 것같으면 그의 말을 따르면 南朝鮮에서 美帝国主義者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먼저 南朝鮮人民들이 主動이 되어 南朝鮮에 대한 美帝의 植民地統治制度를 뒤집어 엎고 打撃을 주어야 한다하는 것을 말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南韓의 人民들의 革命的 蜂起를 일으킨다 하더라도 北韓의 人民들이 이것을 積極的으로 支援해 주지 않는다면 다시 그의 말을 빌리면은 美帝와 그 앞잡이들을 때려잡을 수가 없다. 따라서 南北朝鮮에서 革命力量이 다같이 準備되어야하며 南北朝鮮 全体

人民이 힘을 합쳐서 美帝国主義者들에 打擊을 주어야만 民族解放革命을 勝利的으로 完遂할 수 있다 하는 말을 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그냥 전부 引用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南朝鮮 革命力量을 強化하는 여러가지 方法을 提示를 하는데 가장 基本的인 것은 南韓에다가 「막스레닌」主義党을 組織해서 指導해야겠다. 즉 共産党을 組織해서 指導하게 한다 하는 것인데 그 共産党이 요즈음에 와서는 統一革命党으로 規定을 했읍니다. 이와동시에 金日成은 自己의 革命이 勝利하기 위해서는 南北韓이라 하는 이 対内革命力量이 強化될 뿐만아니라 国際的 革命力量도 強化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은 무슨 소리인고 하면 南朝鮮革命은 그 사람의 말에 의하면 世界革命의 한 목표다. 美帝国主義는 国際 反動의 元兇이요. 全西域의 進步的 人民들의 共同의 怨讐다. 이렇게 規定을 합니다.

그러므로 朝鮮에서의 美帝国主義의 敗亡은 全世界的 範囲에서 그들의 敗亡과 밀접히 연결되고 있다. 따라서 世界革命이 더욱 強化되어 그들이 世界到処에서 더욱 더 막다른 골목에 빠졌으면 南朝鮮에서의 그들의 지반도 약화될 것이며 朝鮮革命의 勝利는 더욱 빨라질 것이다 하는 論理를 展開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現在까지 계속되고 있는 論理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国際革命力量을 끝없이 強化하기 위해서 闘争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金日成은 国際的 革命力量을 強化하기 위해서는 国際的 革命力量과의 連帯性을 強化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 方法으로 모든 社会主義国家人民들과 団結을 강화한다. 이것은 당연하지요.

中共이나 蘇聯 東欧羅巴 둘째는 国際主義 隷属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闘争하고 있는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支持와 그들과 団結을 강화한다. 세째로는 그밖의 美帝国主義者들을 反対하는 世界 모든 人民들과 団結하고 그들의 反美闘争을 支持하는 政策을 提示해왔읍니다. 그중에서도 北韓의 闘争活動에 重点을 두고 있는 것은 뭐냐 新生独立国家들과 中立国家들과의 関係를 改善해서 이 나라 人民들로 부터 北韓의 反美闘争에 대한 支持를 獲得하는 일입니다.

또한 金日成은 帝国主義相互間의 矛盾을 이용한다는 「레닌」의 公式에 따라서 美帝国主義者들과 이른바 仏蘭西 日本 그밖의 帝国主義者들 사이의 葛藤과 矛盾도 이용한다 하는 것을 主張합니다.

이상 一聯의 方法에 의해서 그가 目標로 하는 것은 뭐냐하면 그의 말을 다시 빌리면 国際舞臺에서 美帝国主義者들을 最大限으로 孤立시키면서 世界 이르는 곳마다에서 막다른 골목에 빠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規定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눈을 밖으로 돌리면 이 国際共産主義運動 多元化 現象이 従来의 「프로레타리아」 国際主義를 否認하고 새로이 「프로레타리아」 民族主義를 発展시킬 수 있는 것인가는 긴 歴史의 그것을 기다리지 않고서는 말할 수가 없읍니다. 지금 명백해진 것은 뭐고하니 世界共産主義 正統性은 「이데올로기」에 있어서

는 여전히 「프로레타리아」 国際主義를 固守하면서도 実践에 있어서는 民族化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環境에서 金日成은 金日成 自身도 主体思想 혹은 自主性 自力更生 民族的 闘争 民族自由 또는 民族的 自立経済 社会主義的 愛国主義 事大主義 反対 民族虚無主義라고 하는 일종의 「레닌」과 「로자·르크셈부르」같은 사람이 있읍니다만 제나라 優秀한 것을 다 버리고서 劣等感을 가지고 다른 나라만 崇尚한다는 것이지요. 이 民族虚無主義를 排撃한다는 것 그 다음에 民族意識 또는 특히 民族的 自負心 自主的 統一등 一聯의 그 民族的인 概念을 중심으로 해서 이상 제가 指摘한 세개의 革命的 課題를 내세워왔읍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北韓은 새로운 民族主義를 発展시키는 듯 한 印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많이 外国에서도 그 「노스 코리아 내셔널리즘」 이것을 北韓의 民族主義라하는 말을 여러가지로 「저널리즘」에서 쓰고 있읍니다.

民族問題에 대한 金日成의 「이데올로기」는 民族主義 혹은 民族改良主義 또는 「부르조아」民族主義에 대한 熾烈한 反闘争속에서 形成되고 実践 되어왔다하는 것을 指摘을 하겠읍니다. 金日成이 그 民族主義란 말을 싫어하는 것은, 왜 自主性을 가진 社会主義 나라들 共産主義 나라들 이것을 西方側의 新聞들이 民族共産主義라 부르는데, 이것을 대단히 싫어하면서 論評한 것이 있읍니다. 이러한 論評은 西欧羅巴나 日本의 新聞들이 民族共産主義라고 쓰는데

이 말은 反動的이라 해서 否認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하기를 自主性을 堅持한다는 口実밑에서 「프로레타리아」 国際主義에 등을 돌려대는 것은 共産主義者들의 態度가 아니다. 그것은 곧 民族主義의 토굴로 떨어지는 것을 意味한다. 해 가지고서 이 民族共産主義의 概念을 理想像으로는 排擊합니다. 그리고 「모스크바」를 念頭에 두고서 어떤 사람들은 이 北韓에서 소위 自力更生한다고 그러지요. 自力更生이 民族主義라고 그래서 是非를 하는데 그것이 民族主義입니까? 自力更生은 共産主義者들의 高尙한 革命精神입니다. 제 힘으로 革命을 하고 제 손으로 社会主義를 建設하는 것이 무엇이 나쁩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国際主義에 充実한 것이며 社会主義의 共同 위협에 이바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고 民族主義를 根本的으로 否定하는 自己의 立場을 밝혔읍니다. 이상과 같은 그의 말이 있다고 해서 金日成이가 그러면 国際主義에 대해서 充実한가하는 것은 이것은 별 問題입니다. 그러나 그가 自主性 愛国主義 自力更生 이것이 共産主義들이 생각하고 있는 民族主義 혹은 民族的인 것과 本質的으로 상당히 다르다하는 것을 明示한 것은 틀림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金日成은 民族 혹은 民族的인 것은 많이 強調를 합니다마는 동시에 이것과 民族主義와는 厳密히 区別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北韓에서 民族政策이 과연 이러한 思想的인 政策的인 土台위에서 어떻게 展開가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考察을 하겠읍니다.

四. 北韓의 民族政策

金日成은 첫째로, 우리民族을 社会主義 愛国主義 思想으로 무장한 自主的인 民族으로 한다하는 것을 目標로 삼아왔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歷史的으로 오래 내려오는 事大主義思想이 있다. 그래서 民族的 自負心이 대단히 稀薄해서 그렇게 되지요. 그래서 이 事大主義思想을 뿌리를 뽑을려면 우리 勤労者들 속에서 愛国主義 教養이 철저히 進行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번 強調를 했읍니다.

어떤 사람은 愛国主義하면 이것은 労動階級하고는 相関이 없다고 봅니다마는 金日成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하면서 労動階級에는 祖国愛가 必要없는 것 같이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社会主義的 愛国主義와 무슨 「프로레타리아」 国際主義가 서로 矛盾이나 되는것 같이 생각하는데 이것은 잘못이다. 社会主義的 愛国主義와 「프로레타리아」 国際主義가 서로 統一되고 있는 것이다하는 것도 여러번 強調를 하고 그랬읍니다. 그래서 그가 이 民族的인 自負心 自主性 이런 것을 내세우는 것을 들으면 언뜻 볼 적에는 이것이 상당히 素朴한 民族主義者들의 심정에게 呼訴할 만 합니다. 그런데 그는 이러한 祖国과 人民에 대한 主張은 어디까지나 共産主義의 「이데올로기」의 一環으로써 展開하고 있다는 点입니다. 그는 勤労者들을 愛国主義思想으로 教養해야 한다하는데 있어서 이

民族的 自主性을 매우 重要視합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는 民族的 自主이라는 것이 非共産主義者들이 말하는 그것하고는 상당히 差異가 있다하는 것을 다음에 또 指摘을 하겠읍니다.

그러면 이 北朝鮮 人民을 어떻게하느냐? 그 사람들 우리가 말하는 北韓同胞들이지요. 이것을 철저히 愛国主義와 政治的 自主性을 가진 民族으로 改造를 한다하는데 北韓에서 상당히 精力을 기울여 왔읍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고 하니 北韓의 同胞들을 労動階級의 思想으로 뭉치자는 이른바 階級教養事業에다 重点을 두고 愛国主義教養이라하는 方法도 이것을 土台로 해서 進行이 됩니다. 그래서 愛国主義教養 事業에다 北韓의 人民들을 教養하고 改造하고 그리고 改造를 通해서 이것을 組織하고 動員하는 것 것으로 한 政策을 삼아왔읍니다. 그러면 이것을 단지 北韓에 있어서 그것만 進行하는 것이 아니라 南朝鮮 解放이라하는 課題와 이것을 반드시 連結을 시킵니다.

다시 金日成의 말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구 北쪽에서 社会主義를 建設하고 있지마는 우리 祖国이 아직 分裂되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南朝鮮人民들이 아직 解放되지 못했다는데 어떻게 우리가 民族自主独立問題를 생각할 수 있겠나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民族解放革命을 끝까지 遂行해야하며 伝統的으로 社会主義 革命을 完遂해야 합니다. 이것은 남쪽까지지요. 그러자면 愛国主義教養을 強化해서 民族解放과 祖国의 自主独立問題를 더 강하게 내세워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朝鮮共産主義者들과 朝鮮人民에게 맡겨진 革命課業을 遂行했다고는 할 수 없다. 이것이 그의 말입니다.

이와같은 金日成의 말은 愛国主義와 自主性의 戦略的 目標가 바로 自己의 깃발밑에 全韓半島를 統一하여 共産主義化하는데 있다는 것을 숨기지않고 밝히고 있읍니다.

그는 사람들을 労動階級의 革命精神으로 뭉치자는 事業은 반드시 党政策教養과 그 方法은 革命伝統教養과 밀접히 結付시켜서 進行하여야 한다는 것을 철저히 強調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 党政策教養事業이 뭐냐 이것은 1956年以来로 이것은 党政策에 있어서는 金日成의 政策이 유일한 政策입니다. 党内権力闘争을 通해서 反対派를 修正主義 혹은 교조주의 사대주의 여러가지로 비난을 하면서 소탕을 해가지고 確立한 것이 金日成의 党政策인데 반드시 이것으로서 教養을 해야지 딴 사람이 말 한 것을 가지고 하면 안되요. 또 共産主義에서 둘째로는 革命伝統教養과 또 結付를 시켜한다는데 이것은 金日成이 1930年代 만주에서 展開했다고 하는 抗日武装闘争 이것을 가지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抗日武装闘争에서 金日成이 발휘했다고 하는 革命思想 그러니까 全部 저쪽 領土의 革命서 했다는 탁월한 戦略戦術 고매한 덕성 강인한 의지와 原則性 革命的事業方法 人民的事業作品 이런것을 가지고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 以外에는 용납이 안됩니다. 그래서 北韓에서의 愛国主義 或은 民族的 自主性의 教育이라는 것은 이런 党政策革命 正統教養과

結付를 시켜서 進行된다고 할때 金日成에 대한 個人숭배를 초점으로 해서 展開되어 온다는데 큰 문제가 있으며 그리고 金日成은 自己가 策定한 党의 政策은 朝鮮의 具体的인 現実에 적용되는 「막스레닌」主義요. 行動의 지침이다 해서 찬양을 하고 自己나라 革命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党의 政策과 우리 革命伝統을 튼튼히 무장해야 한다고 해서 자기의 路線과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는 것을 要求해 왔고 그밖에는 이단으로 몰아 왔읍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할것 같으면 金日成은 자기를 「모델」로 해서 자기의 생각을 모델로 해서 民族을 改造해야 한다는 것으로 귀착이 되겠읍니다.

그래서 党的으로 볼적에는 金日成思想体系를 절대화하는 요즘 말하는 党의 유일思想体系로 이것이 공식화 되어나갑니다.

그런데 아무리 自主性을 強調해도 自立的인 民族経済가 없으면 안된다 하는 것이 北韓의 立場이어서 어떤 民族이든지 自立的 民族経済가 있어야 政治的 独立이 있다. 그래서 富強 번영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自立的 民族経済를 빨리 建設해야 한다는 대단히 당연하지만 常識的인 말을 여러번 되풀이를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말할적에도 반드시 南쪽과 結付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읍니다. 우리는 남반부 사람들에게 북반부에서 政治的 自立性과 経済的 自立性이 確立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한다. 그들이 美国이나 日本에 의존하지않고 政治的 自主와 経済的 自立의 길로 나가도록 계속 도모해야 한다.

南朝鮮사람들 가운데에는 아직도 무슨 UN에 의해서 祖国統一이 実現되어야 한다 主張하는 사람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대주의가 영향이 컸기때문에 外勢에 依存하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안하는 사람이 적지않게 남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에 와서도 南朝鮮의 一部 사람들 속에는 아직도 外勢依存思想이 우리의 祖国統一 문제를 解決하는데 큰 지장으로 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南朝鮮人民들과 청년들에게 政治的 自主性에 대한 思想을 強하게 主張해야 한다 해서 항상 対南宣伝事業과 結付를 시키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할적에 그가 당연히 내세우는 전제는 뭐냐하면 韓国은 美国의 植民地다 하는 것을 強調하고 있읍니다. 그들은 独立国家요. 그 다음에 주한미군은 침략군대다 이것은 공식적입니다. 韓国의 역대 政府는 오늘의 政権만이 아니라 옛날 李博士政権때부터 이것은 美国의 괴뢰다 大衆은 어떻겠느냐 아직 政治思想에 눈이 뜨지 못했다 하는 것이 정식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 토대위에서 自己理論을 展開합니다. 그래서 그는 무엇을 말하는고 하니 항상 南朝鮮革命組織들 여기에 여러가지 組織들이지요. 이것은 労動者 農民들의 階級意識과 人民大衆의 民族意識을 높히고 그들을 政治的으로 啓蒙하며 작성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努力해야 한다는 것을 教示를 해 왔읍니다. 그리고 그는 韓国의 大衆의 머리속에 남아 있다고 하는 무슨 美帝国主義에 대한 환상 사대주의사상 이런 것을 빨리 극복하고 反共思想을 뿌리뽑는 일이 重要하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는 民族

的 解放과 独立을 위한 鬪争에서 가장 큰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이 뭐인고 하니 南韓에서 적지않은 사람들이 美国을 숭배하고 美国에 의존하고 해서 살려고 하는 사상이다. 그러므로 南朝鮮人民들은 이러 반동사상에서 解放하기 위해서는 美帝国主義者들의 新植民地政策을 폭로하고 美国에 대한 사대주의사상을 反对하고 民族主体意識을 높혀야 한다. 그리고 外勢의 依存思想을 否認하고 自立·自主의 思想을 宣伝 民族虚無主義思想을 反对하고 우손 朝鮮人民의 愛国的인 民族伝統을 널리 宣伝해야 한다는 等等 여러가지 말을 하며 소위 反美 民族解放鬪争을 격열히 強調를 하고 있읍니다. 이것이 北韓의 政策입니다.

넷째번으로 조금 더 具体的으로 들어가서 金日成에 의하면 그들이 말하는 社会主義 共産主義를 成果的으로 建設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할것 같으면 北韓의 애기입니다. 모든 階級的差異을 없애야 한다. 共産党이 政権을 잡았다고 해서 그것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그리고 民族的 不平等을 없애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民族的 不平等을 없애려면 어떻게 하느냐 民族的自立経済를 建設해야 한다. 이것까지는 다 公明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経済的 낙후성을 극복하고 民族的 번영을 이룩해야 한다. 그런데 그의 말에 의하면 資本主義에서는 이 民族的 平等은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資本主義에 있어가지고는 民族的 平等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그의 생각에는 資本主義時代라는 것은 階級的 착취와 함께 民族的 억압이 支配하는 時代요.

극소수의 民族에 의해서 大多数 民族들이 自由로운 発展이 억제를 당하고 民族이 不平等해지는 時代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고식주의적인 해석을 전제로 해서 그는 벌써부터 「스타린」은 27년에 말했지요. 「스타린」은 民族을 「부르조아」民族과 社会主義民族으로 가릅니다. 그래서 1967年 11月에는 資本主義착취와 억압에서 해방된 民族들 共産党이 政權을 잡은 그런 곳에서는 빨리 社会主義的 民族을 만들어야 한다 하는 任務를 提示했읍니다. 그리고 北韓同胞에 社会主義民族化 이것을 지금까지 促進해 왔읍니다. 이 金日成이 말하는 社会主義民族化라는 것은 人間改造요 民族改造입니다. 이것은 北韓人民들을 社会主義的 民族으로 만드는 것이 그는 사람을 改造하는 事業이다 하는 말도 쓰고 사람의 意識을 改造하는 사람 이런 말도 쓰고 또는 사람들을 共産主義的 새 人間으로 만드는 事業 여러가지 말을 씁니다마는 一種의 人間改造지요. 그리고 그 方法은 어떠냐 方法의 요체는 좀 特殊한 말을 써서 全社会의 革命化 全社会의 労動階級化라 하는 이런 政策을 公式化해 나갔읍니다. 그런 点에서 革命化 労動階級化라는 말은 요컨대 政治権力을 장악한 労動階級 즉 共産党속에서 이 착취階級을 숙청하고 모든 勤労者들을 社会主義勤労者로 改造한 後에는 労動者 農民「인테리」等 社会의 모든 成員들을 階級的 本性에 있어서 가장 革命的이요 先進的이라고 하는 労動階級이 자기의 모습대로 이들을 곧 改造하는 것입니다. 改造해서 思想, 道德, 文化, 技術 모든 分野에서 이 階級的 差異를 없애야 한

다 하는 것이지요. 그 階級的 差異는 무슨 소리인고 하니 아무리 共産党이 政權을 잡고 착취階級이 청산되었다 해도 그리고 社会主義制度가 樹立되었다고 해도 階級的 差異는 남아 있다. 낡은 階級思想의 잠재는 오랫동안 사람의 思想 意識속에서 소멸되지않는다 하는 것이 그의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社会主義 共産主義를 建設하기 위해서는 빨리 生産力을 発展시키야지요. 그리고 労動階級과 農民의 差異, 이 農民과 労動階級이 意識이나 生活水準에 差異가 있다고 봅니다. 技術에 대한 그리고 文化에 대한 그리고 또 労動条件의 差異, 都市와 農村에 무슨 機械를 쓰는 것과 손으로 하는 労動. 이런것에서 또 生産手段에 있어서 所有形態의 差異 이것은 全部 저쪽의 理論的인 문제입니다. 소위 집단농장 이것은 협동적 所有者 그리고 工場같은 것을 全人民的 所有라는데 이런 所有形態의 差異도 있는데 이것을 빨리 없애야 한다. 그래서 그는 社会主義에서 共産主義로 넘어갈려면 必要한 前提条件이 있는데 하나는 経済的 条件입니다.

즉 社会의 物質的 富를 풍부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는 政治的 条件입니다. 즉 大衆을 共産主義意識으로 바꾸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두개를 다 말하면서 物質的 技術的 要素를 経済的 条件을 物質的 技術的 要素라고 하고 後者 政治的 条件을 思想的 要素라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서 둘을 다 점령해야 한다. 이런 것을 말해 왔읍니다. 그래서 이러한 観点에서 그는 農村에 協同的 所有主 오늘의 協同農場을 끊임없이 国営農場 全人民的 所有로 接近시

키는 동시에 農民들의 뒤떨어진 思想을 労動階級에 先進的인 革命思想을 改造하는 闘争위에서 그냥 말안듣으니까 이것이 소위 思想革命입니다.

또 이것과 더불어 農林들의 뒤떨어진 文化·技術水準을 빨리 大衆의 労動階級의 水準에 까지 끌어올리는 闘争 이것이 技術革命 文化革命입니다.

근자에 와서는 3大革命이라 하는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것을 끌어 올리는 그러한 努力을 해왔는데 그래야만 労動者와 農民間에 階級的 差異가 完全히 소멸이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農民이라는 것은 본래 私有 財産에 대한 그리고 자기 経験에 대한 집념이 가장 強한 社会階層입니다. 그래서 金日成은 党政策을 기꺼이 순응하지않는 農民들을 항상 階級的 각성이 부족하고 이기주의 보수주의 소극성이 정산되지 못했다고 비판하면서 農民들을 革命化 労動階級化하기 위해서 農村에서 思想革命 技術革命 文化革命을 強하게 추진해 왔읍니다. 農民들 못지않게 人間改造가 어려운 것은 金日成의 눈 두통꺼리이 批判精神을 가진 「인테리」입니다. 그는 北韓의 「인테리」들은 「부르조아」思想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다 이렇게 늘 指摘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엄격한 규율밑에서 社会를 싫어하고 남의 통제를 받기 싫어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規定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인테리」政策에 세심한 주의를 돌리고 이들을 革命化 労動階級化하는 문제로 政策을 다구쳐 왔읍니다. 그에 의하

면 「인테리」를 革命化하고 労動階級化한다는 것은 「인테리」意識속에 남아 있는 낡은 思想 잔재들을 없애고 이들을 労動階級의 革命精神으로 共産主義思想으로 뭉치자. 労動階級의 「인테리」로 열열한 共産主義者로 育成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는 말도 했고 그런 政策도 실행해 왔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볼적에 金日成이 말하는 이 労動階級이야말로 真理의 把持者입니다. 真理를 파악하고 있는 자요 실천자요 과오를 범할 줄 모르는 特性이 높은 革命階級이요 당연히 「막스레닌」主義的인 社会主義와 共産主義 社会主義다. 여러가지가 있는데 「막스레닌」主義的인 社会主義나 共産主義만을 추구하는 革命의 單一的 指導階級이라고 하는 것을 의심할 수 없는 前提로 깔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해서 労動階級이라고 해서 반드시 가만이 앉아서도 革命家되는 것은 아니라고 항상 그는 労動階級이 指導階級으로 되기 위해서는 해야한다 해서 그 자신의 文化性과 思想性을 높혀야 한다는 것을 늘 말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그中에서도 가장 그가 力点을 두는 것은 뭔고하니 思想革命이다. 사람의 意識을 改造하는 이 思想革命은 사람의 意識속에 남아 있는 낡은 思想을 때려치워야 하니까 이것은 낡은 思想과 새 思想과의 闘争속에서만 進行이 됩니다. 그래서 思想闘争을 通해서만 思想革命이 完遂되는데 이 思想革命을 그는 階級闘争의 한 양식이다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即 社会主義制度가 선後에 階級闘争은 思想闘争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가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오늘의 全社会를 革命化 労動階級化 할려고 할 것같으면 여기에서는 여러가지 方法이 具体的으로 提示가 되는데 教養만 하고 있어서는 안됩니다. 共産主義教養을 대단히 重示를 합니다마는 教育만 하고 있어서는 안돼요.

둘째는 뭐고하니 組織生活을 시켜야 한다 말이에요. 組織生活을 시켜서 어떤 組織에 가담을 시키고 討議를 시키고 그래야 합니다. 또 이들을 革命化하고 労動階級化하기 為해서는 自己批判을 시켜야 한다. 또 革命生活을 公的 무슨 生活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에서 까지 이것을 실천해야 한다 하는 여러가지 方法을 내 세우는데 이 方向이 共産主義者들이 이것을 하는 것은 당연하겠읍니다마는 항상 金日成이를 절대화 하고 그 教示를 실천하는 方向으로 進行이 되어 왔읍니다. 그래서 北韓에서는 이런 것을 労動勤労誌같은데 나오는 것을 볼것 같으면 수령님을 목숨으로 옹호하기 위한 충직한 친위대의 결사대로 가자 하는 이것을 호소를 내놓고 있읍니다. 또는 수령님의 教示와 党政策에 대한 절대성의 精神 무조건성의 원칙을 튼튼히 간직하고 수령님의 무슨 명령 指示를 집행하기 前에는 죽을 権利도 없다는 수령님에 대해서는 뜨거운 충성심 이런것을 強調하고 있다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끝으로 간단히 指摘할 것은 北韓에 있어서 全人民들을 革命化 労動階級化하는데에서 다시 말하면 社会主義民族으로 고치는데서 金日成이 가장 強調하고 있는 것은

이 革命的 文学 芸術의 창작입니다. 그러니까 요다음에 아마 많이 論議가 되겠읍니다. 金日成은 소위 社会主義的인 사실주의 手法에 따라서 形式에서는 民族的이고 内容에서는 社会主義的인 참말로 人民的이요. 革命的인 芸術作品을 만들겠다고 해서 여러번 教示를 했읍니다. 그는 民族的 軽視 芸術의 民族軽視 그중에서도 우리 民族語의 순화 순결이지요. 朝鮮의 선율과 감정 朝鮮的인 것에 바탕 民族음악 朝鮮画等 이런것을 빈번히 強調하고 民族 앞길을 이렇게 改造할 것인가 까지 일일이 指示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모든 芸術과 文学者들은 民族虚無主義에 빠지지말고 民族文化를 批判的으로 잘 계승할 것을 強調합니다.

그래서 그는 벌써부터 美学과 文学과 言語学에 있어서 北韓의 最高 権威의 자리를 찾이하고 있읍니다.

이 文学 芸術의 民族的 形式과 더불어 社会主義内容에 관해서도 여러번 수법을 창작하고 내세우면서 革命的 낙관주의다. 革命的인 낭만주의 정신에서 作品을 써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그는 이러한 文学 芸術 이런 것을 政治의 手段이상으로는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作品의 価値라는 것은 오직 革命의 무기라는 角度에서만 평가합니다. 그래서 그 自身은 말하기를 北韓의 文学 芸術이라는 것은 뭔고 하니 그의 말을 다시 引用을 하면 북반부에서 社会主義 建設에 복무할 뿐만 아니라 南朝鮮 革命과 祖国統一을 위해서 全体 人民에게 알려야 한다는 것을 指示를 하고 있읍니다.

이렇게 人間改造를 해 나갑니다마는 이것이 과연 잘되고 있는가 이것이 조금치는 의심스럽습니다. 이것이 잘 되고 있다고 그러면 이것을 強調하지 않겠는데 이것이 20 年 以上을 강조해 옵니다마는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오늘도 修正主義가 남아 있다. 무슨 교조주의가 있다. 소극적이다. 農民과 知識人들에게서는 資本主義 思想 封建的인 思想이 그냥 남아 있다. 무슨 地方本位主義가 남아 있다 해서 계속 이것을 強調하면서 具体的으로 여러가지 비난을 합니다.

今年 1月달에 들어와서는 金日成이가 社会主義制度를 強化하자 하는 긴 演說을 했는데 社会主義制度는 반쯤 말하고 半은 뭘 공격했는고 하니 北韓의 관료주의를 공격을 했어요. 이것은 金日成이가 항상 관료주의를 탈피 못해서 人間改造가 안된다 하는 이런 것을 자꾸 계속 강조하는 것은 그렇게 오랫동안 강조하는 것은 다시말하면 그렇게 마음대로 잘 되어 가고 있지않다 하는 것이 前提가 되어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人間改造에 金日成이가 「모델」대로 잘 안되어 있다 하는 것을 指摘을 합니다.

그러면 結論을 時間이 많이 가서 簡略하게 하겠읍니다.

이것은 제 말씀입니다. 말씀드리겠읍니다.

金日成이의 強力한 社会主義 民族化政策에도 불구하고 南北韓의 民族은 言語, 文学, 의상, 생활관습, 民族的인 정서, 음식, 주택양식등 이른바 그 民族的인 形式에서는 差異点보다는 圧倒的으로 많은 共

同性을 간직하고 있읍니다. 그리게 무엇보다도 同一한 血統과…… 아직도 그 혈연관계 친척이 있다든가 하는 이런 혈연관계를 직접적으로 유지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南北韓의 民族은 하나의 같은 民族으로 存在한다 하는 것을 누구도 否認할 수 없읍니다. 北韓에서도 民族自体를 否認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重示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문제는 金日成의 民族政策이 單一的인 民族共同体의 '特有한 희계급적 초계급적인 본질 이런것이 있는데 이것을 否認하는 것입니다. 또는 초당파적 共産党이나 이런것을 초월한 초당파적 要素가 있는데 이것은 一切 無視하고 民族의 계급적 内容면을 그것도 自己의 党과 政權유지의 観点에서 절대화 하고 있다는 점에 있읍니다. 그는 北韓에 있어서의 民族문제는 곧 계급문제 共産党 政權의 確立문제로 귀착이 됩니다. 北韓의 共産主義者들은 우리나라에서 빛나는 民族主義的 伝統과 업적을 일체 말살하고 南韓에서 일어나는…… 허다한 사람들이 民族主義의 理念을 내세우면 이것은 곧 「부르조아」民族主義요 民族内에 「부르조아」계급의 지배와 착취를 民族의 이름에서 옹호, 확립하려는 것이라 해서 비난합니다.

그들은 簡單히 말하면 共産主義者들만 그것도 金日成路線을 따르는 사람만이 民族의 「엘리트」요 民族의지의 담당자요 民族 全体를 지배할 도덕적 政治的 權利가 있다고 확신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独單的 우월의식의 밑바닥에는 무엇이 있는고 하니 「막스레닌」主義 或은 金日成 主体思想 이것은 人類가 도달한 最後의 真

理요 「막스레닌」主義의 共産党의 오류를 범할 수 없는 革命의 전위대요 총참모부라고 하는 主観主義的인 確信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것이 깔려 있읍니다.

따라서 그들은 자기들의 支配를 시인하지않는 사람들을 서슴치않고 民族의 반역자로 規定합니다. 南韓의 경우는 民族에 대한 공격의 해석이 아니라 午前에도 나왔읍니다마는 여러가지 해석과 論議가 공존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金日成의 해석이 유일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남북문제를 民族이라고 하는 보편적 개념의 차원에서 観察하고 우리가 고찰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北韓에서는 金日成의 民族理論과 民族政策만이 절대화 되고 있읍니다마는 따라서 北韓의 民族문제에 대한 接近 方法은 金日成의 革命戦略과 戦術의 맥락에서만 定確하게 理解할 수 있다 하는 것을 指摘을 하면서 대단히 지루한 얘기입니다마는 게 主題発表를 끝내겠읍니다.

감사합니다.

〈討　　論〉

司会：金容九
討論：具　常，金哲洙，南時旭

○ 司会（金容九）： 梁先生님께서 民族問題와 그 実際問題에 대해서 오랫동안 研究해오신 것을 짧은 時間에 아주 総体的으로 잘 말씀을 해 주셨읍니다.

말씀 해주신 要約은 제가 다시 말씀드릴 필요 없읍니다마는 古典的인 「막시즘」에서 볼때에 民族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간단히 말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北韓에 있어서 民族問題가 現実的으로 어떻게 適用되어 왔느냐 하는 것은 그것이 民族解放問題라고 하는 것과 不可分離의 関係에 있기 때문에 民族의 解放運動이라고 하는 것하고 같이 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지금 말씀 하셨읍니다.

그 다음에 北韓에서 소위 民族解放運動과 結付된 民族政策의 展開라고 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이것과 関聯해서 北韓에 있어서의 소위 共産主義建設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 進行되고 있는 3大革命 특히 3大内容中에 가장 큰 革命思想運動문제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시고 結論으로서 우리가 생각하는 民族이지만 그 쪽에서는 階級問題만이 남아 있다. 思想이라고 하는 것은 金日成 思想 하나만이 남아 있다 라고 하는 結論을 맺어 주셨읍니다.

그러면 思想으로서의 民族 또는 実践으로서의 民族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이쪽에서는 金日成思想이라고 하는 것으로 모두 帰着이 될 수 있는데 民族問題하고 金日成思想이라고 할까요. 그런 문제하고 結付시켜 가지고 보다 더 좀 具体的으로 지금 梁先生님께서 結論을 내려주신 部分 소위 民族問題는 階級問題로 帰着이 된다. 또 그것은 金日成이의 主体思想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分野를 좀 具 常先生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 具 常: 제가 말씀드려 볼것은 梁先生이 파헤쳐주신 結論 속 北韓이 標榜하고 있는 民族理念이나 実態라는 것이 바로 金日成의 唯一思想体系 소위 主体思想과 그것을 具現하기 위한 그들의 大衆教養事業과 闘争이라고 밝혀지는데 이것에 対応하는 南韓의 民族理念이라는 것과 또 우리가 우리 国民속에 우리 民族主義 속에 胚胎하고 있는 民族에 대한 意識이라는지 統一에 대한 意識같은 것을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問題意識을 제 나름대로 몇가지 摘出해 가지고 提示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国際学術会議라는 이런 名目의 参加者가 되어 있읍니다마는 다 아시다시피 学問에 従事者가 아니고 創作家이기 때문에 그 理論을 科学的으로 이렇게 提示하기 보다는 直視的으로 또는 때로는 어떤 感情的으로 또는 現象化해서 털어놓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고 느끼는 바로는 北韓의 어떤 民族理念이라든지 実態라는 것은 金日成主体思想이라는 것인데 金日成主体思想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金日成의 1人支配 그것도 共産主義와 接木되어서 変形된 어떤 「샤마니즘」으로서의 支配를 対内的으로 合理化하는 것이 그들의 理念이고 또 그것을 潮塗하는 것이 理念이고 이것에 어떤 実体요. 大衆闘争이라는 것은 그 支配를 自体的으로는 永久化시키고 나아가서는 暴力을 다시 한번 써서라도 南韓까지 손아귀에 넣자는 것이라고 断定하겠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一般的으로 理解하는바 民族理念이라는 것은 全的으로 民族主義라든지 民族이라든지 어떤 概念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떤 民族理論이라는 어떤 動態的인 우리의 理想像이라고 그럴까 말하자면 어떤 指向이라고 그럴까 저도 잘 몰라서 아침에 日本의 어떤 新聞社가 펴낸 世界思想史 辞典에서 들추어 보니까 人間이 生物的 自己 保存慾求에 뿌리박은 集団的 求心力 이런것이 하나의 民族理念이고 또 하나는 民族의 歴史的 実存 뿐만아니라 未来像이나 霊魂性을 包含시킨 것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러한 次元에서 저러한 北韓의 어떤 民族理念인 金日成의 主体思想과 그 実態에 우리는 어떻게 対応할 것인가 이런 것이 문제로서 提起된다고 생각됩니다.

첫째 金日成의 同族相残을 不辞하라는 武力革命戦略과 실제는

아까 말한 定義한 바 우리의 어떤 人間이 生物的 自己保存慾求에 뿌리박은 集団的 求心力과는 단연 背馳된다고 아니 할 수 없어서 우리 南韓에 弥満하고 있는 어떤 血統的인 또 言語的인 것에서 오는 생각. 感想的인 어떤 同族意識이나 同質意識은 첫째 止揚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좀 극단적인 일이지만 저들이 主張하는 소위 外軍撤収 같은 그것을 보면 가장 民族自主的인 主張같지만 実은 逆説的이기는 합니다마는 우리의 生物的 保存慾求에 뿌리박은 集団的 求心力에서 背馳된다고 저는 말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近代化 해 가면서 현재 世界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集団安保의 概念이나 그 現況과 또 必要性을 우리 国民意識속에서 좀더 明僚하게 認識시키고 또 認識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둘째 金日成의 主体思想이 지니는 共産主義에 接木된 変形된 「샤마니즘」이 지니는 実際的 統一戦略이라는 것은 民族의 어떤 歴史的 実存뿐아니라 우리의 多小의 어떤 歴史的 当為性이나 実存의 理解뿐만아니라 未来像이나 霊魂性을 包含한다는 의미에서도 당연히 背馳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읍니다.

그러기에 거기에 対応하기 위해서는 우리 南韓의 国民意識속에 弥満하고 있는 소위 民族의 悲願이니 民族의 地上課題니 하는 것 같은 소위 感想的 統一論이라든지 또는 中和論과 같

은 더 具体的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읍니다마는 그러한 社会科学的 論難같은것은 段階的 戦略으로서 収用하는 것은 몰라도 그러한 어떤 統一論은 좀더 撤底하게 理論이 分析되고 파헤쳐져야 되고 또 우리 나름의 民族理論이 動態的인 意味의 거기에 対応하는 民族의 理想像이라든지 未来像이 歴史的 実存을 合해서 우리는 樹立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民族理念의 樹立에 있어서 歴史的 実存뿐아니라 未来像이나 靈魂性을 (?) 含시키기 위해서는 3.1 運動이 指向하던바 政治的인 自由民主主義를 根幹으로 한 民族主義와 또한 福祉国家 形成을 위한 大衆的 「메세리즘」을 統一의 어떤 条件으로서 우리는 하나의 바탕으로서 뚜렷이 우리는 내걸고서 외골수 그것만을 推進해 나가야 한다고 저는 이렇게 主張하고 또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저에 問題意識의 摘出이나 提起라는 것은 말하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非学問的인 非科学的인 어떤 提起로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 社会科学的인 骨格을 세워주기 바라는 동시에 또 한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에 있어서 오늘의 金日成이 소위 自己들의 社会主義的 「리얼리즘」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내걸고있는 現像은 어떤 것인가 또 어떤 理念을 具現시키기 위한 現像은 어떤 것인가 이런것을 제가 사실 외워가지고 나왔으면 좋을텐데 한 두가지 例만 들면 이런 것입니다.

내 어버이 首領님의 主体思想은 소위 共産主義의 真理에 있어서도 最高峰이고 또 最高의 스승者로서 世界의 共産主義의 스승 意識 또 人類救援에 最初로 태어나신 스승이기 때문에 그래서 北韓은 天地開闢以後에 처음 実現된 楽園이라 이런것이 謳歌되어 있고 이것이 社会主義的인 「리어리즘」인지 方向인지 그것은 여러분이 判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둘째는 人民의 太陽이신 金日成에게 白頭山을 비롯해서 모든 萬物萬象이 그를 우러러기 위해서 또 그를 찬양하기 위해서 存在한다는 것입니다.

또 세째는 南韓의 人民들은 모두가 어버이 首領님 金日成의 품안에 안길날을 一刻이 如三秋로서 고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南韓의 피를 함께하는 兄弟들을 하루빨리 그 품에 안기게 하는것이 우리의 課題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까 梁先生님께서도 「페이퍼」에 있듯이 首領님의 教示나 命令이 없이는 우리는 죽을 権利도 없다는 그런 忠誠心을 보여 주어야 한다. 이런 것입니다.

이런것은 결국 人文이나 社会科学的인 어떤 論難의 対象이기보다는 저는 精神分析学의 対象으로 삼아야 겠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一同웃음)

대체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이것으로 그칩니다.

감사합니다.

○ 金容九 : 그러니까 北韓의 民族理念이라고 하는것이 現実的으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것은 소위 金日成의 革命戰略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다.

또 革命戰略하고 뗄래야 뗄 수 없으니까 金日成의 主体思想이라고 하는 것하고 結付된다. 그래서 具 常先生님은 이것을 「샤머니즘」이라고 表現을 하셨읍니다마는 또 그러시고 우리 南韓에서의 民族主義라고 하는 그 나가야 할 方向이 3.1 運動 以後에서 부터 始作되는 社会의 方向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에 梁先生님께서 모두에 말씀하셨읍니다마는 北韓社会를 말씀하시면서 상당히 우울한 애기가 나올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우울한 애기를 약간 좀 세쳐놓고 우리하고 비슷하게 지금 分析되어 있읍니다마는 우리와 같이 이렇게 심각한 어떤 現実的인 문제를 提起하고 있지 않은 그러한 나라가 있읍니다. 東·西独 問題에요. 東·西独이 民族問題를 어떻게 処理하고 있는지 그 問題를 잠깐 머리를 식힐겸 해서 金哲洙先生님께서 말씀하시겠읍니다.

○ 金哲洙 : 지금 梁先生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많이 깨우쳤읍니다.

지금 梁先生님 말씀 듣고 보니까 金日成이가 하고 있는것은

1950 年代의 東独이 하고 있는 것하고 마찬가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面에서 상당히 落後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은 東·西独이 他意에 의해서 分裂된것은 우리하고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읍니다.

그런데 東·西独의 경우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잘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4大 国家 즉 強大国家가 統一의 責任을 진다 이러한 것이 暗黙的으로나 또는 条約에 의해서 어느정도 認定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읍니다.

그런데 東独에서는 이러한 強大国家의 責任을 事大主義다 이렇게 몰아부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西独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러한 強大国家의 責任과 나아가서 独逸民族의 民族自決權에 의해서 統一을 해야 되겠다는 主張을 펼쳤읍니다.

저는 政治的인 것은 잘 모르기 때문에 法的으로 얘기 한다면 独逸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UN 憲章의 第1条와 第55条에서 民族自決權이라는 것이 規定되어 있기 때문에 独逸民族은 하나의 民族으로서 自決權을 行使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읍니다.

来日 「하야시겐다로」先生님이 이러한 独逸의 分裂国家에 관한 문제를 말씀드릴 것입니다마는 제가 몇가지만 이야기 한다고 한다면 이러한 民族自決權에 관한 문제는 1948 年에서

1949年 1950年에 걸친 UN総会에서 韓国問題를 討議할때 韓国問題는 民族自決権의 行使에 의해서 決定되어야 한다. 이러한 決議를 한적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独逸에서도 民族自決権에 의해서 決定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960年에 締結된 UN人権協約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UN人権協約은 1976年에 効力을 発生했읍니다만은 여기에서 본다고 하면 民族自決権에 의해 가지고 統一問題가 決定되어야 된다고 풀이하고 있도록 모든 国民에게는 民族自決権이 있다 이러한 것이 規定이 되고 있읍니다.

그런데 東独은 1952年에는 民族統一을 부르짖었읍니다.

그래서 民族統一에 있어서 民族의 概念을 상당히 強調를 했읍니다.

그것이 1955年, 1956年을 分岐点으로 해 가지고 두個의 国家를 主張하고 여기에 나아가서 1968年에 憲法을 制定하면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두 民族이다 이렇게 主張을 했읍니다.

그래서 두 民族 두 国家理論을 展開를 해 가지고 1968年의 憲法制定은 어디까지나 東独의 社会主義民族이 民族自決権을 行使해서 憲法을 만들었기 때문에 東独은 어디까지나 独立된 民族国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한 것이 1968年의 法인데 여기에 8条2項에 統一에

関한 規定이 있읍니다.

그 統一에 관한 規定을 본다고 한다면 여기에 무엇보다도 民主와 社会主義 下에서의 統一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独逸의 統一이라는 것은 帝国主義者에 의해 가지고 強制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帝国主義에 의해서 分断을 克服을 해서 独逸統一을 達成하는데 그 独逸統一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소위 社会主義 즉 共産主義의 立場에서만 統一되어야 한다. 그러한 戰闘的인 統一論을 展開를 했읍니다.

그러다가 여러분이 잘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1972 年에 東西独 基本条約이 締結이 되었읍니다.

그래서 東·西独 基本条約이 締結됨으로써 그 前文에서 民族問題에 관해서의 両側의 見解대로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우선 덮어두고 우선 国交正常化를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러한 基本条約이 締結되어 있었는데 이 東·西独 基本条約 第 2 条에 있어서도 UN 憲章을 遵守한다 이러한 것을 規定함으로서 民族의 自決権은 認定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아침에도 말씀이 나왔겠읍니다마는 이러한 東独의 경우에 있어서는 資本主義的인 그러한 階級 社会主義的인 階級이 따로 있다 이렇게 말함으로서 独逸의 民族은 두個의 民族이다. 西独의 民族은 어디까지나 資本主義的인 民族이고, 東独의 民族은 社会主義的인 民族이기 때문에 두 民族이 対立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두 民族이 統一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主張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여기에 階級的인 民族理論을 展開해 가지고 1971 年 以後에는 民族의 同質性을 否定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西独에서의 主張은 民族은 어디까지나 同一하다. 民族의 同一性을 그렇게 階級的으로 생각할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아까 여러가지 基準이 나왔읍니다마는 言語의 同一性이라든지 文化의 同一性이라든지 또는 政治的 社会的인 여러가지 伝統의 同一性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보아 가지고 独逸民族은 統一해야 한다 또는 비록 国家는 두개라도 民族은 하나라는 一民族 二国家의 主張을 하고 있읍니다.

独逸의 内独관계省에서 여기에 統一을 해야 될것이냐 하지 않아야 될것이냐 또는 民族에 관한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서 「앙케에트」를 많이 했읍니다.

1973 年의 「앙케에트」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独逸統一이 可能할것이냐 이렇게 물은데 대해서 13 %만이 可能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읍니다.

可能할지 말지 모르겠다. 不確実하다고 보는 사람이 45 % 完全히 不可能하다 이렇게 보는것이 41 %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有権者에 대해서는 統一을 하는것이 바람직하냐 아니냐 이런 것을 물어 보았읍니다.

그러니까 選挙権者의 78 %가 賛成을 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6 %가 反対를 했읍니다. 統一할 필요가 없

다 이러한 얘기지요. 거기에 대해서 無応答者는 16 %가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왜 統一을 할 필요가 없느냐 이것은 특히 젊은 사람들이 그러한 主張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아침에 보니까 어떤 분이 우리가 統一해서 뭘하느냐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을 들었었는데 西独에서도 젊은 사람들은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읍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統一한다고 한다면 바꿔말해서 西独이 東独과 統一한다고 하면 西独의 住民들은 東独의 住民들과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西独의 住民들의 生活水準이 낮아질 것을 걱정하고 있읍니다. 첫째로 経済的 理由에서 統一하면 損害니까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둘째는 무엇이냐 하면 統一独逸이라는 것은 歷史的으로 보아서 오래 되지 않았다 가깝게 보아서 1871 年에 統一된 것이지 그前에는 統一되지 않았기 때문에 分裂되고 있더라도 괜찮다 이렇게 主張을 하고 있읍니다.

그 다음에 세째로 드는 理由가 무엇이냐 한면 「유럽」의 統一이 더 중요한 것이지 独逸統一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社会主義国家하고 民主主義国家하고가 統一된 歷史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現実的인 面에서 統一「유럽」을 構成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独逸統一을 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主張들을 하고 있읍니다.

그 다음에 네째의 理由는 무엇이냐 하면 統一独逸은 周辺国家들이 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오히려 周辺国家들을 為해서도 우리들이 생각할때에 分裂 함으로서 相互 競争을 해 가지고 훨씬 더 発展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例를 들어서 東独은 社会主義 国家를 支配하고 西独은 이쪽 資本主義国家에서 「헤게모니」를 잡고 이렇게 하면 独逸民族은 더 拡大強化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主張들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統一을 해야 된다 또는 統一이라는 것이 民族의 至上課題이고 民族自決権에 의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主張하는 분들은 말하기를 그렇지 않아도 西独에 있어서는 現在 経済的인 번영을 누리고 있지만 東独에 있어서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消費材가 不足하지 않느냐 또 政治的으로 억압되고 있지 않느냐 그러한 東独 사람들의 人権의 伸張을 위해서도 統一이라는 것은 필요하고 또 그 사람들의 生存을 確保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主張하고 있읍니다.

그 다음에 統一되어야만 「유럽」의 安全保障이 可能할 것이다 그러니까 独逸統一이 되어야 한다. 統一함으로써만 独逸의 과거의 나쁜 「이미지」를 씻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主張들을 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러한 理由가 상당히 타당성이 있겠는데요. 統一을 해야 된다는 理由에 대해서는 여러가지로 論議가 될수가 있겠읍니다만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것

은 北韓에 있는 同胞들의 苦痛을 덜어 주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北韓은 南朝鮮解放이라는 課題때문에 벌써 30年동안 国民을 강제노동시키고 있읍니다. 허황한 北傀의 꿈 때문에 苦生하고 人間다운 生活을 못하고 있으며 餘裕도 없고 休息도 없이 戦争準備에만 狂奔하고 있는 北傀治下의 民生苦를 우리가 解決해 주어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北韓은 現在도 国防을 위해서 또 南侵計劃을 위해서 많은 量의 予算을 浪費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것을 経済発展이라든가 社会福祉向上으로 돌리면 더 많은 発展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統一이 곧 国民의 自由와 生命을 保障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面에서 저는 統一이라는 것은 至上課題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梁先生님이 말씀하신 것은 北韓에 관한 문제였는데요. 北韓에 있어서의 문제를 法的인 側面에서 한번 보겠읍니다.

北韓에도 憲法이라는 것이 있는데 社会主義 憲法은 1972年末에 만들어 졌는데 이 憲法에도 民族이라는 概念이 들어있고 또 人民이라는 것이 있고 또 公民이라는 것이 들어 있읍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을 混同해서 쓰고 있느냐 또는 여기에 대해서 明快하게 区分하고 있느냐 이것을 저희들은 確実히 모르겠어요.

北韓의 憲法을 본다고 하면 첫째로는 民族的 対立이라는 것이 나와있고 그 다음에 民族経済라는 것이 나와있고 또 세째

로는 民族文化라는 것이 나와 있읍니다.

그 다음에 公民의 基本權利라든지 이러한 것이 많이 나와 있읍니다.

그 다음에 또 얘기할 수 있는 것은 「人民의 利益을 代表하는 自主的인 社会主義 国家다」 이렇게 말함으로서 人民이란 用語들이 많이 使用되고 있읍니다.

우리 大韓民国 憲法에 있어서는 国民이라 해 가지고 統一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여러가지의 槪念이 나와있는데 이러한 것이 어떤 意味에서 差異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疑問이 있읍니다.

여기에서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은 民族이라는 것은 이까도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社会主義的인 民族 그러한 階級観에 의해서 이야기 된것이라고 보겠읍니다. 公民이라는 것은 国家에 属하는 国籍있는 사람으로서 보고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제가 좀 疑心스러운 것은 北韓에 있어서의 公民이라고 할때 例를 들어서 그 사람들은 在外国民도 公民으로 보고 있는지 또는 大韓民国의 国民도 自己들의 公民으로 이야기 하고 있는지 이러한 것이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겠읍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는 現在 国籍法에 明文의 規定은 없읍니다마는 解放直後에 美軍政庁의 法令에 의해서 過去에 大韓帝国의 国籍을 가졌던 사람으로서 日本의 国籍을 強制로 받

은 韓国사람들은 解放과 함께 国籍이 回復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以北에 살고 있는 国民이라든지 또는 日本에 있는 国民도 全部 다 大韓民国의 国民으로 보고 있읍니다.

이러한 民族의 경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아침에도 論難이 되었읍니다마는 民族自決権에 있어서 民族自決의 主体가 누구냐 또는 主導勢力이 누구냐 이러한 것이 많이 論議가 되고 있는데 梁先生님의 말씀이 金日成은 어디까지나 여기에 民族主体勢力이라는 것은 労動者 農民 이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는 全国民으로 보고 있지 않느냐 이러한 것이 약간의 差異点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 金啓九: 独逸문제 그 다음에 以北의 社会主義憲法에서 나오는 여러가지 用語의 문제 또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점 이런 것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셨읍니다.

다음은 다시 独逸은 外国이니까 다시 우리 문제로 넘어 오겠읍니다. 梁先生님이 모두에서 말씀 하셨읍니다마는 梁先生님의 発表는 根本的으로 北韓社会에 대한 分析이었읍니다.

이 문제가 지금 南과 北의 理念의 실제니까 우리 韓国社会에서는 소위 해방이후 民族의 理念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실천해 왔느냐 하는 우리 문제를 한번 잠간 다루어 보도록 하겠읍니다.

○ 南時旭 : 지금까지 梁好民先生님께서 北韓의 民族理念이 具体的으로 어떤 것인가를 말씀하셨읍니다만 제가 이해하건대는 金日成政權이 내 세우고 있는 民族理念이다. 혹은 民族의 槪念이다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金日成이 노리고 있는 南韓赤化統一全韓半島의 共産政權樹立, 이런 것을 目的으로 한 하나의 「슬로건」이다. 이러한 취지로 일단 해석했읍니다.

그러면 南韓에 있어서의 民族主義를 어떻게 우리가 発展시켜갈 것이냐를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무릇 民族主義하면 民族主義를 論한 冊만해도 数 100 가지가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 나름대로의 民族主義는 무엇이냐 하면 이것은 역시 우리가 世界속에서 活動의 單位로서의 民族, 이것을 民族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되지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民族主義가 무엇이냐 하는데 있어서 여러가지 論議가 있읍니다마는 제가 이해하는 우리나라의 民族主義는 몇가지 段階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있읍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民族主義는 民族이 하나의 国家를 이루어서 国際社会에서 남의 업신여김을 받지않는 나라가 되자. 이러한 것이 民族主義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民族主義의 出発은 過去에 유럽에서 中世의 秩序가 붕괴되면서부터 国民国家가 출현했듯이 우리 韓半島에서

는 中国의 전통적 国際秩序로 부터 벗어나는 過程에서 우리가 하나의 民族国家로서 登場하는 契機를 우리의 民族主義의 始初라고 보겠읍니다. 不幸하게도 19世紀에 청나라가 崩壞되는 과정에서 우리 韓国은 하나의 民族으로서 国家를 이루어 이것이 国際社会에서 発展하기 前에 西洋帝国主義勢力에 재빨리 적응을 하여 스스로 帝国主義勢力이 된 日本에 병합되었기 때문에 우리 民族은 国家를 잃어버리고 結局은 解放이 될때까지 植民地統治를 받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結局 8.15로 우리 民族이 解放됐지만 두가지 点에서 저는 우리의 民族主義라는 것이 아직도 完成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우리가 願하지않는 状態에서 南北이 分断되어 나라가 반조각이 되고 만 사실이고 또 하나는 극히 最近까지의 현상입니다마는 우리가 비록 반쪽의 大韓民国이라도 나라라고 建設을 했었는데 外国의 経済援助라든가 軍事援助없이는 도저히 自立할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두가지 点에서 우리 韓国民族主義의 문제는 하나는 南北分断의 극복문제고 하나는 우리가 世界에서 남부끄럽지 않은 国家로 발전하기 위해 国家의 自立을 달성하는 일입니다. 이런 点에서 우리가 最近에 政府에서 推進해 온 経済政策이 여러가지 문제가 있겠읍니다마는 좌우간 어쨌든 우리가 最近들어서 世界에서 民族的으로 우리도 이제 하면 된다 하는 어떤 긍지랄까, 이런 意識이 싹튼다. 이 자체는 대단히 좋은 일이 아닌가 합니다. 옛날에 亜細亜 或은 東洋은

停滯的이라고 西洋 学者들이 말하더니 요새 와서 儒教的인 伝統이 民族的 発展을 가져올 수 있는 에네르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西欧羅巴의 産業이 저 모양으로 된 것을 볼때에 現在 우리의 経済的인 「에네르기」의 発散이야말로 앞으로 韓国의 民族主義를 実現하는데 있어서 불가결의 어떤 要因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두가지 点에서 韓国民族主義의 두가지 側面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마 아까 梁好民先生님이 말씀하셨읍니다마는 以北에서 民族主義란 말은 안 쓰지만 民族의 概念을 내 세운다 하는 것은 역시 그것은 「막스레닌」主義가 標榜하고 있는 바와 같이 萬国의 노동자는 단결하라. 国家라는 것은 支配階級의 착취를 위한 것이다 하는 式의 이데오로기를 표방하고 있는 北傀政権이 말하고 있는 民族理念이라는 것은 결국은 革命戦略의 方法論에 지나지 않읍니다. 그래서 제가 具体的으로 몇가지만 例示를 하겠읍니다. 萬若에 韓半島가 이렇게 分断이 되었는데 韓半島의 民族構成이 単一民族이였을 경우에 金日成이가 과연 民族 운운하는 이데오로기를 내겠느냐 하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아까 金哲洙先生님께서 자세하게 東西独문제를 말씀하셨읍니다마는 1972年 東·西独 基本条約을 맺을때 東独에서는 独逸民族이 東·西独으로 갈려 있지만은 같은 民族이라 해서 꼭 한 国家를 이루어서 살아야 할

理由가 없다고 했읍니다. 「아랍」民族을 보아라. 「아랍」民族은 같은 民族이지만 여러 國家로 構成되어 있지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資本主義社会가 된 西独과 순결한 社会主義 東独이 한 나라가 되느냐, 이래서 民族의 어떤 特殊性이 存在하지 않는 것이다 하는 式으로 東独政權에서 내 세웠읍니다.

東独에서 내세우고 있는 여러가지 主張은 결국은 그때 그때 必要에 의해서 붙인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北傀에서 우리가 UN에 加入하고자 할때 여러가지 戰略을 내세우고 있읍니다만 北傀는 옛날에 UN에 加入신청을 많이 냈었읍니다. 냈다가 안되니까 요새는 딴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共産主義는 그때 그때의 戰略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체코슬로바키아」事態가 났을 때 蘇聯軍隊가 쳐부셨읍니다. 그때 이 사람들 내세운것이 社会主義体制를 옹호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과연 그때 北韓이 어떤 態度를 取했느냐 하는 것을 볼때 結局은 北韓에서 내세우고 있는 民族이라는 것은 허황된 얘기에 지나지않는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 하나 제가 지금 「체코슬로바키아」事態 얘기가 났으니까 제가 기억이 납니다만 「체코슬로바키아」事態가 나오니까 日本의 NHK「텔리비」같은 데에서 各党의 담화를 받았읍니다. 그런데 日本 共産党代弁人한테 마이크를 대니까 日本共産党代弁人

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대답을 못했읍니다. 왠고 하니 日本共産主義理論에 의하면은 「체코슬로바키아」의 불순한 반동政権이 들어서는 것은 때려부수는 것이 共産主義理論에 맞지요. 그래가지고 答弁을 못해가지고 사흘동안 구수会議를 했읍니다.

왜그러냐 하면 日本의 여론은 蘇聯에 대해서 감정이 나쁘기 때문에 蘇聯이 東欧圏의 弱小民族을 짓밟을 수 있느냐 해서 와글와글했읍니다. 日本共産党은 사흘동안 간부회의를 한 끝에 蘇聯軍隊가 他民族을 무력으로 침공한 것은 나쁘다 하고 談話를 発表했읍니다.

그래가지고 불과 몇달후에 実施된 参議員선거에서 日本共産党은 반수以下로 議席이 떨어져 버렸읍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 金日成이 지금 民族 民族한다 하는 것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南韓을 赤化시키기 위한 하나의 戦略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읍니다. 또 지금 世界에는 第3世界라는 개발도상의 国家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호응을 하기위한 하나의 戦略・戦術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읍니다.

그래서 이제 民族主義의 主体勢力문제가 되겠읍니다마는 以北의 金日成이 말하는 것하고 달라서 南韓에서는 民族主義라는 것이 여러가지로 사람마다 다르게 얘기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고 있는 民族主義는 이런 것입니다. 아직도 이 国際政治에 있어서의 行為者는 国家입니다. 물론 유일한 것이 国家는 아니겠읍니다마는 主된 行為者는 国家입니

다. 国家가 單位가 되어서 世界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지금 国際政治의 상황입니다. 우리 民族이 하나의 国家를 形成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程度의 人口라든가 或은 経済규모라든가 国土의 넓이라든가 이런 것이 基本的인 与件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韓半島 半조각가지고는 도저히 東北亜에서 자존심을 지키면서 살 수 없는 점이 있기때문에 우리 民族主義라는 것은 結局은 우리의 意思에 反해서 分断된 이런 나라를 우리가 統一하지 않으면 안된다 하는 것인데 이것이 아직도 完成되지 않았읍니다. 우리가 統一国家를 이룩하자면 民族主義를 내세워서 이데올로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에 가면 民族主義 「이데올로기」는 他国에서 볼때에는 경계를 할 가능성은 없지는 않을 겁니다.

또 하나 欧羅巴에서 지금 EEC가 비약적으로 発展이 되고 있읍니다. 그리고 形態는 다릅니다마는 東南亜細亜聯合이 서서히 形成이 되고 있읍니다. 우리 民族主義라는 것은 우리 民族이 하나의 国家를 이루어서 世界에서 価値있는 文化를 창조하고 우리 民族도 「노벨」賞을 받는 사람이 나오기 위해서 韓国民族主義의 必要性이 있는 것입니다.

아까 午前中에 어떤분이 統一을 왜 할려고 그러느냐고 질문을 했읍니다. 가령 日帝治下의 経験을 가진 세대에 있어서는 統一의 필요성은 의문의 여지가 없읍니다. 以北에 우리 친척이 살고 있고, 또 우리 어머니가 살고 있고, 내가 옛날에 잘

갔던 금강산을 北傀政權에서 점령하고 있어서 못본다ㅡ,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 南韓과 北韓사이에서 혈연 關係가 끊어졌을 때는 문제가 약간 달라질 수도 있읍니다. 「이집트」와 「리비아」가 統一을 했다가 分離된 經驗이 있읍니다마는, 우리는 民族主義的인 理論이라 할까 民族主義的인 어떤 「이데올로기」랄까 이런것을 発展시키는 것이 미래를 対備하는데 있어서, 또 우리 民族의 活路를 위해서 必要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아까 金哲洙先生님이 말씀하셨읍니다마는 西独의 一部 젊은 世代가 統一을 무엇하려 할려고 그러느냐, 統一을 해 놓으면은 우리 西独사람들의 生活이 나빠진다. 이런 얘기를 했읍니다마는 거기에 比해서 우리 韓半島 地図를 펴놓고 볼때에 이 韓半島는 극히 작습니다. 韓半島中에서 半쪽만 갖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民族의 統一이라는 것은 民族의 活路를 위해서 불가피한 要素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統一을 왜 하느냐 하는 문제는 해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비슷한 民族主義면서 이 「이스라엘」民族의 「시오니시즘」이 있었읍니다. 이 「시오니시즘」을 가지고 「아랍」民族들은 대단히 공격적으로 보고 위협으로 봤었읍니다. 만약에 우리 大韓民国이 強大하게 되어서 軍事力에 있어서나 經済에 있어서나 以北에서 도저히 大韓民国을 어떻게 할 道理가 없게 된다면 우리가 말하

고 있는 民族主義라는 것은 그때 가서는 北傀에서 볼때에 — 北傀의 그때의 支配者가 누가 될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것은 대단히 공격적인 「이데올로기」가 되어 東独처럼 北傀가 南韓하고 우리하고 무슨 関係가 있느냐 우리는 「막스·레닌이스트」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오리라고 꼭 보장은 못 한다 그것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解放직후에 南労党의 朴憲永이 美国記者하고 회견하는데 "우리의 祖国은 소련이다"해가지고 말성이 난 例가 있었읍니다마는 우리의 統一을 위해서는 民族主義가 아니면, 왜 統一을 해야 하는 것을 説明할 수 없는 것입니다. 民族主義는 결국 統一을 위한 理論的인 体系라 할까 思想的인 体系라 할까 이런것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왜그러냐 하니까 지금도 「필립핀」같은 데에서는 「필립핀」이 美国과 합병하자는 運動을 벌이고 있는 団体가 버젓이 간판을 내걸고 있읍니다.

그리고 또 「마이크로네시아」— 옛 日本의 植民地로 있었다가 美国의 신탁통치하에 들어가서 아마 来年이나 내명년쯤 独立을 시킬것입니다만, 거기 「마이크로네시아」国民들은 자꾸 「워싱톤」에다가 진정서를 보내서 우리는 美国에 合했으면 좋겠다고 했읍니다. 그러나 美国政府로서는 이것은 대단히 골치아픈 문제가 되어서 이제 独立을 시키게 되었죠.

여기에 비해서 지금 우리 大韓民国에서는 우리가 統一해야

한다. 우리의 한 民族이 합해져야 한다 이런것에 대해서 反對하는 사람이 없읍니다.

中共에서 지금 近代化를 위해서 日本資本과 技術을 쓸려는 지금, 中共自体가 修正主義化하는 이런 段階에서 金日成이가 자꾸 옛날같은 그런 民族主義理論을 내 세운다는 것은 대단히 우습다고 하겠읍니다.

우리로서는 民族主体勢力은 뭐냐 이것은 우리가 中産層을 점점 확대함으로써 共産主義者가 말하고 있는 資本階級과 労動階級이 분열을 막고 福祉国家를 建設하는 것이 우리의 民族主義를 発展시킬 수 있는 그런 原動力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이 두서없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 金容九: 지금 世界 各地를 놓고 얘기를 하기 始作하면 오늘 밤새도록 그치지 못할 문제고…… 제가 문제를 잘못 제기한것 같습니다. 제가 문제 제기한 것은 사실은 韓国民族主義的인 民族의 나아갈 方向이 뭐냐 이런 式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인데 제가 불찰이었었읍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討論해 주신 그 内容에 대해서 梁先生님이 좀더 부언 해주시지요.

○ 梁好民: 제게 直接的인 질문이 없어서 어떻게 부언할지 모르겠읍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울한 얘기라고 했읍니다마는 우울해도 그것이 現実이니까 現実을 그대로 分析해 보자 하는 立場에서 発表를 했읍니다. 한데 여기에 좀더 부연을 한다면 많은 분들이 무슨 質問을 하는고 하니 그러면 이 事態가 영원히 갈 것인가 北韓은 変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많이 論議가 됩니다. 가령 金日成이가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말하자면 현재 답답한 정세에서 光明의 줄거리를 찾자 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 質問은 안하셨읍니다마는 各討論会같은데에 가면 그런 질문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아까 말한대로 北韓의 民族政策이라는 것이 그 사람들이 말하는 民族解放政策이지요. 그러니까 国際政治 権力政治面에서는 간단합니다. 美国勢力을 南쪽으로부터 내몰고 이것을 国際的으로 고립화를 시키자는 것 자기들은 中蘇하고 붙어 있으니까요. 이것은 아무때나 필요하면 올 수도 있고요 이를테면 제일 가까운 中共만 해도 지금 大韓民国보다 領土가 99배입니다. 人口는 24배에 이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또 蘇聯의 援助도 받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런 地政学的인 利点에서 어떻게 하든지 南韓에서 美軍이라든가 美国勢力 이런 것을 내몰것 같으면 여기가 国際的으로 아무리 建設이 된다고 해도 고립화가 되는 것이지요. 그럴것 같으면 이것은 힘의 「발런스」가 기울어진다 이렇게 보아서 언제나 金日成이가 말

할적에는 美国勢力과 大韓民国을 단절시키는 것 이것이 철저하고 또 外勢를 規定하는데도 우리나라에 外勢가 있다 한데 北半部에는 外勢가 없다 이거야 똑같은 同盟国인데 美国은 大韓民国의 同盟国이요 中蘇는 저쪽의 同盟国이지요. 北韓의 同盟国인데 中国이나 蘇聯은 우리하고 同盟을 맺고 있지마는 軍隊가 하나도 와 주둔하고 있지않다. 또 우리의 内政을 간섭하지않고 있다. 하니까 이것은 外勢가 아니다. 이랬읍니다. 그러면 外勢는 무엇인가 우리나라에서 이것은 日本軍国主義잔당과 美帝国主義者다 이렇게 딱 規定을 했어요. 이것만 내버리면 그저 다 統一이 될텐데, 이것이 안나가고 統一을 할려고 한다. 이런 戦略的인 것을 말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런 立場에서 모든 理論을 展開하고 있는데 그러면 아까 「샤마니즘」이란 말씀도 나오고 金日成이의 하는 것이 社会科学的인 대상보다도 個人숭배 풍조가 一種의 精神分析的인 대상이다 하는 재미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金日成이가 退進을 한다든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미래에 대한 것인데 이것 참 알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들도 모르고 우리도 모르지요. 이것은 「스탈린」죽은 後에 「모택동」이 죽은 後에 事態라는 것은 누구도 予測을 못했어요. 앞으로도 予測이 안됩니다. 中共의 「모택동」에게 왜 이렇게 「등소평」이가 가시고, 「모택동」숭배를 깎아 내리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이 잘못해서 「등소평」이가 밀려나면 또 달라질수도 있고

그래서 그안에 權力関係闘争 이런것은 잘 알수가 없읍니다마는 대체 金日成이가 退進하는 것 혹은 죽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는 것만은 말씀드리겠는데 金日成이가 退進하는 경우가 둘이 있겠읍니다.

하나는 밀려나가는 것 党内에서 밀려나갈적이지요. 하나는 모두 절대적 權威를 쥐고 있다가 자연적으로 病死를 한다든가 하는 상태 이 두개인데 밀려나가는 것이 지금 可能性이 없읍니다마는 만일 그것이 있다고 가정하면 金日成個人崇拜는 全的으로 없어진다고 봅니다.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理論이 구성되겠읍니다.

왜그런고 하니 金日成을 밀어낸 사람들이 그 후광밑에서는 절대로 할 수 없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새로운 「맑스레닌이즘」을 새로운 角度에서 해석하며 南쪽하고 같아지는 것은 절대아닙니다. 보다 더 보편적인 입장에서 理論体系를 세워나갈 것인데 이 可能性이라는 것은 잘 모르겠읍니다만 대단히 희박한 것으로 봅니다. 벌써 이것이 안에 党内派를 全部 때려부시고서 소위 그 사람이 말한 党의 統一이지요. 党의 統一을 한지가 20年이 넘고 이것이 지금 자기아들 한테까지로 후계를 할려고 하는 現状이 있어서 아마 오늘 누가 어느 勢力을 밀어낼 수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밀어낼 수 있는 사람은 다 없어졌어요. 벌써 南労党 朴憲永이 누구 다 없어졌고 전부다 자기밑에서 키운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렵습니다.

国際的으로 볼것 같으면 金日成의 個人崇拜를 中共도 별로 요즘 찬성 안할 것입니다. 蘇聯은 「후루시쵸프」때부터 이것을 싫어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거기에 많은 마찰이 있었고 한때는 金日成이 자신의 말을 들으면 内外修正主義者 蘇聯修正主義者고 国内修正主義者가 合作을 해가지고 政府와 党을 뒤집어 엎을려 했다 하는 말은 여러곳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뒤집어 엎을려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하나 이것이 実現이 못 됐는데 最近이 共産主義世界도 事態가 달라져서 蘇聯이나 中共도 자기에 가까워지면 中蘇分争때문에 자기에 가꺼워지면 「이데오로기」를 그렇게 전둘지않아요. 자기에게 反対할적에는 아무리 충실한 共産主義者라도 공격을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그러니까 과거에 「티토」하고 中共의 関係를 볼 것같으면 「티토」가 말하자면 修正主義者의 代表人物로서 늘 표적에 올라서 蘇聯의 修正主義을 공격할적에는 항상 「티토」를 늘어놨는데 이제는 갑자기 가까워져서 「티토」와 同志가 되었다말이에요. 옛날에는 반역자였는데 修正主義者 매국노 「파시스트」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화국봉」이 가까이 하는데 演説을 보면 전부 동지로 되어 있어요. 또 金日成이도 마찬가지입니다. 50年代 「티토」에 대해서는 완전히 반역자라고 金日成의 演説해 나왔읍니다. 그런데 最近에 와서는 「티토」同志 이렇게 되어 있어서 必要上 붙었다 떨어졌다 해서요. 国

際的으로 자기에 有利한 자기党 路線과 자기 權力을 유지하는데 일을 할적에는 별로 개의치않아서 金日成이가 「모스크바」를 正面으로 反対한다든가 혹은 中共을 正面으로 反対하지않는 한 이 두나라가 理念路線이 다르다고 해서 그를 밀어내지는 않는다고 보고 또 큰나라가 조그만 것을 밀어낸다는 것은 世界的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잘 안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金日成政權은 계승이 된다. 불의의 事態가 일어날 것은 제가 여기에서 予言할 수가 없고 모르는데 죽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인데 그것은 저는 막연한 것이지만 서서이 変하지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첫째로 당분간 金日成이가 죽어도 지금 金日成이는 北韓에 있어서 「레닌」과 「스타린」의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어요. 이것이 창건자인 동시에 또 建設者란 말이에요. 해 놔서 이 權威를 다 밀어치고는 北韓이 갈곳이 너무 없을 것입니다.

美国이 「와싱턴」과 「링컨」을 다 몰아내고는 어떻게 실 땅이 없듯이…… 그러니까 金日成이가 自然死를 하는 경우에 그 後継者들은 상당히 党内 權力闘争을 하면서 당분간 그 權威를 유지한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서서이 金日成이의 個人崇拝 그 후광을 깎아버린다 이렇게 보고 個人崇拝 후광이 깎여 버릴것 같으면 그 政策도 変할 수가 있다. 特히 対南政策도 変한다고 宣言은 절대 안합니다. 宣言은 안하고 새로운 해석을 붙이면서 서서히 変해나가지 않느냐 하는 것이 하나의 낙

관적인 展望인데 여기에 대해서 비관적인 展望도 成立됩니다. 왜그런고하니 北韓의 늙은 世代는 그래도 또 바깥 世上을 좀 아는 사람이 있는데 이 새 世代는 거의가 안에서 갇혀있는 사람이에요. 東欧羅巴 留学生까지도 극히 自然科学徒 以外에는 制限을 해놨어요. 이것은 더 戰鬪的이 될 수 있지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하나 大勢로 보아서도 蘇聯이 달라지고 東欧羅巴도 조금씩 変하고 中共도 変하니까 北韓만이라고 유독 절대 불변의 世上은 유지가 되지않고 또 그 後継者가 밤낮 金日成이만 내세워가지고는 자기의 빛이 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主張도 해야 되니까요. 그런 과정에서 조금씩 変化시키면은 南北韓関係가 이것이 改善될 可能性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겠읍니다.

그러나 이것도 별로 낙관적인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서서이 変해도 南쪽하고 「이데오로기」가 꼭 같아지지 않습니다. 体制가 달라서요. 똑같아지지않고 어디까지나 계속하고 体制를 유지하면서 나갈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것도 있읍니다마는 共産主義社会도 変하는데 특히 요즘 유럽 「코뮤니즘」이라는 것 欧羅巴에서 일어나고 있는 「스페인」 「이달리아」를 中心으로 해서 日本共産党까지 가담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제 論文에 잠간 指摘을 했읍니다만 과거의 「레닌」主義하고 많이 다릅니다. 첫째 「푸로레타리아」独裁를 포기합니다.

그 다음에 政治·文化 이런데에서 상당히 党하고 関係없는

自由 이것을 옹호한다. 宗教의 自由까지 옹호하고 또 政権을 共産党이 잡았더라도 選挙의 통해서 民心이 이것을 反対하면 놓겠다. 또 民主体制를 政党 이것은 1党独裁가 아니라 複数政党制度를 유지하겠다 하는데 이것은 執権한 共産党의 主張은 아닙니다. 執権하지못한 사람의 共産党의 主張인데 이것이 그렇게 実現이 될지 안될지는 누구도 몰라요. 하나 그런 일말의 主張이 나오고 最近에 와서 한 서너달 前에는 「스페인」共産党 「카릴라」라 하는 사람이 그 共産主義理念에서 共産主義하면 「레닌」主義인데 여기서 「레닌」主義를 포기를 했읍니다. 이것은 一大 変化입니다. 포기를 하고 「막스」主義로만 되돌아 갔읍니다. 그런데 「막스」主義는 여러가지로 自由的인 面으로 해석할 여지가 많읍니다. 그래서 공산당 간판을 붙인 나라도 「스타린」같으면 전부 사형감인데 이런 変化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은 상당히 전체적으로 무슨 변동도 있을 것 같다는데 이 西欧羅巴하고 달라서 北韓에서는 여기까지는 도저히 가지는 못할 것이다. 또 그것을 했다가는 「체코슬로바키아」事態가 난다. 「체코」사태라는 것이 68年에 「두브체크」가 政権을 잡았읍니다. 「노버튼」이 들어가 가지고 하나 채택한 것이 소위 行動綱領인데 이 行動綱領이 상당히 깁니다. 장문인데 이것을 본다고 할것 같으면 西欧羅巴社会主義者하고 거의 다를것이 없어요. 이것이 言論自由 일체 다 이것을 옹호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푸로레타리아」独裁도 필요가 없다는 것이

에요. 이제 社会主義制度 다 이러 할 必要도 없다. 一党独裁에서 이런 것을 主張하고 심지어는 民主社会主義라고 까지 用語도 나옵니다. 그리고 다 정해진 말이지만 警察官 検閲官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満場一致로 検閲制度를 폐지하는 결의를 했읍니다. 共産党国家에서는 좀 있기 어려운데 이것이 크게 위험해요. 蘇聯으로서 이것은 伝統的인 「레닌」主義하고 다르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蘇聯이 먼저 앞장 설 수 없으니까 5個国 軍隊를 밀어제키고서 여기에다가 다시 1党独裁를 確立했읍니다. 이것이 소위 制限主權論이라는 그런 口実을 들고서 밀어제꼈는데 北韓이 萬一 크게 変化했다가는 制限主權論을 들고 社会主義 배신자라고 하는 낙인을 찍으면서 뒤에는 큰나라들이 이것을 살리려고 하는 것은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 「막스레닌」主義 正統을 지킨다는 것은 蘇聯에서 제일 민감하지요. 민감해서 해석은 저희 멋대로 합니다마는 1党支配 말하자면 「푸로레타리아」独裁라고 하는 그것은 철저하게 아직도 옹호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変化할 수가 対内的 안의 条件도 없고 밖의 条件도 없읍니다.

그런 南北間의 対話라든가 이것은 좀 推進이 되지않겠느냐 하는 展望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通해서 자꾸 異質化 문제가 나옵니다마는 우리는 저쪽이 異質化라고, 저쪽에서 볼적에는 우리가 異質化입니다.

萬若에 모든 客觀的 眞理에서 어긋나가지고 자꾸 낡은 것을 고수한다든가 意識을 바꾸지 못하고 있다. 또 言語같은 것은 우리가 以北이 달라졌다고 하지만 저쪽에서는 南朝鮮에 있어서 全部 뭣고하니 英語만 쓰고 앉았다 이거에요. 日本말 用語가 전부 혼돈되어서 우리 朝鮮말이 아주 억망진창이 되었다. 南쪽에서… 이렇게 主張을 합니다. 그러나 저쪽에서 異質化를 내세우는데 그래서 쌍방이 서로 역설 암만해 봐야 끝이 안나는 것이고 해서 서로 접촉을 하면서 言語문제 같은것도 순화를 하면서 점진적으로 나갈수밖에 딴 道理가 없다. 武力의 行事를 쌍방이 안한다 하면 그렇게 밖에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왜 統一하느냐 하는 문제는 아까도 여러번 말씀을 했는데 젊은 世代가 우리나라에서 統一 안하자는 것이 아니지요. 다 統一에 대해서 의심을 품는 層입니다마는 상당한 層은 制度니 뭐니 초월해서 우리 民族의 「이데오로기」가 뭐 있느냐 우선 統一하고 보자 先統一하고서 그 다음에 制度를 고려하자는 이런 젊은 청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一括的으로 젊은 世代는 統一을 願하지 않고 나이 많은 사람만 원한다 이것은 아닙니다. 한데 왜 統一하느냐 하면 우선 당장 우리 「에네르기」의 8, 90 %는 서로 대결하는데 써 먹고 있어요. 전부가 말이지요. 야간통행금지 저쪽은 저쪽대로 이쪽은 이쪽대로 하니 이런 정력낭비가 어데 있겠느냐 이것을 福祉문제로 돌린다 할것 같으면 기가막히게

좋은 世上이 빨리 建設될 것이다. 南北을 통해서 이렇게도 생각되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 單一民族国家를 構成해서 国際的으로 위신이 높아진다. 많은 것이 있는데 이것이 다 合理的인 것이지요. 計算을 해서 하는데 이것보다도 重要한 것은 뭔고 하니 정서적인 面이라고 봅니다. 정감적인 面이 民族主義에 상당히 정감적인 面이 있는데 民族문제에 피가 피를 부르는데 이것을 합치고 싶다 하는 의욕이 있고 쌍방이 있겠지요. 피가 피를 부른다 말이에요 이것은 理論 以前이란 말이에요. 친척이 거기에 살고 이것이 100 年 우리 땅이고… 저기 사람이 다 外国에서 만나면 同胞같고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하느냐 정감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民族문제에 있어서 같은 말을 해 습성도 다 비슷해 民族이 異質化되었다고 그러지만 아직도 同質的인 것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言語, 風俗, 住宅 그런데 이것이 대단히 重要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왜 統一하느냐 하는 것은 合理的으로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民族 하나의 共同体로서 有利한 것도 있지마는 떨어진 愛人이 서로 合하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 말이에요. 執権層은 別문제로 하더라도 一般国民이…… 그래서 이것이 퍽 重要하다…… 그런데 마침 제 딸아이가 있는데 요즘 結婚했어요. 한데 学生때 봤는데 「라디오」로 한참 以北에 뭘 선전 명승고적 이걸 소개하고 하는데 얼굴이 확달아가지고 얼굴이 상기

가 돼요. 대단히 홍분하는데 統一해야겠다 이것이지요.

그것을 볼적에 民族의 정감이라는 것이 이런데에 있구나 이것은 아무리 理論的으로 여러분 말하는 사람도 그것이 안됩니다. 그것을 理論化할 따름이지…… 그래서 이런것은 말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이 일이년 기백년 統一国家도 아니고 말이지요. 3国時代 以後만해도 千年이 넘는데…… 그래서 本能的인 結合의 욕망이라는 것 이것이 대단히 重要합니다. 이것은 저는 以北에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데오로기」가 이쪽하고 다르지 以北에도 있다고 봐서 이런 문제도 상당히 重視해야 한다. 그래서 아까 제가 午前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親旧가 왜 統一을 해야 합니까 分断되어서 平和的으로라도 살아나가면 좋지않느냐 하니까 어떤 言論人이 統一해야 하는 문제를 묻기前에 왜 漢江이 흐르느냐 왜 해는 東쪽에서 뜨느냐 하는 문제를 묻는 것이나 그것은 마찬가지다 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하는 것인데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指摘을 하면서 말씀 끝내겠읍니다.

○ 金容九 : 지금 梁先生님 말씀中에 以北에도 그런 정감이 있다 있을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아마 있다면은 最大의 目標는 그 정감을 빨리 活性化시키는 것이 任務가 아닐까 생각이 납니다. 時間이 거의 없읍니다마는 다시 本論으로 들어가서 具常先生님이 옆에 계시니까 조금 여쭈어 보고싶은 생각

이 납니다.

왜냐하면 저는 芸能系統, 文学系統은 잘 모르기때문에 지금 現在 以北에서 3代革命 붉은 旗쟁탈운동입니까? 始作이 되고 해서 문학사상 기술에서 지금 젊은 大学生들이 앞장 서가지고 各工場에 굉장히 침투하고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 그들의 생각하는 어떤 民族像을 樹立하는데 있어서 文学作品이 상당히 큰 位置를 찾이할 것 같아요. 따라서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文学作品이 어떤지 모르겠읍니다만 문학이나 신화등에 있어서 民族이라고 하는 표상을 어떻게 테마를 잡고 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잠간 좀 時間이 많지않습니다마는 한 이 삼分内로 핵심만 좀 말씀해 주십시요.

○ 具 常: 아까도 잠간 例를 들었읍니다마는 그들의 民族이라는 어떤 「테마」밑에 표상이라는 것은 역시 金日成의 主体思想을 그대로 구상화 한다는 소위 社会主義 「리얼리즘」이라는 自体가 金日成의 主体思想과 아까 유일思想이라고도 그러고 또 나아가서는 그가 가지는 戰略 戰術理論을 말하자면 構想化한다는 그러니까 文学이나 芸術은 政致理念에 종속되어야 하는 것으로 아주 판에 박혀 있기때문에 그것을 표상화 했을 뿐이지 그 以上의 다른 것은 말하자면 人間이 가지는 정감을 나타낼래야 나타낼 수가 없읍니다.

제가 간단한 얘기를 하나 드리면 여러분들도 다 기억하시는

「임하라는 사람이 있읍니다. 임하라는 우리 소위 교향시인중에 해방전에 가장 제일 효장이었었고 이원조, 박해림과 더불어서 소위 政治的인 희생이 된 그 詩人이 結局 그대로 政治的인 理由에서 6.25 동란때 말입니다. 6.25 動乱中에 그 사람이 어떤 事情이 있었는고 하니 戰線에 나가 있는 아들에게 대한 父母의 연민지정이라든가 이런것을 구상화해가지고 그리고 너는 戰線에서 얼마나 고투를 하고 있느냐 또 추운 겨울에 너희는 얼마나 잘 견디느냐 아버지는 잠못이룰 정도로 너를 그리워하고 있다 또 후방에 있는 어떤 母情에 대한 것도 역시 그렸읍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되었는고 하니 戰線에 있는 아들이 어떤 父情이나 母情을 읽었을때에 戰線에 있는 아들은 어떤 소위 염전의식 어떤 패배의식에 잠겨들기때문에 社会主義 「리얼리즘」에 배반되는 하나의 自然主義的 「리얼리즘」에 属한다고 해가지고서 이것이 아주 공격의 대상이 됐었읍니다. 말하자면 임하가 단지 그러면 父情이나 母情만 그렸는고 하니 그러면서도 이것을 참고 견디어 이겨서 우리의 党을 위해서 우리의 共産主義를 위해서 너는 끝까지 충성하는 軍人이 되어라 또 美帝를 격멸하기 위해서 너는 끝까지 승리하고 돌아오라는 것이 물론 붙어 있읍니다마는 단지 父情이나 母情을 그렸다는 그것 하나만으로서 저들의 어떤 문학에 배덕으로 배역으로 반역으로서 이것이 낙인이 찍혀가지고 이것만이 그 사람이 꼭 희생된 理由는 아니었읍니다마는 이 사람이 政

治的 理由로서 박해받을 때 찬동한 모든 문사들이 그 임하의 詩를 긍정적으로 임했다는 具体的인 표상에 있어서 잘 되었다고 이렇게 했다는 동조했다는 이것에 있어서 모두 말하자면 그와 더불어서 사형도 됐고 추방도 된 이러한 事実을 우리가 상기할때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그들이 오늘날 내세우는 民族的인 情感 이 自体가 모든 一般的인 어떤 民衆이나 청소년들에게 표제화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를 지금 주지않고 있다고 제가 昨今에 文学을 北韓의 文学을 섭리해 본 그것으로서는 그런 結論을 가지고 있읍니다.

以上입니다.

○ 金容九: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梁先生님 말씀하신 것하고 討論의 내용이 소위 北韓에 있어서의 民族概念이라든가 그 問題에 대한 実践은 階級問題로 帰着이 되고 또 그 階級問題라고 하는 것은 金日成의 解放戦略이라고 할까 또는 金日成 唯一思想하고 不可分의 関係에 있다. 그런 結論인데 그것도 文学에서 나타난다 하는 말씀입니다.

時間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짤막하게만 두 분 先生님께 여쭈어 보겠읍니다.

제가 午前時間에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읍니다. 北韓의 民族理念 내지는 概念이라고 하는 것은 外交政策으로 쓸 때하고 対内的인 用으로 쓸 때하고 다르다. 対外的으로

쓸 때는 우리가 쓰는 것같이 全民族的이고 超階級的인 의미로 쓰고 또 그들이 말하는 科学的인 概念에서는 좀 다르지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잠깐 드렸읍니다. 그 問題에 대해서 南時旭 先生님 잠깐 時間이 얼마 남지않아서……

○ 南時旭 : 역시 아까 梁先生님이 指摘하셨읍니다마는 対内的으로 쓰는 民族얘기하고 対外的으로 쓰는 民族얘기하고가 역시 안으로는 共産党의 支配를 한층 더 강화를 한다. 그리고 밖으로는 北傀가 追求하고 있는 것을 世界的으로 支持를 받기위해서 여러가지 民族的인 概念 특히 우리하고 달리 第3世界 「아프리카」라든가 「라틴 아메리카」 이런데에 있어서는 過去에 西欧列強들의 帝国主義的인 이런 経済的인 搾取 이런 것때문에 아직도 그것을 극복을 못하고 있는 状態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呼訴함으로서 北傀가 大韓民国을 제쳐놓고 国際社会에서 支持를 받기위해서 결국은 南朝鮮은 美国의 植民地에 불과하다. 이런 「이미지」를 점점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両面作戦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金容九 : 金哲洙 先生님, 그 問題에 대해서……

○ 金哲洙 : 그 問題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읍니다만 대개 金日成이가 対内的으로 民族問題를 들고 일어나는 것은 南朝鮮에 있는 同胞들─民族을 解放하기 위해서 北韓人民이 고생을

해야된다. 이렇게 함으로서 독재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쓰고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만 이것이 金日成이가 落後되었다는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읍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하면 東独의 경우에 있어서도 처음에는 西独을 解放시키겠다. 그렇게 해서 西独을 어디까지나 社会主義国家로 만들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읍니다.

그런데 経済的인 発展速度를 보니까 西独이 훨씬 더 発展이 빠르고 東独이 늦었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統合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資本主義下에서의 統合은 可能하지만 社会主義下에서의 統合은 不可能할 것이다」

이렇게 봤기때문에 그러한 政策을 포기하고 東西独 基本条約을 締結하고 난뒤에 1974年에 憲法을 다시 뜯어 고쳐서 거기에서는 이 統一条項을 없애버렸읍니다. 그래서 社会主義 民族으로서의 東独은 그대로 영구히 살아 남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金日成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南北間의 経済的 競争이라든가 또는 生存福祉에 있어서의 競争에 있어서 北韓이 大韓民国에 뒤지는 것이 명백하게 될 때 態度를 바꾸게 될 것입니다. 또 北韓의 体制가 現在 지독한 閉鎖社会인데 이 閉鎖社会가 좀더 開放되어 가지고 北韓에 있는 사람들이 大韓民国의 国民이 北韓住民보다도 훨씬 더 잘 살고있다 이러한 것을 認識하게 되면 그 다음에

는 解放이라는 그러한 헛된 口号가 北韓住民에게 먹혀들어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 民族問題라는 것을 숨겨버리고, 民族問題를 주장하지 않을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러한 면에서 볼때 民族問題라는 것은 対内的으로 国民들을 団結시키고 北韓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고생을 甘受하게 하기위한 하나의 感情的인 呼訴力있는 선동선전구호이다.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확실한 것은 잘 모르지만 北韓에 있는 사람들은 金日成이를 神格化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읍니다. 우리들이 日帝時代에 살았을때에 国民学校에서 天皇陛下라는 것은 「人間이 아니고 神이다」 이렇게 배웠을 때 우리들은 사실 그런줄로만 알았읍니다.

그 理由는 그러한 것 밖에 못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북에 있는 青少年들은 그러한 虛像속에 살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北韓社会에 開放性을 주지않는 한에 있어서는 金日成 崇拜思想이라는 것은 빨리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우리가 보다 더 北韓社会를 開放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의 問題는, 제가 이것은 過去에도 좀 주장을 했읍니다만, 우리가 南北対話의 경우에 있어서 지나치게 公開的으로 할 필요가 없지않느냐 물론 国民主権主義的인 입장에서 国民들에게 公開를 해가지고 알리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러

한 南北対話라든가 協商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公開해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지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西独의 경우에 있어서도 東西独間에 있어서의 対話가 상당히 오래 계속이 되어가지고 그것이 4, 5 年이라든가 6 年以上의 期間동안 秘密裡에 接触해가지고 基本条約이 체결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7·4 南北共同声明같은 것도 우리가 公開的으로 했다고 한다면 잘 안됐을 것이 아니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면에서 좀더 非公開的인 方法을 채택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아까도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至上課題가 統一이라고 한다면 統一을 위한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여러가지의 行政政策이 調整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이러한 생각도 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過去에 제가 統一院이 생길때 어떤 新聞에 쓴 것입니다마는 정말 統一을 하려고 한다면 統一院을 一般 行政部署와 위에있는 예를 들어서 経済企劃院과 같은 「랭킹」을 주어가지고 거기서 国内 政治와 外交政治의 方向을 統一政策에 「링크」시키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이러한 얘기를 한것이 記憶이 납니다. 南先生님이 말씀하셨고 또 梁好民 先生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만 統一主体勢力의 형성에 있어서 中産層의 형성이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民族的인 民主理念을 北韓에도 알리기 위해서 우리의 民主主義的인 力量을 보다 더 키우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이러한 생각도 가지게 되겠

읍니다.

다음에 対外的인 問題에 있어서 金日成이가 民族主義를 주장함으로서 第3世界에 있어서의 소위 中立勢力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民族을 내세우고 있다고 보는 점에서는 서로 共感입니다. 감사합니다.

○ 金容九: 問題가 너무 심각한 問題가 되어서 이 壇上에 있는 저희들끼리만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時間가는 줄 몰랐읍니다. 혹시 들으시는 여러 先生님들께서 質問이 있으시면 서슴치말고 말씀해 주십시오.

○ 質問 1: 제가 한 말씀 이 자리에서 하고싶은 것은 무슨 質問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아까 梁先生님이 말씀하신 가운데에서 統一은 왜 해야 되느냐? 안해도 좋지않느냐 하는 어떤 青年의 얘기가 있었다고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統一을 熱望하는 생각에서 어떻든 統一을 해놓고 봐야 될 것이 아니냐 先統一 소위 먼저 統一하자하는 얘기 그런 무엇이 많이 있었다. 그런 소리도 들린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읍니다. 4.19 以後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統一을 외치는 가운데에서 中立主義를 主唱하는 소리가 들렸읍니다.

그래서 학생 그들이 우리 젊은 사람들 끼리 얘기해보자. 板門店에 나가서 北傀青年들 하고 같이 마주 앉아서 統一의 問題를 한번 얘기 해보자 하는 이런 얘기들도 한때 新聞에도

나고 그랬읍니다. 그런데 統一이라는 것은 主義, 思想, 社会制度 그것을 떠나서 우리는 統一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없읍니다. 先統一을 하자 먼저 統一을 하자 어떤 方式이라는 것을 제외해놓고서 그것을 不視하고서 統一을 하자 그것은 不可能한 일입니다. 될 수 없는 일입니다. 中立主義라 하면 무엇을 말하느냐 共産主義 절반에 民主主義 절반으로 합하자는 것이냐 이렇게 쉽게 말하자면 先統一이라는 말도 나올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 됩니다.

그러나 先統一이라는 것이 無原則하게 統一되자는 것은 얘기가 안되고 극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하지않을 수 없읍니다. 中立主義라고 할 것같으면 그 代表的인 것이 지금의 瑞西를 말할 수 있읍니다. 瑞西가 中立主義를 지킨다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할것같으면 자기가 民主主義国家를 確立하고서 対外関係에 있어서 어느쪽에든지 치우치지 않는다 하는 점에서 中立主義를 지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点에 그 사람들은 中立主義를 지킨다 하는데서 武力은 상당히 강화하고 있읍니다. 「瑞西」의 국방력이라는 것은 조그마한 나라에 의해서 蘇聯이라든지 그런데 대해서 比較가 안되겠읍니다마는 그것이 강력한 国防力을 배양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국민개병주의는 完全히 지금도 실시되고 있고 各家庭이 곧 武器庫가 되어 있읍니다. 국민개병주의인 동시에 총자루를 다 자기집에다 두고 있을만큼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것은 或은 中立主義다. 너도 나도 統一하자 하는 이런 式이라는 것은 바램이라는 것은 혹은 젊은 사람들도 혹은 늙은 사람들도 그런 애기를 統一을 열망하는데에서 얘기할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것은 무원칙한 統一을 원한다는 것은 극히 위험하다는 것을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애기가 아니냐 하는 것을 제가 잠간 添加해 두고 싶어서 이자리에서 얘기하는 바입니다.

○ 金容九 : 홍선생님 감사합니다.

統一, 統一해서 無原則한 統一을 마구 얘기하면 안되지않느냐 어떤 원칙하에서 統一문제를 얘기해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그 말씀이었읍니다.

時間이 거의 다 되었읍니다마는 한분만 말씀해 주세요.

○ 質問 2 : 제가 잠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지금 다 앉아서 우리 다같이 討論하고 좋은 硏究도 많이 하셨는데 단 하나 이제 먼저 말씀하신 분도 계셨읍니다. 우리가 統一해서 뭐하느냐 民族 너무 가려서 뭘하느냐 이와같은 말이 생길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그러면 지금 国權을 光復했다. 즉 말하자면 해방되었다는 말 나는 그것 좀 덜쓰기 위해서 光復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30餘年동안에 우리는 憲法에 民主主義国家로 되기는 되어 있지마는 国家觀은 제대로 設定되어 있지않다 하는 証明입니다.

지금 모두가 統一은 해서 뭘하느냐 民族이라는 것도 해서 뭘하느냐 이와같은 말이 南韓에서 대두되어서 나올때에 여기서 한가지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30餘年이 될때까지 우리가 国家観 民族主義勢力 별별 愛国한다는 말도 많이 떠돌아 다녔는데 또 教育도 시키는 것이 별의별 教育이 구호로는 다 나왔는데 어떻게 되어서 지금 이와같은 말이 나오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그 根本 원인을 우리가 좀 새겨볼 필요가 있지않느냐 하는 것이 제 所信입니다.

뭐냐할것 같으면 그러면 国家観이 제대로 成立되어 있지 못한 가운데 30 餘年동안 指導者나 教育이나 뭐하는 것은 뭘하고 있었느냐 나는 이것이 모순点이 없느냐 여기에 한번 再検討를 하고 넘어가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하고 오늘 보면은 과거에 統一院에서 하는 얘기 이런 모임중에서 들은 것이 美軍이 철수한다고 할적에 굉장하게 흥분해서 美国놈 그러면 여기 主題発表하신분들 美国놈 나쁘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 것을……

다 얘기가 나왔는데 그 때는 쫓기는 바람에서 이것만 자꾸 했지 対策은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해서 제가 그 때에 質問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만일에 그렇게하고 쫓기는 그 心理에서 결국은 6.25를 想像을 하면서 그것보다 더 심하다하는 것이 나오는 거기에 対備策이 안 나오니 個人의 対備策이라든지 行政적으로라든지 무슨 国家에서 実質的으로 시원

하게 나와야 되겠는데 이 놈이 안 나오니 이것 어떻게 된 것이냐? 이렇게 質問을 하는 同時에 내가 그랬어요.

만일에 이렇게 危險性만 갖지 말고 우리가 6.25 事変을 당했다 하는 그런 時点에서 美軍이 가면 또 하나는 6.25 보다 더 險難한 位置에 있다. 우리는 지금 쫓기는 판국에 있다하는 이 心情으로 돌아가서 全体国民이 달겨들어서 美国사람들 못가게 할 수 있는 方法도 外交政策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外交政策이 뭐하고있는 것이기 때문에 外交政策은 여기에 不足한 点이 많이 있었는데 요란스러운 「스타일」의 外交만 했지 以北에서는 우격다짐의 外交라고 한 것이 新聞紙上에도 다 났는데 이런 「스타일」만 부려가지고 우리가 어떻게하겠느냐 해서 그런 이야기도 좀 했어요. 했는데 오늘에 와서는 安逸한 状態에서 時日을 길게 잡고 南北統一은 어떻게 되겠느냐고 그러니 安逸한 状態를 豫想하면서 우리는 늘 생각을 하니까 이것이 問題点이 거기에 揭載되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보는데 지금 安逸한 状態 지금에 본다고하면 金日成이는 이렇게 解釈하고 여기는 이렇게 解釈한다. 우리는 자꾸 解釈에 그치지 말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対備策이 어떻게 어떻게해서 뚜렷히 나와야 되겠는데 이것은 앞으로 南北統一을 해서 뭐하느냐 하는 사람에 대한 것, 젊은 사람들이 한것이 우리가 指導者層에서 責任져야 될만한 問題입니다.

30 餘年동안 国家観을 제대로 못 가르쳐준 것 이것은 責任

져야 되겠는데 여기에 대한 것, 그런 사람들만 나무랄 것이 아니라 우리가 自覚하고 反省하고 対備策을 세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이것을 좀 말씀해 주시면 感謝하겠읍니다.

○ 質問3 : 제가 아침에 発言을 했기때문에 그 問題가 너무 많이 提起되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약간 解明 비슷하게 한 말씀하고 들어가야 되겠읍니다.

○ 金容九 : 지금 5時가 넘었는데……

○ 質問3 : 아니 왜냐하면 너무 많이 운운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意図하고 제가 個人的인 意見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에게 대해서……

核心만 하겠읍니다. 午前에 별로 탐탁컵지 못한 그러한 저의 質問에 대해서 많은 碩学되시는 教授님들과 그리고 여기 많이 専門的인 知識을 갖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대해서 젊은 사람들이 統一을 願하지 않고 있고 現状維持만을 固定시키는 것을 갖다가 願하지않는가하는 憂慮를 어른들에게 입힌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 問題를 잠시 解明하겠읍니다. 제가 이 質問을 할 때에는 사실은 어떠한 統一의 必要性이라고할까 그런 것을 否定하고자 해서 이 問題를 提起했던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그런고하니 지금 여러가지 우리나라의 現趨勢라든가 社会的인 여러가지 問

題를 볼 때에 이러한 問題를 갖다가 우리가 한번 이러한 反省을 한번쯤은 해 볼 必要가 있지 않은가 그래가지고 우리 統一方案이라고할까 우리의 갈 길을 갖다가 우리 政策을 樹立하는데 있어서 한번 좋은 方向으로 모색할 수 있지 않은가 이러한 意味에서 제가 이러한 質問을 짖궂게 물어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金哲洙教授님께서 아까 討論하는 가운데에 南北対話가 公開的일 必要가 없고 非公開性이 必要하지 않은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읍니다. 그런데 저희는 젊은 사람이라기 보다는 個人的인 意見으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대단히 무서운 생각이고 절대 避해야 될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왜그런고 하니 지금 現在 우리는 民主主義社会에서 살고 있읍니다.

이 民主社会에서 그것이 非公開的으로 만약에 된다고 할것 같으면 이것은 무서운 事態가 올 것이라고 確信합니다.

왜그런고 하니 지금 우리는 옛날의 王權時代에 있어서의 新羅라든가 高麗라든가 百済라든가 있어가지고 그 때에 統合이라든가 그런 式으로 現在에서 사는 그러한 時代에 살고 있지를 절대 않읍니다. 지금 時代는 너무나 変했고 그리고 또한 民主主義的인 社会에 우리가 살고 있으며 이것을 追求하고 있다는 事実을 우리는 分明히 認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南北統一問題라 하는 것은 公開的으로 討論되어야 되고 이것이 時期的으로 너무 조급하게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좀 長期的

인 眼目에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것이지 만약에 統一을 우리가 너무 급작스럽게 民族이라는 概念이라든가 이런 것만을 가지고 너무 생각한 나머지 戰争을 불러일으킨다 할 것 같으면 그 犠牲을 누가 責任진다할 것입니까? 저는 이것이 굉장히 憂慮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러한 質問을 해 보고 지금 이와 같은 解明을 하게 되었읍니다.

○ 金容九: 感謝합니다. 時間이 뭐 7, 8分 늦었는데 具常先生님 하실 것이 있으십니까?

○ 具 常: 지금 質問하신 두 先生님을 제가 잘 親面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제가 対答을 들이는 것이 나을까해서 그런데 한 분은 우리 言論界의 元老이신 홍종인先生님 한 분은 国旗宣揚会長이신 김일수先生님 이 두 분을 제가 親面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아까 제가 北韓의 저러한 民族理念의 実際問題이니까 金日成이의 소위 쉽게 말하면 一人 支配를 南韓에 가지 뻐치기 위한 그러한 것이 그들이 가지는 소위 民族이요 民族政策이다. 이렇게 우리가 規定 지을 때 우리 南韓에서는 우리가 어떤 民族主義라는 하나의 概念을 자꾸 固執하지 않고 거기에 붙들리지 말고 民族理念이나 그런 静態的으로 우리가 捕捉하지 말고 우리는 역시 民族理念이라는 것은 動態的인 것이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결코 막연한 言語라든가 血統이라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文化, 過去

全盛文化에서 오는 소위 同質性이라든가 同一性만을 너무 거기에 빨려가지고 感傷主義的인 어떤 말하자면 民族이라든가 統一이라는 것에 빨려서는 안된다. 또 한가지 우리는 어떤 民族의 悲願이라든가 民族의 至上 課題라든가 이런 것을 내세우는데 여기 中和論者라든가 그것에 어떤 中和論이라고 제가 具体的으로 말씀은 안드렸읍니다마는 소위 聯立政權形態같은 것을 생각하는 모양이지만 政權形態의 애매모호한 統一論같은 것은 段階的 戰略的으로서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우리는 좀 더 統一에 대한 具体的인 어떤 形態가 政治形態 나아가서는 社会形態같은 것이 具体的으로 결국 우리가 分析 檢討되어 가지고 또 理論이확립되어가지고 그런 것은 排擊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 나중에 우리는 역시 根源的으로 3.1 運動이 指向한 소위 政治的 自由民主主義를 根拠로 한 民族主義 그 다음에 福祉国家 形成을 위한 「내쇼날리즘」에 根拠를 둔 統一을 갖다가 条件으로 해서 이것을 뚜렷이 내걸고서 외골수 그것만을 推進해 가야 한다고 저는 아까 결정적으로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아까 그러한 두 先生님의 기우같은 것은 어떤 청년이 제시한것도 그런것에 명백한 우리의 뚜렷한 어떤 信念化안된 오늘의 모호한 어떤 心情的인 統一 心情的인 어떤 民族의 同質性에서 애매 모호화된 어떤 統一의 理念 民族의 理念을 분쇄하자는 意味에서 꼭 마찬가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것은 서로 우리가 기우로서 지금 提起된 문제라고 생각해서 저는 오히려 이제부터 그것이 더 人文이나 社会科学의 碩学들이 좀더 具体的으로 골격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이런 要請을 다시 한번 되풀이 하면서 이런것이 해답이 되었는지 모르지마는 저의 所見을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감사합니다.

○ 金容九 : 時間이 너무 지났읍니다. 金哲洙先生님……

○ 金哲洙 : 한 1分만 이야기하지요. 아까 홍종인先生님께서 말씀하시기를 統一을 위한 統一이라는 것은 위험하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統一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상 統一에는 아주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統一보다는 先平和定着이고 그 다음에 統一이 있어야 되지않느냐 이러한데 対해서는 同感입니다.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 統一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自由民主主義에 根拠해야 한다. 이러한 것도 同感입니다. 물론 自由民主主義를 희생해 가면서 까지 統一할 必要는 없읍니다.

제가 아까 公開的으로 하지말자 이러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協商을 하는데 있어서 公開的으로 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자연히 宣伝的으로 되어버립니다.

北傀에서 金日成이가 자꾸 民族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도 公開的으로 이것을 革命戰略으로 하니까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또 例를 들어서 우리가 以北에 산소가 하나도 없는 것을 알면서도 성묘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一種의 宣伝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宣伝에 그쳐가지고는 統一이라는 것은 안됩니다. 감정만 오히려 유발할 可能性이 있지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하나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우리가 例를 들어서 以北에 있는 사람들에게 食糧을 援助하자고 할때 方法이 문제입니다. 民生苦를 解決하기 위하여 食糧을 援助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 食糧援助를 할때에도 우리 것이라고 強調하지 말고 「마카오」를 통해서나 또는 「홍콩」을 통해서도 보내줄 수 있지않겠느냐 이러한 面에서 이야기한 것이지 우리가 비밀협상을 해가지고 비밀로 決定을 하자 이러한 이야기는 아니지요. 우리나라에서 民主政治라는 것은 당연히 다 아는 것이고 公開政治를 해야된다는 사실도 다 아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느程度 일정한 어떤 계획이 만들어진 다음에 国会에서 이야기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얼마든지 討論할 수 있는 것이고 例를 들어서 南北韓不可侵協定이라는 것이 체결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国会에서 비준동의하거나 통과를 한다든가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統一主体国民会議에서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과정까지 전부 公開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자연히 宣伝戦에 휘말려들 可能性이 있지않느냐 그러한 面에서 이야기를 했읍니다.

제말이 너무 간단해가지고 오해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点 좀 정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 金容九: 長時間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끝으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어느 先生님께서 質問하시는 中에 発表者의 発表가 駐韓美軍에 대해서 욕하는 部分이 있다 그것을 좀 좋지않게 얘기하는 部分이 있다 하는 것은 梁先生님 말씀이 아니고 梁先生님이 金日成의 얘기를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梁先生님이 아니고 저쪽의 金日成입니다. 그러니까 그点은 명백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司 会: 이것으로 오늘 民族理念을 主題로한 上下午에 걸친 討論会를 마치겠읍니다.

来日午前 10 時에 民族의 異質化란 主題로서 続開하겠읍니다.

고맙습니다.

(17時16分 終了)

第 二 日：發表論文 및 討論

特講：

獨逸에서의 分裂國家 成立과 統一의 課題

林　健太郎 (前 東京大 總長)

獨逸에서의 分裂國家의 成立과 統一의 課題

1. 対独戦争中의 独逸分割案

오늘날 世界에서 하나의 民族이 두개의 国家로 分裂된 悲劇을 안고 있는 곳은 東에서는 韓国, 西에서는 独逸이다. 이 두 民族은 뛰어난 文化的 伝統과 国家로서의 오랜 歷史를 지니고 있다는 데서 共通되어 있으나 오늘의 状態를 빚어낸 바로 그전의 状態에 있어서는 크게 다르다. 韓民族은 第二次大戦에 이르기까지 30年間, 日本에 征服되어 그 植民地가 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 戦争에서는 그 被害者이고, 日本의 敗戦에 의한 当然한 権利로서 独立을 얻은 것이다. 그러나 独逸은 이 戦争을 일으킨 張本人이고 加害者로서의 地位에 있었다. 따라서 이 戦争의 結果, 独逸은 한때 民族解体의 危機에까지 빠졌으며, 오늘의 分裂国家의 状態도 나치스独逸이 犯한 좋지못한 행적에 대한 応報라고 看做된다해도 過言이 아닌 면이 있는 것이다.

1943年11月에 행해진 카이로会談에서 日本降伏後에는 自由, 独立이 주어진다고 約束되었으나 그에 이어 열린 테헤란会談에서, 루즈벨트는 独逸(1937年의 国境)을 5個의 自治国 및 2個의 国聯管理地区로 分割한다는 提案을 내놓았다.

이것은 단지 提議로 끝났고 独逸의 将来는 런던에 設置되는 European Advisory Commission에 맡겨지게 되었다.

그後 1945年2月의 얄타会談에 이르기까지 美国国内에서는 財務長官 헨리·모겐소에 의해 将来의 独逸에 関한 메모런덤이 作成되었다. 이것은 独逸에서 一切의 工業을 禁止하고 순전히 農業国으로 전환해 버린다는 案으로, 国家로서도 南北 두개로 分割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美国内에서도 国務長官 헐과 陸軍長官 스팀슨의 反対가 있었다. 그러나 이것이 루즈벨트, 처칠 両巨頭의 意中을 반영했었음은 事実로서 그들이 1944年9月 퀘벡에서 会談했을때, 여기서 그 메모런덤이 提出되어 両者는 이에 賛成하는 署名을 하고 있는 것이다.

얄타에서는 런던의 European Advisory Commission이 作成한 議定書가 採択되었다. 그것은 独逸降伏後 그領土는 美, 英, 蘇, 仏, 4個国軍隊의 管理下에 두는것으로 하고 4国의 占領地域을 規定한 것이다. 이것은 暫定的 軍事的措置로서 将来의 独逸에 대한 政治的 決定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独逸의 分割을 想定한 것임에는 다름바 없었다.

단, 이 얄타会談에서는 美国, 蘇聯과 英国과의 사이에 微妙한 意見의 상치가 나타나 있다. 즉 여기에서는 蘇聯의 몰로토프가 그의 演説가운데서 dismemberment of Germany란 말을 쓰고 있는데 대해 英国의 이든은 故意로 이 말을 피하고 dissolution of the German unitary state란 말을 쓰고 있다.

이것은 独逸을 解体가 아니고 聯邦化하면 된다는 생각을 나타낸 것이라고 解釈된다.

2. 포츠담会談과 冷戦의 시작

1945年5月8日 独逸이 降伏함에 따라 유럽에서의 第二次世界大大戦은 終了했으나 거기서 独逸에 나타난 状況은 近代의 歴史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없는 것이었다. 独逸을 代表하여 降伏文書에 調印한 되니츠提督은 그의 閣僚와 함께 逮捕되었고 聯合国은 独逸에서의 一切의 政治権力의 存在를 否認하였다. 그리하여 暫定的인 軍事機構로 여겨졌던 4個国軍隊에 의한 分割占領이 그대로 統治機構로 되어버렸고 더우기 그것은 向後 独逸의 政治的 形成에 決定的 影響을 미치게 되었다.

그러나 聯合国은 당초 이分割占領을 그대로 政治機構로 転換할 생각은 없었다. 6月5日 美, 英, 蘇, 仏 4個国은 共同宣言을 発表, 4個国軍隊의 代表者로써 構成되는 Control Council을 設置하여 4個国이 共同으로 独逸의 統治를 맡는다는 方針을 세웠다.

그리하여 7月19日 부터 8月2日까지 열린 포츠담会談에서는 対独戦争중 자주 고려되었던 独逸国家分割構想이 물러서고 Control Council 아래 可能한한 統一的으로 独逸을 管理하려 하는 方針이 들어나게 되었다. 이런 変化의 原因으로서는 다음 事情이 생각될 수 있다.

먼저, 蘇聯은 当時 東유럽地域을 自己支配下에 넣고 여기서 다시 西쪽으로 拡大해갈 기미를 보였다. 따라서 独逸의 国土를 分割하여 固定해 버리는데는 좋아하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보다 直接的으로는 蘇聯이 独逸에서 賠償을 받아들이는데 더 많은 熱意를 가지고 있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独逸最大의 工業地帶인 라인·루르地方에 대한 発言権을 잃게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다음, 美国에 있어서는 最大의 関心事가 独逸보다도 日本에 있었다. 이때 日本의 敗勢는 이미 뚜렷하였지만 그래도 頑強한 저항을 예상하여 戦争終結까지는 1年半의 時日이 더 소요되리라 計算하였었다. 그래서 美国은 얄타에서 蘇聯이 対日宣戦을 約束하도록 했던 것이다. 이約束을 実現하기 위해서 蘇聯과의 関係가 悪化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셋째로 프랑스는 이 포츠담会談에 参加하지 않았다. 当時 独逸国家의 解体를 가장 강경하게 주장해온것은 프랑스였으나 드골의 프랑스에 대해 美, 蘇両国은 그때까지도 不信하는 생각을 씻지않고 그로 말미암아 이 会談에 招請되지 않았던 것이다.

포츠담会談에서 独逸管理의 現状에 대해 별반 変化는 일어나지 않았으나 独逸의 領土에 対해서는 重要한 変更이 加해졌다. 여태까지 独逸의 領土로서는 1937年 当時의것을 의미했으나 이제부터는 프로이센州 北半部의 蘇聯併合을 事実上 認定하게 되었고 오데르-나이세以東의 地域에 대한 폴랜드의 支配가 美·英의 反対에도 불구하고 暫定的으로 認定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것은 蘇聯의 軍事力에 의해 만들어진 既定事実을 뒤흔들 힘을 西方은 갖고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Control Council은 独逸을 統一的으로 管理할 作定이었으나 그後의 事態가 4個国内의 意見対立으로 그렇게 進展하지는 않았다. 여기서 独逸人自身의 손에 의한 中央行政府의 設置가 고려되었지만 여기 관해서는 프랑스가 1945年 가을 그 設置에 反対를 表明함으로써 実現이 不可能해지고 말았다.

3. 聯邦共和国誕生에의 길

1946年에는 産業施設撤去와 賠償問題로 蘇聯과 美, 英両側이 날카롭게 対立하였다. 蘇聯은 百億弗相当의 現物賠償을 要求하였고 蘇聯占領地뿐 아니라 西方側占領地区에서도 解体되는 産業施設의 4分의1을 받아들여야 하겠다고 主張했다. 美国은 그와같은 工場解体가 独逸을 荒廃化하고 聯合国의 経済負担을 무겁게 한다는 이유로 이에 反対하여 美占領地区로 부터의 賠償引渡를 禁止하였다. 그리하여 英, 仏両国도 여기에 同調하였기 때문에 両者의 対立은 激化하였다.

同年9月6日 美国務長官 번즈는 슈투트가르트에서 演説하고 蘇聯의 生産物賠償을 非難함과 同時에 独逸의 平和的産業의 必要性을 力説하였으며 占領地区의 経済的統合, 独逸臨時政府의 早期樹立에 賛成한다는 뜻을 表明하였다.

이 번즈声明에 대해 英国은 즉각 賛成하였으나 蘇聯이 이를 非難하였고, 프랑스 또한 자르地域의 分離가 認定되지 않았음을 理由로 이에 反対하였다.

그래서 聯邦에 美, 英両国만으로 相互 占領地区의 経済的統合에 関한 協定이 成立, 経済行政面에 局限된것이긴 해도 両地区에 通하는 行政機構가 만들어져 금기야 Wirtschaftsrat 라고 하는 名称아래 各州 議会代表로써 構成되는 일종의 議会가 設置되겠금 容認되었다. 이 美・英統合地区의 成立이 後日의 西独国家의 母胎가 된 것이다.

1947年에는 마샬計劃이 発表되었다. 이것은 全유럽의 経済復興을 意図한것이나 蘇聯 및 그支配下의 東유럽諸国은 그것을 拒否하였다. 이에 美, 英, 仏 3国은 独逸問題에 관해 蘇聯과 交渉하는 것을 断念, 베네룩스3国을 유도하여 1948年3月 6個国会議를 열고, 西独을 거기에 参加시킬 態度를 分明히 했다.

蘇聯은 이에 대해 抗議하고 Control Council을 보이콧하였기 때문에 여기서 Control Council은 機能을 停止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過程을 거쳐 1948年7月1日, 3国占領軍政府는 西独 11州의 首相을 프랑크프르트에 召集, 소위 Frankfurt Documents를 発付하였다. 이것은 그들에게 西独의 憲法制定議会召集에 대한 権限을 부여한 것으로서 이에 의해 西独国家 Bundesrepublik Deutschland 가 1949年에 成立되기에 이르렀다.

独逸에 東西 2個의 国家가 成立된데는 西独이 先手를 썼고 더

우기 그것은 다분히 美, 英, 仏 3占領国의 主導性에 의한것이었음이 事実이다. 그래서 蘇聯 및 그影響下에 있던 世界의 共産主義者 내지 그同調者는 西方이 独逸分断의 責任者라고 宣伝하였다.

그리하여 蘇聯은 여기에 対抗한다는 形態로서 聯邦共和国 成立 数個月후 東独国家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DD)를 発足시켰다. 그러나 1945 ~ 48年간의 東独内情이나 거기서 蘇聯이 취한 政策을 보면 우리는 西方이 취한 態度가 不得已한것이었다고 이를 認定치 않을 수 없을것이다.

4. 東西占領地区의 内部事情

独逸이 降伏하여 유럽의 戦争이 終了하기 전에 蘇聯은 그占領地域에서, 그 軍事支配下에서 소위 人民民主主義의 方案에 의한 社会変革을 実施하고 있었다.

이것은 오로지 民主主義만 외치고 社会主義나 共産主義를 말하지 않으며 共産党以外의 政党의 存在도 許容하여 政治活動의 自由를 是認하는것 같은 外見을 꾸몄었다. 実質的으로는 蘇聯軍隊의 干渉下에 共産党이 国家의 中枢的인 地位를 장악하고 갖은 名目으로써 反対勢力을 圧迫하여 結局 共産党의 独裁, 蘇聯에 忠実한 共産国家를 実現한 것이다.

이 過程은 東独에서는 模範的인 形態로 実現에 옮겨졌다. 즉 여기서는 포츠담会談에 앞서서 蘇聯軍指揮官 슈코브가 独逸人에 政党

結成許可에 관한 布告를 내렸다. 그로 말미암아 몇몇 政党이 탄생하였으나 그중 가장 強力했던 社会民主党(SPD) 에 대해 共産党은 合作을 내밀었다. 그 結果 社会統一党 Sozialistische Einheitspartei Deutschland (SED) 가 생겼으나 合作에 反対했던 社会民主党員에게는 結党을 禁止하였다. 그外의 政党도 「反파시즘統一戦線」내지 「民主主義블록」같은것에 加入하게금 만들어 共産党 내지 蘇聯에 조금이라도 批判的인 態度를 취하는데는 事情없이 탄압을 가했다.

東独以外의 東유럽에서 행해지기도 했으나 東独에서는 그런 機会가 주어지지 않았다. 여기서는 Volkskongress라는 会議가 設置되었지만 이것은 SED의 提唱에 의해 選挙를 거치지않고 諸政党과 各種団体의 代表를 召集한것이었다.

1949年5月에 열린 第3回 Volkskongress - 여기서 東独의 憲法이 採択되었다 - 는 비로소 選挙에 의해 選出된 것이었으나 그것은 「民主主義블록」의 統一리스트에 対한 賛否의 投票였을뿐 自由로운 選挙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西方諸国이 西独의 独立에 발벗고 나선 1948年에는 2月에 체코슬로바키아의 共産党쿠데타가 있었고, 6月에는 蘇聯軍에 의한 베르린封鎖가 断行되었었다. 이것은 蘇聯의 西方進出努力이 依然히 継続되고 있음을 나타낸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西方諸国이 西独을 共産化의 물결에서 막고 이것을 西유럽의 自由世界속에서 復興시키려했음을 当然한 일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東方과는 달리 西方占領地区에서는 서서히 進行되긴 했어도 自由選挙에 의한 国民의 意思表示의 機会가 주어졌었다. 그러나 처음에는 여전히 独逸国民에 대한 不信이 남아있었고 또 独逸人에 대한 態度가 美, 英, 仏 3個国間에 이따금 不一致를 나타낸 것이 問題가 되었었다. 가령 政党結成의 自由에 関해서는 그것을 가장 일찍 부여한것은 美国地区였으나 그것은 最初에는 郡 Kreis 単位 다음에는 州 Land 単位에 한정되었다. 英国地区에서는 美国地区보다 時期는 늦었으나 占領地区레벨의 活動도 認定되었다.
프랑스地区에서는 時期에서도 가장 늦고 그 制限도 가장 厳格했다고 하는 차이가 있었다.

行政機関에 있어서 蘇聯地区에서는 蘇聯의 傀儡以外의것은 생각할수 없었으므로 처음부터 中央集権的인 独逸人의 機関이 設置되었다. 이에 反해 西方地区에서는 地方分権的인 聯邦制가 시초부터 原則으로 되어 戦前의 歴史的인 州政府가 構成되어 이것이 각기 占領軍의 監督下에 州의 行政을 執行하였다.

1947年5月 바이에른州의 首相에르하르트가 시험삼아 実施해본일은 独逸人 自身의 意思表示에 대한 좋은 機会가 되는 것이었다. 그는 4個国占領地区의 모든州의 首相에게 招請状을 보내고 全独逸의 州首相会議開催를 提議했다. 이에 대해 美国과 프랑스의 占領軍当局者는 이会議에서 政治的統一을 論議하지 않는다는 条件下에 出席하는것을 許可했다.

이것을 안 蘇聯側은 역으로 이会議에서 統一을 議題로 삼도록하

라는 訓令을 내려 蘇聯地区의 州首相 및 其他団体의 代表者를 뮨헨에 派遣하였다. 여기서 6月5日, 会議 前夜에 행해진 豫備折衝은 決裂되어 東方側代表들은 帰国하고 말아 会議는 西方側 州首相들만의 것이 되었고 더우기 그議題는 限定된 것에 그쳤었다.

独逸聯邦共和国이 成立하는데 있어서도 西方占領国의 意図와 独逸人의 所望사이에는 微妙한 차이가 보였다. Frankfurt Documents에 接한 西独의 州首相들은 独逸国家独立에는 賛成이었지만 西方地区의 独逸人만으로 国家를 이룬다는것이 独逸分裂에 직결되는 것을 危惧하였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이룩되는 国家가 뚜렷이 過渡的인것임을 밝히려고 애를썼다. 그때문에 그들은 여기서 指示된 憲法이란 用語를 피해 Verfassung대신 基本法 Grundgesetz라고 하는 名称을 採択하였다. 이렇게 해서 만든 基本法에는 그 前文에 이것이「過渡期에 있어서의 国家生活에 新秩序를 부여하는것」임을 明記하고 또 「모든 独逸人이 自由로이 自身의 決定에 의해 独逸의 統一과 自由를 決定할것이 要請된다」고 적고 있다.

이 基本法에 対抗하여 만들어진 東独憲法에서도 「独逸은 한개의 不可分의 民主共和国이다」라고 規定하여 그들도 独逸의 統一을 要求하고 있음을 表明하였다.

5. 西独의 統一問題에 대한 態度

西와 東의 2개의 独逸国家는 각기 樹立後 곧 独逸統一을 위한 提案을 했다. 먼저 1950年3月25日 西独政府는 声明을 発表하였으나 그것은 4占領国 또는 国際聯合管理下에 全独逸의 自由選挙에 의해 憲法制定 国民議会를 選出하고, 이 議会가 独逸의 憲法草案을作成하여 이를 全独逸의 国民投票에 의해 決定한다는 것이다. 이에 対해 東独은 同年11月30日 그로테볼首相이 西独의 아데나우어首相앞으로 書翰形式으로 그들의 統一方式을 提示하였다. 그것은 이미 存在하는 両独逸政府가 각 6名의 代表를 任命하여 이것으로써 全独逸憲法制定評議会를 構成하고 全独逸政府樹立의 準備를 한다는 것이었다.

이両者의 提案에는 顕著한 차이가 있다. 西独은 그 基本法 前文에 明記되어 있듯이 独逸人의 自由로운 自己決定을 統一의 前提로 삼고 있기때문에 여기서 全独逸의 自由選挙를 主張한것은 当然한 일이었다. 그리하여 東独에 있어서는 이와같은 独逸人의 自由로운 意思表明이 許容되어 있지않기때문에 西独은 東独 DDR를 承認하지 않는다는 立場을 取했다. 그러나 여하튼 現実的으로 存在하고 있는 国家를 無視하고 選挙를 実施한다는것은 事実上 不可能한 일이었었다.

이에 反해 東独의 提案은 既成政府의 存在를 前提로하여, 이両政府의 協力에 의해 하나의 独逸을 만들려했던 것이므로 일응 現

実的인양 보인다. 그러나 東独政府가 自由選挙를 認定치않는다는 것이 분명한 이상 이両者의 協力을 통해 全独逸에 共通되는 国家体制를 만들어 낼 展望은 없는것이므로 이것도 사실상 不可能한 提案이었다.

한가지 注意할点은 独逸에 2개의 政府가 생겼다고는 해도 独逸에 대한 4個国의 占領状態는 끝나지않고 있어 独逸은 아직 主権을 回復하지 않았다는 事実이다.

이때문에 統一独逸의 形成도 또한 4占領国의 承認을 前提로 하지않으면 안되었고 独逸이 自主的決定을 행할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도 占領状態에서 탈피할것과 主権의 回復이 必要한 일이었다.

이 占領状態의 終結은 豫想外로 빨리 닥아왔으나 이것은 独逸의 統一을 促進하는 일은 되지못하고 도리어 그 分裂을 深化하는 結果를 낳았다는 것은 아이러니컬한 일이었다.

이점에서 1950年6月에 勃発한 韓国動乱이 적지않은 関聯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진다.

西独은 国家形成 以来 스스로의 武力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나 東独에는 警察隊란 이름아래 사실상의 軍隊가 存在함이 분명하였다 아데나우어는 韓半島에서와 같은 事態가 発生함을 막기위해 西独의 再軍備를 西方3国에 要請하였다. (1950年8月) 이에 関해 프랑스의 프레방首相의 유럽防衛軍(EDC) 構想이 나왔고 이것이 流産한 후, 1954年10月의 파리会談에서 이미 成立되어있던 「나토」에 西独을 加盟시키는것과 西独의 主権回復이 決定을 보게 되었다.

이에 대해 蘇聯側에서는 1952年3月10日 西方3国에 대해 覚書를 보내고 独逸과의 講和調約의 構想을 提示하였다.
이것은 独逸에서 모든 外国軍隊가 撤収하고, 独逸은 国防軍을 新設하나 第二次大戰때의 어느交戰国에 対해서건 敵対하는 어떤 軍事同盟에도 가담치 않는다는 条件에서 統一, 独立한 独逸国家를 形成한다는 것이었다.

이 蘇聯의 提案에 대해 西方3国은 西独과 協議한뒤 統一独逸의 成立을 위해서는 全独自由選挙가 必要하다는 回信을 보내, 이 提案을 拒否하였다. 그後에도 蘇聯은 西独의 独立과 「나토」加盟阻止를 위해 努力했으나 이것이 失敗한뒤, 1955年1月 対独戰争状態의 終結을 宣言하고 東独의 主権을 回復하여 그해 5月 東独을 包含한 와르샤와軍事機構를 成立시켰다.

이와같이 하여 独逸의 主権回復은 東西 別個로 이루어져 独逸의 分裂을 더욱 深化하고 東西両独逸은 欧洲에서 対峙하고 있는 2個의 軍事同盟에 編入되어 接境하게 된것이다.

이 過程에 있어서도 西方諸国이 먼저 西独의 主権回復에 介入한 것에 反하여, 蘇聯은 独逸의 統一을 独逸国民에게 呼訴하였다.
여기에는 統一方策에 対한 새로운 提案은 없었지만 이와같은 蘇聯의 外交攻勢는 西独에서도 相当한 反響을 불러 일으켰다.
野党의 SPD는 지금까지 東独의 政権 및 SED에 不信感을 갖는데 있어서 CDU에 못지않았으나 이 蘇聯의 提案을 相当히 높이 評価하여 파리条約批准에 앞서 蘇聯과 交渉을 해야 한다는 立場에서

그 批准에 反対한 것이다.

西独의 西欧와의 一体化政策을 積極的으로 推進한 사람은 CDU/CSU, FDP, DP의 聯立内閣을 이끌고 있는 아데나워首相이었다. 그의 内閣은 1953年의 総選挙에서 63%의 議席을 얻었는데 이는 그의 政策이 国民多数의 支持를 얻었음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他方 東独에 있어서는 1953年6月17日 東베르린에서 大規模的인 民衆의 反蘇烽起가 発生하여 소련戦車가 出動하여 처참하게 鎮圧된 事件이 있었다.

소聯의 提案이 아무리 美名에 쌓여있어도 独逸人의 多数에게 "어필"되지 않았음은 当然한 일이다. 그리하여 1957年의 総選挙에서는 CDU/CSU만으로 過半数, 其他의 与党을 合하면 ⅔以上의 多数를 獲得하였다.

6. 소聯 및 東独의 態度変化

지금까지 소聯과 東独은 항상 「統一独逸」의 標語를 내걸고 西方 및 아데나워가 이를 방해하고 있다고 非難해 왔다. 그러나 1955年을 契機로 그들의 態度에 顕著한 変化가 나타났다. 이해 7月 東베르린을 訪問한 흐루시쵸프는 「相異한 社会, 経済秩序를 가진 2個의 国家가 独逸領土 위에 생겼다. 이 両国家의 機械的 統一은 非現実的이다」라고 演説하였다. 이것은 지금까지 東独이 主張하여 온 両独政府의 協力에 의한 独逸統一이라는 方策을 否定하고 積極的으로 2個의 独逸을 主張하는 것인 것이다.

그리하여 소聯은 以後 아데나워를 모스크바에 招請하여 다음해 1956年3月 両国間의 国交를 樹立하였다.

또한 이때 아데나워는 西独이 〃2個의 独逸〃을 容認할 수 없다는 意思表明을 하고서 이에 応한것이다.

이와같은 소聯의 態度変化는 東独의 政情이 不安定하여 그 政権이 東独国民自身으로 부터도 充分한 支持를 받지못하고 있음을 認識한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東独에서는 急速한 社会主義化 政策이 遂行되어 있었으나 이것을 싫어하여 西独으로 逃亡해 오는 東独人의 数가 每年 数10萬名에 이르렀다.

1956年에는 폴란드와 항가리에서 反蘇暴動이 発生하자 이에 呼応하여 東独에서도 知識人의 造反이나 要人의 失脚이 뒤따랐다. 따라서 소聯으로서는 東独의 崩壊를 막는것이 一次的인 課業이 되었으며, 이 때문에 積極的인 2個의 独逸主張으로 기울어진것으로 解釈된다. 이와같은 政策의 頂点을 이루는 것이 1961年 베르린障壁의 構築으로서 이로써 東独国民의 西方으로의 脱出은 阻止되어 以後 東独의 経済도 多少 改善된 것이다.

1968年에는 1949年의 憲法에 대신하여 새로운 憲法이 発布되었다. 이 憲法에서는 以前의 憲法에서와 같은 「独逸은 다나의 不可分의 民主共和国」이라는 規定이 자취를 감추었다. 이에 代身하여 하여 「独逸은 分裂状態의 克服을 追求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克服은 社会主義의 基礎위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된다고 記述되어 있다.

그리하여 여기서 憲法으로서는 異例的으로 「美合衆国을 先頭로 하는 帝国主義」와 「西独의 独占資本家層」에 대한 격렬한 非難을 하고있다. 이것은 以前의 憲法에서는 없었던 것으로, 이로써 東独의 西独과의 相違, 그로부터의 分離가 強調되기에 이른것이다.

7. 西独政策의 転換과 最近의 情勢

聯邦共和国 成立以来 西独의 発展은 顕著하였다. 経済相 에어하르트가 提唱한 社会的市場 経済(Soziale Marktwirtschaft)下에서 奇蹟的인 経済復興을 進行하였으며, 政治的으로는 바이말共和国의 失敗를 教訓으로 삼아 安定된 議会制民主主義를 만들었다.
그러나 이와같은 西独의 成功도 아데나워가 일직이 생각했던 것과 같이 強力한 西独을 基礎로하여 独逸統一을 達成하려는 方策을 成功시키지 못하였다.

1963年 아데나워가 退任하고 그後 3年間의 에어하르트 内閣을 거쳐 CDU/CSU와 SPD의 聯立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大聯立内閣이 成立되었다. SPD는 新党首 브란트下에서 예전처럼 NATO와의 結束을 反対하는 처음의 態度를 抛棄하였다. 브란트가 大聯立内閣의 副首相 및 外相에 就任하여 아데나워와는 다른 새로운 東方政策(Ostpolitik)을 展開하게 된다. 이 東方政策은 東独 및 東欧에 存在하고 있는 現実을 그대로 認定하고 그 위에서 従来와는 다른 独逸統一의 길을 摸索하려는 것이다.

이政策은 1969年의 総選挙에 의하여 브란트를 首班으로 하는 SPD, FDP의 聯立内閣이 成立됨으로써 一層 明白하게 되었다. 브란트는 이해 10月28日의 首相就任施政方針 演説에서 「独逸内部에 2個의 国家가 있다」라고 말함으로써 西独으로서는 처음으로 東独을 「独逸民主主義共和国」이라고 正式国名으로 呼称하였다.
이것은 東独을 認定하지않는 従来의 態度를 変更시킨 것이다. 그리하여 以後 両国政府間의 交渉이 進行되어 그것이 1972年末 「両国関係의 基礎에 関한 条約」(Grundlagen Vertrag)이 되었다. 이로서 西独은 東独을 承認하여 国交関係를 맺고 또 그 結果 東西両独이 同時에 유엔加入이 認定된 것이다.

이것은 西独도 分裂国家의 現状을 認定한것을 意味한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独逸을 否認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前提되어 있다. 브란트는 이것을 「一民族 二国家」라는 말로써 表現하여 基礎条約이 成立된 後에도 両国間의 関係는 「独逸内」(Inner-deutsch)의 関係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하여 東베르린에 設置한 代表部를 大使館(Botschaft)이라 부르지 않고 그 長을 Bevollmächtigter der Bundesregierung 이라고 부르고 있다.

全独逸의 自由選挙를 始終 要求한 아데나워의 独逸統一政策이 소聯軍事力의 存在때문에 実行不可能한 것이었음은 明白하였다. 그리하여 現実的으로 東独에 存在하고 있는 国家가 사라질 可能性이 없는 以上 언제까지나 無視할 수 없음도 確実한 것이다.

그러므로 브란트의 方案은 現実的인 立場에 서서 独逸民族의 統一性을 求하기 위한 不可避한 措置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이 基礎条約에 병행하여 進行된 西베르린에 関한 4個国協定에 의하여 西베르린 市民 및 西独国民의東独訪問의 機会가 增大되어 이것이 東独人에 의하여 크게 歓迎되고 있다는 事実이 있다. 브란트는 1974年 首相의 地位에서 물러났지만 그의 政策은 그 後継者에 의하여 継承되고 있다.

그러나 이 政策이 그 本来의 目的인 独逸統一을 向하여 一歩前進하였느냐고 한다면 그 結果는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그 逆의 現象도 보여지고 있다.

이를 나타내는 것이 1974年에 東独에서 行해진 두번째의 憲法改正이다.

이 新憲法에서는 지금까지의 憲法에 있었던 独逸民族(Deutsche Nation)이라는 말이 깡그리 자취를 감추었다.
그리고 独逸(deutsch, Dentschland)이란 말까지도 그 使用이 極히 적어졌다. 이에 대신하여 나타난 것은 「社会主義的民族」(Sozialistische Nation)이란 말로서 이것이 「資本主義的民族」과는 相違한다는 点이 一層 強調되고 있다.

이것은 民族보다도 社会体制를 보다 重視하는 立場이다. 이것은 東独이 西独으로 부터 더욱 隔離되고 있음을 意味한다. 이와같은 政策은 分離政策(Adgrenzangspolitik)이라고 불리 운다.

1975年에는 소聯과의 友好·同盟条約이 更新되었는바 여기서도

旧条約에 있었던 「独逸統一」 「独逸民族」等의 말이 一掃되고 그 대신 소聯과의 「緊密한 兄弟的同盟」이 強調되고 있다.

브란트以来 西独이 遂行해온 東方政策은 西独의 経済的 繁栄과 結付되어 東欧全般에 대한 西独의 威信을 크게 높이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그것이 一層 東独의 危機意識을 높임으로써 그의 分離政策과 소聯과의 結束을 強化시켰다는 것은 疑心할 餘地가 없다. 이런 意味에서 보면 브란트의 政策도 아데나워의 構想과 마찬가지로 成功을 거두지 못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独逸이 하나의 民族인 것은 決코 変하지 않는 歴史的事実이다.

東独政府의 分離政策에도 불구하고 東西独 両国民의 人間的接触의 機会를 조금이라도 넓혀가려는 政策이 独逸民族의 一体性을 確保하여 窮極에는 統一에 이르는 唯一한 手段이 되리라고 생각된다.

南北同質化의 諸問題

○ 發表論文 ································ 197

發表 洪 承 勉 (言 論 人)

○ 討 論 ································ 224

司會 朴 權 相 (東亞日報社 安保統一問題調査研究所 所長)

討論 申 泰 煥 (亞細亞經濟研究所 所長)

曺 大 京 (서울大 敎授)

韓 相 福 (서울大 敎授)

李 箕 永 (東國大 敎授)

趙 德 松 (朝鮮日報社 論說委員)

〈発表論文〉

南北同質化의 諸問題

洪承勉(言論人)

一. 民族的問題－異質化의 深化

南北이 分断된지 이제 33年－ 그동안 進行되어 온 南北間의 異質化現象 이것이 最近에 저희들을 몹시 걱정케 하고 있읍니다.

오늘 오전에도 南北異質化의 実態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소개가 있었고 이 가운데에서도 그것을 보신 분이 적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너무 南韓과 北韓이 달라가고 있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南北間 異質化라는 問題를 걱정하게 됩니다마는 이 異質化를 우리가 왜 걱정하느냐 왜 問題삼느냐 그런 点을 일단 整理하고 넘어가 볼까 합니다.

첫째로는 南韓과 北韓이 달라가고 있다. 오늘 午前中에 우리는 숨이 막히도록 기가 차도록 달라져 가고 있는 北韓의 実態를 紹介받았읍니다.

그러나 어떻게 생각하면 그들은 그들대로 그렇게 달라졌으니만큼 그들 나름으로는 우리가 너무 달라져 가고 있다. 우리가 그들에게 너무 異質的이라고 한편 놀라고 있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이러한 異質化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単一民族이라는 概念을 威

脅하고 있읍니다. 우리가 単一民族이라는 것은 우리가 굳이 이러고 저러고 説明할 必要가 없이 당연한 常識- 한줌의 疑心도 介在할 여지가 없는 常識처럼 우리는 単一民族으로 알아왔는데 이 単一民族이 南韓과 北韓에서 現在 서로 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単一民族의 歴史는 오래된 것입니다. 勿論 古代史에서는 여러 部族들이 있었읍니다마는 특히 統一高麗以後로는 우리 겨레로서의 同質性을 꾸준히 높여 왔읍니다.

왜 하필이면 高麗냐? 新羅를 왜 無視하느냐 하는 말씀이 있을지 모르겠읍니다마는 新羅라도 좋습니다. 新羅統一이라는 것은 우리 民族歴史에서 비로소 統一이 이루어진 慶事이며 성사이고 우리 民族史上 意義가 높은 일이었던 것입니다.

다만 新羅의 統一은 일단 統一은 이루었읍니다마는 곧 渤海가 나가고 結局 나중에 가서는 統一이 흔들리고 後三国時代 即 新羅와 後百済와 그리고 태봉이 정립하여 再分裂되는 그러한 時期를 맞았기 때문에 新羅統一은 매우 意義가 높은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統一의 安定性은 結局 끝내 維持되지는 못하고 말았읍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高麗王朝의 成立을 起点으로 잡는다고 하더라도 벌써 1千年이 됩니다. 千年이라는 統一의 歴史-이것은 굉장한 歴史입니다.

千年前 勿論 独逸이나 伊太利는 統一되어 있지 않았으며 저 아메리카大陸만 하더라도 군데군데 인디안들이 살고 있었을 뿐이고 아직 유럽世界에 의해서 発見되지는 않고 있었읍니다.

그러나 그 時節에 우리는 이미 統一을 이룩했고 그 후에 꾸준히 統一과 겨레의 同質性을 維持해 왔읍니다. 여러 外国에서 골치를 앓고 있는 바와같은 少数民族問題도 우리에게는 없었읍니다. 우리와 비슷하게 오래 전부터 統一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民族의 同質性이 높은 나라가 日本입니다. 日本은 섬나라는 그러한 利点에서 그러한 일이 이루어진 것으로 지적이 되겠읍니다마는 그런 日本만 하더라도 아이누라는 少数民族問題가 있읍니다. 言語나 宗教나 風習이나 経済生活이 一般 日本人 또는 一般 日本社会와는 전혀 판이한 少数民族이 日本안에는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은 없으며 高麗王朝때 부득이 元에게 服属은 했었으며 朝鮮王朝가 되어서는 任辰倭乱을 겪었고 丙子胡乱을 겪었고 급기야는 異民族의 侵略에 의해 나라를 잃게 되었읍니다마는 우리는 겨레로서의 同質性은 꾸준히 維持해 왔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異民族의 侵略에 抗拒하는 3.1運動 이러한 것이 挙族的으로 展開될 수 있었고 그異民族에서 겨레가 解放되자 그 8.15 解放을 우리는 다 한결같이 기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民族인데, 이러한 単一民族인데, 単一民族이라는 말이 꼭 어울리는 겨레인데, 이 単一民族인 우리가 分断되었다는 것 이것은 民族史上 큰 異変이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거기에다 南北間에서는 異質化現象이 進行되고 있다. 이것은 民族의 歴史上 一大 異変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同質 同質합니다마는 各人各色이라는 말이 있는 바와같이 겨레가

모든 것이 똑 같았다는 그러한 뜻은 아닙니다. 民族으로서의 同質性을 저는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20年代 30年代 新文化가 들어왔을 때에 封建的인 아버지와 進步的이라고 할까요, 自由主義的이라고 할까요, 그러한 아들과 딸과의 마찰 相剋 그러한 것은 저희들이 小說같은 데에서도 많이 읽고 있읍니다마는 그러한 世代間의 隔差는 있을 수 있는 現象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世代間의 隔差가 있었다 하더라도 民族으로서의 同質性이라는 것은 異状이 없었던 것인데 지금은 그 정도의 隔差 그 정도의 差異가 아니라 地域的으로 民族이 分裂되어 있고 分裂된 民族間의 異質化가 進行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後三国時代 이래 처음 보는 一大 怪変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異質化가 問題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이 異質化가 劇団的으로 甚하게 進行되어 있음으로 해서 앞으로 이 韓半島에 두個의 民族이 생기지나 않을까 杞憂라고 하면 杞憂겠읍니다마는 이러한 걱정의 소리마저 들리게끔 異質化의 深度가 심각하다는데 問題가 있읍니다.

異質化가 얼마나 심각하냐 하는 것도 하기야 모든 이에 따라 여러가지 観点이 있겠읍니다마는 제가 지적하고 싶은것은 民族이 分断되기 이전에 우리가 同質性을 維持하고 있었던 때에 民族社会生活 経験 이것을 가지고 있는 世代가 점점 줄어들고 그렇지 않은 世代가 점점 늘고 있다는 事実입니다.

이미 33年이라는 歳月이 흘렀읍니다. 듣는 바에 의할 것같으면

北韓에서의 異質化를 저희들이 問題삼는 境遇이겠읍니다마는 北韓에서도 40代以上의 世代가 되면 思考方式이나 異質化에 있어서 그렇게 우리가 걱정할만한 変化는 없는 것으로 듣고 있읍니다. 老人일수록 더욱 그러하리라고 짐작이 가는 것입니다. 問題가 되는 것은 北韓에서도 젊은 世代입니다. 30歲以下 約 40才以下로 잡아도 될 것 같습니다.

所謂 革命世代 또는 新世代라고 해서 北韓에서 集中的으로 意図的인 教育을 해오고 있는 그러한 世代 이러한 世代의 境遇에 있어서 더욱 더 異質化라는 것이 심각하게 問題를 提起하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젊은 世代는 점점 成長하고 있읍니다. 北韓人口総数에서 차지하는 젊은 世代의 比率이 해마다 늘고있는 것은 否認할 수 없는 生物学的인 法則이고 이제 이들은 앞으로 北韓社会의 중견이 바야흐로 되려고 하고 있읍니다. 이들이 北韓社会의 중견이 되는 날이 멀지 않았읍니다. 곧 됩니다.

이러한 젊은 世代가 특히 問題가 된다는 것 이것은 역시 北韓에서 저희들을 볼 때에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北韓과 다른 南韓, 이 南韓을 볼 때에 北韓에서도 가장 異質性을 느끼는 것은 나이 많은 분의 境遇에 있어서라기 보다는 젊은 世代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렇게 異質的인 젊은 世代가 南北韓 双方에서 各各 成長하고 있다는 것 여기에 역시 問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이런 異質化가 民族의 念願인 統一을 实現하는데 있어

서 하등 利로울 것이 없다는데 問題가 있읍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統一을 実現시키는 길은 험난한 것이고 統一이 그렇게 쉽게 이룩되는 것이 아닌데 그런데 젊은 世代들은 서로 異質的으로 成長하고 있읍니다. 지금 제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은 보아하니 제 恩師되시는 분도 계시고 제 先輩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외람됩니다마는 하여간 그런대로 말씀을 드리면 이 어려운 統一, 우리 代는 되지않을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우리 代가 아니라도 우리 다음 代라도 언제이고 이 統一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에 젊은 世代가 서로 異質的으로 成長하고 있다. 이것은 몹시 가슴을 아프게 하는 問題입니다.

설마 물과 기름처럼 그렇게 되기야 하겠읍니까마는 그러나 하여간 물과 기름과 비슷하게 젊은 世代들이 成長하고 이 젊은 世代가 앞으로 各各 南北韓 社会에서 그 社会의 主人工이 될 때에 統一이라는 問題에 어떻게 되는 것이겠읍니까?

엄연히 単一民族이다. 그러니 単一民族은 統一되어야 한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 왔었던 것인데 물과 기름과 비슷하게 되어버려 나간다면 単一民族으로서의 統一의 当然性 이것이 흔들리는 것이 아닌가, 民族의 同質性이 흔들린다고 하는 것은 統一의 当然性을 흔들리게 하는 것이 아니냐, 물과 기름과 비슷한 것이 왜 合쳐야 하느냐, 또 現実的으로 合쳐지겠느냐, 問題가 이렇게 되는 까닭에 저희는 異質化라는 問題를 매우 심각하게 생

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同質化라는 問題提起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南北韓異質化의 그러한 심각한 意味를 바탕으로 삼고 提起되었읍니다.

그것은 異質化라는 現実的인 問題에서 発生한 우리의 慾望 欲求를 反映하는 問題입니다. 어떻게 하면 異質化라는 이 現実의 템포를 조금이라도 늦출 수가 있는 것인가 이 異質化라는 進行을 어떻게 하면 좀 막을 수가 있는 것인가, 한걸음 더 나아가 어떻게 하면 異質化를 克服하고 民族의 同質性을 回復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러한 慾望 안타까움 초조 이러한 데에서 이 問題는 提起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 問題를 提起하기는 提起해 놓고서도 끝내 바르고 시원스러운 解答을 찾아내지 못하고 말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선 시원스러운 죽한 解答을 찾아내는데 失敗한다손치더라도 南北間 異質化가 克服되어야 한다는 우리의 慾望에는 変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民族이 当面하고 있는 심각한 課題라고 믿는 것입니다.

二. 同質化의 課題

南北韓의 異質化와 同質化 이러한 問題를 다루는데 있어서도 여러가지 觀点과 立場이 있을 수 있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잠간 여러가지 觀点과 立場을 일일이 소개할 겨를도 없읍니다마는 여기에서는 그 가운데서도 제가 좀 마땅치 않게 생각하는 몇가지 觀点만을 지적하면서 거기에 대한 제 意見을 말씀드려볼까 하는 것입니다.

첫째 異質化라는 問題를 過少評価하는 觀点입니다. 異質化 異質化하지만 그것 대단한 것이 아니다. 하는 觀点입니다.
같은 民族인데 서로 달라졌다면 얼마나 달라졌겠느냐, 그것 다 같은 피인데 異質化 異質化해서 너무 달라졌다 달라졌다 할 것이 없다. 대단치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러한 觀点이 있읍니다.
저自身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南北韓은 異質化되어 있다.
이제 여기에는 아무 薬方이 있을 수 없다는 劇団的인 過大評価는 反対하는 立場이고 따라서 南北韓의 異質化가 대단치 않기를 바라는 立場의 사람이기는 합니다마는 과연 정말 대단치 않은 것인가 대단치 않기를 바라기는 바라지만 실상 대단치 않은 것인가, 생각할 때에 다분히 疑問을 느낍니다.

그렇게 이 異質化라는 問題는 만만치 않은 問題인 줄로 믿습니다.

午前에도 紹介된 바가 있읍니다마는 저로서도 꽤 충격을 느낀

紹介였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立場도 있읍니다. 北韓이 그렇게 달라지기는 했지만 그것은 權力에 의해서 달라진 것이다. 權力에 의해서 눌려가지고 달라진 것인 까닭에 自然스러운 것이 못된다. 權力에 의해서 下向的으로 달라진 것은 뿌리가 깊지 못하다. 한마디로 말해서 弱하다. 겉으로 볼 때에는 대단하게 달라진 것같지만 그것은 強制되어 있는 것이다. 強制되어 있는 것은 뿌리가 깊지 못하고 弱하고 따라서 쉽게 어떤 情勢変化에 있어서는 쉽게 또 変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그러한 觀点이 있는 것을 저는 알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強制되어 있는 状況 이것이 權力에 의해서 強制되어 있다가 그 權力이 変化하자 그러한 条件下에서 쉽게 変하는 일이 있읍니다. 하루 아침에 돌변하는 그러한 일도 여러가지 歷史的 事例를 저희들은 보아오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北韓이 달라져 있는 이러한 状況을 그렇게 우습게만 볼 수 있을까 하는데도 좀 疑問이 있읍니다. 勿論 이미 받은 教育이라는 것이 絶対的이라고 말하지는 않겠읍니다마는 역시 教育에는 相対的일 망정 어떤 効力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立場을 저는 取하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教育이 絶対的인 것은 아닐망정 33年間 젊은 世代를 저런式으로 教育해 온 効力을 우리가 그저 우습게 過少評価하고 넘겨서 될 것인가, 하고 저는 좀 疑問이 있읍니다. 저는 그러한 教育의 効力을 꽤 認定을 해야하지 않겠느냐, 꽤 그러한 効力이

것으로 보고 問題삼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北韓에서 進行하고 있는 저러한 異質化를 表面的인 겉만의 분칠이다. 화장이다. 이렇게 評価하는 것은 北韓社会의 変質에 대한 지나친 過少評価가 아니냐 하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둘째는 이러한 觀点입니다.

北韓에서 異質化가 어떻게 進行되어 있거나 말거나 크게 神経쓸 것이 없다. 同質化問題 크게 걱정할 것이 없다.

왜냐 하면 北韓에서 政権이 너무 無理를 한다. 너무 無理를 하는 까닭에 北韓의 政權은 멀지 않아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統一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하면 同質化問題는 自然히 解決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立場입니다.

그러한 立場에서 말씀하신 분이 계신 것을 제가 본 일도 있고 그러한 글을 읽은 일도 있읍니다마는 그렇게 統一이 조속히 実現만 된다면 오죽 좋겠읍니까마는 참 막연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서 北韓에서 政權이 무너지는 것이며 어떻게 해서 조속히 統一이 実現된다는 어떤 具体的인 根拠, 客観的으로 說得力이 있는 根拠가 明示되지 않는 限 그런 말만 믿고 異質化問題는 걱정할 것이 없다. 同質化問題도 걱정할 것이 없다. 그렇게는 同調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強調하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말하는 同質化問題는 어디까지나 平和的인 方法을 통한 同質化 問題이고 武

力 또는 顚覆에 의한 統一을 위한 同質化問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겠읍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平和的 統一을 追求하고 希求하고 있는 그러한 立場에서 提起되어 있는 問題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셋째 이러한 立場입니다.

南北韓의 体制가 다르다. 그러면 異質化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 그것은 당연한 帰結이다. 体制가 다른데 異質化되지 않는 것이 도리어 우습다! 그리고 統一이 그리 쉽겠느냐, 가까운 将来에 統一이 되겠느냐, 그러니 異質化는 당연한 일이니 당연한 일을 異質化 異質化하고 問題삼을 것이 아니라 南韓은 南韓대로 北韓은 北韓대로 살면 그만이 아니냐, 이러한 立場이 있읍니다.

그러니까 現実이 워낙 우리가 어찌할 수 없게끔 너무 냉혹하기에 現実의 힘이 너무 무겁고 強하기에 現実을 諦念하는 現実主義的 立場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한편 南北韓 分断이 民族의 資源과 精力 그리고 民族의 情緖에 끼치고 있는 그 엄청난 負担 엄청난 浪費를 생각할 때에 저로서는 分断의 固定化에 賛同할 수는 없고 民族의 分裂에 反対하는 바입니다.

民族의 分裂을 諦念하는데 反対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보다 더 正確할지 모르겠읍니다. 저희들이 統一 統一 하는 것도 순전히 감상에서만 統一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分断이 있고 反立이 있기에 저희들은 6.25動乱이라는 엄청난 정말 기가 찬 民族相残

의 悲劇을 겪었읍니다. 다시는 되풀이 되어서는 안될 民族相殘의 悲劇을 막기 위해서도 統一은 必要합니다.

美国 소聯 中共 日本 이런 強大国들이 각축하고 있는 이 極東에서 5千万 民族이 外侮를 받지 않고 살아나가기 위한 힘을 뭉치는 데에도 統一은 必要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資源이나 우리의 精力을 活用해서 이 世界에서 남부럽지 않게 떳떳이 가슴을 펴고 살아나가기 위해서도 統一은 必要합니다.

이렇게 統一이 必要하고 統一을 念願하기 때문에 우리는 異質化의 進行을 심각하게 보게 되고 이렇게 異質化의 進行을 심각하게 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異質化를 늦출 수 있을 것인가를 挙論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뚜렷한 妙案이 있기에 論議를 하는 것이 아니라 妙案이 없기에 論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妙案이 있다면 그 妙案을 実践하면 그만이지 이렇게 論議할 必要가 없읍니다.

妙案은 없으나 이 심각한 異質化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고 우리는 이 挙論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妙案은 없으나 異質化는 克服되어야 한다는 意志는 있기 때문입니다.

民族의 欲求 또는 民族의 意志로서 同質化라는 問題가 提起되었읍니다마는 이 問題提起는 民族의 当面課題를 부각시켰으면서도 어쩌면 이 問題提起에는 根本的인 취약성이 있을는지도 모르겠읍니다.

첫째로 同質化라는 問題는 異質化라는 事態의 심각한 進行에서

發生했읍니다.

어떻게 하면 異質化의 템포를 늦출수 있을 것이며 어떻게 하면 異質化를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異質化를 늦출수 있을 것인가 하는 우리의 希望 우리의 慾望이 集約되어 同質化는 問題를 提起하고는 있읍니다마는 어떤 意味에서는 이것은 問題의 提起가 아니라 問題의 비약일는지도 모르겠읍니다.

同質性이 確保되고 維持될 수 있는 客觀的인 条件이 欠如되어 存在하지 않고 있는 그러한 歷史的 狀況속에서 進行하고 있는 異質化事態를 바로 同質化로써 克服한다는 것은 無理스러운 問題提起인지도 모르겠읍니다.

무엇보다도 相対方이 있는 問題입니다.

그동안 33年에 걸쳐 南韓에서나 北韓에서나 異質化가 進行했읍니다마는 우리는 北韓에서 進行하고 있는 異質化를 또한 놀라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도 모르겠읍니다.

北韓의 경우 그들은 一方的으로 異質化를 進行해 왔고 進行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進行하겠지요. 우리와 協議한 일도 없고 우리와 協議도 안하고 있고 協議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함으로써 進行되어 있는 異質化에 対해서 事実上 저희들은 束手無策인 것입니다. 손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異質化를 막을 수 있느냐 하는 問題에서 同質化로써 異質化를 막고 克服한다는 것은 일단 觀念上으로는 옳은 対答일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現実的으로는 問題가 그렇게 容易하고 간

단 하게 풀리게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点에 이 問題提起에 脆弱性이 있다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읍니다.

어떻게 하면 異質化의 템포를 늦출수가 있을 것인가, 事実上 죽한 妙案이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異質化를 막고 克服하는 具体的인 手段 方法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 現実에서 同質化를 내 세우고 楽論을 해야 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저 民族的 使命感 民族的 良心의 안타까운 몸부림일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이 問題提起에 脆弱性을 씻어버리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同質化와 統一과의 관련을 어떻게 잡아보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問題입니다.

統一이 되면 自然히 同質化될 것이 아니냐 이러한 意見이 나올 수도 있으리라고 豫想이 되는 것입니다. 統一이 되면 南北韓 異質化도 오래지 않아 解消된다. 그리고 同質化도 쉽게 이루게 될텐데 구태여 同質化라는 問題를 提起해 가지고 論議할 必要 価値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그러한 의견도 観念上으로는 일단 合理的인 点이 있는 것을 認定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또 더러한 立場에서 同質化라는 問題提起의 脆弱性을 지적할 수도 있겠읍니다마는 그러한 統一이 되면 同質化가 되니 同質化를 論議할 必要가 없다. 그것은 無価値하다.

不必要하다는 意見도 現実的으로는 매우 空疏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現実的으로 統一이 안되어 있고 조속한 時日内에 統一이 되리라는 展望도 사실상 보이지 않고 있기에 統一이 안되는 마당에서 南北韓에서는 各各 異質化作用이 進行을 하고 있고 統一은 안되어 있고 異質化는 점점 進行이 되어 있고 이러한 데에서 同質化問題가 提起되어 있는 것이지 統一이 쉽다면 統一이 눈앞에 다가왔다면 아무도 굳이 同質化問題를 提起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統一이 되면 同質化도 이루어진다. 이렇게 問題를 아주 쉽게……단락적이라고 저는 페이퍼에 썼읍니다마는 이렇게 치워내리는 것은 統一問題에 대한 정당하고 現実的인 接近이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統一을 実現시키기 위한 사다리로서 同質化問題는 論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푯줄의 같은 거레라고는 합니다마는 識者들을 심각하게 만들정도로 異質化되어 있는 南北韓이 어떻게 統一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그러나 目標는 民族의 平和와 生存과 繁栄을 위해서 武力이 아니라 平和的 接触을 통해서 統一되어야 한다는 다짐을 할 때에 우리는 問題의 비약처럼 보이는 同質化問題를 결국 論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問題提起의 脆弱性을 잘 알면서도 결국은 우리가 統一을 論하고 異質化를 論할 때에 問題는 同質化에 돌아오게 됩니다. 同質化問題를 挙論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統一이 되면 同質化가 이루어지니 同質化問題의 論議는 無価値하고 不 不必要하다는 意見은 그 統一은 具体的으로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 하는 것을 明示하지 않는 限 現実的인 意味가 없는 것으로 저는 보는 것입니다. 武力에 의한 統一을 念頭에 두고 그런 말을 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처음부터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은 저의 立場에서는 언어도단이라고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런 思考方式에서 民族相残이라는 民族史의 一大 汚点이 생겼던 것이며 그러한 思考方式에서 異質化라는 民族의 異変이 오늘날 北韓에서 進行하고 있는 것입니다.

同質化問題는 民族을 어떻게 하면 平和的으로 統一할 수가 있고 그럼으로써 民族으로 하여금 平和와 平等과 自由를 누릴 수 있게 하느냐 하는 問題意識에서 提起되어 있는 것입니다.

同質化를 緩和하고 統一을 実現하는 사다리로서의 同質化作業은 結局은 南北間의 交流가 없이는 不可能하다고 봅니다. 異質化라는 현상 이것도 結局 体制가 다르니까 그렇다. 権力이 強制해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한편 交流가 없이 南北韓이 서로 隔絶되어 왔다는데에도 原因이 있는 것입니다.

「먼 사촌보다도 이웃이 낫다」는 俗談이 있읍니다. 接触이 없고 交際가 없으면 친척이라도 멀어집니다. 하물며 아무리 한 핏줄의 한 겨레라고 하더라도 接触이 없이 交流가 없이 서로 다른 体制下에 몇 10年동안을 지내온다면 異質化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다.

이러한 異質化를 緩和하고 統一을 実現하기 위한 사다리로서 同質化가 이루어져야겠다고 우리가 挙論할 때에 그 同質化라는 것은 그러면 具体的으로 뭐냐 이러한 것이 問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겠읍니다.

아까도 아버지와 子女間에 世代間의 뭐라고 그럴까요, 隔差라고 그럴까요, 그런 이야기를 言及했읍니다마는 우리는 単一民族으로서 同質性을 維持하고 내려왔읍니다마는 어디까지나 그것은 民族으로서의 同質性이지 階級이나 所得이나 意識水準 무슨 教育水準 그런 것까지 전부 同質的이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겠읍니다.

알기쉽게 말씀드리면 民族으로서의 同質性은 分断以前에 저희는 維持하고 있었읍니다. 그러나 階級으로 보면 資本家도 있었고 労動者도 있었고 小作人도 있었고 万石꾼도 있었고 여러가지가 있었겠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드릴 때 제가 強調하는 것은 民族으로서의 同質性, 그러니까 各人各色이라는 말씀도 言及했읍니다마는 民族으로서의 同質性을 저는 強調하고 있고 이것도 반드시 分断以前의 民族社会로 돌아가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歴史는 흐르고 있읍니다. 世界는 움직이고 있읍니다. 33年前의 民族社会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고 歴史의 흐름에 맞추어 움직여가는 世界趨勢에 맞추어 이 同質化는 앞으로 우리가 求하고자 하는 同質化이지 옛날의 同

質化된 그当時 民族社会로 돌아가자는 이야기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면 그러한 同質化의 基準은 뭐가 되겠느냐, 目標는 뭐가 되겠느냐, 이러한 이야기가 또 問題가 되겠읍니다마는 알기 쉽게 말씀드려 南北韓同質化의 模範基準으로서 오늘날의 南韓社会를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南韓社会에서도 한동안 都市와 農村과의 隔差같은 것이 問題가 되었읍니다마는 요새는 전보다는 그 問題는 덜 論議되는 것같고 最近에는 高所得層과 低所得層과의 隔差 이러한 것이 識者들의 注目을 끌고 있고 이것이 識者들간에 論議가 되고 있읍니다마는 그밖에 또 왜 問題가 없겠읍니까?

오늘날 이 순간에 南韓社会를 同質化의 目標 모델로 삼아야 할 理想的인 社会 이렇게는 결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南韓社会가 南北韓 同質化의 主体가 되고 그런 意味에서 모델이 될 것을 바라고는 있읍니다. 그렇게 된다면 오죽이나 좋겠읍니까마는 이미 그렇게 되어 있다고는 믿지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 問題는 来日 統一韓国의 未来像이라는 題目으로 本格的으로 趙璣濬先生님께서 発表가 있을 豫定이고 그後에 또한 討論이 있을 豫定으로 있읍니다. 참고삼아 말씀드렸읍니다.

그러나 分明히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北韓의 異質化実態는 많은 識者들과 함께 저도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実態입니다. 同質化問題를 論議하는 마당에 異質化의 전적인 責任을 北韓側에 만

돌려서 이것은 죄다 北韓側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北韓側에게만 責任을 돌리고 北韓側만 非難할 생각은 이 問題提起의 本来의 趣旨에 비추어 보더라도 不適当할 것같고 저로서도 不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것을 굳이 여기에서 吐露하고자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南北韓 同質化는 民衆의 交流에 의한 平和的인 同質化인 것이며 결코 一方이 他方을 顚覆함으로써 이루어지는 同質化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同質化라고는 합니다마는 일시에 무엇이건 南北間에 同質化가 있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北韓内部에서나 南韓内部에서나 各各 階層間의 격차라는 問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여기에서 同質化라고 이야기할 때에 저로서는 民族으로서의 同質化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民族으로서의 同質性問題를 論議하는데 있어서 제가 가장 重要視하는 것은 同族意識의 回復입니다.

누가 만들어낸 익살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오래전부터 京畿道는 鏡中美人이요 平安道사람은 猛虎出林이요 해서 여러가지 地方의 特色이라고 할까요 地方마다 사람들이 지는 特色을 익살맞게 이야기하는 사람評이 있읍니다마는 이런 式으로 地方마다 特色은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러한 익살을 저희들이 재미있게 이야기할 때에도 결코 民族의 同質性은 排除되어 있지 않습니다. 同族意識은 排除되어

있지 않습니다. 같은 同族으로 저地方은 이렇다 이 地方은 이렇다 하는 地方의 特色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民族의 同質性 同族意識 이것은 排除되어 있지 않습니다.

三. 實踐的 推進

오늘이 11月2日, 来日이 11月3日, 光州学生事件이 일어난지 来年이면 50年, 그러니까 来日이 49年이 되는군요. 光州学生事件은 11月3日에 끝난 事件이 아닙니다. 또 光州学生事件이라고 해서 光州에 局限된 事件도 아닙니다.

光州에서 11月3日에 일어났고 그 이듬해에 이르기까지 全面各地에서 벌어진 抗日学生運動입니다. 우리겨레 同族 女学生이 日本놈에게 모욕을 당했다. 이런 同族意識에서 일어난 全国的인 抗日学生運動이었읍니다.

이러한 同族意識의 回復 이것을 저는 가장 重要視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日前에 소聯의 레닌그라드에서 世界女子배구 選手權大会가 열렸을 때에 소聯하고 우리 팀이 対戰할 때에 北韓軍 将校 두사람이 관람석에 앉아서 우리 팀을 열열이 応援했다는 그러한 新聞報道를 읽은 적이 있읍니다. 저는 그것을 읽었을 때에 감명을 받았고 이렇게 北韓軍将校에게 同族意識이 죽지 않고 살아 있다면 同族意識의 回復이라는 것은 쉬운 問題인지도 모르고 역시 피는 물보다 진하고 同族意識回復의 問題는 뜻밖에 쉬운 問題인지 모르겠다. 그것이 쉬우면 同質化의 問題 실마리도 쉽게 풀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감명을 받은 일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얼마 있지 않다가 또 소聯에서의 일입니다마는 世自然保

議国際会議지요. 저희나라 学者들이 모스크바空港에 到着을 했더니 以北사람 몇사람이 와가지고 죽인다고 했다고 합니다. 威脅을 加해서 할 수 없이 그 근처의 美国大使舘 車로 피난을 갔다고 합니다.

異域에서 同族이 同族을 만났을 때에 나온다는 말이 「죽인다」였다는 것은 참 입맛이 씁쓸한 이야기였읍니다.

個人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읍니다마는 제가 点心을 이 세종홀에서 했읍니다. 마침 이 세종홀에 文敎部長官 招請으로 다카에서 世界青少年축구大会에서 共同優勝을 하고 온 저희 青少年축구팀의 오찬회가 있더군요.

北韓하고 対戦할 때에 이쪽 캪-틴이 저쪽 캪-틴에게 악수를 청했더니 저쪽 캪-틴이 악수를 거절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었기에 제가 選手들이 왔기에 確認을 해 보았읍니다. 確認을 해 보았더니 이쪽에서 손을 내밀었더니 욕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 소리도 안하고 가만이 있더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합을 전후해서 시합중에는 勿論 그들의 敵愾心은 아주 넘쳐흐르는 바가 있어서 정말 이 사람들이 같은 同族인가 하고 서글픈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同族意識의 回復을 重要視하고 싶고 그런 의미에서 南北間의 民衆交流를 소망스럽게 저는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韓半島에서 南北韓의 分断은 南北間의 단절을 가져왔읍니다. 民衆의 交流가 없었읍니다. 民衆의 交流가 없는 데에서 어떻게 우

리가 異質化의 템포를 늦출 수가 있고 어떻게 異質化를 막을 수가 있고 異質化를 늦출수가 있을 것인가 하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現実은 가열합니다. 異質化를 緩和하고 統一을 実現하기 위한 사다리로서 同質化를 우리가 挙論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저 休戦線안에서는 南北韓 双方의 代表가 서로 대치하고 있읍니다. 第3의 땅굴마저 発見되었고 지금도 이 땅굴을 파고 있는 北韓의 好戦的인 의도를 비난하는 市民 学生들의 데모가 挙行되고 있읍니다.

그러나 現実이 이렇게 가열하면 가열할 수록 그것을 뭐로 代替하느냐 하면 역시 그것은民族의 自由와 平和와 平等을 期約하는 統一로서 代替해야지 뭐로 代替하겠읍니까.

그러나 現実은 냉엄합니다. 南北間의 交流를 통해서 南北韓의 同族意識을 回復해야 한다는 提唱도 결국 벽에 부닥치고 있읍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交流를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交流를 하자면…… 정말 交流에는 相対方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交流를 提唱하더라도 北韓当局이 이에 応하지 않는다면 交流를 통해서 同族意識을 回復할 것을 모색한다는 것도 또 개미 쳇바퀴 도는 그런 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거듭 강조하고 싶은 것은 統一 統一하고 統一타령만하고 実質的인 알맹이가 없는 口頭 에만 그치는 것은 의미가 없고 統一 統一하고 統一만 외다고 해서 統一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口号로서 統一이 된다면 옛날 옛적에 벌서 되었겠읍니다.

두갈래로 異質化된 民族을 統一하는데 있어서는 비상한 意志와 인내와 努力이 必要하겠읍니다마는 그것은 한걸음 한걸음을 옮겨가며 山을 오르는 作業과 비유할 수 있읍니다. 우리는 단숨에 山봉우리에 날라 올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한걸음 한걸음 발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그러나 登山 登山하면서 아무 것도 하지않고 발걸음을 옮기지도 않고 山밑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실은 登山꾼이 아니라 登山을 안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統一을 위한, 登山을 위한 一步前進이 必要하다고 봅니다. 한걸음이라도 統一에 보다더 접근하려는 것이 同族意識을 回復하는 努力을 하자는 취지이고 同族意識을 回復하려면 역시 서로의 交流가 不可欠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交流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始作이 半이라는 俗談이 있읍니다마는 이 경우에 꼭 어울리는 俗談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交流 交流하지만 그 交流는 도대체 具体的인 内容이 뭐냐 하는 그런 問題가 또 나올 수가 있겠읍니다마는 그런 問題는 지금 交流라는 것이 저쪽하고 実現될 可能性도 눈에 보이지 않고 있는 마당에 그런것을 論議하는 것은 時機尚早의 느낌을 禁할 수가 없읍니다. 김치국의 느낌이 없지않아 있읍니다마는 그런데로 最小限의 言及을 용서해 주신다면 저는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언젠가 어느날이고 南北間의 交流가 始作된다고 하더라도 일시에

当初부터 広範囲한 民衆의 交流, 家族訪問이라든지 省墓라든 招請이 라든지 무슨 観光旅行이라든지 여러가지 広範囲한 民衆의 交流라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여러가지 混乱과 副作用이 豫想 되느니만큼 일시에 当初부터 그렇게는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역시 制限된 交流부터 始作이 된다고 하더라도 経済交流 또는 学術交流 스포츠交流 芸術交流 이러한 것은 比較的 착수되기가 쉬운 交流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 芸術交流에서도 学者들이 関心을 가지는 分野가 많습니다. 植物学者는 以北의 植物에 대해 関心이 있겠고 動物学者는 以北의 動物들, 南韓에는 없어진 天然記念物이 以北에서는 아직도 있느냐 없느냐 関心이 많겠고 以北에서 最近에 発見된 高句麗時代의 벽화 이런 것에 関心을 가지는 学者들도 있겠고 여러가지 学者들이 関心을 가지는 分野가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識者들이 가장 時急하게 생각하는 것은 国語学者들의 交流입니다.

民族의 単一性 同質性을 維持하고 同族意識을 共有하는데 있어서 얼마나 말 言語가 重要한 것이냐 이것은 제가 여기에서 구구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읍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異質化를 論할 때에 注目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말부터 서로 달라지고 있는일입니다. 한 겨레가 서로 다른 말과 서로 다른 마춤법과 서로 다른 国語辞典을 使用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큰 問題입니다. 民族의 同質性 또는 同族意識 이러한 観点에서 매우 심각하고 큰 問題입니다.

北韓에서만 말이 달라지고 있고 南韓에서는 말이 달라지지 않고 있다고 저는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南韓에서도 33年前의 말을 그대로 33年동안 지금까지 쓰고 있다고 主張할 생각은 없읍니다.

말은 変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南北韓의 国語学者들이 하나로 統一된 마춤법을 만들고 可能하면 하나로 統一된 国語辞典을 엮어내는데 成功한다면 이것은 統一을 위해서 매우 意義가 큰 一步前進이라고 저는 評価하고 싶습니다.

交流를 始作하는 節次로서 対話가 있어야 하겠지요. 그러나 여기서는 南北間의 対話같은 그런 政治的인 局面에 까지 깊이 말씀을 안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편 交流가 北韓의 政権 体制를 흔들 것이 아니냐, 그러니 北韓에서는 交流에 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交流 交流 아무리 해보아야 交流를 하면 北韓의 政権体制는 뒤흔들려지니 北韓이 交流에 応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交流 交流라고 골백번 이야기해 보아야 의미가 없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도 있읍니다.

그러나 이 関係도 来日午後에 趙淳 教授님께서 北韓社会의 長期展望이라는 題目으로 北韓社会의 앞날을 分析해 주실 豫定으로 있읍니다마는 역시 北韓社会도 고정된 社会는 아니고 역시 北韓社会도 움직이고 있는 社会라고 봅니다.

한편 北韓의 움직임을 政治的動向을 꾸준히 観察 分析하고 있는 政府当局者 가운데에는 어쩌면 北韓当局이 가까운 時日안에 対話에

応할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觀測을 最近에 내린 일도 있는 것을 記憶하고 있읍니다.

結論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統一이 되어야 되겠고 그러나 民族의 現実은 民族의 理想인 統一과는 너무나 먼 正反対인 異質化이고 이런 엄청난 乖離를 메우는 길은 同質化일 것이며 同質化의 核으로 볼 수 있는 同質意識의 回復은 南北間의 交流가 없이는 그 進展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오늘 저의 結論입니다.

〈討　　論〉

司会：朴権相
討論：申泰煥　曺大京　韓相　李寅永
趙徳松

○ 司会(朴権相)：대단히 감사합니다.

한時間정도 되었읍니다. 内容을 제가 되풀이 할 時間이 없겠고 곧 討論에 들어가겠읍니다

그리고 討論者를 아까 세분을 소개했는데 그 後에 東国大学의 李기영博士께서 参考해 주셨읍니다. 맨 나중에 오셨으니까 맨 먼저 論評을 부탁드리겠읍니다.

○ 李箕永 오늘 점심시간에 좋같이 배석을 했다가 時間이 許諾하면 듣고 갈까하고 마음을 먹고 있었을 뿐인데 司会 혹은 主管하시는 분들께서 굳이 한마디 하고 가라고 해서 할 수 없이 올라왔읍니다마는 제가 굉장히 바쁜 일이 있어서 한두마디 제가 常識的으로 느끼고 있던 것을 말씀드리고 자리를 뜰까 합니다.

発表해 주신 洪先生님 말씀에 대해서 基本的으로 同感입니다. 여러가지 重要한 말씀들도 많이 해 주신 것으로 압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根本趣旨에 있어서는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그 接近하는 方法이 혹은 説明하는 方法이 조금 다를지 모르겠읍니다.

먼저 同質化라고 하는 그 어휘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 同質化라고 하는 것은 「質이 같아지게끔 한다」 그런 뜻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고 그런 뜻에서 英語로 호머지니티를 이룩한다. 하는 뜻으로 생각하겠읍니다. 꼭같은 소의 젖들을 모아서…… 그러니까 꼭같은 소로 牛乳를 만든다. 하는 이런 式의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同質化라는 말은 同体化라고도 表現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과 同質化와 같이 해서 그래서 体質이 같아지게끔 한다 하는 그런 뜻으로 解釈할 수도 있겠읍니다.

「体」字하고 「質」字하고 合쳐서……

그러나 同体化하면 저는 視覚的인 思考方式이 물이 들어 있어서 一心同体化되는 것 이런 뜻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비슷한 것이 아이덴티휘케이숀이라는 西洋말이 있는 줄 아는데 아이덴티휘케이숀이라는 말이 상당히 어려운 말이고 아이덴티가 뭐냐 그럴 때에 西洋사람들 자신들도 조금 안다는 사람이 対答을 잘 못하고 있는 것을 보았읍니다마는 저는 그것을 결국은 그 사람이 그 사람된다. 사람이 진짜 사람된다. . 사람이 사실은 사람으로서 同体化되어 있지 않는 경우도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짐승처럼 되어 있다거나 사람이 機械처럼 되어 있다거나 사람이 物件처럼 되어 있다거나. 日本사람하면 에코노믹에니멀로 되어 있다. 이런

경우 이것은 상당히 人間이 人間아닌 異質的인 것으로 化해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이 同質化라는 말은 상당히 哲学的으로 깊이 생각해 될 用語인줄 압니다.

거기에 따라서 異質化問題도 많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異質化 異質化하는데 무엇에서 異質化되었다는 말이냐 이것도 問題입니다.

아까 洪先生님은 과거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同質化되어 있었던 것처럼 조금 말씀하셨는데 과거에도 아까 단서를 붙이시면서 民族的으로는 同質化되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대개 제 생각과 틀림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여기에 注意해 두고 가야 할 것은 과거에도 高句麗사람은 高句麗사람 気質이 있고 新羅사람은 新羅사람 気質이 있었고 百済사람은 百済사람 気質이 있었다. 뭐 그러니까 異質的이었느냐 그렇게는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同質化라는 問題를 지금 韓国사람이 両쪽으로 갈라져가지고 政治 이데오로기 때문에 北쪽 사람들이 상당히 人間이 아니게끔 된 그런 状態에 빠졌고 또 韓国사람이라기 보다도 共産主義 人間이 되어가고 있어서 無国籍的인 非民族的인 혹은 反民族的인 그러한 状態에 있다. 그래서 더 많이 問題가 된 줄로 압니다.

同質化라는 問題를 아까 階級間의 무슨 隔差라든가 貧富의 隔差라든가 이런것 까지도 関聯시켜서 생각을 하시는 것은 이것은 조금 지나칠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社会든지 과거에도 이런 일은 없었고 未来에도 人間社会에

에 아무런 隔差도 없고 또 아무런 質的인 差異 혹은 그 才質의 차이라든가 理想의 차이 이런 것이 없는 社会는 저는 없는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人間社会는 그것이 반드시 있는 것인데 다만 韓国사람이 韓国사람 아니게끔 되었다. 同族이 同族을 殺害하는 殺人者로서 登場했다. 이것이 問題가 된다. 오히려 소련쪽에 더 가까워 共産主義의 祖国을 더 생각한다 이것은 確実히 人間이 아니게끔 되었을 뿐만 아니라 韓国사람이 아니게끔 되어있지 않았느냐 그런 点에서 지금 우리가 問題삼고 있는 同質化라는 것은 즉 코리안 아이덴티휘케이숀이라는 韓国사람이 韓国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 問題로 되돌아와야 될 것이다. 그것을 韓国이라고 이야기를 하든 朝鮮이라고 이야기를 하든 혹은 高麗라고 이야기를 하든 新羅라고 이야기를 하든 상관이 없는데 하여튼 英語가 더 좋습니다.

코리안나이제이숀 되어야 되겠다. 이 아이덴티휘케이숀 된다는 말이고 또 좀더 넓게 이야기를 하면 야수처럼 되어버린 敵愾心의 化身처럼 되어버린 共産主義者들로 하여금 人間의 自由로 되돌아가게하는 휴머니제이숀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南北間에서 異質化되어 있고 경향을 달리하고 있을 때 同質化되어야 된다는 것은 사실인데 그 目標가 뭐냐 할 때에 그 目標를 厳하게 設定을 해야 되겠는데 그 目標는 우선 人間으

로서는 人間다운 人間이 되어야 되겠고 그 人間이 그냥 그 나름 대로의 그 個的인 特色이 없는 人間이 아니라 人類속에서의 이 韓半島에 벌써 数千年前부터 같이 살아왔고 血統이 같고 그 歷史를 共通으로 가져왔고 지금 对立하고 있을망정 아직은 그 歷史를 역시 같은 運命속에서 살고 있고 같은 分裂을 아파하고 하는 그런 속에서 역시 人間이다. 그런 人間이 韓国사람의 正統 韓国사람이 서 있어야 하는 血統上에 있어서의 正統 또 歷史 文化上에 있어서의 思想, 言語上에 있어서의 正統으로 되돌아가는 그것을 同質化의 目標로 삼고 南쪽에서나 北쪽에서나 다 그쪽으로 가야 될 것이 아니냐?

우리는 勿論 그러한 自由를 누리고 지금 그 方向으로 努力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北쪽사람들이 그 支配的인 몇몇 共産党 勢力者들에 의해서 이러한 異質化傾向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 問題가 더 심각하게 提起되어 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同質化의 目標를 좀더 이런 觀点에 세웠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同質化의 方案은 뭐냐 하는 것이 둘째 問題로 생각되었으면 싶은데 同質化의 方案으로서 스포츠交流라든가 学問의 交流라든가 이러한 말씀을 하셨지만 스포츠의 交流라는 것은 얼마전에 「다카」에서 이미 보았읍니다. 스포츠競技를 한다고 해서 그 自体로서 同質化를 為한 接近의 方法이 되지는 않는것이 아니냐 이것은 보다더 広範囲한 複合的인 要素가 잘 이루어질 때 그때에

비로소 期待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던 同質化의 方案으로서 最初로 꼽을 수 있는 것은 緊張의 解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부드러워지는 것이다.

人和 혹은 柔和한 그런 態度가 먼저……

그러니까 부드러운 분위기의 造成 이것이 政治的으로나 혹은 그 밖에 다른 方法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아니면 同質化의 作業은 始作될 수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緊張의 解消가 外的으로 内的으로 생기게 되었을 때에 여기에 자연히 그 다음 段階로 따르는 問題는 人間들의 마음속에 善意, 착한 마음씨가 싹터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善意의 回復이 必要하다 그것을 前提로 하고 対話는 이루어질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는 対話는 싸움밖에는 안된다. 멱살 잡고 싸움하는 것 밖에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対話라는 것이 肯定的인 対話가 될 수 있으려면 이런 緊張緩和와 善意의 回復이라는 두가지 前提条件이 있고 나서 対話는 始作되는 것이며 그 対話는 漸次的으로 심오한 方向으로 哲学的인 혹은 人生의 問題를 論하는 歷史의 問題를 論하는 거기까지 가야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対話에 있어서 対話의 자리가 당장 마련되었다고 할 때에는 우리가 생각해 두고 準備해 두어야 되겠다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는 정말 우리歷史의 民族의 歷史의 충실한 그러한 하나의 伝統的인 思考方式과 그런 文化意識을 갖추고 있어야 되겠다는

것. 우리가 가장 충실한 繼承者로서의 役割을 해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한마디 말씀을 드리다가 생각난 것은 결국은 도그마틱해 지지 않아야 되겠는데 제가 말을 하나 만든다면 디도그마티제이죤 저쪽에 있어서의 도그마를 없애버리는 도그마가 없는 狀態에서 人間이 정말 순수한 人間의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생각을 가지고 생활을 하는 그런 高度의 自律的인 文化가 생기기 전에는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肯極的인 同質化를 向한 그러한 발걸음은 좀처럼 순조롭지 못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했읍니다. 감사합니다.

○ 司会(朴權相):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분 先生님의 論評을 모두 듣고 그 論評에 대한 論評을 洪先生님께 부탁드리겠읍니다.

趙先生님 좀 이어주시지요. 論評을……

○ 趙德松: 실은 朝鮮日報社에 主筆로 계시는 鮮于 輝先生께서 오늘 이 討論에 參加하게 되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분이 急한 일이 생겨서 不參하게 되었고 또 한분 梁好民先生께서는 共産圈問題에 權威입니다마는 다른 파트에 參与를 하셨던 모양같고 그래서 新聞社立場에서도 자리를 비울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나가야 된다고 해서 자리를 메우는 立場이 되었읍니다마는 그러나 제 나름대로 여기에 나온 것은 갑작스럽지만 그런대로 약간의 理由가 조금은 있읍니다.

最近 統一院主催로 南北의 異質化問題 同質化回復의 追求의 問題라든지 해서 여러가지 많은 硏究 또는 이러한 모임을 갖고 있는 것이 報道가 되고 있읍니다.

昨年에 7.4 共同声明 5周年을 記念해서 南北調節委員会가 主催를 해서 역시 学術的인 討論을 가졌읍니다. 저도 거기에 조금 参与를 해서 司会도 보고 했읍니다마는 그 때에는 課題의 하나가 民族同質性 回復의 課題라는 파트가 있었읍니다. 이것의 主題를 말씀하신 분이 바로 鮮于 輝先生님이었읍니다. 다소 같은 問題性이 洪承勉先生의 論文의 内容에도 言及이 계시고 해서 그런대로 귀동냥을 했던 것을 밑천삼아서 가서 조금 말씀드릴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昨年 그때에 民族同質性回復의 課題라는 主題를 놓고 몇분들이 討論에 参与를 하셨는데 그 中에 한분이 政治学을 하는 분이었읍니다마는 이러한 質問을 主題発表者에게 했읍니다. 여러가지 言及이 착실하게 되었는데 社会科学을 하는 사람의 立場에서 보면 社会科学的인 接近方法論은 提示가 되어있지 않는것 같다. 同質性回復을 위해서 어떻게 科学的으로 具体的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方法論은 提示가 되어 있지않는 것같다. 이런 指摘이었읍니다.

그러자 主題発表者가 받기를 그대로 肯定을 합니다. 그것은 提示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읍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까닭에 조금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洪承勉先生님께서도 결국 南北同質化의 諸問題에 言及을 하시면서 妙案이 없다. 妙案이…… 이 問題는 民族의 欲求 民族의 意志로서 대단히 소중한 問題提起지만 유감스럽게도 脆弱性을 지니고 있다. 妙案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작금 본다면 우리社会에 南北間의 異質化問題 아니면 同質性 回復의 問題같은 것이 넓게 社会에 論議거리가 되어가고 있다. 社会意識化해 가고 있다고 그럴까 이런 경향들을 前에 比해서는 상당히 우리가 두텁게 느낄 수가 있는 때가 되었다고 지금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論評이라기 보다도 어떻게 무슨 方法論的인 接近같은 것을 우리들이 具体的으로 모색해 볼 그러한 与件 環境때도 되지 않았느냐 해서 소박하게 意見이라고 할까 그런 말씀을 한두가지 말씀드려 볼까 생각하고 있읍니다.

먼저 지금 南北問題는 同質化問題는 患者의 病勢는 거의 正確히 診斷이 되어 있는데도 処方은 전혀 없다. 이런 状態가 아니냐 그래서 洪先生님께서도 統一이라는 政治的인 作業과 그 다음에 同質化라는 제 나름대로 약간 概念을 差異를 두어 본다면 文化 社会的인 現象의 側面에서의 接近 이것이 統一과의 関聯性에서 同質化의 問題라는 것을 過小評価 過大評価 해서는 안되고 統一이 結局 되기 위한 前提로서의 交流, 交流가 이룩됨으로써 同質化를 同時에 追求할 수 있다. 이런 뜻의 말씀

이신 것같습니다마는 이것을 조금 単純化시켜서 統一이 되었을 때에 비로소 同質化라는 課題追求가 可能한 것이냐 뒤집어서 同質化라는 作業을 推進시키는 것이 統一로 가는 길이 되는 것이냐 또 同時에 進行할 수도 있다고 하는 뜻을 저는 이제 洪承勉先生의 交流가 唯一한 方法이라고 하는 뜻을 解釈을 해보았읍니다마는 이렇게 問題를 単純化시켜서 생각을 해본다면 우선 지금 이 状態 対話가 열렸다가 끊어졌읍니다마는 이 状態에서나마라도…… 아까 여러가지 学術分野랄지 事前에…… 昨年에 세미나에서도 고병익 서울大学副総長께서도 事前에 共同作業 学者들의 말에 강조를 하셨읍니다마는 여러가지 말이 나왔는데 于先 可能한 무슨 準備라고 할까 条件의 마련이라고 할까 整地作業이라고 할까 이런 것에 관한 우리 社会的인 関心이 좀 달라질 수도 있는 어디 餘力이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그것이 더 拡散되면 対話 交流 統一 이러한 政治的 作業의 마무리까지도 이어지는 그러한 것이 아니겠느냐.

아까 洪承勉先生님께서 점심 자실 때에 青少年축구팀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이를테면 新聞社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가 느낀 바를 말씀드리면 대카大会에서 報道를 하는 우리 大衆媒体들의 態度가 이것은 뭐 不俱戴天의 원수를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前에 한번졌는데 이번에는 이 不俱戴天의 원수를 꼭 때려 눕혀야 된다는 이런 분위기로 報道를 해오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이겼다. 勝負차기에서 이겼다. 그런데 어느 新聞은 北傀팀 擊破 이렇게도 題目을 붙였고 또 어떤 新聞은 北韓팀을 擊破 이렇게도 題目을 붙인데가 있었읍니다.

그런데 축구試合에서 北傀팀 擊破, 北韓팀 擊破, 読者들에게 伝達되는 意味 内容은 다를 것이 없읍니다마는 그러나 語感에는 상당한 表現의 差異가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의 例입니다마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同質性을 追求하기 위한 여러가지 関心度가 社会化되어가고 있는데 자 이것을 조금 拡大시켜서 一般的으로 北韓의 称呼를 또는 北傀의 称呼를 어떻게 이것을 좀 統一한다든지 말하자면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느냐 하는 생각을 平素에 가지고 있읍니다.

例를 들면 金日成一派 평양集団 北韓集団 北傀集団 여러가지 用語들이 많이 나옵니다. 主로보면 政治 軍事 外交的 側面이 提起되었을 때는 北傀, 文化的인 側面이 提起되었을 때는 北韓 이런 用語들이 요즈음 나오고 南北対話가 열리고 있는 동안에는 北傀라는 用語가 한동안 表題에 登場하지 않았고 이런 問題가 있었읍니다마는 要컨데 이것은 단순한 하나의 例이지만 저는 어느 쪽이라고 主張하는 편이 아닙니다.

축구에서 이겼을 때에 저도 자신도 모르게 뭐라고 그럴까 테레비존 보고 다시 録画되는 것을…… 차넣고 막아내고 그런 것을 보고 반사적으로 아주 기쁘고 좋았읍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同質性의 問題를 追求한다. 結局 統一이라는 政治的 作業까지 完結을 위한…… 아까 사다리 말씀을 하셨지만 段階的인 作業으로 한다면 우리가 무엇인가 準備를 한다는 마당에 있어서는 가령 이러한 問題 하나만이라도 우리들이 먼저 新聞人들이 먼저 自律的으로 研究도 하고 해서 解決해야 할 問題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소박한 意見提示입니다.

今年 8.15날은 제가 알기에는 民族光復의 뜻은 지난 33年으로 足하다. 앞으로는 民族統一 내지는 民族同質性回復의 날로 이 날을 意義를 賦与해서 北쪽에 대한…… 소박하게 말씀드린다면 욕지거리 放送이라든지 이런 것을 안하도록 하겠고 또 海外公館들에서 併設이 되어 있는 北쪽의 公館이 있는 데에서도 公館끼리 연락을 해서 점심을 먹자든지 무슨 저녁을 하자든지 이러한 이쪽에서 能動的인 態度를 가졌다는데 実現된 것은 하나도 없다. 제가 듣기에는 아프리카 어느 地域에서는 만나자고 約束을 해놓고 저쪽에서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마는 여하튼 이러한 우리의 政治的 意味에서의 作業 이것도 어떻게 해석하면 同質化를 具体的으로 追求하는 우리의 努力의 姿勢의 表現이 아니겠느냐 또 그것이 漸進的인 変化의 과정이 아니겠느냐……

또 하나 보탠다면 朝総聯의 母国訪問을 우리들이 활발하게 展開를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個人的인 내 생각으로는 이 朝総聯 母国訪問은 상당한 危険負担을 안는 事業이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는 指令을 받고 意図的으로 工作을 하기 위해서나 또는 그밖에 目的을 위해서 不純한 目的을 지니고 오는 사람도 얼마든지 길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마는 그러나 이런 것을 우리들은 国家的으로 社会的으로 대단히 좋은 일로 우리가 推進을 시켜 나가고 있읍니다. 이것도 또한 南北間의 同質性 接近을 위한 具体的인 우리들의 方法의 展開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問題가 있읍니다. 어떤 問題냐?
엊그저께 第3땅굴이 또 発表가 되었읍니다마는 우리의 当面해서의 가장 緊迫한課題가 되어있는 이 安保라고 하는 次元에서의 問題意識과 가령 北傀 北韓의 呼称問題만 갖다가 단순히 거기에다 걸어본다고 하더라도 北쪽에 대한 우리의 意識이 前面的으로 対決意識化……
말하자면 対決意識의 前面化状態에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 그러한 우리의 当面의 긴박한 課題의 対決意識의 前面化라는 状況속에서 이것을 부드럽게 해서 이쪽이 어른스럽게 더 조금 同質化追求를 具体的으로 모색해 본다고 하는 것. 이것은 어떻게 말하면 상당히 충돌을 한다 相衝을 한다. 이런 問題 등등 그래서 例컨데 北쪽의 労動党이니 소위 北傀의 무슨 6.25같은 南侵 이런 것을 素材로 한 텔레비죤 드라마 같은 것이 나오면 初期에…… 아까 洪承勉先生님께서도 우수게 말로 몇가지 引用을 하셨읍니다마는 어린 아이들이 보고 왜

北傀사람들에게는 뿔이 있다고 하는데 뿔이 없느냐 이런 웃지 못할 이런 質問이 나왔다는 하나의 떠돌아 다니는 이야기겠읍니다마는 이러한 經驗도 솔고 이 安保課題라는 것을 前面에 내세울때에 対決意識이 前面化할 수밖에 없는 状況속에서 또 되고 있는 状況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우리는 조심스럽게 追求를 해야 되느냐 이런 問題같은 것도 우리가 조금 신중하고 진지하게 여러가지 硏究를 하고 接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것을 오늘 先生님의 力作을 읽으면서 제가 昨年에 귀동냥을 조금 했던 民族同質性 回復의 課題라는 討論에서와 마찬가지로 해야 할 일이면서도 영 妙策은 없고…… 勿論 課題나마 이것을 절실하게 具体的으로 追求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러한 点에 관해서 洪先生님은 많은 部分을 약간씩 스치시고 言及을 별로 안하셨읍니다. 時間関係도 게시겠지만…… 可能하시면 평소에 생각하셨던 것이라도 끝난 다음에 말씀을 조금 해 주셨으면 싶은 그런 希望입니다.

감사합니다.

○ 司会(朴權相) : 우리끼리만이라도 무엇인가 조금씩이라도 해나간다는 具体的인 말씀이었읍니다.

다음에는 서울大学校 心理学教授인 曺博士께서 말씀하시겠읍니다.

○ 曺大京：지금 司会先生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 専攻이 心理学입니다. 心理学하고 統一問題하고 어떤 聯関性이 있느냐 보기에 따라서는 心理学이라는 것이 쥐 実験이나 하고 혹은 어린이의 育児方法이나 研究를 하는 그런 分野같은 概念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그 나름대로 例를 들어서 어린이의 教育 育児方法을 다시 하는 경우에 저쪽 北韓社会에 있어서의 育児方法이 판이하게 달라진다. 이런 例로 보아서 저쪽의 願하는 人間型의 形成過程이 어떠한 節次를 밟고 이루어지는가 이런 面은 저의 専攻面에서 해석이 可能할 것 같습니다.

于先 말씀의 順序로 아까 처음에 나왔었지만 李先生님께서 同質化의 概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質이 같아지는 것으로 생각한다든가 혹은 同質化 혹은 異質化가 뭐냐 여러가지 哲学的인 깊은 그와같은 말씀을 했는데 저는 이러한 問題가 나올줄 알고 어제 辞典을 찾아 보았읍니다.

同質性이 뭐냐 상당히 아주 놀라울 정도로 간단한 定義가 되어 있더군요.

同質性이라는 것은 集団成員들 간의 여러 変因들 이를테면 思考 感情 言語 行動 이런 것에 있어서의 類似性을 意味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이 33年사이에 이와같은 類似性이 弱해지고 그다음에 相異性 서로 差가 나는 点이 増加하고 있다는 이러한 안타까운 現実에 놓여 있는데에서 이러한 모임이 開催된 것으로 理解가 됩니다.

33年의 그러한 歲月이 흐르는 사이에 우리 社会에서도 変한 것이 많은 까닭에 저쪽에서 이쪽을 볼 때에는 상당히 異質化 되어간다. 그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西쪽의 異質化에는 제가 볼 적에는 基本的인 差異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卽 民族的인 伝統 文化의 繼承이 가장 基本的인 核心体인 家族이라는 構成体 単位 그것을 北韓社会에서는 強制的으로 変形했고 그 다음에 이런것을 통해서 伝統的인 것의 抹殺 拒否를 해왔고 反面에 이쪽은 異質化가 되어도 그러한 伝統的인 家族構造를 그대로 繼承해 왔다는 点에서 両쪽간의 異質化의 差異가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이것은 아까 洪先生님께서 40才以上의 北韓住民은 두 民族을 우려하게 될만큼 極度로 異質化된 것은 아니다라는 表現을 証明하는 現象입니다.

왜냐 하면 解放이 된지 33年 그러면 지금 40才의 저쪽 사람은 解放될 때 7才니까 일곱살이라고 하면 心理学의 여러가지 理論에서 性格形成理論에서 7才까지는 大体로 人間의 性格構造에 基本的인 核心体가 이루어진다는 期間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금 40才 住民들은 이미 우리하고 비슷한 家族的인 経験도 가져왔다 하는 意味에서 우리하고 対話할만한 可能性이 있다. 하고 짐작이 가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伝統的인 것의 家族을 통한 繼承이라는 것이 決 :

定的인 影響을 行使한다는 것은 北韓이 이미 이와같은 繼承의 抹殺을 通해 가지고 76年부터 어린이保育敎養法에 의해서 乳兒를 一週 혹은 1個月에 하루만 家庭에서 父母하고 지내게 하고 그 以外에는 託兒所에서 集团收容을 하고 그 다음에 4.5才가 되면 유치원에 넣어서 政治敎育을 하고 戰爭놀이 속에서 자라게 하면서 자기들의 目的에 부합되는 人間型으로 鑄造하려고 하고 아주 찍어내려고 하는 그와같은 努力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와같이 볼때 問題는 40才以下의 北韓同胞들의 異質化인데 換言해서 北魂의 目的에 符合되는 人間型을 만들기 위해서 가진 手段方法의 対象이 되어온 그 期間이 比較的 길었던 그와같은 年齡層의 同胞의 異質化, 말하자면 우리하고 行動이 다르고 思考方式이 다르고 우리하고 感情이 다른 이러한 問題가 되었읍니다.

그 手段하고 方法도 여러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지만 우선 두가지로 생각해 본다면 하나는 条件化라는 学習過程입니다. 이것은 心理学의 基本的인 学習의 形態인데 条件化에 여러가지 形態가 있겠지만 상당히 原初的인 原始的인 가장 단순한 그러한 方法으로 条件化하는 과정을 取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짐작을 하고 있읍니다.

말하자면 아주 基本的인 生理的인 欲求를 자신들이 願하는 反応을 할 때에는 充足시켜주고 그 다음에 願하지 않는 行動을 할 때에는 苦痛스러운 刺戟을 주면서 計劃된 反応과 行動을 굳혀가는 과정을 実践하는 形態를 取하는 것이지요.

이것도 상당히 不安한 状態에서 接近을 하는 경우에는 여러가지

動物実験을 통해서 할 것같으면 不安한 形態에서 接近하는 경우에는 그条件形成이 더 잘 되고 일단 形成된 反応이나 行動이 다시 없어지지 않는 그러한 結果가 나옵니다. 따라서 저쪽의 그러한 不安한 가령 威脅的인 場面에서 条件化시켜나가는 이러한 과정을 밟고 있는 것으로 짐작이 갑니다.

이런 것은 6·25때에 포로가 되었던 美軍포로의 洗脳工作에서도 볼 수가 있고 또 作業의 種類나 혹은 量에 따라서 食糧割当의 量을 調整해 나가는 이러한 方法을 보아도 저쪽에서 이와같은 原初的인 条件化의 方法으로 회유시키는 것을 알수가 있읍니다.

또 한가지는 다른 角度의 方法인데 北韓社会가 여러가지 強要에 의해서 世界에서 보기드문 閉鎖性과 攻擊性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다 아는 바입니다.

그런데 우리 自身이 自由로운 분위기에 있을 때는 모르지만 自由가 없는 環境에 놓일 때 사람은 自己自身이 自由를 願하는 그 힘이 얼마나 強力한 欲求인지 알 수가 있읍니다. 뭐 추상적인 意味에서의 自由가 아니고 가령 例를 들어서 무슨 뭐 親旧를 찾아가고 새로운 刺戟을 찾고 探索하고 하는 이와같은 態度는 거의 生得的인, 타고날때부터 가지고 나오는 本能的이라고 하는 点에 学者들이 많이 賛成을 하고 있어요.

例를 들어서 원숭이같이 것이 배가 고픈데 먹이를 추운 방에 갖다놓고 그다음에 신기한 장난감을 주는 경우에는 배가 고픈것을 모르고 신기한 장난감을 가지고 하루종일 노는 이러한 현상이 觀察

되고 하다 못해 쥐새끼 같은 것도 생전처음 새로운 환경에 집어넣으면 먹이가 있어도 먹지 않고 자꾸 探索하고 돌아다니는 이러한 뭐가 있읍니다.

그래서 사람에게서는 이것이 더 強한 것이라고 느껴지는데요 호기심이 있고 探索하는 이런 意慾들이 말이에요. ……
이런 것을 전부 抑制하는 경우에는 우울해 지거나 혹은 攻擊性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것은 저쪽 共産世界에서 自殺의 率이 아주 높다는 것을 보아도 우리가 짐작이 가는 現象이지요.

그리고 여러가지 外部의 現實을 전달해 주지 않는 경우에 그때에는 여러가지 妄想 幻想 심지어 幻覚같은 것이 일어난다는 이러한 幻覚같은 것이 일어난다는 이러한 사실도 実驗的으로 証明이 되었읍니다.

가령 大学生을 1週日동안 아주 편안하게 하루에 한 50弗씩 주면서 그냥 누어만 있어라 그 다음에 귀를 가리고 눈을 가리고 一切 刺戟을 주지 않는 것이지요. 그랬더니 2,3日만에 幻聽 幻覚이 일어납니다. 눈에 보이고 귀에 무엇이 들리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는 돈을 아무리 더 많이 주어도 이제 이 実驗에서 내가 被驗者가 될 수 없다고 뛰쳐 나갑니다. 그러니까 미칠 것같은 그러한 環境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이와같이 우리가 늘 刺戟을 必要로 하는데 이런 것을 갖다가 주지 않는 경우에는 여러가지 異状現象이 일어나는 것이지

요.

그런데 이와같은 攻擊性같은 것이 突出口를 찾지 못할 때는 自 性을 띠게 돼요. 이런 것이 아까 말씀드린 自殺의 率이 높아진다는 이러한 現象은 事實이겠지만……

그런데 이와같은 攻擊性조차 말하자면 自虐性을 띠어 自己自身을 攻擊하는 이와같은 形態를 取할 수 있는 可能性조차 막아버리는 경우에 모든 攻擊性의 突出口조차 抑制되는 경우에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攻擊性이라는 것이 一種의 下向性을 지니게 돼요.

그러니까 上官이 下士官을 야단치고 下士官이 士兵을 야단치고 士兵이 그 밑에 사람을 또 야단치고 이런 式으로 나중에는 어디로 가느냐 제일 마지막에는 땅을 파는 것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攻擊性의 下向……上向을 못하니까 下向이 나중에 땅굴을 파는 그와 같은 現象으로 갈 수가 있다. 이건 이야기지요. (웃음)

말하자면 新聞에서 発表된 저쪽의 땅굴이 規模가 크고 数가 많다는 의미에서 우리에게 向한…… 또 出口가 우리에게 向하고 있는데 우리를 向하는 攻擊性이라는 것이 얼마나 強하고 줄기찬 것인가는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것은 제 理論이 아니고 엔스트니스투워라는 사람이 쓴 휴벤아그레이숀이라는 冊에 그러한 句節이 있읍니다. 即 階級制 世襲制社会에서 社会構成員의 攻擊性이 더 내려갈곳

이 없을 때에는 그 때에는 땅을 팜으로써 敵愾心을 処理한다. 이러한 内容이 적혀 있어요.

그런데 저쪽에서는 그러한 敵愾心을 땅을 파서 処理하는 것이 아니고 이쪽으로 向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제 그와같은 例는 많습니다마는 同質化의 問題로 돌아가서 이제 이러한 환경에서 条件化되고 아주 단순하게 攻擊性을 갖다가 이렇게 助長되게끔 키워주고 그나마 伸縮性이 없고 攻擊一辺倒의 人間型으로 키워진 同胞들을 우리는 어떻게 対해야 되 되느냐 하는 問題를 생각해 볼 것 같으면 쉬운 問題가 아닌데 같은 言語 같은 民族 같은 過去가 있었다 해서 同質化라는 것은 問題가 되지 않는다고 主張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人間의 成長에 미치는 環境의 影響이라는 것이 거의 絶対的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北韓社会에서 또 言語自体가 벌써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들을 때에 同質化의 問題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処理될 수 있는 問題가 아닌것 같아요.

우선 우리 自身이, 아까 趙先生님께서 가령 지금 患者의 病勢는 알지만 処方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患者의 症勢를 우리가 確実히 알고 있는지 그것 조차 아직 조금 問題가 될 것같아요.

그러니까 저쪽의 여러가지 가령 사람의 性格形成 하나만 하더라도 거기에 관한 부수된 여러가지 節次라든가 環境 影響 이런 것에 대한 理解를 우리가 完全히 하고 있는지 그것은

아직 모르겠읍니다.

現實的인 狀況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狀況에서 우리는 아까 黃先生님이 말씀하신대로 異質化의 緩和 또는 鈍化하기 위해서 対話를 인내성을 지니고 促求하는 그러한 方法밖에 제 머리에는 안떠올라 오는데 아까 李先生님께서 다카에서 実施한 青少年축구試合 交流가 있었지 않느냐 그러나 거기에서 어떠한 対話가 있었느냐 하지만 그러한 式의 対面이라도 자주 接触하는 사이에 두번째 세번째는 좀 態度가 緩和되지 않을까 이러한 角度에서 対話를 자꾸 促求하고 交流를 促進하는 그런 努力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것 같고,

그다음에 두번째는 北韓社会의 理解를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 方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北韓社会라는 것이 異質化해 나간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가지 客観的 分析이 可能한 範囲가 많겠는데 가령 저쪽의 新聞하고 이쪽의 新聞하고 어떤 特定한 아티클속에 있는 副詞 形容詞 名詞 이 比率이 어떻게 되어가느냐 우리가 알기에 사람이 感情的인 面을 呼訴할 때에는 副詞나 形容詞의 使用빈도가 增加할 것입니다.

그런것을 보더라도 우리하고 어떻게 달라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理解해 가는 것이지요.

또 저쪽의 教科書의 内容같은 것을 分析을 해 보면 이쪽하고의 比較를 우리가 해 가지고 客観的인 差異点을 確実히 잡아

낼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것이 제가 大体로 생각해 보았던 内容입니다.

○ 司会(朴權相) : 감사합니다.

끝으로 서울大学에서 文化人類学을 하고 계시는 韓相福教授께서 論評이 있겠읍니다.

○ 韓相福 : 지금까지 洪承勉先生님께서 主題発表를 해주시고 다른 論評하시는 先生님들이 重要한 포인트는 이미 다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래서 実際로 제가 거기에 뭐 다른 妙案을 말씀드릴 것은 없고 지금까지 들은 모든 말씀들이 평소에 제가 생각하고 있던 그것을 그대로 指摘을 해주셨읍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에 参観하신 여러분들께서도 同感이리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가지 여기에서 문득 느낀 것은 만약에 이 자리에 北韓住民들을 相当数 이처럼 갖다가 앉혀놓았을때에 그 反応이 어떠했을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읍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중에 어떤 사람은 同感도 있었을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는 反応도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 아니냐 그런 問題에 대해서는 洪先生님께서도 아까 지적을 하셨읍니다마는 우선 壮年이나 老年 이런 成人層과 青少年 아직 그런 民族의 集団経験을 共通으로 갖지 못한 그런 世代와는

상당히 다른 것이 있지 않았겠느냐, 여기에도 大部分 모인 先生님들께서 대개 年才가 많으신 분이 많은 것같고 젊은 世代 特히 学生層에 계신 분들도 더러있지만 상당히 적은 것같습니다. 勿論 学校에 나가고 해서 자리를 같이 할수 없는 事情도 있겠지만…… 그렇게 했을때에 결국 이러한 北韓사람들을 여기에다 데려다 놓았을 때에 나타나는 反応 상당히 우리하고는 똑같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에요.

거기에서 결국 異質化의 問題가 抬頭되지 않았나 우선 이렇게 보고 그러면 그러한 異質化가 어떻게 일어났느냐?
우선 異質化라는 것은 우리가 南北을 따로 떼어서 생각을 하지 않더라도 変化라는 것은 不可避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分断되지 않은 状態에서도 変化 이런 것은 不可避한 것인데 하물며 南北韓이 딱 分断이 되었을 때에 그것이 確実히 그러한 変化와 異質化를 더 加速化시킨다 그것이에요.

例를 들어서 言語를 包含하는 아까 洪先生님께서 말씀하셨자만 실지로 言語가 우리 自体의 言語는 変합니다.
그것을 意図的으로 変化시키려고 努力을 안해도 変化합니다.

제가 外国에 있을 때에 그런 経験을 이야기를 들었읍니다. 希臘사람이 美国에 와서 할아버지代에 와서 60年동안을 自己가 自己말을 그대로 維持해 왔읍니다. 自己말을 그대로 아들한테 가르치고 自己가 当代에 移民와서 아들 거기서 낳아가지

고 또 孫子한테 가르치고 집안에서 항상 希臘말을 썼읍니다.

그러다가 60年만에 그 孫子가 커서 大学院을 마치고 처음으로 希臘을 다시 갈 機会를, 自己의 원 祖国을, 勿論 美国의 市民이 되었지만 祖国을 한번 찾아가 본다. 結婚도 希臘사람들끼리 했고 그랬는데 自己는 자신만만하게 希臘말을 쓰니까, 空港에 내려서 自己自身의 유창한 希臘말을 썼을 때에 그 周囲의 사람들이 다 웃더랍니다. 왜 웃느냐? 내 말이 틀렸느냐? 틀린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이미 半世紀前에 쓰던 말이다.

지금은 그런 어투로 안쓴다.

만약에 지금 우리가 50年前이나 100年前에 쓰던 말을 그대로 쓰면 상당히 語感이 테레비에서나 볼 그런 말일 것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이것을 断絶시켜놓고 서로가 소통이 안되고 또 거기에 主義思想 言語라는 것이 항상 우리의 思考를 바꾸어놓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異質化現象이 加速化되어가고 있다. 그것이에요. 우리 自体内에서도 勿論 상당히 모든 文化的인 側面伝統民族文化 이것이 連続되는 것도 있고 또 断絶되고 変化되는 것도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이 南北韓이 分断이 되어있기 때문에 해서, 勿論 가장 基本的으로는 政治的인 이데오로기나 혹은 経済体制나 社会構造, 曺先生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선 以北에서는 家族生活 親族生活 村落生活 그밖에 여러가지 우리 伝統的인 生活様式

또 사람들의 思考方式 이런 社会構造的인 全般的인 変化 異質化 이것을 人工的으로 強制的으로 意図的으로 変化시키고 있다는 이것이에요.

더군다나 그 사람들이 歷史 民族史도 意図的으로 歪曲시키고 있다. 이것이에요. 自己네 主義 主張 思想을 집어넣기 위해서, 그러는 가운데 에서는 人間型까지도 実際로 바꾸는 것이 우리가 쉽게 理解가 갑니다.

그러면 이러한 異質化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異質化가 南北이 점점 다른 길로 나간다. 그것은 결국 統一에의 可能性을 막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좀 어떻게, 아까 洪承勉先生님께서는 좀 템포를 늦추어보자 勿論 하나의 消極的인 方法입니다.

그래서 좀 더 積極的인 方法은 뭐냐 同質化의 方案을 찾아보자 南北交流 対話 이런 길을 우리가 찾아보자고 하는 것인데 이 異質化와 同質化問題는 사실상 똑같은 問題의 表裏입니다. 異質化되어 가니까 어렵다. 이것을 우리가 바라는 대로 해나가자 同質化시켜 보자 말이지요.

그러면 그 基準이 뭐냐 뭐에서 異質化되느냐 아까 趙德松先生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勿論 저도 同感입니다. 民族, 民族의 理念을 基準으로 해서 民族의 理念은 어제 理論과 実際에서 많이 말씀을 들었을 줄로 압니다.

제가 알기로는 民族이라는 것은 사실상 血統과 地理 歷史 共同体에요. 言語를 包含하는 文化共同体 그리고 또 実際로 무엇보다도

重要한 것은 그 人間集団이 団合意志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에서 그러한 民族概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지 않는가,

아까 同族意識도 말씀하셨고 民族意識도 말씀하셨고 했는데 역시 重要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사람들이 千年以上 世界 곳곳에서 뿔뿔이 헤어지면서 살면서 가진 박해를 받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그런 속에서도 自己民族의 特殊한 特性을 그대로 지녀오다가 얼마전에 하나의 民族国家를 만들고 自己의 勢力伸張을 위해서 지금 얼마나 努力하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不過 30年 이 사이에 지금 엄청나게 달라져가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사실상 民族史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러한 우리의 同質性을 찾아보자 하는데에서 나왔는데 그러면 南과 北이 어떻게 갈라져 가느냐 우리 自身도 変한 것이 있겠지만 저쪽에서는 自然状態에서 그것이 그렇게 엄청나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海外에 나가 있는 同胞들 故国에 대한 民族에 대한 동경심이라든가 또 民族分断에 대한 안타까움이라든가 이런 것이 더 합니다.

그러니까 省墓団도 오고가고 하고 실제로 나가 있는 분들이 아주……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대개는 祖国과 民族에 대한 동경심이라는 것이 대단히 強합니다.

그리고 実際로 우리 韓国에서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되도록이면 우리 民族의 伝統, 伝統文化를 継承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発

展시켜 나가고 民族文化를 찾으려는 그러한 努力이 実際로 우리가 그러한 데에서…… 이것은 절대로 牽強附会가 아닙니다마는 伝統性을 이룩하고 있다 말이에요. 어떻게든지 그것을 떠나지 않고 전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더 発展해 나가고 해나가는데 그런데 저쪽에서는 意図的으로 強制的으로 権威的으로 그렇게 変化시켜 나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데에서는 사실상 크나큰 問題가 생기고 그렇게 異質化되어 나가니까 그것을 同質化시켜 나가자 그런데 그 方案이 뭐냐 方案을 아까 洪承勉先生님께서 異質化의 템포를 늦추자 그리고 또 克服하자 이런 것은 하나의 消極的인 方案입니다.

더 積極的으로는 南北交流를 하자 対話를 하자. 実際로 우리가 이러한 異質化가 아주 深化된 것은 어떤 意味에서 양쪽이 서로 接触이 없는 데에서 생긴 것입니다. 전혀 다른 民族이나 다른 文化라도 서로 오랫동안 接触하고 함께 살고 왔다갔다 하면 同質化되게 마련이에요. 사실 文化가 오랫동안 接触하게 되면 그것은 同質化 同化가 되어 갑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歴史上 西欧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겠고 우리 自身도 보면 어떤 面에서 우리가 接触했던 歴史的으로 中国과 接触을 한 그 때에는 우리 民族文化속에 中国的인 影響도 상당히 있고 그것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서 키워왔고 또 日本사람하고 가까이 지낼 때에는 그런 面도 있었고 西洋사람하고 좀 더 가까이 지낼 때에는 그렇게도 되었읍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한 文化가 달라지고 하면 따라서 자연히 사람의 性品 性格 人性이 퍼스낼리티라고 하는 그러한 人性이 나아가서 社会的性格 이런 것도 바꾸어 지게 마련입니다.

이런 点에 상당히 우리가 南北対話를 南北交流를 우선 서로 通하고 보자 벽을 헐어뜨려보자. 말이지요. 이것이 가장 時急한 問題가 아니냐

그런데 거기에 대한 具体的인 方案 이것은 実際로 아까 趙德松先生께서도 그러셨고 洪承勉先生님께서도 뚜렷한 妙案은 없다. 그러나 우리가 좀더 努力을 해야 되겠다. 아까 趙德松先生님께서 그러한 同質化의 努力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 그야말로 統一에 到達하기 까지의 하나의 接近方法이냐 統一뒤에 対備하는 이런 問題解決을 위해서냐 勿論 두가지 다 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作業을 우리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韓民族이라는 韓民族 한사람 한사람 成員으로서의 個人의 人性 또 全体의 民族性 民族文化 여기에 南韓 歷史的인 民族史的인 觀点에서도 그렇고 現象에 있어서의 現時点에 있어서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公約数를 좀 찾아보자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発展시켜 나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것은 約千年前高麗 時代부터 하나의 統一된 民族을 우리가 이루어 왔다고 그러면 그렇게 쌓아온 것이 그렇게 짧은 時間에 解体가 되고 그런 때 그러한 것을 우리가 찾는 努力, 그렇게 해서 좀더 積極的으로 저쪽에서도 무엇때문에 異質化되어 가고 뭐가 달라져가고

그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 自身도 実際로 그러한 面은 없는가 그리고 우리가 例를 들어서 民族文化를 継承 発展시키고 창달하려고 하는 努力 이것이 事実은 어떤 面에서 보면 그러한 同質化의 하나의 方案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앞으로 지금 壮年 老年層의 民族의 集団的인 経験을 가졌으니까 좀더 났다. 그것이에요. 거기에 대한 意識도 참 稀薄해 진다.

제가 들은 이야기가운데 어떤 사람이 統一은 왜 합니까? 그러드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것은 벌써 우리가 상당히 問題가 달라집니다.

大部分 우리가 消極的으로는 統一을 해야 되겠다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없어진다면 상당히 問題거리이고 10年 20年 2千年代에 가서 그때에 나타나는 젊은이들 그 사람들이 다 主人公이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우리 民族의 民族文化의 그런 民族性의 어떤 共通 最大公約数 이런 것은 우리가 共通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좀더 発展시키고 거기에 바탕해서 나갈 그런 것을 継続 우리가 찾아야 된다. 찾아서 그것을 伝達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그러한 努力이 実際로 우리가 統一을 위한 統一에 接近하는 하나의 方法으로서도 그것은 마땅히 해야 할

作業이고 実際로 統一이 되었다. 우리가 그러한 努力에 의해서 統一을 시켰을 때에도 그 때에 異質化라는 것은 勿論 時間이 되면 同質化가 되겠지요.

그러나 그 때에 問題도 우리가 対備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이에요.

어떤 問題가 発生할 것이냐 이렇게 異質化가 継続 나갔을 때에 딱 統一이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그야말로 한덩어리로 뭉쳐서 제대로 잘 調和있게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한 対備策으로서 우리가 그러한 努力은 継続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별로 뭐 새로운 뚜렷한 意見도 없고해서 이정도로 말씀드리겠읍니다.

○ 司会(朴權相) : 감사합니다. 이제 네 先生님의 論評에 대해서 主題発表를 해 주신 洪承勉先生님께서 答弁이 있겠읍니다.

○ 洪承勉 대단히 감사합니다. 매우 貴重한 論評을 많이 해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南北韓의 同質化라는 問題에서 제가 焦点을 두고 強調했던 것은 同族意識의 回復이었읍니다. 民族의 一体感 이것을 되찾기 위한 同族意識의 回復이었읍니다.

어떤 先生님께서는 거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서 同質化의 目標를 人間이 人間다운 사람으로서 되는 그러한 作業으로 들어야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저로서는 조금도 反対할 理由가 없읍니다. 民族의 一体感을 回復하고 同族

意識을 回復하고 그 民族이 人間이 人間답게 사는 人間답게 思索하고 人間답게 行動하는 사람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 조금도 저로서는 反対意見이 없읍니다.

그다음에 同質化를 위해서 緊張緩和가 必要하다 이런 말씀이 있었고 서로가 도그마를 버려야 한다. 独断을 버려야 한다.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여기에도 저는 조금도 反対意見이 없읍니다. 저는 交流를 主張했읍니다마는 이 交流라는 것이 緊張의 緩和없이 이루어질수는 없는 것이고 서로가 도그마를 견지하고 있는 限 이 交流라는 것이 実現될 수 없는 것이고 보면 緊張緩和의 必要性을 말씀하시고 도그마를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신데 対해서 저로서는 조금도 反対意見이 없읍니다.

그러나 勿論 자꾸 개미 쳇바퀴 도는듯 합니다마는 그러면 緊張緩和는 어떻게 実現하느냐 무슨 具体的인 方案이 이 韓半島에서 緊張緩和를 시키느냐 도그마는 어떻게 해서 버리겠느냐

이렇게 되면 자꾸 개미 쳇바퀴 돌듯이 되겠읍니다마는 그러나 비록 추상적일망정 緊張緩和가 必要하다 서로 도그마를 버리는 것이 必要하다 거기에 対해서는 同感입니다.

스포츠에 대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테카에서의 対戦도 스포츠의 交流인데 스포츠交流를 가지고서야 무엇이 되겠느냐 하는듯 말씀하신 것같은데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렇게 저에게는 들렸읍니다.

스포츠交流만 가지고는 결코 解決될 問題는 아닙니다. 스포츠交流도 한두번의 交流를 가지고 解決될 問題는 勿論 아닙니다. 제가 強調했던 것은 民衆의 交流이고, 그러나 広範囲한 民衆의 交流가 처음부터 一時에 実現되기는 여러가지 困難한 点이 있지 않겠느냐, 크게 期待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러면 制限된 交流나마 試図하는 것인데 比較的 쉽게 実現할 수 있는 交流로서 몇가지 例를 드는 가운데 스포츠交流도 하나 指摘했을 따름입니다.

그러나 스포츠交流도 必要한 것으로 봅니다. 한두번 가지고는 안되고 서로 오고가고 하면서 스포츠交流를 한다는 것은 南北韓 同質化라는 問題에 있어서 肯定的인 意味는 가질망정 否定的인 意味를 가지리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蛇足이 될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기왕 스포츠이야기가 나왔으니 한두마디 添加하면 저는 스포츠를 大体로 두가지로 나누어 봅시다.

対立的 競技 서로 対立하는 競技와 平行的 競技, 平行하는 競技입니다. 具体的으로 説明을 드리자면 対立的 競技라는 것은 이 쪽에서 相対方을 때려눕혀야만 이기는 競技를 뜻합니다. 相対方을 꼭 꺾어야 합니다. 相対方을 뒤집어 엎어놓아야 됩니다. 어떤 競技가 具体的으로 対立的競技냐 하면 매우 顕著한 例로서는 권투, 유도, 레스링 이와같은 것이 있고 거기에 역시 축구 농구 아이스학키건 하여간 相対方을 타도해야만 자

기가 이기는 그러한 集団競技도 이 対立的 競技라고 볼 수가 있겠읍니다.

平行的競技라는 것은 相対方을 꼭 때려눕힐 必要가 없읍니다. 自己가 最善을 다 하면 됩니다. 具体的으로 어떤 競技냐 하면 陸上같은 것 100 m건 마라톤이건 넓이뛰기건 높이뛰기건 水泳이건 활쏘기건 사격같은 것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相対方을 때려눕힐 必要는 없고 自己가 最善을 다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스포츠交流에도 여러가지가 있겠읍니다마는 平行的競技의 交流 이러한 것을 저는 대단히 重要視하고 있읍니다.

対立的競技 이것 역시 아까 趙德松先生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같이, 저런 対決感情을 일으키는 副作用이 없지 않아 있었읍니다. 不俱戴天之원수나 만나는 듯이 報道를 했고 그런 報道에 対해서 趙先生님께서 좀 의아해 하시고 좀 反省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말씀을 하신데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同感입니다.

이 対立的競技의 交流라는 것도 전혀 意味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平行的競技 이것은 훨씬 그러한 危険性 副作用이 덜 합니다.

그다음 整地作業도 整地作業이려니와 거기에 併行하는 政治的 作業도 必要한 것이 아니냐 하는 論及이 있었읍니다마는 저로서는 同感입니다.

역시 政治, 이 政治의 힘이 큽니다. 緊張緩和問題 対話의 問題 도그마의 問題 스포츠아니라 그 밖에 交流라든지 뭐 하나 政治하고 関聯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없읍니다.

그러니까 政治的인 作業의 併行 그러한 作業이 원만하게 순탄하게 잘 이루어 지면 잘 이루어 질수록 同質化를 為해서거나 統一을 위해서거나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믿는바입니다.

그리고 朝総聯의 母国省墓団의 訪問이야기가 잠간 있었읍니다마는, 그리고 그것이 리스크가 있는 것임에도 不拘하고 그것에 대단히 좋은 成果를 이루고 있다는 指摘이 있었읍니다마는 누구나 다 同感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交流입니다. 日本에 앉아서 평양으로부터 오는 宣伝資料나 보면서 南韓에서는 다 굶어 죽어가는 形便이고 다 거지나 다름이 없고 서울市内에는 땔감이 없어서 街路樹까지 다 베어 때었기 때문에 나무도 없다. 이러한 式의 宣伝을 어느정도 그 사람들이 믿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여기에서 自己 눈으로 보고 할 때에는 認識하는 바가 크게 달라졌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同質化에서 家族이라는 問題를 提起하신 분이 계십니다마는 역시 問題는 가장 큰 問題中의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家族이 北韓에서는 없어졌다는 이야기는 할 수 없겠읍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家族観念은 없어졌다는 느낌이 깊읍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家族観念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家族

입니다. 그러한 데에서 오는 異質化는 엄청나며 同質化를 생각할 때에는 家族이라는 問題는 참 重要한 問題中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군요.

또 同質化를 위한 저희들이 準備라고 할까요 저희들의 平素의 硏究라고 할까요 南北韓의 新聞을 比較해서 뭐가 달라졌는지 그 特性같은 것을 파악해 두자. 敎科書를 分析해서 도대체 사람을 어떻게 敎育을 하고 있는지 무엇에 力点을 두고 있는지 敎科書를 分析함으로써 異質化의 特性, 異質化의 本質的인 方向 뭐로 끌어가려고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파악해 두자는 意見같은 것은 대단히 좋은 意見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北韓住民이 여기에 이렇게 와서 있다고 하면 어떤 反応을 表示했을까 매우 재미있는 지적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연 北韓住民은 어떤 反応을 表示했을까 제가 척척 이러이러한 反応이 나오리라고 말씀드릴 아무 資料가 없읍니다마는 하여간 상당히 재미있는 생각이고 그 反応은 여러갈래로 나오겠읍니다마는 決코 여러분께서 지금 보이고 계시는 反応과는 같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北韓側에서 異質化問題에 있어서 勿論 南韓과 北韓이 異質化되어 간다는 것은 그들도 認定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그 異質化는 우리가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南韓쪽에 責任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北韓은 만사 일을 정당하게 하고 있고 우습게 되어가는 것은 양키물을 먹은 南韓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南韓이 양키물을 먹고 이상하게 되어 나간다는 立場이고 보면 北韓住民들이 그 말을 하나에서 열까지 고지 듣고 믿지 않는다손 치더라도 일단 北韓住民들이 表示하는 反応은 여기에서 表示된 反応하고는 상당히 다른 것이 아니겠는가 하고 저로서는 상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趙德松先生님이 계십니다마는 南北赤十字会談때 諮問委員으로 평양도 가셨고 赤十字会談의 諮問委員으로 크게 애써주신 바 있읍니다마는 趙德松先生님을 제쳐놓고 제가 直接 이런 이야기를 할 資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趙先生님의 許可를 받고 용서를 빌고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겠읍니다.

그사람들이 서울에 왔을 때에 워커힐에서 쇼를 구경했다고 합니다. 쇼를 본 감상으로 그중의 한사람이 저희側에게 이런 이야기를 묻드라고 합니다.

왜 南韓에서는 노래를 부르는데 저렇게 몸을 흔듭니까? 그러니까 어떤 歌手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요새 歌手가운데 특히 女子歌手가운데 몸을 흔들고 노래를 부르는 것이 지금 보통처럼 되어 되어 있읍니다마는 그것이 몹시 어색했던가 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자꾸 南韓에서는 일이 우습게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印象을 받지 않았나 저는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말의 問題도 나왔읍니다마는 北韓에서 자꾸 괴상한 말을 만들어 내서 쓰고 있읍니다. 저희들은 이것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를 때가 있읍니다. 원수라는 말이 생겼읍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말하

는 원수입니다. 敵을 말합니다. 金日成이 元首인 까닭에 할 수 없이 원수라는 말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說明을 들으면 알겠읍니다마는 그렇지 않으면 얼핏 알아듣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南北赤十字会談때에 저쪽 사람가운데에 누구입니다마는 그 사람들 이야기로는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알아 듣기가 힘들다고 이야기했다고 그럽니다.

英語가 너무 많이 섞여 있어서 南韓사람들 이야기를 알아듣기가 어렵다. 왜 그렇게 英語를 많이 섞어 쓰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드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北韓側의 住民의 反応이 어떤가 하는 것은 그 以上 저로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民族文化回復에 대한 말씀도 있었읍니다. 저쪽이 자꾸 저렇게 異質化되어 가니까 그리고 民族에 대해서 또 民族文化에 있어서도 関心이 없으니까 이 民族文化는 어떻게 되어나가는 것인가, 우리라도 이 民族文化를 지켜나가야 할 것이 아닌가, 앞으로 同質化에 있어서 역시 우리가 지켜나가는 이러한 民族文化가 基準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우리가 앞으로도 發展시켜야 할 伝統은 낡은 것이라고 해서 덮어놓고 버릴 것이 아니고 또 한편 낡은 것이라고 해서 덮어놓고 尊重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維持해 나가야 할 民族文化와 民族의 伝統은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지킬 사람이 없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統一은 왜 합니까 라고 벌써 우리側의 젊은 사람이 이야기를 하더라고 합니다마는 역시 우리 스스로도 크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역시 젊은 世代는 뭐 저만 하더라도 무슨 老人層이 아니겠읍니다마는 저희들 하고도 벌써 다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또 個人的인 이야기가 됩니다마는 저는 以北出身은 아닙니다마는 8.15되기 前에 금강산도 가 보았고 新義州도 가 보았고 평양도 가 보았고 압록강도 가 보았고 大同江도 본 본 일이 있읍니다. 압록江 大同江 금강山 할 때에 우리나라 江 우리나라山, 금강山은 우리나라 名山, 이런 意識이 저에게 있읍니다.

統一은 왜 합니까? 이렇게 묻은 学生이 있다고 합니까?

○ 韓相福 젊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 洪承勉 압록江도 우리나라 江이 아니라 딴 곳의 江, 大同江은 딴 곳의 江, 금강山도 딴 곳의 山, 나라고 상관도 없고 앞으로 가볼 일도 없겠지만 그것보다는 나는 国内에서는 설악山을 가겠고 한나山을 가겠고 알피니스트가 되어서 에베레스트를 정복하겠다 아마 이렇게나 되고 있다고 하면……

저로서도 큰 問題를 안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저희로서도 問題가 있다. 이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대도 妙案은 없다. 妙案은 없으며 우리로서도 問題가

있다. 問題가 있다. 합니다마는 이 統一問題 学術会議에 이렇게 오셔서 진지하게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보고 있을 때에는 무엇인가 이런 데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同質化問題라는 것도 저로서는 発表를 했읍니다마는 저는 発表를 함으로써 同質化問題를 解決했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읍니다.

同質化問題라는 것은 挙論을 해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挙論의 시작에 不過합니다마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関心을 진지하게 表示해 주시는데서 그나마 무엇인가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고 우리가 지금 妙案을 찾으러 다닌다고 해 보았자 무슨 뾰족한 妙案이 있겠는가. 이러한 것을 느꼈다는 것을 한말씀 올립니다.

○ 司会(朴權相): 감사합니다. 이 壇上에 있는 사람만 이야기하면서 끝낼 수는 없겠읍니다.

그래서 主催側에서는 여기에 나와계시는 申泰煥 前서울大学校 総長 그 분은 統一院長官으로서 統一問題에 대한 각별한 見解를 가지고 계신 先生님이시고 지금 経済研究所를 맡고 계십니다. 申泰煥先生과 国防大学에서 교편을 잡고 계시는 崔栄博士 두분의 論評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먼저 申先生님 부탁드립니다.

○ 申泰煥 여러분이 南北問題를 진지하게 討論하시는 것을 듣고

배운 것이 많습니다. 그 이상 내가 여기에서 重言 復言해서 도움이 될 것은 없을줄 압니다마는 제가 평소 생각하는 것 한두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南北이 갈라서 主義 思想에 있어서 또 地域的으로 자꾸 異質化되어 가고 있다는 것은 참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이 異質化의 問題를 同質化해야겠다 여기에 대해서 関心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이 진지하게 討論을 하는 가운데에는 아마 이런 것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異質化가 南北敵対化의 하나의 手段이 될 可能性이 있다. 또 긴 眼目으로서는 統一이 언제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異質化가 南北의 統一을 妨害하는 아주 환더멘탈리스틱한 그러한 要素가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危険性이 있다. 그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当面해서 볼 것같으면 異質化의 同質化問題라고 하는 것은 統一以後에 올 前提的인 問題라고 생각합니다.

南北이 터지지 않고 異質化된 것을 어떻게 同質化하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이니까 이것은 統一後에 本格化될 問題라고 생각하고 이제부터 그 異質化의 内容이 무엇이고 그것을 同質化하는데는 어떠한 方法이 可能할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研究해 둘 必要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問題는 우선 어떻게 南北이 서로 交流하고 무엇인가 이야기를 하며 緊張을 풀고, 무엇인가 통하는 그 길을 発見하는데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런 問題부터 생각해 볼 적에 이 進行되고 있는 異質化에 限界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한번 생각해 보았읍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여러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우선 하나의 問題는 오늘날의 世界라는 것이 고립화한 가운데 살아갈 수 없는 世上이라고 생각합니다.

世界 150個 国家가 있는 가운데에 北韓만이 마치 굴속에 들어가 있는 이리와 같이 外部世界와 두절하고, 어찌 그 部分이 発展할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民族主義니 우리 国民主義니 하는 것을 主張합니다마는 이것도 너무 強하게 하면 나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이라고 하는 것은 世界的인 共感가운데서 살줄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항상 나는 強하게 느끼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北韓사람들이 世界에서 고립화되어서 굴속에서 안나오고 저렇게 있을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不可能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도 언젠가는 東쪽 国家들 뿐만 아니라 西方国家들과도 같이 무엇인가 交流를 하면서 살지 않고는 못견디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런 意味에서 그들은 기어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問題는 経済的인 面에서 볼적에 北韓은 심히 落後되어 있읍니다. 우리 大韓民国과 北韓과 比較해 볼 것 같으면 이것을

数値的으로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읍니다마는 지금 몇倍의 落後가 되어 있읍니다. 国民所得面에 있어서는 3分의 1밖에 안된다. 貿易高를 볼것 같으면 北韓은 年間 往復 貿易이 輸出 輸入 合해서 25 億달라에 이르고 있다고 볼 수 있읍니다.

이럴 적에 지금 그러한 形便이 없는 状況下에서 그냥 있을 수 있느냐, 여러분이 요새 新聞을 볼 것같으면 등소평이가 마치 共産主義가운데에서 資本主義를 하는 式으로 허겁지겁 인접국가에 가서 허리를 굽혀가지고 돈을 얻어가고 여러가지 지금 그러한 일을 하고 있읍니다. 등소평이가 생각하는 것은 中共이 世界 強大国家인데 技術面에 있어서 経済面에 있어서 이것은 3等 4等国家로 落後되어 있다는 거기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克服하지 않고는 中共도 큰소리를 못치고 北傀도 이제 굴속에서 가만이만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볼 적에 全世界라는 것이 電子時代이고 世界의 어떤 구석에서 일어난 問題든지 몇초후에는 伝達이 되는 이런 世界에서 世界的인 共感을 떠나서 살 수 없지 않느냐, 지금 経済的으로 그런 形便이 없는 가운데서 날마다 주먹으로다가 우격다짐으로 하는 生産을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経済라는 것은 労動集約的인 技術과 機械施設을 써서 결국은 오토메이숀으로 가는 것이 資本主義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政治權力으로 모든 사람을 動員해서 주먹다짐으로만 生産하는 非能率的인 그런 生産体制를 가지고는 大韓民国을 따라올 수

가 없고 大韓民国과 北韓의 갭이라는 것은 날이 갈수록 深化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적에 勿論 独逸式으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언젠가는 그런 方法을 그들도 指向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그들이 굴속에서 기어나와야 하는 理由가 国際政治 力学関係가 変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北韓사람들이라는 것은 맑스主義를 믿어도 아주 資本論의 휜더멘탈리스트 같습니다. 가령 그 멘체스터북이라든가 푸리틱데어폴리체어리어라는 冊이 있지요. 혹은 멘체스터디오콤뮤니스트발트하임 이러한 아주 원초적인 텍스트 그런 것을 盲信하는… 하여간 外部에 나타난 것 그런 것을 盲信하는 共産主義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全世界 共産陣営의 움직임을볼 것같으면 많이 달라졌읍니다. 그들이 特別히 共産世界에서 고립화된 政策을 쓰고 있는데 이것도 持続이 되지 않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中共이든지 소련으로든지 北韓이 그러한 態度를 取하고 있는 限에 있어서는 거치장스러운 부속물같아서 아마 그런것을 許容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北韓이 이제 対話의 世界, 南韓과 対話의 世界로 나오는 것이 나는 멀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을 促求하는데 있어서 우리는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읍니다.

우선 우리가 항상 高地를 占領해 나가는길은 經濟的으로 우리가 優位를 차지해야 되겠다. 勿論 그들도 쫓아오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또 文化的으로 우리가 優位를 차지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重要한 것은 우리가 統一을 해야 되겠다.

아까 ○先生님께서도 同族意識을 強調하였는데 同族意識이 아주 統一을 強調하는 이 態度를 견지해야 되겠다 그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젊은 世代가운데는 北韓사람들이 나쁜 것이다. 共產党이라는 것은 사람을 죽이고 약탈을 해가고 땅굴을 파고 못된 짓을 다 한다. 그렇게 배워왔는데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런 나쁜놈들하고 같이 살 必要가뭐가 있느냐 이것을 한가지 넘어주자는 것입니다. 與論調査를 해볼 것같으면 統一할 必要가 없다는 数字도 뚜렷하게 나와 있읍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民族意識 韓国 우리는 統一을 하고야 말겠다. 이러한 国民的인 意識 이것을 앞으로 해나갈 必要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모여서 討論을 하시는 것도 그러한 意味에서 굉장한 意義를 갖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간단합니다마는 몇가지 말씀을 드렸읍니다. (박수)

○ 司会(朴權相) 대단히 감사합니다.

崔教授 부탁합니다.

○ 崔 栄 저한테 指名이 와서 얼떨떨 합니다. 저는 배우려고 오늘 나와서 継続 끝까지 잘 강연을 傾聴하고 있던 차에 司会분께서 지목을 했기 때문에 얼떨떨한데요. 저로서는 特別히 妙策이 나올 리도 없고 여러분의 高見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基本的으로 賛成하는 立場입니다.

우선 民族意識의 同族意識와 回復 그 다음에 휴메니즘問題 그다음에 지금 申総長께서 말씀하신 北韓이 南北対話에 조만간 応할 것이라고 하는 北韓情勢와 全般的인 状況의 앞으로의 豫測 모두 저로서는 同感입니다.

거기에 부연해서 제가 한두가지만 美国에서의 印象은 얼마後 後継者問題가 나오겠는가 여기에다 가장 関心의 焦点을 設置하고 있더군요.

저희들로서는 金日成의 1人独裁라고 해가지고 金日成이 요지부동한 権座 그 問題만 強調하다가 보니까 그 나라가 얼마後에 불가피하게 後継者를 指名한다. 든가 하는 이런 混乱 또는 政策調整 이런 問題에서 오는 여러가지 問題에 対해서는 北韓을 工夫하신 분들 중에서도 소홀히 다루고 있는 편이 아니었겠느냐 오히려 美国의 研究者 또는 美国의 「엑스파트」에 의해서 오히려 배운감이 있었읍니다.

그 말은 美国 사람들의 見解가 다 옳다는 것이 아닙니다마는 그 분들이 世界問題를 볼때에는 世界問題에서 不確実 要因中에 첫째로 꼽는 것이「브레즈네프」의 앞으로의 健康「브레즈

네프」의 後継者가 누가 될 것이냐 여기에다 焦点을 두고 있더군요.

그 理由는 바꾸어 말하면 民族의 同質性追求라든가 異質化克服이라는 問題가 가장 非政治的인 論議같지만 가장 政治的인 「칼라」가 強한 分野라는 것을 아까 洪先生님께서도 政治하고 聯関되지 않는 分野가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러한 式으로 美国 사람들이 보고 있는 반증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느낀 것이 많았읍니다. 그래서 結局은 南北間의 異質化問題가 역시 政治的인 次元에서 그것이 整理作業이 먼저 되어가면서 거기에 따라서 역시 文化 社会的인 이러한 問題가 같이 곁들어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要컨데 状況変化와 政治的인 追求와 意識의 形成이라는 것은 問題는 三位一体的으로 形成되어 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것을 느끼겠읍니다.

그리고 하나 더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洪先生님께서 新羅統一때 부터가 아니고 高麗때 부터 기점을 잡는다고 했는데 그것은 統一新羅 이후에 이른바 다시 三国時代로 난립되어 가는 이런 말씀을 했는데 역시 우리가 1,000年 半万年 歴史를 갖고 있는 単一 民族이라는 그러한 単一이라는 問題만 強調하다가 보면 이 政治体制가 다른 状況속에서 30余年을 살아온 이 状況속에서 우리 自体内에서도 既成世代와 新世代의 意識의 形成問題가 어떤 面에서는 상당히 느낌이 다른데 그런 点에 半万年 歴史라는

伝統만 내세우다 보면 具体的으로 同質性을 回復하는 問題에 대해서 뭐가 나오겠는가 이런 問題에서 伝統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伝統의 再編成과 価値再創造 이런 面에서 제 나름대로 뭐를 더 洪先生님 말씀 또 여러 先生님들의 高見에 基本的으로 同意하면서도 거기에 단 한가지 言及이 추가 되었더라면은 하는 아쉬움에서 이른바 「휘이테」 말한 民族文化 共同体意識 「폴크스·쿨트로 게마인샤프트베브스트자인」이라는 表現이 있읍니다.

이것이 이른바 300個로 쪼개졌다가 独逸을 統一하는데 있어서 結局은 民族文化라는 共同体意識이 政治的인 정지작업과 곁들여서 나오기 때문에 이른바 大独逸主義 大聯邦主義 小独逸主義 이러한 것이 나왔읍니다마는 그러한 面에서 民族文化 共同体意識이 政治的인 정지작업과 같이 곁들여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하나의 具体的인 方案을 現在 당장 뭐 妙案을 여기에서 작성할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 다함께 妙案의 모색을 강구하는 「스타팅 포인트」를 다 우리가 여기에 모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하나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예로 든다면 이런「휘이테」의 民族文化 共同体意識이라는 하나의 높은 規範 이런 것도 거기에 追加될 必要가 있지 않겠는가 그러한 느낌이 듭니다.

저로서는 더 이상 追加할 말씀이 없읍니다.

다음 이 同質性問題하고 直接 関係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아까 申先生님께서 말씀하신 北韓傀儡가 어차피 등소평의 実用主義路線같은 그런 北韓版 実用主義路線을 언젠가는 받아 들일 수밖에 없는

狀況으로 몰려갈 것이다 하는 問題 제기는 굉장히 重要性이 있다고 저는 느낍니다.

그 時機가 언제냐 저는 正確히 알 수는 없읍니다마는 어쨌든 以北이 経済的인 困難에서 탈피하는 길은 역시 自己들의 上典으로 지금 모시고 있는 中共 「스타일」의 再版을 자기네들도 따르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려운 「딜레마」속에 北韓傀儡가 지금 처해 있다는 것 그것을 저는 좀 더 申先生님 말씀에 同意하면서 追加的으로 添言하면서 이것으로 끝내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 司会(朴離相) 申先生님 그리고 崔先生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文化会舘으로 부터 빌린 時間이 다가 오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이상 討論이 어려울것 같습니다.

제가 몇마디 말씀하고 싶은 것은 30年間 굳어진 異質化입니다. 세時間동안의 討論으로서 뾰족한 妙案이 나오리라고 생각할 수없고 元來 어떤 「세미나」든지 어떤 結論을 꼭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특히 이런 種類의 「세미나」에서 어떤 結論을 기대했다고 하면 기대한 사람들이 어리석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세時間의 討論은 대단히 重要한 1,000里길도 첫 걸음 부터 간다 듯이 重要한 것이 되지 않겠느냐 저 스스로 많이 배웠고 많이 느꼈읍니다.

저는 지난週 그리고 저 지난週 重要한 独逸사람 두사람을 만났읍니다.

지난週에는 戦略問題硏究所 所長으로 있는 独逸사람이고 또 저 지난週에는 独逸의 어떤 新聞社 編輯人 입니다.

두 사람이 저한테 個別的으로 만나서 하는 이야기가 대강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이 「버트람」博士 所長 이야기는 지금 申先生님 혹은 崔博士 말한 것과 거의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北傀가 언제까지나 이렇게 門을 닫고 있을 수는 없다. 経済的인 理由에서든지 혹은 国際関係의 理由에서든지 結局은 나와야 한다.

中共이 1年에 数1,000名 学生들을 日本이나 美国에 보내는데 北傀라고 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 南北交流는 사실은 時間問題다.

北傀가 日本과 交流할 적에 間接的이건 直接的이건 南韓과 交流한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交流는 必然의 勢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렇다면 이러한 「세미나」를 열고 統一化를 우리가 모색하는 自体가 얼마나 시의에 적절했는지 스스로 퍽 흐뭇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다만 우리 스스로가 이 同質化問題 혹은 異質化問題에 대비를 充分히 해야 되겠다.

「버트람」이라는 사람은 이런 소리를 하더군요.

이 東独과 西独間에…… 제가 이 모임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異質化問題 同質化問題를 좀 물었어요.

사실 英語로 理解가 퍽 어려운 単語인데 아까 「아이덴티·피케이숀」이니 「호머진스케이숀」이니 이런 말이 나왔는데 그 사람들 이야기로서는 벌써 그러한 問題 自体가 提起되고 있지 않아요.

아시다시피 東西独은 分断 33年입니다마는 그러나 끊임없이 交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交流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西独 사람들이 퍽 애써가지고 東独의 上典인 소聯과 接触을 하고 소聯과 交流가 可能함으로써 東独과 可能해서 지금은 1年에 数 100万의 西独 사람들이 東独을 訪問하고 편지가 왔다 갔다 하고 東独의 한 中心部에 있는 自由伯林의 放送을 東独 사람들이 보고 듣고 있는 처지입니다.

이런 状況에서 우리처럼 深刻한 그러한 異質化問題가 없고 다만 国際情勢 国際力学関係로 해서 独逸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나라들이 独逸의 統一은 절대로 許容하지 않는다. 잘 알고 있지만 만일 国際情勢에 変化가 있어 가지고 그런 外部勢力의 관여가 없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極히 容易하게 再統合될 수 있고 또 異質化問題도 克服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비슷한 소리를 들었읍니다마는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고 대단히 重要한 것이 아닙니다마는 그것도 外国 사람이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特別한 것도 아닙니다마는 지금 모든 사람 現 統一院長官도 얼마전에 그랬고 前 統一院 長官도 지금 그랬고 交流는 반드시 조만간에 어쩌면 머지 않은 장래에 있을 수 있다. 그런 交流에 있어서 우리가 대비할 여러가지 内的인 問題 혹은 外的인 問題 그런데에서 오늘 대단한

成果가 있었다고 이렇게 自畫自讚하면서 오늘 会議를 끝내기로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17時00分 会議終了)

第 三 日：發表論文 및 討論

北韓社會의 長期展望

○ 發表論文 ································· 281

發表 趙 淳 (서울大 敎授)

○ 討 論 ································· 305

司會 趙 璣 濬 (高麗大 敎授)

討論 朴 東 雲 (韓國日報社 論說委員)

徐 相 喆 (高麗大 敎授)

呂 井 東 (서울大 敎授)

<発表論文>

北韓社會의 長期展望

趙 淳(서울대教授)

一. 北韓의 現實 — 갈등의 要因들

어떤 社会든지를 막론하고 그 社会를 正確히 判断하고 그리고 社会의 앞날에 関해서 確実한 展望을 가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特히 이 北韓과 같이 폐쇄된 그러한 社会에 관해서 이와같은 展望을 한다는 것이 더욱 더 어렵다는 것은 누구도 다 짐작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이 発表者 本人자신은 北韓에 関해서 줄곧 계속해서 研究한 그런 자취도없이 이 政治, 経済, 軍事 그리고 文化 이런 모든 面을 綜合해서 이 社会의 장래를 바라본다 하는 것이 굉장한 모험에 가까운 이런 일일른지도 모르겠읍니다.

누구나 다 알겠고 그리고 제자신도 느끼고 있읍니다마는 지금 北韓社会는 外交的으로나 対外的으로나 対内的으로나 여러가지 重要한 문제에 걸쳐서 어려운 그러한 지경에 빠져있읍니다. 우선 対外的으로 본다고 할것 같으면 蘇聯과의 関係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美国과 中共 그리고 日本과 中共 이런 나라들이 豫想

外로 빨리 接近을 해가고 있고 또 그리고 北韓의 競争相対가 되어 있는 大韓民国이 비약적으로 発展해가지고는 南北間에 힘의 균형이 붕괴되어가는 이런 환경속에 있고 그리고 北韓의 経験으로 外債償還의 지연 아편밀수사건 도끼사건 그리고 非同盟国들의 対北韓 不信의 여러가지 표명 이러한 것에 따라서 北韓의 国際的인 위신이 많이 바닥에 떨어져 있고 그리고 国内情勢로 보아서도 여러가지 혼란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읍니다.

政治的으로 볼때에는 이 후계자 문제를 둘러싸가지고서 가령 76年 77年 지난 한 두해동안에 나타나는 여러가지 말하자면 権力闘争의 난조, 代議員選挙를 둘러싸가지고서 일찌기 보이지 않았던 그런 정도의 혼란상 이런것을 노정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経済的으로는 6個年計劃의 실패 7個年計劃 今年부터 実施하는 7個年計劃을 입안하고 発表하는 과정에서 보였던 정말로 일찌기 없었던 그러한 난조 우리가 보기에는 7個年計劃의 内容은 잘 다듬을 겨를도 없이 창졸지간에 発表된 이런 内容이라고 이렇게 보겠는데 이런것을 본다고 하더라도 経済的으로 큰 곤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보겠읍니다.

그리고 軍事的으로는 軍事에 관해서는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마는 軍事的으로 볼때도 가령 73年以後로 채택했던 이른바 4大軍事路線이 이것이 극한적으로 軍事的인 이런 実力의 축적 軍備의 확장 이런것을 가지고 이것이 経済 그리고 人力動員上에 큰 [보틀넥]을 조성하게 될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도달하게 되었읍니다. 그리고

仕会的으로 본다고 할적에도 社会에 있어서 여러가지 가령 사기침체 관료주의의 만연에 따른 여러가지 経済的인 양상 이러한 것이 뚜렷이 나타나게되고 이렇게 볼때에 対外的으로나 対内的으로나 한마디로 말해서 크게 곤란한 지경에 빠져 있다. 이렇게 評価될 수가 있지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이와같은 곤란을 타개하면서 北韓当局者들이 표방하는 이런 目標를 추구해 나갈 수 있나 하는 이것이 北韓이 당면한 課題라 하겠읍니다. 제가 判断을 하기에는 綜合的으로 보아서 우선 結論부터 이야기 하자면 北韓은 앞으로 長期的으로 볼때에 어느정도가 長期的이냐 하는 것은 가령 앞으로 한 10年정도 내다 볼때에 長期的으로는 역시 이와같은 현재의 処地는 北韓으로 하여금 部分的으로나마 体制의 変化라할까 그리고 根本経済政策 그리고 根本 経済政策뿐아니라 基本路線을 상당히 調整내지 修正을 하지않을까 이렇게 展望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곤란한 우리가 여기서 하나 指摘을 하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은 곤란한 事情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北韓으로 하여금 어떤 変化를 하게 하는 이런 要因으로만 作用하는 것은 아니고 한편으로는 곤란한 처지에 있으면은 지금까지의 体制와 基本路線을 変更하고 変化시키는 이런 힘이 되는 것이 그런 要因으로 作用을 하는 것은 事実이겠지마는 또한편으로 본다고 할것 같으면 어떻게 보면은 곤란한 처지가 오히려 말하자면 変化를 억제하는 要因으로 된다. 이런것도 얼마든지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判断을 하기를 北韓이 현재 빠지고 있는 여가지의 対外関係 그리고 対内関係에 있어서의 難点은 오히려 어떻게보면 北韓으로 하여금 그 路線의 変更을 적어도 短期的으로는 어렵게 마드는 그러한 要因이 상당히 強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읍니다. 어쨌든 지금 이 処地가 体制와 基本路線의 変更의 方向으로 作用을 部分的으로는 하겠고 또 그것이 基本路線과 体制를 変更하는 것을 막는 힘으로 되는 경우도 있겠읍니다. 이래서 이 方向내지 갈등이 어떻게 되느냐 어떠한 힘이 언제 作用을 더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北韓의 体制 그리고 基本路線의 方向이 잡히지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二. 政治的 狀況－變化의 制禦裝置

제가 여기 長期展望이라고 할 때에는 가령 이를테면 아주 具体的으로 經濟的으로 본다고 할적에 GNP가 10年後에 몇「달러」가 되겠다든지 또는 北韓의 石油化学工業이 10年後에는 어느程度 発展을 하겠다든지 鉄鋼生産이 얼마가 된다든지 10年後에 政治權力者가 누가 된다든지 이와같은 具体的인 展望을 할 能力은 없고 이래서 大体的으로 体制와 基本方向이 어떤 式으로 움직여 갈 것이냐 하는데 대한 焦점을 두었다고 하겠읍니다.

우선 北韓의 政治를 한번 보건대 北韓은 물론 共産主義를 지향하는 社会라 합니다마는 모든 것이 基本体制와 根本政策의 基本方向이 政治에 의해서 政治의 目的下에서 움직여진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읍니다. 그래서 政治的인 立場으로 볼때에 가장 政治的인 여러가지 狀況은 北韓의 体制와 基本路線을 바꾸기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要因이 있지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政治라는 것이 經濟 文化 모든 것을 領導하는 이런 힘이기 때문에 이런 立場으로 볼때에 北韓은 基本的으로 그 体制와 基本路線의 変更이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이런 社会다 우선 이렇게 하나 짚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短期的으로는 基本路線이 크게 変更될 可望性은 政治的인 側面으로 볼때에는 거의 그런 可望性이 없고 長期的으로 볼때에도 이것이 상당히 희박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北韓의 經濟 그리고 여러가지 政治가 이것이 곤란하면 곤란할수록 오히려 北韓의 지금까지의 好戰的이고 閉鎖的인 이와같은 体制가 強化될 우려마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共産社会는 물론 地上에 하나의 이상社会를 구현하기 위해서 共産党이 存在하고 共産党의 政策이 存在한다 이렇게 말합니다마는 가령 蘇聯의 경우를 본다고 하더라도 「볼쉐비키」의 革命以後로 이미 60年이 지났읍니다마는 지상의 낙원은 거리가 먼 社会가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읍니다.

그렇다고 해서 蘇聯의 경우를 본다고 하더라도 무슨 共産党이 크게 달라졌거나 或은 共産党이 弱化되었다고 볼 수 없읍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以北에 있어서도 以北이 표방하는 여러가지 目的 基本路線이 達成이 되지않는다고 하더라도 以北의 共産党이 당장에 弱化된다. 또 당장에 붕괴된다. 이러한 것은 실상 생각하기기가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본적에 우리가 다 아는바와 마찬가지로 北韓은 金日成이라는 이 사람이 統治를 하고 있읍니다. 이사람이 「스타린」時代때의 「스타린」을 능가하는 이런 政治的인 힘을 가지고 北韓을 支配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金日成이 存在하는 이상은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北韓은 이것은 크게 달라질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近来에 와서 金日成과 金日成의 領導下에 후계자 문제가 대두하고 있어가지고 아들인 김정일을 後繼者로 삼을려는 이런 움직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될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읍니다마는 여러가지 지금까지의 進行되어 가고 있는 이런것을 따지고 볼적에는 後継者로 만드는 이 作業에 큰 차질이 있으리라고 볼 理由가 없지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近来에 와가지고 가령 76年12月부터 経済実務家들의 一部分이 内閣에 登用이 되고 77年12月달에는 그 経済実務者中에 한 사람이 総理로 登用이 되고 이렇게 되어서 그쪽으로 볼때는 상당한 程度의 体制의 変化 또 그리고 基本路線의 変化가 있는 것 같이도 이렇게 생각이 될 수가 있겠읍니다마는 제가 볼때에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経済的인 난경을 극복하기 위한 조그마한 포석에 지나지 않고 基本路線은 역시 그대로 엄연히 存在하고 있지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短期的으로 볼때에는 지금의 政治的인 理由로 말미암아서 크게 変化하리라고 생각할 수가 없고 그리고 따라서 短期的으로 볼때에는 지금 北韓은 政治문제에 많은 혼란을 가지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後継者문제를 둘러싸고 昨年에 最高人民会議代議員選挙를 둘러싸가지고 選挙当選者의 名単도 発表를 잘못하는 이러한 혼란 그리고 여러가지 党과 그리고 政府의 수뇌간에 있어서의 人事문제 같은 것에 変化와 같은 혼란이 있다.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만 역시 그러나 基本水面은 그대로 있다. 이렇게 보고 따라서 短期的으로 北韓이 크게 政治的인 理由로 말미암아서 変化하리라고 생각할 수가 없다.

그리고 長期的으로 볼때에도 가령 金正一의 후계문제 또 金正一이 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가령 金日成과 완전히 思想과 体制를 같이 하는 빨치산世代의 어떤사람이 政権을 장악하는 이런 경우에는 長期的으로 볼때에도 적어도 政治的으로는 北韓의 基本路線은 지금과 크게 달라질 것이 豫想되지않는다 저는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해 봤읍니다.

三. 經濟的 危機ー變化의 要因

그다음에 經濟문제를 본다고 한다 할것 같으면 이것은 比較的 자세하게 쓰느라고 했읍니다마는 北韓은 60年代 全体를 통해서 그리고 70年代의 지금까지에 이르기까지에 정말로 차질에 차질을 거듭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읍니다. 제1차 7個年計劃 이것이 10個年으로 되었고 그다음에 1971年부터 始作되었던 6個年計劃도 이것이 結果的으로 7個年으로 되었고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今年서부터 始作되는 第2次 7個年計劃 이것도 그 立案의 과정자체를 본다 할것 같으면 이것이 가령 党의 審議를 거쳐서 中央委員会와 党大会를 거쳐서 最高人民会議에서 確定이 되는 것이 과거의 伝統이였었는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적당히 해가지고 한 2.3日동안에 最高人民会議를 아주 쉽게 通過시켜 버리는 이런 변칙적인 処理를 했고 이렇게 되었읍니다.

그리고 具体的으로 이렇게 따지고 본다고 하더라도 北韓의 經濟는 지금 아주 곤란하다. 이 곤란하다는 것은 어떤 面에서 곤란하냐 하게 되면 北韓의 經濟가 앞으로 成長할 수 있는 要因이 없어지고 있다. 별로 우리가 볼때에 成長要因 自体가 없지않는가 그런 面에서 굉장히 곤란하다. 이렇게 제 자신은 생각을 했읍니다. 그래서 北韓經濟의 난경을 곤란한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要略을 할 수가 있느냐 하게 되면 첫째 여기에도 있읍니다마는 北韓經濟의 理念 自体가 北韓經濟로 하여금 成長要因을 고갈시킨 큰

要因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읍니다.

北韓経済의 理念이라는 것은 뭐냐하게 되면 封鎖体制下에서 重工業을 기축으로 하는 자급자족적인 그런 成長 이것이 北韓経済가 指向하는 理念이다. 이렇게 볼수가 있읍니다.

그러니까 1930年代에 있어서의 「스타린」의 理念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그런 理念이지요 1930年代의 蘇聯의 理念을 그대로 北韓에다 이식을 한 것이 北韓의 経済理念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封鎖経済下에서 重工業을 기축으로 하는 自給自足인 体制 이와같은 몇個의 形容詞는 그 마디마디가 다 큰 문제를 안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읍니다.

우선 封鎖体制下라는 이것이 큰 문제가 되겠고 封鎖体制下에서 重工業을 기축으로 하는 自給自足体制 이것은 一定 水準 以上 増大해 나갈수가 없는 成長해 나갈수가 없는 그런 体制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몇가지 指摘을 했읍니다마는 왜 그렇게 되어 있느냐 하게 되면 規模의 経済를 利用할 수가 없고 '그리고 国際的으로 고립되어 있는 状態下에서는 일진월보하는 重工業分野에 있어서의 国際的 技術진보를 도저히 따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령 自給自足的인 그런 閉鎖的인 処地에서 重工業을 機軸으로 해 가지고 経済発展을 이룩하자고 하는 이것은 심지어 蘇聯과 中共 特히 中共 같은 나라에서도 거의 어려운 일이 되고 있읍니다. 特히 北韓과

같은 조그마한 나라에서 重工業을 기축으로 해가지고 封鎖的인 社会속에서 經済発展을 이룩한다. 이것은 거의 절대적으로 힘든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래서 北韓經済의 자취를 본다고 할것같으면 60年代初까지는 成長의 状況이 좋았다 이렇게 볼수가 있읍니다. 그것이 가령 62·3年 그당시를 고비로 해가지고서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춤곧 차질을 겪고 있읍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말할수가 있느냐 하게 되면 60年代初까지는 하나의 外形的인 成長 經済用語로 말할것 같으면 하나의 extensive growth라 이래가지고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마는 外形的인 成長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기술의 진보라든지 規模經済의 利用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이 반드시 人力動員이라든가 其他 生産要素의 量의 增加 이것을 가지고 일단 成長을 할수가 있는 그런 成長 이것을 가지고 外形的인 成長이라고 합니다만 60年代初까지 北韓經済가 比較的 순조로웠다고 하는 것은 그때까지는 外形的인 成長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순조로웠다. 우선 일단 이렇게 評価할 수가 있고 60年代初 以後로 차질에 차질을 거듭하고 있는 것은 뭐냐하면은 그때까지 外形的인 成長의 要因이 다 소진되어 버리고 그後에 있어서 보다 더 「인텐시브」한 다시 말하면 어떤 面에서 내연적이라고 할까요 그런 成長의 要因을 축적하고 개발을 해야 될텐데 그것이 축적되고 개발될 겨를이 없었다. 이것이 北韓經済의 成長要因의 고갈로 한마디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北韓사람들도 역시 그런것에 대래서 認識을 충분히 하고 있어 가지고서 70年代에 들어와 가지고서는 特히 外部로부터 資本을 導入하고 그리고 西方諸国과도 経済交流를 하고 이런 시도를 했읍니다. 이래서 特히 73年서부터는 西方側과의 貿易이 상당히 확대되었고 74年傾부터는 이른바 基本建設戦線에 力点을 두어가지고서 鉄鋼基地라든지 動力基地라든지 大規模工業基地 그리고 大規模 「시멘트」工場 이와같은 것을 建設을 하고 이렇게 했었읍니다.

그런데 結局은 基本路線의 修正이 없이 몇個의 「플랜트」만을 輸入을 해가지고 工場을 짓는다 이것이 오히려 더 무리가 되어가지고서 우리가 아는바와 마찬가지로 成果를 거둠이 없이 外債만 加重시키고 이런 本来 豫想하지 못했던 그런 結果를 빚어내서 더욱 더 곤란한 지경에 빠저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읍니다.

따라서 70年代以後로부터 西方側과의 経済交流를 어느 정도 모색을 하고 資本導入선을 開発할려고 했던 것이 결코 이것이 北韓의 基本路線 다시말하면 重工業을 이것을 閉鎖的인 体制下에서 自給自足的으로 育成해 가지고서 経済発展을 할려고 하는 이 基本路線의 修正이 아니었기 때문에 成果를 거두지 못했다 이렇게 本人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北韓経済의 根本的인 「어프러치」, 経済開発에 대한 戦略的인 接近자체에 모순이 있다, 自体에 무리가 있다 이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다음에 둘째로 北韓經濟로 하여금 침체속에 빠지게 하는 要因은 經濟計劃의 方式 그리고 經濟計劃의 執行의 方式 여기에 있읍니다. 이것도 역시 1970年代에 있어서의 「스타린」의 治下에 있어서의 蘇聯의 計劃方式과 거의 마찬가지인 中央集權的인 物量的인 이런 計劃의 体制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답습을 하고 있읍니다만 이것이 무리하다고 하는 것은 世界的으로 널리 잘 알려지고 있읍니다만 北韓의 지금 구현되고 있는 몇가지 難点을 들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말하자면 경직적이고 物量的인 計劃体制로 인한 배분의 非効率 이것이 사실 추상적으로 이런 말을 나열해 봤자 여러분들 한테는 実感이 나지않을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北韓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가지 論說이라든지 金日成自身이 하는 여러가지 指摘 이러한 것으로 보아서 産業間에 있어서의 불균형 需給의 不均衡 이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以上으로 심각한 이러한 측면이 아닌가 本人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物件이 生産된다고 하더라도 北韓은 수송의 애로로 말미암아서 크게 곤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둘째로는 社会間接資本의 말하자면 우리 經濟的인 開発이라할까 이것이 대단히 눈에 띄게 보이고 그다음에 둘째로 指摘을 할 수가 있는 것은 70年代初에도 많이 있었던 外国으로부터의 資本導入 그리고 「플랜트」의 建設 이러한 것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지지부진하고 진척이 된 것도 잘 가동 利用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大部分 굉장히 많아 보인다. 이것이 北韓指導層에 의해서 여러번 指摘을

당하고 있다. 이것을 指摘할 수가 있읍니다.

그러면 일단 建設된 工場들이 잘 稼動되지 못하고 있느냐 할 것 같으면은 需給에 차질이 있고 다시 말하면 원료가 잘 들여와 가지고 生産이 잘 안되거나 또는 生産이 되었다 하더라도 需要가 적정하게 잘 豫測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結局은 그러한 結果가 빚어졌다. 이렇게 볼수가 있겠읍니다. 그리고 경직적인 計劃立案과 執行過程에서 経済生活을 하는데 있어서의 経済的인 要因 흔히 말하는 「인센티브」지요 그것이 아주 대단히 적다 이것이 共産主義 社会다 그렇습니다마는 特히 北韓에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가 있읍니다. 그리고 北韓은 現在 金日成이 이른바 官僚主義라고 하는 것 이것이 全 社会를 말하자면 만연해가지고 하나의 큰 고질로 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역력히 엿볼 수가 있읍니다. 이것은 金日成자신이 機会있을때마다 소리높히 항상 指摘을 하고 国民들한테 호소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를테면 1977年12月에 最高人民会議에서 했던 金日成자신의 演説 이것을 보면 그 演説 全体가 官僚主義로 말미암은 害毒이라고 할까 그것에 관한 指摘으로 始終되고 있읍니다.

그때 演説이 뭐냐하면 첫째 国家와 社会의 진정한 主人은 勤労大衆이다. 그리고 둘째 人民政権은 勤労大衆에 봉사하여야 한다. 셋째 官僚主義를 反対하자 이것이 金日成의 演説의 골자였다 말입니다. 이 세개는 다 関聯이 되어 있는 것으로서 무엇을 말하느냐 하게 되면 이것은 演説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昨年 그리고 最近에 와서 계속 그와같은 指摘이 있는 狀況입니다마는 이것은 北韓에 있어서의 企業所라든지 또 其他 여러가지 生産構造의 運営 行政의 運営 이런 面에 있어서 정말로 官僚式으로 그때그때 너무 사기가 침체되고 말하자면 봉사한다고 하는 이런 側面이 없어지고 하는 그것을 指摘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모든 낭비가 거기서 일어나고 이것을 指摘을 하고 있읍니다. 이와같이 北韓의 經濟는 한마디로 말해서 어려운 처지에 있다. 어렵다고 하는 것은 뭐냐하면은 이것을 이끌어 나가고 앞으로 是正할 要因이 아주 적게 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엿볼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北韓도 이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난 한 두해동안에 걸쳐서 좀 是正을 해보자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많이 있게 되었읍니다. 1976年12月달에 이종옥이라는 사람이 副総理가 되었읍니다. 앞에 새 総理로 이렇게 제가 쓴것 같습니다마는 이것을 새 副総理로 이렇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종옥이라는 이 經濟実務家는 本来 完全히 이 사람의 經歷自体가 經濟專門家고 이렇게 되어서 나중에 가가지고 国家計劃委員長까지도 지나고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1976年12月인가 副総理가 됐고 1977年12月에는 지금 北韓의 総理가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그사람과 앞으로 여러가지 經濟実務家들이 内閣에 비로소 「포스트」를 상당히 많이 차지하게 되고 이래서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하게 되면 지금 이사람이 指摘했던 여러가지 經濟難局을 合理的으로 科学的으

로 托開해 보자 하는 時代라 할까 이렇게 볼 수가 있읍니다.

그래서 이 經濟를 이것을 綜括的으로 우리가 볼때에는 이 經濟的인 難境이야말로 北韓으로 하여금 長期的으로 다시 말하면 体制와 基本路線의 変化를 촉진시키는 要因으로 作用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短期的으로는 어렵겠지요." 그러나 長期的으로 볼때에는 이런 말하자면 根本的인 難点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뭔가 좀 変化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 変化라는 것은 어떤 変化냐하게 되면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中共이 추구하고 있는 이런 새로운 路線과 비슷한 方向으로의 変化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을 하기를 하기를 北韓은 長期的으로는 다소 그와같은 方向으로 変化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그러나 長期的으로도 北韓은 도저히 中共처럼 大大的으로 根本的으로 変化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일단 판단을 해 보았읍니다.

四. 軍備增强—또하나의 障碍要因

그다음에 軍事面으로는 제자신이 전혀아는 것이 거의 없읍니다마는 專門家들이 評論을 하고 이런것을 다소 참고로 해 수신다 할 것같으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을 北韓은 1962年12·月 이른바 4大軍事路線이라든가 이것을 채택을 했읍니다. 이 4大軍事路線이라든가 이것을 채택을 했읍니다. 이 4大軍事路線이라는 것이 우리가 볼때에는 經濟를 어렵게 만든 하나의 큰 要因이 아니었더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62.3年을 고비로 해서 北韓經濟는 「엑스텐시브그로스」가 다 고갈이 되고 그리고 「인텐시브그로스」에 말하자면 새로운 成長要因을 開発하지 못한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만 그것이 바로 北韓의 政治그리고 外交 軍事가 北韓으로 하여금 채택하게 했던 60年代初부터 채택했던 이른바 金日成의 主体思想의 구현화 그리고 軍事面에 있어서는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4大軍事路線을 이것을 추구하고 이렇게 되어가지고 北韓의 全地域으로 하여금 軍事地域으로 만들고 그야말로 全人民의 武裝化 全地域의 요새화 全軍의 간부화 그리고 장비의 근대화 이와같은 4大路線을 철저하게 추구하므로서 모든 人力과 기타 말하자면 資源을 여기다가 투입을 하고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말하자면 「인텐시브그로스」 經濟成長의 要因이 고갈이 된 것도 어떻게 보면 완전히 당연한 귀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읍니다. 그래서 專門家들의 判断에 의하면 北韓의 軍事費의 G N P에 차지하는 比重은 約 19%에 달한다.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이것은 南韓의 똑같은 숫자에 比較해보면 삼, 사배되는 이와같은 큰 負担을 北韓사람들은 지고 있다. 이렇게 말 할 수가 있읍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도 이와같은 北韓의 增强되는 軍事力에 対備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防衛産業을 開発하고 이렇게 되어가지고서 우리 国軍의 近代化를 이것을 推進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萬若에 이 경향이 앞으로 지속을 한다고 할 것같으면 실대적인 面에서 아직도 南韓이 손색이 있는 이와같은 장비면에서도 앞으로는 아마 北韓이 오히려 質, 量面에 있어서 열세에 몰리지 않을까 하는 이런 추세를 우리가 엿볼수가 있읍니다. 이래서 北韓은 軍事面에서도 이 두가지 路線에 선택의 기로에 서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는 뭐냐하면 現代와같은 그런 4大軍事路線에서 표방하고 있는 軍備의 增强을 앞으로 계속을 할 것이냐 둘째는 그렇지않고 말하자면 軍備의 增强을 일단 멈추고 그리고 経済的으로는 消費財를 더 많이 生産을 하고 그리고 外交的으로는 平和라는 이것을 표방하지 않을까 하는 이와같은 두가지 선택의 路線에 서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느쪽을 택할 것이냐 이것을 알 道理가 없읍니다만 만약 前者의 路線을 택한다고 할 것같으면 北韓은 蘇聯에 대한 依存을 심화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그러냐하면 武器를 더 많이 얻는다는 것은 역시 西方으로부터 얻을

길은 比較的 적을 것이고 어쨌든 蘇聯에서부터 얻지않을까 이렇게 되면 蘇聯에 대한 軍事的인 의존이 심화되고 또 나아가서는 經濟的인 依存 그리고 나아가서는 政治的인 依存이 심화된다.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後者의 路線을 택할때는 상식적으로 보아서도 西方에 대한 經濟的인 여러가지 接近 이것이 쉬워지고 또 다소 封鎖體制를 이것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겠고 이렇게 생각이 된다. 이렇게 볼 때에 北韓은 아까 經濟面에서도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역시 長期的으로 볼 때는 短期的으로는 도저히 現在 軍事路線을 變更할 理由가 없을 것같고 그러나 長期的으로 볼 때는 역시 軍備의 增强도 어느정도까지는 완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봤읍니다.

五. 週辺情勢ー長期的變化要因

끝으로 国際情勢의 変化라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아시다시피 最近에 와가지고 中共을 둘러싸고 世界史的인 이런 일대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읍니다.

具体的으로 말할것 같으면 美国과 中共에 있어서의 国交正常化의 展望 이것이 아주 뚜렷이 엿보이고 特히 日本과 中共과에 있어서의 経済協力 나아가서는 軍事的인 協力까지도 이것이 되고 이와같은 것이 北韓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칠것이냐 이것을 생각해 볼 때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은 뭐냐할것 같으면 長期的으로 볼 때에는 역시 中共路線이 北韓한테 어느程度 어필이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정도라는 이런 수식이 重要한 것인데 말하자면 全的으로 中共路線에 따를것이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中共의 「모델」 이것이 北韓에 하나의 모방되는 이런 面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우선 일단 생각을 했읍니다.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北韓은 지금 経済的으로 볼 때에 「인텐시브그로스」라고 말씀드린 그 成長要因의 開発을 위 위해서는 지금 体制를 가지고서는 도저히 이것이 안된다. 이것이 싫든 좋든 이런 認識이 일어나지 않을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보고 軍事的으로도 結局은 마찬가지에요. 그리고 中共이 지금의 그 路線으로 밀미암아서 상당한 성과를 結局은 거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成果가 거두어짐에 따라서 역시 30年代의 蘇聯

「모델」은 非現実的이다. 이것을 北韓은 認識하지 않을 도리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역시 남어지 「모델」은 뭐겠느냐 中共이 있지않겠느냐 長期的으로 볼 때에는 그런 理由에서 長期的으로 볼 때는 역시 中共「모델」이 어느정도까지는 北韓에 채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短期的으로나 長期的으로나 北韓의 方向의 설정은 中共같이 大大的으로 말하자면 根本的이라고 할 수가 있을 정도로 큰 이와같은 선회는 아마 없지않을까 이렇게 저는 또… 아까도 그런 말씀을 했읍니다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몇가지 거기에 대한 理由가 여기에 提示되고 있고 여기에 써있지않은 것에 대해서도 몇가지 言及을 해 보겠읍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느냐 할것 같으면 中共에 있어서는 지금 「화국봉」「등소평」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方向의 전환 이것이 큰 전환인것 같이 생각이 되기는 합니다마는 이것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표면적인 것이고 根本的으로는 「모택동」治下에 있어서 조차도 말하자면 実用主義의 路線을 賛成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은 충분히 많이 中共社会에 있었다.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혼란없이 그와 같은 큰 路線에 전환이 쉽게 이루어질 수가 있다. 저는 常識的으로 그렇게 素朴하게 判断을 합니다.

北韓에 있어서는 그런 実用主義의 路線을 賛成하고 지지하는 勢力이 지금 없다. 이렇게 우선 생각을 하고 그때 이것이 지금으로부터 形成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것이

상당히 時間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理由中에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理由中에 둘은 뭐냐하면은 中共의 가상 敵国은 蘇聯입니다. 中共은 우리가 常識的으로 느끼기에는 그 무엇보다도 두려워 하는 것이 蘇聯에 의한 軍事的인 공격 이것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타도하기 위해서 結局 国力을 增强시켜야 되겠다. 国力을 增强시키자니 말하자면 経済力을 우선 增强시켜야 되겠다. 経済力을 增强시키기 위해서는 中共의 「모택동」路線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겠다. 따라서 西方과 接近 西方으로부터의 여러가지의 技術을 導入 西方과의 経済제휴 이러한 것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뭐냐하면 蘇聯에 対抗하자고 하는 그런 以北의 根本的인 要救와 合致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可能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北韓에 있어서의 가상敵国은 南韓인데 結局 南韓으로 부터의 공격의 위협은 金日成과 그리고 北韓수뇌자들이 얼마나 느끼고 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中共수뇌가 北韓에서 느끼는 위험처럼은 그렇게는 아마 안느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経済的인 難局을 打開하기 위해서 약간 実用主義路線을 채택해보고자 하는 정도의 動機는 있을 수가 있어도 根本的으로 体制의 存立을 이것을 存立自体가 위험하기 때문에 路線의 전환이 절실하다 이렇게 北韓수뇌들은 느낄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動機自体가 比較的 弱하다. 우선 일단 저는 그렇게 또 생각해 봤읍니다.

그리고 셋째로 느끼는 것은 뭐냐하면은 中共은 政權을 어쨌든 그대로 자기네들의 실력에 의해서 革命이 이루어지고 政權이 樹立이 됐기때문에 자신이 있을 수가 있고 政權에 정통성이라 할까요 이것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고민은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獨者的으로 신축적으로 行動할 수가 있는데 比해서 北韓의 金日成이는 그것이 아니라 말씀이에요 結局은 自己가 자기 実力으로 北韓을 세웠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역역히 여러가지 고민을 하고 있읍니다. 60年代以後로 金日成이가 내세운 소위 主体思想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레지티마시」의 취약성 이것을 保護하기 위해서 내세운 것이고 그리고 主体思想이라고 하는 그것이 일단 政策으로 구현돼 올때는 어디까지나 상당한 정도 外国에 대해서는 배타적인 이런 것이 作用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主体思想을 機会있을때마다 소리높히 외치면서 外国과 親善을 적극적으로 推進한다. 이것은 事実은 얼마든지 可能하겠읍니다마는 역시 限界를 지워지는 機会로 作用을 하지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읍니다. 끝으로 여기에 指摘을 하기는 했읍니다마는 北韓에 여러가지의 고민 또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外国과 가령 開放을 한다. 開放을 해봐야 잘되지 않습니다. 中共을 여기선 指摘하지 않았읍니다마는 国際社会에서 中共이 開放을 할 때에는 外国사람들이 밀고 들어간다 말이예요. 그런데 北韓은 그것을 하지 못했읍니다. 国際社会에 있어서의 신임이 없다 말씀입니다. 能力이 없다. 신임이 없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事実 開放을 해봤던들

어떤 外国에서 쉽사리 그렇게 안심하고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니까 이를테면 설사 원한다고 할지라도 그와같은 신임과 能力이 北韓에 開発이 될때까지는 北韓에 있어서의 体制의 変化 基本路線의 変化는 사실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볼때에 結論的으로 말할 것같으면 北韓에 여러가지 経済와 혹은 軍事와 文化 그리고 社会教育 이런 모든 必要性은 実用主義路線의 채택을 長期的으로 볼때는 필요로 하게되어 있다 이렇게 보겠는데 政治的으로 볼때에 그런 것을 誘導하고 그 基本方向을 잡아주는 政治的으로 볼 때에는 実用主義路線의 採択을 거부하는 이런 세력이 엄연히 存在하고 있고, 앞으로 이 勢力이 크게 弱化되리라고 하는 展望은 지금 저로서는 별로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겠읍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体制를 혹은 基本路線을 変更시키는 要因과 이러한 変更을 억제하는 要因을 이렇게 볼때에 피차 팽팽하게 이렇게 맞서가고 있는데 短期的으로는 変化를 억제시키는 要因이 어디까지나 强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長期的으로 볼때는 역시 変化를 촉진시키는 이러한 要因들이 强하게 점차적으로 되어가지고서 実用主義的인 方向으로 北韓社会는 흘러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나 흘러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指摘한 여러가지 理由等으로 말미암아서 中共과같은 이런 것은 없지않을까 제자신 그렇게 展望을 했읍니다.

우선 일단 제자신의 말씀은 이것으로 그치겠읍니다.

< 討 論 >

司会：趙璣濬

討論：朴東雲 徐相喆 呂井東

○ 司会 趙璣濬， 趙淳 教授께서 北韓의 長期展望에 관해서 대단히 포괄적인 문제를 퍽 간명하게 설명해 주셨읍니다.

趙教授가 말씀하신 것처럼 北韓은 閉鎖的인 社会이므로 우리로서는 北韓으로부터 여러가지 資料를 얻기는 매우 어려운 状況下에 있읍니다. 또 있었다 하더라도 그 資料라는 것이 부족하거나 또는 信憑性이 적어서 判断을 어렵게 한다는 難点이 있읍니다. 그러한 与件下에 있는 것이 北韓社会研究라고 하겠읍니다. 그러므로 限定된 資料를 土台로 해가지고 北韓社会의 長期展望을, 그것도 어느 한 局限된 分野에 관한 展望이 아니라 政治，経済，軍事 및 国際情勢등 모든 分野에 걸쳐서 北韓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을 豫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問題를 趙淳 教授는 간명하고 선명하게 展望해 주셔서 討論의 실마리를 잡는데 매우 쉬워졌다고 생각합니다.

討論을 展開하기 위해서 于先 趙교수가 말씀하신 것을 몇마디로 討論을 위한 要略을 해 보겠읍니다. 趙교수는 北韓社会는 現在 政治的으로나 経済的으로나 또는 軍事的 側面에서 보아서 대단히 어려운 난경에 빠져 있다는 点을 前提하면서 이 難境이란 어떤것인가를 다음과 같이 지적해 주셨읍니다. 政治的인 面에서 보면 国際関係는 1970年代以前보다는 매우 変化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美・中共関係改善문제라든가 혹은 美・日関係의 友好条約 締結이라든가 또 非同盟国家로 부터의 不信이라든가 이런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処해 있고 또 北韓自体의 対内的인 형편으로 본다면 후계자 문제가 대두되어 큰 政治的 不安의 요소가 되고있다는 점도 想起시키고 있읍니다. 그러나 보다 더 重要한 것은 経済的인 面에서 北韓이 어려운 処地에 있다는 点을 趙淳 교수는 強調했읍니다. 1960年代까지는 그래도 北韓이 그럭저럭 그 自体内의 封鎖的인 自給自足体制에서 成長을 지속시켜 왔으나 70年代에 와서는 北韓経済는 거의 파탄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経済破綻의 原因은 우선 政策面에서 오는 차질, 産業間의 不均衡, 或은 国際信用関係에서 오는 外債문제 즉, 外債의 非効率的 使用 및 상환의 능력조차 없는 外債를 들여 왔다든가 그밖에 輸出의 부진 等等, 여러가지 面에서 보아서 北韓은 지금 経済状態를 그냥 그대로 유지하고서는 成長을 持続시킬 수 없다는 点을 지적해 주셨읍니다.

그러므로 北韓은 언젠가는 필연적으로 体制라든가 政策에 어떤 再検討가 필요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体制上의 再検討가 이루어진다면 어떤 検討가 이루어지며 그것은 어느程度 変化를 가져올 것이냐 이런 말씀을 主로 政治, 経済, 軍事, 国際情勢 그런 네分野에 걸쳐서 말씀해 주셨읍니다.

政治展望에 관해서는 長期的으로나 短期的으로나 크게 変化는 하지않을 것이라는 것이 趙교수의 판단인것 같습니다. 즉, 金日成이 執権하고 있는 限에 있어서는 体制의 基本路線은 変化하지 않는다. 変化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지금 政権에 変化없는 범위내에서 약간의 変革가 있을 다름이며 金日成 体制自体에 대한 革命的인 変化라는 것은 보기 어려울 것이다 하는 展望을 내렸읍니다.

経済的인 面에 있어서는 어려운 状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短期的으로는 本格的인 経済政策의 改革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現体制内에서의 部分的인 革新 및 合理化 시도는 있을 것이나 体制改革的인 変化는 없을 것이라는 展望이었읍니다. 그러나 長期的으로는 이대로 가다가는 北韓의 経済는 더 以上 現体制를 유지하기 어렵게 되고 또 파탄이 불가피하게 될것이니 점차 中共의 「모델」을 따아서 80年代 後半에 들어서면 西方諸国과의 接触의 폭을 넓힐 것이다. 開放의 문호를 어느程度 열어놓을 것이다. 이러한 展望을 했읍니다.

그러나 이 開放政策에는 限界가 있다고 말씀 했읍니다. 軍事的인 面에 있어서는 趙教授는 軍事専門家는 아니라고 하면서 経済的인 側面에서 보아서 지금과같은 軍事政策이 계속될 것인가 하는 点을 展望하고 있읍니다. 北韓은 지금 経済的 뒷받침이 없는 軍備拡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長期的인 面에서 본다면 至今의 軍備増強一辺到政策은 완화되거나 혹은 포기되지않을까 보고 있읍니다. 対南平和공세를 구호로 내세우면서 한편에서는 経済를 再整備를 하고 그와 더불어 軍事面을 増強해 나가지않을까 이러케 보고 있읍니다. 끝으로 国際情勢에 있어서의 関係를 본다면 우선 短期的으로는 아직도 역시 蘇聯과의 関係를 特히 軍事面에서는 아주 끊키 어려울것이라고 指摘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長期的으로 보면 結局 中共「모델」을 따라서 軌道의 修正을 할 것이며 或은 実用主義를 導入해가지고 점차적으로 西方国家와의 開放을 시도할 것이라고 보았읍니다.

즉, 北韓에 있어서도 지금과 같은 閉鎖的인 政策은 언제까지나 계속될수는 없고 다소 완화할 것이라는 結論인것 같읍니다. 趙교수의 그와같은 指摘이 万一에 実現된다면 南北統一問題도 앞으로는 다소 希望的이 아닌가 하고 期待되는것 같읍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討論을 始作 하겠읍니다마는 이 討論에서는 質問者가 質疑를 하고 発表者가 거기에 対해 하나하나 答弁을

한다는 그런 形式보다도 趙교수의 発表하신 内容을 中心으로 하여 討論에 参加하신 여러분이 생각하는바를 말씀해 주시면서 北韓社会의 앞으로의 展望을 함께 해볼가 합니다.

그러면 우선 오래동안 北韓研究에 專念하신 朴東雲 先生께서 이 論文과 発表를 들으시고 느끼신 点을 全般的인 面에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朴先生님 付託합니다.

○ 朴東雲 趙淳 教授께서 発表하신 主題論文은 中間的 分析에 立脚해서 투철한 통찰을 보이셨읍니다.

그 基調에 있어서 大体로 同感이고 게다가 지금 時間이 퍽 경과된것 같고 앞으로 数10分内에 討論参加하실 분이 세분이나 계셔서 지금 主題発表하신 그 「페이파」自体에 대한 「코멘트」는 略하기로 하겠읍니다.

総体的으로 제가 보수적인 見地에서 몇가지만 添加하고 싶은데 우선 主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主題発表에서 長期展望이라 하신 것은 요컨대 北韓의 内部変化要因에 대한 測定이라고 보겠읍니다. 그 内部要因의 測定과 関聯해서 北韓에서 現在 理論과 실천의 両面에 걸쳐 強行하고 있는 이른바 社会主義建設과 関聯된 変化要因測定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北韓의 共産体制는 共産圏치고도 가장 가혹하

고 무자비한 「스타린」主義의 後進的 形態라고 널리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또 金日成 自身이 개탄한 바를 趙敎授가 硏究発表에서도 言及하셨읍니다마는 官僚主義의 발호가 共産圈치고도 北韓이 가장 우심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共産圈치고도 가장 가혹한 非人間的体制가 成立되었으며 또 官僚主義가 그렇게 발호하고 있느냐 그 要因부터 말씀드리면 그것이 세가지로 크게 分析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들어야 할 것은 共産政權의 執權과정이 輸入된 위로부터의 革命에 의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中共党이나 「유고슬로비아」의 경우처럼 밑으로부터 군중을 組織하면서 솟아올라서 革命을 한 것이 아니고 순전히 北韓住民의 의향과는 關係없이 蘇聯軍의 赤化 占領政策下에서 輸入한 위로부터의 이른바 革命이었다 하는 事実입니다.

그것은 結局 群衆観点의 결여를 초래 했으며 또 命令主義가 여기에 배태되는 것으로서 金日成이가 官僚主義를 개탄한다 하면서도 이 弱点을 스스로 分析 못하고 있읍니다. 이것이 첫째의 要因이고 두번째 들어야 할 要因은 官僚主義를 개탄한다는 金日成 自身이 社会主義建設에서 보는 「막스레닌」主義의 理論에까지 위배되는 기형적인 強行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대체로 「막스레닌」主義에서는 歷史的 唯物論에 따라서 生産力発展에 부응하는 生産関係가 정립되어야 되겠는데 北韓에서의

소위 社会主義建設이란 生産力発展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고 다짜고짜 위로부터 生産関係부터 뜯어고쳐왔읍니다. 이미 北韓에서는 1958年에 이른바 社会主義改造의 完成을 金日成자신이 宣言하자 …… 그러니까 58年에 社会主義的 改造가 完成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特徵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金日成 自身의 말에 의하면 불과 休戰後 4,5年内라는 짧은 期間에 完成되었다 하는 이야기지만 이 自体가 자랑이 아니고 커다란 무리가 동반된 것이지요. 또 北韓의 社会主義建設의 特徵을 두번째로 들어 볼 것은 社会主義工業化의 뒷받침 없이 強行되었다 하는 事実입니다.

그렇게 하고 세번째로 들어야 할 北韓의 社会主義建設의 特徵은 農村경리집단화가 처음부터 共産圈치고도 가장 높은 형태라고 그들이 말하는 第3形態로 強行되었다는 것입니다. 대체로 北韓의 農村경리집단화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共産主義理論에 있어서는 農村경리집단화라는 것이 세가지 形態가 있읍니다.

첫번째 그것은 흔히 우리 社会에서도 품앗이반이라든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労力補助員이지요. 그러니까 北韓으로 말하면 土地改革으로 農土를 分配했다면은 그 土地는 分配받은 農民이 그대로 다 가지고 있고 호미자루라든가 농기구 역축같은 것은 各者가 所有하고 파종할때라든가 수확할때 서로 몰려서 돕고 그 도운데 따라서 약간의 무엇을 드린다 하는 이따

위의 分配方法이지요. 쉽게 말하면 労力補助班 품앗이班 式인 形態가 첫번째고 그것은 蘇聯이나 中共이나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막스」主義로 보면 그것을 거쳐서 두번째 段階에 가면 協同組合이 農業協同組合이 土地를 다 거두어들이지는 않으나 土地의 管理権을 가지고 合同해서 일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分配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土地와 労力과 두가지를 감안하여 分配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두번째 形態고 그 두번째 形態를 디디고 세번째 形態에 가면 協同組合이 生産手段을 全部 거두어드립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土地改革이니 뭐니해서 分配했던 土地를 全部다 거두어드리고 심지어는 역축 농기계까지 全部 거두어들여서 그 生産手段을 完全히 農業協同組合이 장악한 土台위에서 集団労動을 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分配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어떤 土地를 들여놨다든가 누가 어떻게 농기계를 기여했다든가 그까지것은 고려외니까 순전히 노동점수만에 의한 分配의 原則이 관철되는 것이지요.

이 세가지의 농촌경리집단화의 形態가 있읍니다만 北韓의 경우로 보면은 1,2形態를 집어치우고 처음부터 농촌경리집단화라는 것을 노동점수만에 의한 分配原則을 거쳐가면서 1958年에 強行해 왔읍니다. 이것은 農民이 바라는바 아닙니다. 농민이 바라는 바 아니기때문에 金日成政権은 強権에 의한 統制方式으로서 해 나가야 되지요. 그러나 強権発動도 限界가 있으니까 思想우선 政治第一이라는 것을 내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勞動生産性을 向上시키기 위해서는 物質的 자극과 상황적 자극의 두가지가 論議되고 있읍니다만 그냥 美国 같은 나라에서 보수를 많이 주면 또 成果가 크면 더 많은 「보너스」가 나오면은 이것은 이해 할 것입니다. 이러한 그 物質的 자극이라는 方法이 있는데 그것을 오늘날은 蘇聯도 채택하고 있지요. 北韓의 경우는 그것을 完全히 집어치우고 상황적 자극만을 내세워서 主体思想이나 무슨 경애하는 수령님의 무엇이니 운운하면 어리석은 思想的 자극으로서 勞動生産性을 向上시켜보려고 했으며 그 배경에 強權이 도사리고 있던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것은 무리, 強行이지요. 社会主義建設이라는 것이 그런데 이러한 社会主義建設에 덧붙여서 또 한가지의 무리의 要因은 分団과 긴장상태라는 사실입니다. 国土가 両断된 것을 口実로 긴장상태를 造成하고 긴장상태를 이용하여서 지탱되는 政權이 金日成政權의 生理로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北韓에서의 共産圈치고서도 가장 가혹하고 무자비한 体制가 어떻게 되어서 정립되었는가 하는 要因을 執權과정에 수입된 위로부터의 革命이었다는 것 두번째로는 社会主義建設에 보는 기형적 強行이라는 것 세번째는 国土両断과 긴장상태로 또 긴장을 먹고사는 金日成政權의 「스타린」主義的 生理 이 세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읍니다. 그러나 그것가지고 社会主義建設이라는 것이 제대로 나오겠느냐 하면 나갈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점은 1958年에 金日成政權이 社会主義的 改造完成을 운위하기 前에 蘇聯共産党中央委員会에서 北韓

共產党 즉 朝鮮労動党에 경고를 보냈읍니다. 社会主義建設이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막스」主義의 歷史的 唯物論은 生產力発展에 부응하는 生産関係의 改革을 하는 것이지요. 生產関係부터 뜯어고쳐놓고 生產力発展을 뒤따르게 한다는 것은 말도아니다. 도대체 北韓에서는 社会主義工業化도 이룩하지 않고 「 트랙터 」도 生產못하는 주제에 어떻게 농민들을 集団農場形態에 끌어모을 수 있느냐 하는 理論제기가 있었던 것인데 비밀에 붙여졌다가 中蘇분규과정에서 北韓側이 中共편에 가담하매 야단법석하고 対蘇関係가 弱化되자 *1968*年*1*月에 労動新聞에서 그 경위가 自体폭로 되어서 나왔읍니다. 이것은 「막스레닌」主義에 위배되는 그들의 理論 自体에도 위배되는 金日成의 기형적인 「스타린」主義에 後進的 形態치고도 기형적 形態로서의 強行이 오늘날 무리 무자비한 形態를 낳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련共產党의 경고처럼 이것은 순조롭게 오래 갈 수가 없지요.

아마 趙教授께서 指摘하셨읍니다만 여러가지 페단이 나와 있고 経済成長도 정체상태에 빠져버렸고 南北韓의 国力배양경쟁에서도 北韓側이 상대적인 열세에 몰리는 이런 파탄이 스스로 온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根本문제를 파악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 그러한 세가지 要因에 비추어서 그러한 무리 強行이 왔고 오늘날 그런 파탄이 왔다면 金日成政権이 그것을

못 느끼겠느냐 하면 느낍니다. 느낀다면 어떻게 대처하느냐 첫번째 要因 輸入된 위로부터의 革命에 따른 여러가지 폐단을 어떻게 是正하느냐 하면은 그것은 金日成政權이 지금 떠도는 主体思想이니 自主路線이니 그리고 또 金日成個人 숭배등등을 내세워가지고 이른바 朝鮮革命의 革命的 伝統이니 운운 해가지고 体制를 土着化시킬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렇게해서 輸入된 위로부터의 革命이라는 여기에 따르는 폐단을 是正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体制의 土着化라는 것은 民族의 오랜 文化伝統과 어울려야 되는데 어울리지않고 異質的인 것을 가지고 떠들어대고 土着化를 시도하고 있읍니다.

두번째 生産力発展에 어울리는 生産関係의 改造가 아니고 거꾸로 된 生産関係부터 先行시켰다 하는 이것에서 파탄해 왔는데 어떻게 해서 그러냐 이것은 지금 重要한 문제가 제기되지만 中央執權的인 改革化를 점차 포기해야 되겠고 地方分權을 施行하면서 「유고슬로비아」式으로 勤労者들의 창의성도 발휘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金日成政權은 그것을 소위 청산리 方法이니 혹은 대안의 事業体系니 하면서 思想的 자극과 이른바 군중로선이라는 것을 가지고 官僚主義의 根源은 따지지 못하면서 群衆路線을 憲法에까지 써넣으면서 是正해 보고자 애를 쓰고 있었읍니다만 限界가 明白합니다.

그리고 세번째 그들의 対応策과 관련되는 문제 제기를 보면

도대체 金日成政權이라는 것은 긴장을 먹고 사는 그러한 생리를 지녔는데 긴장을 먹고 사는 것이 一時的으로는 思想動員에 효용이 있는 것같습니다마는 거기에서는 技術革命도 되지않지요 技術革命이라는 것은 個性的인 창의력을 존중하는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긴장하고 모두가 굳어빠져 있으면은 거기에서 技術革命같은 것도 되어 나가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나 南쪽에서 그들의 말투를 빌리면 美帝와 南韓側에서 北進해 올려고 한다.

이런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읍니다마는 또 자기들은 祖国統一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읍니다만 祖国統一이고 뭐고 도대체 되는 것같지않고 中共도 美国과 日本에 가까워지고 그렇다면 統一도 안되는데 왜 이렇게 긴장긴장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우리 마음편고 조금 더 낳게 살 수 없느냐 이러한 物質的 자극 없이는 労動生産性이 기대안되는 住民욕구가 向上될 것이 내다 보이고 南北対話과정에서 이른바 金日成政権이 우려하는 自由의 바람문제가 또한 여기에 결부되고 対話中断要因도 여기에 하나 나와 있읍니다.

그러면 이러한 세가지 연유를 分析했고 이어서 거기에 대한 対応関係에 비추어서 変化에 作用할 要因을 또 세가지로 分析했읍니다.

그러면 이것을 総体的으로 볼때 北韓의 内部変化를 앞으로 促進시킨 方向設定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民主主義化 開放化

實用主義路線 이것밖에는 있을수가 없을 것입니다. 신수설에 의하면 經済的인 難局을 타파하기 위한 中共方式의 實用主義路線을 채택하면서 民主主義化 開放化로 나갈수 밖에 그들 內部의 모순을 풀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實用主義路線의 채택이라는 것은 中共의 成果를 봐서 해야 되겠고 또 戰爭主義까지 배대한 中蘇関係의 귀추도 내다봐야 하겠으며 또 적어도 金日成体制로서는 現在 그것을 뜯어 고친다면 政權의 지탱이 안되기때문에 金日成以後까지도 내다보지않을 수 없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時間関係로 以上 그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o 趙瑰濬 감사합니다.

朴東雲 先生께서 北韓에 관한 政治体制 経済体制関係에 관해서 補充的인 說明이 있었읍니다.

우선 세분의 말씀을 다 들은 다음에 発表者의 意見을 들어보기로 하겠읍니다. 다음은 서울大学校에 계시는 呂井東 教授께서 政治外交的인 측면에서 所感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o 呂井東 政治的인 측면에 대해서는 朴東雲 先生께서 자세하게 說明이 있었읍니다.

経済的인 側面에 대해서는 徐相哲 教授께서 말씀이 있을 것

이고 저는 学界의 末席에서 国際政治学을 専攻하는 学徒이기 때문에 外交的인 分野에서 잠간 몇 말씀드리겠읍니다.

저는 本学術会議 主題가 「南과 北」이라고 하는 큰 「타이틀」이기 때문에 이 「南과 北」이라는 主題에 초점을 맞추어 趙淳 先生님의 発表를 듣고서 느낀 所感을 몇 말씀 드리고난 뒤에 제가 平素 「南과 北」에 대해서 外交的인 側面에서 상각했던 것을 제나름대로 부연 説明을 해가면서 한두가지 趙淳 先生의 「페이파」内容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대목에 대해서 몇말씀 묻기로 하겠읍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趙淳 先生님의 発表를 듣고 제가 제일 먼저 느낀것은 統一에 대한 허탈감이 었읍니다. 앞으로 果然 統一은 達成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너무도 허망한 허탈감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지않을 수 없읍니다. 趙淳 先生의 「페이파」内容에 있다시피 어떠한 社会는 간에 政治領域이 어떠한 다른 領域보다도 그 社会를 움직이는 원동력임에는 틀림이 없읍니다.

특히 共産社会는 政治優位的입니다. 経済는 政治目的을 달성하기 위해서 운영되며 軍事도 그들의 정치노선을 보위하기 위해서 動員되며 심지어 文化나 芸術도 그들의 정치이념을 정당화 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北韓社会에서는 앞으로 体制面에서나 政策路線面에서나 短期, 中期, 長期를 통해서 政治領域에서는 항상 変할 可能性이

희박하다고 趙淳 先生님은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어느 面에서는 好戰的이요 閉鎖的인 体制가 強化될 우려마저 있다고 말씀하셨읍니다. 朴東雲 先生의 말씀에도 이러한 「뉴앙스」가 비치기도 하였읍니다.

이와같이 北韓에서는 政治領域에서의 変化없이 과연 南北統一이 達成될수 있을 것인가 하는 点을 생각할때에 저로서는 統一문제에 대해서 허탈감을 느끼지 않을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統一문제에 대해서 허탈감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입니다마는 趙淳 博士님의 発表를 듣고 또 한가지 느낀点이 있읍니다. 또한가지 느낀점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말씀 드릴것은 趙淳 先生님은 経済学界의 泰斗이심에도 불구하고 非経済的인 分野에 대한 政治軍事 国際情勢의 변천 分野에 대해서도 論理整然하게 展開해 주신데 대단히 감명을 느꼈읍니다.

그런데 趙淳 先生의 「페이파」에 의하면 経済分野라든가 国際情勢의 변천分野 즉 外交分野라든가 또는 군데군데 말씀해 주셨던 社会文化的인 分野에 대해서는 어느程度의 変化可能性이 있음을 示唆하면서도 根本的인 政治分野에 대해서는 変化可能性이 없다고 말씀하셨읍니다.

이러한 趙淳 先生의 論理는 결국 非政治分野의 変化可能性이나 変化가 政治分野의 変化에 促進要因으로 될 수 없다고 하는 論理로 받아들일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주장하는 統一政策은 무엇이냐하면 접촉하기 쉽고 合議하기

쉬운 그러한 非政治的인 機能分野의 단계적인 접촉과 合議에 의해서 最終的인 国土統一은 体制的인 융합인데 이런 体制的인 융합을 하자고 하는 그러한 論理가 우리가 主張하고 있는 論理인데 지금 趙淳 先生의 「페이파」의 內容을 보면은 非政治的 機能分野의 접촉이나 合議가 있다고 하더라도 最終的인 政治統一에 대해서는 당분간이 아니라 앞으로 상당한 期間동안 우리는 達成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論理展開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기때문에 저는 이 統一에 대해서 대단히 허탈감을 가질수 밖에 없었읍니다.

솔직히 말해서 国家間이나 政府間에 非政治的인 機能分野의 変化는 政治的 分野의 変化의 促進要因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것과는 아무런 関係가 없는 것인지에 대한 論議는 学界에서 분분합니다.

어제 統一에 대한 学術「세미나」에서 異質化의 문제 同質化의 문제를 많이 거론 해 주셨읍니다. 그때에 異質化라고 할때는 두가지 水準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읍니다.

하나는 社会 文化的인 水準에서의 異質化라고 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政治体制的인 水準에서의 異質化라고 하는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発表하는 內容이나 討論에 参加해 주신 여러 先生님들의 意見은 다분히 社会文化的인 概念으로서의 異質化문제를 論議해 주셨고 政治体制的인

概念으로서의 異質化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거론되지 아니했으며 또 거기에 対해서는 거론을 안하려는 基本態度가 있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저는 느꼈읍니다.

社会文化的인 概念으로서의 異質化의 同質性회복과정이 政治体制의 同質化 즉 異質的인 政治体制의 융합이나 統合이 可能할 것이냐 그렇지 못할 것이냐 하는 것은 学界에서 여러가지 異論이 있읍니다.

異論이야 어떻든 非政治分野의 同質化問題와 政治分野의 同質化問題간의 관계는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될줄 압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제가 平素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한바가 있기때문에 저의 所感을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소박한 所感은 이정도로 마치고 다음에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읍니다. 저는 外交学徒이기 때문에 趙淳先生님의「페이파」중 国際情勢의 変遷이라고 하는 대목중에서 제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될지 모르는 대목에 대해서 소박한 질문을 해보겠읍니다.

「페이파」300「페이지」밑에서 부터 여섯째 줄 부터 보면은 長期的으로는 中共「모델」을 모방하여 軌道修正의 方向을 取하게 할 것으로 展望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그리고 301「페이지」위에서 둘째줄을 보면은 短期的으로 본다면 北韓은 一時에 中共에 경사하지는 못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그다음 303「페이지」 끝에서 셋째줄부터 보면은 短期的으로는 実用主義的 政策으로 転換될 수 있는 要因이 比較的 박약하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읍니다.

그러면 이 長期, 短期 趙淳 先生께서는 長期, 短期를 앞으로 10年이라고 하는 時限 設定을 했읍니다마는 이 短期를 어떻게 보든間에 제가 여기에서 短期的으로 보면 北韓은 一時에 中共에 경사하지는 못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하는 문맥을 短期的으로 볼때 北韓은 中共과 蘇聯과의 등거리外交를 展開할 것이다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어졌읍니다. 어느쪽으로 경사하지않고 外交的으로 등거리外交를 推進할 것이다 하는 것으로 여겨졌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도 同感입니다.

그런데 長期的으로는 中共「모델」을 모방한다 할때에 中共「모델」이라고 하는 말과 앞「페이지」에 가서 短期的으로는 実用主義的 政策으로 전환할 수 있는 要因이 比較的 박약하다는 이 実用主義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가지는 의문입니다.

조순 선생의 論旨는 中共「모델」이 実用主義를 받아드린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인것 같은데 実用主義라고 하는 것을 外交分野에다가 한번 적용을 해서 생각을 해 보면은 문호개방政策이라고 하는 것으로도 이해가 되어가지고 또 外交分野에다가 적용을 해서 생각을 하면 온건하고 유연하고 合理主義的인 外交政策을 수행할 것이다 하는 그러한 의미로도 해석이 되고 南과 北이라 하는데 촛점을 맞추어서 생각을 하면 南北韓의

統一 즉 共産化外交指向的이 아니라 北韓共産体制유지外交 指向的이다 하는 소위 北韓体制의 安保外交 指向的이다 하는 말로도 해석이 되어진다고도 생각이 되는데 趙淳 先生님이 여기에서 말한 実用主義라고 했을때 또는 北韓「모델」이라고 했을 경우에 対内的인 経済政策 또는 対外的인 経済政策인 意味로서만 해석이 되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南北韓関係 까지를 고려 해서 北韓이 유연하고 온건하고 그리고 革命主導的이 아니고 그러한 北韓共産体制維持的인 그러한 現状維持的인 政策으로 나갈것이라고 하는 의미로서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제가 소박한 質問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왜 이상과 같은 문맥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른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저의 個人的인 생각은 北韓이 앞으로 상당期間동안을 두고 볼때에는 상당히 유연하고 온건하고 그리고 合理的이고 南北韓의 현상유지라고 하는 그러한데에다가 重点을 둔 外交政策을 수행할 것이다고 하는 展望을 하고 있기때문에 저로서는 趙淳 先生이 사용한 実用主義나 中共「모델」을 그렇한 뜻으로 해석을 하고 싶기때문에 제가 趙淳 先生님에게 한번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北韓이 앞으로 南北관계에서 유연한 자세로 대처할 것이라는 저의 論理를 밑받침해 줄 수 있는 여러가지 理論的인 문제나 실제적인 문제나 情報的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発表할 立場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생략하겠읍니다.

지금까지 저의 所感을 말씀드렸고 趙淳 先生님에게 中共「모델」과 實用主義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뜻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질문 드리면서 끝맺겠읍니다.

o 趙璣濬, 呂井東 教授는 北韓社会의 展望을 国際関係와 그에 대처하는 外交的인 側面에서 趙淳 教授의 発表에 補充説明이 있었읍니다.

呂教授는 또 이번 統一문제 심포지움에 있어서는 社会文化的인 側面에서의 異質化는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데 政治的인 体制面에서의 異質化 問題는 크게 부각되고 있지못한것 같다는 点도 아울러 指摘해 주셨읍니다.

그러면 다음에 高麗大学校에 있는 徐相哲 교수로부터 経済的인 側面에서 趙淳 교수의 発表를 듣고 느끼신 所感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o 徐相喆 감사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趙淳 教授님께서는 経済学者이시고 이「페이퍼」중에서 経済部分에 대해서 제일 많이 力点을 두신것이 나타나고 있읍니다. 또한 時間도 많이 가고 그래서 제가 길게 말씀드릴것은 없고 全体的으로 趙淳 教授께서 말씀하신것에 賛同하면서 그러나 한·두点을 더 補充説明드릴까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北韓経済展望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이 하나 있읍니다.

먼저 몇가지 補充説明으로서 첫째 北韓経済의 基本的인 문제点은 閉鎖経済를 추구해 나가면서 重工業위주의 自給自足体制 이것을 発展시킬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事実은 그러한 開発戦略의 문제가 없을 수도 있읍니다.

우리가 共産主義国家 다른 共産主義国家들도 보면은 蘇聯을 위시해서 東欧圏 共産主義国家들도 많이 이러한 開発戦略을 取해 왔었고 또 그러는 과정에서 오늘날 北韓이 당면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심각한 문제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때 이러한 北韓이 추구하는 開発戦略의 문제가 심각해지느냐 하면은 제 생각으로는 相対方 競争国家가 있을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万一 競争国家가 없다면은 北韓経済가 추구하고 있는 이 開発戦略에 長点도 많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불안정한 経済社会의 의존을 될 수 있는대로 덜하고 그대신 자기의 힘으로 重工業을 育成하고 그리고서 政治的인 目的을 達成하며 남어지 消費者의 문제는 国家의 強権을 発動해서 消費者의 욕구는 그렇게 処理를 한다고 할 것같으면 별로 문제가 없지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여기에 南韓経済와 같이 이러한 競争相対가 北韓経済보다 월등히 앞서고 있을 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南韓経済가 万一 침체를 되풀이하고 혼돈의 연속을 계속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例를 들어서 만일 南韓経済가 그런 상태에 있었다면 北韓経済가 추구하는 이러한 開発戦略은 오히려 北韓

經済에 큰 強点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바와 같이 또 北韓經済가 이것이 어느 程度의 福祉社会로 建設할 수가 있읍니다. 왜그러냐 하면 우리 資料를 본다면은 北韓의 農業部分이 상당히 強化가 되고 発展이 되었다.

그러니까 北韓社会는 궁극적으로는 꼭 基本的으로 필요로 하는 그런 정도만을 충족시키고 그대신에 所得分配는 그 水準에 맞추는 그러한 平等한 社会를 만들더라도 남어지는 全部가 軍事·政治的인 目的도 달성하면서 人間이 必要로 하는 것을 충족시키면서 한다면 충분히 그나라 經済를 잘 운영해 나갈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불행히도 南韓의 經済는 처음 出発은 상당히 늦게 했읍니다마는 60年代 後半 70年代에 걸치오면서 소위 対外指向的인 開発戦略을 추구하므로서 오늘날 개발도상国家内에서도 가장 工業化 내지는 經済発展에 실적이 적은 그러한 나라로 나타나 있고 또 現在상태보다도 앞으로의 展望을 생각해 볼때에는 北韓이 자기네들이 추구해오는 그러한 開発戦略의 모순을 느끼지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것은 北韓經済의 開発戦略에 모순이 있느냐 없느냐 結局은 南韓經済의 相対的인 発展이 北韓으로 하여금 그러한 결함을 노출시키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趙淳 教授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70年代에 들어와 가지고는 그것을 修正해 볼려고 貿易도 좀 늘려보고

外資導入도 많이 해보고 技術導入도 해볼려고 했읍니다마는 이러한 基本的으로 閉鎖経済를 추구해온 나라에서는 그러한 修正이 여의하지가 않습니다. 国際競争力을 完全히 도외시하고 発展시킨 이러한 産業構造이기 때문에 도저히 外貨獲得의 源泉을 마련할 수가 없어서 이 外債가 西方陣営에 76年末頃에 約 14億 그리고 다른 共産主義国家에 約 10億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外債때문에 76年 7月에 와가지고는 아주 완전히 国際的으로 公信力을 잃고마는 다시 말씀드리면 이러한 開発戦略의 修正을 하지않은 것만도 못한 그러한 곤경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貿易面에서 보면 蘇聯과의 関係가 점점 悪化되고 그러다가 中国과의 거래를 통해서 과연 얻을 수 있는 것이 뭐냐 北韓이 필요로 하는 기름以外에 技術的으로는 지금 中共자신도 낙후되어서 先進技術을 받아드릴려고 하는 판에 北韓에 과연 도움이 될수 있는 것이 뭐겠느냐 상당히 의문스럽고 그 다음에 日本과의 거래에 있어서는 外債상환의 능력부족 公信力상실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 곤경에 빠져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北韓에서 最近에 이종욱과 같은 사람을 総理로 갖다 세우고 경제「팀」을 다시 조직했다 하지만 이러한 開発戦略의 修正에는 根本的인 変化가 없는 限은 상당한 제약조건이 있을 것이며 또 그러므로 인해서 北韓経済가 現在 당면하고 있는 이러한 어려운 좀처럼 是正될 展望이 보이지않습

니다. 이 外債상환이 이제 「피크」에 도달한 것이 今年末 来年으로부터 해서 *81* 年까지가 되는데 北韓経済 構造로 보아서 外貨獲得의 源泉이 하나도 새로 생긴것이 없기때문에 国際社会에서의 公信力상실은 한층 더 심해질 것이고 그러므로 因해서 国際的으로는 한층 더 어려운 지경에 도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번째로 趙淳 教授께서 成長要因이 없어져 간다 하시는데 그것은 이 開発戦略 또는 政治体制와도 많이 関聯이 됩니다. 南韓과 比較해 볼때 우리 南韓経済에 있어서 가장 重要한 経済成長 原因은 人的資源에 있다하는데 그러면 같은 배달민족으로서 왜 北韓에는 인적자원이 없고 南韓에는 인적자원이 있다고 내세우느냐 이것은 역시 지난 한 *30*年동안 우리가 다른 政治 및 経済面에 있어서 体制가 다른 그러한 社会에서 살다 보니까 같은 배달민족이면서도 창의력이라든가 적응력이라든가 이런 面에 있어서 거의 다른 民族처럼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같이 政治 経済 그러한 北韓과 같은 그러한 政治 経済体制下에서는 이러한 인적자원을 開発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자연자원이 거기에 많으냐 하면 発展初期에는 南韓에 比해서는 풍부했다고 하지만 이제는 광산물 농산물 이런面에 있어서 거의 限界点에 도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專門家들의 평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에서 北韓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인적자원에 기대를 해야 되는데 北韓体制自体가 人的資源을 開発하는데에는 가장 역행하는 人的資源開発을 위해서는 역행하는 그러한 体制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또 문제인 것입니다.

셋째로 国民福祉 내지는 負担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겠는데 北韓은 그동안 이런 생각을 가지고 資本蓄積 重工業育成에 必要한 資本蓄積 이런것을 될 수 있는대로 国内資本을 또는 貯蓄을 動員해서 充当하다가 보니까 每年 発展初期부터 現在에 이르기까지 每年 総生産에 30%以上을 投資에 써왔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막대한 国民의 負担이 수반되어 왔는데 아까 朴先生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문제를 긴장을 먹고 사는 社会를 만들므로서 国民의 不平을 제거하고 国民을 強制動員시킬 수 있었고 이러한 분위기가 되었는데 여러가지 与件의 変化에 따라서 과연 앞으로 얼마동안이나 더 과거와 같은 그러한 方法으로서 国民을 総動員할 수 있겠느냐 国民의 負担을 계속 유치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하나의 큰 문제로 대두해 오지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綜合해 볼때에 北韓経済의 展望이 되겠읍니다마는 이러한 것을 綜合해서 그것을 根拠로 해서 北韓経済의 미래상이 되겠는데 289「페이지」부터 292「페이지」 위에

이르기까지 趙淳 教授께서 北韓経済의 長期展望을 하셨읍니다.

그런데 289「페이지」부터 290「페이지」에 보면 北韓経済가 앞으로의 문제를 …… 지금 당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해야 하느냐 하고 세가지를 指摘하셨는데 만일 北韓経済가 이것을 다 한다면 이것은 완전히 共産主義를 포기하고 北韓経済가 우리 南韓経済와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보시면 알지만 첫번째가 経済全般에 걸쳐서 開放体制로 전환하고 두번째 軍事増強위주 이것의 目標를 포기하고 消費産業의 量質面에 걸쳐 開発에 置重하고 그 다음에 価格기능을 보다 합리화하고 이렇게 되면 北韓経済는 결국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南韓経済 体制에 接近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共産主義를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여주어보고 싶고 그런 뜻으로 아마 趙淳 教授께서도 물론 이러한 것이 필요한데 이러한 것은 短期的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러나 291「페이지」에 보면 80年代 後半에 가서는 상당히 이러한 方向으로 갈 것이 아니냐 만일 제가 해석하는 것이 맞다면 적어도 이 部分에 있어서는 統一의 展望이 밝지않느냐 하는 뜻으로 풀이 될 수도 있지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北韓経済가 이러이러 한 것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우리 立場에서 본 이상논이고 北韓의 実情을 주어진 実情을 놓고 볼때에는 이러한 것들을 論하기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않는가 現実的으로…

80年代 後半이 아니라 90年代에 가서도 어렵지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거의 共産主義를 포기하는 것이 되기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좀더 現実的으로 可能한 未来像은 뭐냐 北韓経済의 未来像은 뭐냐 두가지로 볼 수가 있을것 같습니다. 역시 未来라는 것도 상당히 애매한 것으로서 얼마를 가지고서 未来라고 하느냐 比較的 짧은 미래와 상당히 먼 미래 이렇게 두가지를 놓고 생각해 본다면 比較的 짧은 未来에 있어서는 北傀의 政権을 쥐고 있는 사람은 자기네가 이제까지 추구해 온 政策体制를 세워가지고서 하기보다는 지금까지 해온것을 어떻게 利用해서 自己 競争相対国을 곤경에 빠뜨리는 것 이것이 우선 첫째 目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北韓経済가 곤경에 빠졌다는 것은 이것은 相対的인 것입니다. 南韓経済가 이만큼 되었는데 곤경에 빠지게 되었지요. 그러니까 北韓経済의 現在의 곤경에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方法은 좀 앞서있는 南韓経済를 다시 어렵게 만드는 것이 한가지 方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南韓経済는 다른 어느나라 보다도 外交指向的이고 外国과의 밀접한 단계를 맺으므로서 成長하고 있는 나라기 때문에 韓半島에 있어서의 긴장을 불러 일으킨다든가 戦争의 위험을 増加시킨다든가 이러므로서 南韓経済와 外国経済와의 관계를 혼란에 집어넣는다든가 이렇게 되면 自然経済 競争에 있어서 北韓이 다시 우위를 찾이할 수도 있지않

을까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한가지 좀더 가까운 장래에 있어서에 한가지 가능성은 이러한 方法 韓半島에 있어서의 平和를 위협하는 그러므로서 南韓経済로 하여금 소위 말하는 国際社会에서의 「파트너」를 잃게하는 이러한 方法으로 南韓経済를 곤경에 빠뜨리는 한가지 可能性으로 생각하지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좀더 긴미래를 볼적에 万一 北韓에서 이러한 方法으로는 도저히 승산이 있을 수 없겠다. 이렇게 생각할적에는 제 생각에는 共産主義를 포기하는 그러한 정도의 改革보다는 차라리 南韓과의 경쟁을 포기하는 方向으로 経済運営을 하지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 開放体制라든가 市場機能이라든가 이런것은 포기하지않되 그러나 軍事增強目的이라든가 이런것을 포기하므로서 자기네들이 自給自足할 수 있는 그런 範囲内에서의 아까 말씀드린 「베이식 벤스니드」 에서 人間의 基本욕구를 충족시키면서 分配面에 있어서 상당히 均等을 유지하는 그런 社会를 만들겠다. 그러면 이것은 구태여 貿易을 하거나 共同의 技術을 들여오지 않더라도 충분히 그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軍事的인 目的을 포기하고 南韓과의 経済的인 競争을 포기하면서 그때부터는 분위기조성이 되어가지고 南北間의 経済交流를 이룰수 있고 南北間에 経済交流를 通해서 国際公信力이라든가 이런것이 向上되면 그때에 가서 점차적으로 開放体制로 갈 수도 있지않을까 그래서 저는 展望에 대해서 한가지는 상당히 悲観的이고 한가지는 상당히 楽観的인 이 두가지를 생각해 봤읍니다.

감사합니다.

o 趙璣濬 감사합니다. 趙교수의 発表와 討論에参加 해주신 세분 선생님들의 말씀을 들었읍니다. 北韓問題는統一을至上 課業으로 앞두고 있는 우리로서는 큰 関心事이기 때문에 여기同席하신 傍聽者 中에서도 많은 意見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만은 豫定된 시간이 이미 많이 초과되어 있어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유감입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趙 淳 先生께서 세분이 말씀하신데 대한 所感과 더불어 質問에 관해서 簡単한 말씀이 계시고 이会議를 끝마쳐야만 되겠읍니다.

o 趙 淳 감사합니다.
여러 先生님께서 이야기를 아주 대단히 좋은 「코멘트」를 해주셨읍니다. 아주 간단하게 質問하신것 그리고 「코멘트」안에서 느낀것을 말씀을 드리자면 첫째 呂井東先生께서 말씀하신 異質化 저는 그 異質化를 가령 質問이 아니었읍니다마는 생각하기를 가령 根本的인 異質化라고 하는 것은 人間改造 이를테면 金日成思想으로 人間改造 이것이 異質化라고 北韓이 가령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도저히 成功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야 政治体制가 달라져있고 말하자면 표방하는 社会 目的이 다르니까 行動이 달라지고 言語가 달라지고 하는 것이야 당연한 얘기고 그것을 가지고 異質化라고 할 수는 없고 만약에 共産

主義社会가 目的하는 어떤 그런 人間의 「패턴」을 根本的으로 形成시켜보자라고 하는 것이 北韓의 異質化를 가지고 오는 그런 政策이라면 저는 그것은 成功할 수가 없지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아까 呂井東先生께서 말씀하신 말하자면 北韓의 実用主義라고 하는것이 이것이 南韓과의 關係를 유연하게 이렇게 만듦므로써 改善하고 이런 方向으로 얘기하는 것이냐 그러면 比較의 安保를 위한 그런 측면에서만 合理的으로 推進하는 것 그런 形態가 実用主義라고 얘기하느냐 그런 취지의 質問이었는데 저는 생각하기를 모든 나라의 外交는 이것은 그나라의 政治的인 目的과 体制를 유지하기 위해서 展開되는 것이다 実用主義든 아니든 무엇이든 이제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다고 해서 곧 南韓과 아주 따뜻해지고 원만해진다 이렇게 볼 수는 도저히 없는 것이에요 北韓의 実用主義가 推進된다고 할것같으면 이것은 北韓自体의 필요에 따라서 北韓의 安保와 北韓의 政權의 유지의 필요에 따라서 推進되는 것이지요 곧이 南韓과 어떻게 타협을 해가지고서 서로 잘해보자 하는 이와같은 意思의 표명이라고 볼 수는 없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中共의 実用主義가 推進된다고 해서 무슨 中共의 政治的인 目的이 당장 포기된다고 볼수는 없읍니다.

단지 나아가서 実用主義라 하는 것은 이것은 合理的인 것을 말하고 科学的인 것을 말하기 때문에 심한 무리한 짓은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되겠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南韓과의 關係에 있어서도 지금까지 무리한 이러한 것을 포기하게는 되겠지요 그런면에서 그런 제한된 범위내에서 우리와의 関係가 보다 더 긴밀 원활한 것이 되는데 어느程度의 역할을 한다 이것은 저도 贊成입니다. 그렇게는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徐相哲敎授께서 아주자세하게 여러가지 좋은 말씀이 계셨읍니다.

제가 指摘한 北韓經濟의 改革의 필요성 이것을 그냥 지면이 좁다보니까 기타 여러가지 좀 지적을 할 点이 있었읍니다마는 그런 겨를이 없고 이래서 簡略히 몇마디 이렇게 했읍니다만 이것을 가지고 절대 共産主義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읍니다. 共産主義의 테두리안에서 얼마든지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徐敎授께서도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東欧羅巴에서는 그것을 굉장히 많이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東欧羅巴와 西欧羅巴에 交易関係같은 것이 共産主義안에서 많이 改革이 되고 지금 60年代서부터 東欧羅巴에서는 많이 그렇게 해오고 있읍니다.

그리고 北韓이 그런것을 한다고 해서 곧 南韓의 「모델」을 그대로따른다. 도저히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簡略하게 말씀을 드렸읍니다.

o 趙璣濬 오늘 発表와 討論된北韓社会의 展望은 문제가 문제인만큼 時間의 여유가 있었으면 보다 더 활발한 討論과意見이 나오리

라고 믿습니다만은 이것으로끝이게된 것을 거듭유감스럽게 생각되어사과드립니다. 그러나 이統一을前提한 北韓社会의문제는 이자리에서 어떤 結果를 얻을수있는 문제가 아니며 統一이 이룩될 때까지 앞으로도 두고두고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심포지움이 계기가 되어 北韓社会를 硏究하는 学者들도 많아지고 国民과 더불어 생각할 수 있는 機会가 자주마련 되었으면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午前中 여러분들과 함께 이자리를 같이 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午前会議는 이것으로 끝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o 司会 이것으로 午前会議 民族의 展望中에 主題 다섯번째 北韓社会의 長期展望 討論을 마치기로 하겠읍니다. 곧이어서 特講두번째가 됩니다마는 民族統一 그 文化的 背景이라는 題目으로 「하와이」의 「이스트웨스트센타」総長이신 「에배레트 클라인얀스」博士께서 講演이 있겠읍니다.

(11時 56分 会議中止)

特講：

民族統一 - - 그 文化的 背景

에베레트 크라이안스 (하와이 이스트웨스트 센터 總長)

I. 本人은 모든 韓国人의 至大한 関心의 対象이 되고있는 実上 世界의 모든 사람들에게 重要한一 問題에 対하여 말할 수 있는 좋은 機会를 갖게 된것을 기쁘고 栄光스럽게 생각한다. 本人은 政治学者도, 経済学者도, 歴史家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가지面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에 不適切하다고 느끼고 있다.

오히려 本人은 人類学的으로 길들여진 言語学者로서, 그 大部分의 時間을 어느 한 言語의 背景을 가진 사람이 다른 言語를 배우는데서 닥치는 어려움의 程度와 困難한 点을 指摘해 주려는 目的으로 言語들을 比較, 説明하는데 보내왔다.

지난 17年 동안을 本人은 行政家로 在職했는데, 그 첫번째는 東京에 있는 国際基督教大学에서, 그리고 現在는 하와이의 東西文化센터에서 在職하고 있다.

本人의 이러한 国際的이고 相継되는 文化的 教育에 대한 経験때문에, 그리고 言語, 文化와의 経験에서 두個의 韓国状況과 나아가서 韓国의 統一을 유추할 수 있지않을가 생각했기 때문에 本人은 당돌하게도 이 招請을 받아들였다.

II. 韓国의 統一은 韓国人뿐만 아니라 全世界의 사람들에게도 커다란 重要性을 가지고 있는 歴史的인 事件이 될 것입니다. 韓国이 長久하고 中断되지않은 歴史를 가진 나라라는 것을 本人이 새삼스럽게 想起시킬 必要가 없다고 생각한다.

1910年, 日本은 韓国의 支配者가 되었다. 이 期間은 1945. 8.15, 日本이 38度 以北은 蘇聯에게, 以南은 美国에게 降伏하고 두個의 政治体를 가져옴으로써 끝나게 되었다.

韓国의 近代史는 또한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支配하려는 試図를 包含하고 있다.

統一을 위한 運動은 1972年7月4日 南北韓이 統一에 障碍가 되는 問題를 共同으로 解決하자는 歷史的인 共同声明을 発表한데서부터 始作되었다.

다른 어떤것 보다도, 統一은 "外部의 強要나 干涉이 없는 自主的인 努力"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것이며, "相互 武力의 使用을 통해서가 아닌, 平和的 方法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 合意되었다. 이 声明에서 보면 統一로의 変化는 여러段階에 걸쳐 長期間동안 遂行되어야 한다는 것이 明白하다.

따라서 統一의 方法은 現実性과 伸縮性을 必要로 하고 있다.

韓半島統一은 지금이나 또는 앞으로도 人類歷史에 있어 類例없는 試図가 되며, 그 成功的인 結果는 많은 価値있는 課題들을 人間에게 提供해 줄것이 明白하다. 統一이 주는 커다란 教育的 価値를 떠나서 그것은 人間精神을 昂揚하는 影響力을 가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人間의 意志와 精神이 人間의 平和로운 発展의 歷程속에서 거의 이겨낼 수 없는 障壁들을 克服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立証할 것이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悲観과 나태가 수없이 많고 또한 수많은 失敗가 面前에서 우리를 노려보고 있다.

그러나 캠프·데이비드会談이나 或은 점차 妥協点으로 意見이 좁혀져가는 強大国들間의 戦略武器制限協定(SALT)같은 것은 人間의 士気를 진작시키며 또 国家들 사이에 協調와 理解의 새로운 側面을 많이 創出하게 된다. 韓半島統一은 보다 더 偉大한 업적이 될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조화라는 것은 人間生活에 있어서 力学的으로 創造的 힘(力)들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韓半島에서 現在状況에 대한 조작은 必要치 않다. 文化的 連続性과 発展의 인상적인 記録을 갖고 있는 오랜 歴史的인 国家로서 韓国은 지금까지 약 34年間에 걸친 分断의 苦痛을 지니고 살아오고 있다. 現状況에 대해서 두가지 矛盾되는 側面이 言及될 수 있다. 첫째로 34年은 数千年 歴史에 比較해서 볼 때 긴 時間이 아니라는 것과, 둘째로, 이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34年은 韓半島国民들에게는 대단히 重大한 時間이 되어왔다는 것이다.

두개의 高度로 相異한 政治的 文化가 이 期間中에 伝統的인 韓国文化에 왕성하게 서로 作用하여 왔다.

이것은 国民들 사이에 그 외모와 未来像 그리고 価値観의 変質을 가져왔다. 또한 刮目할만한 言語의 変化가 일어났다. 새로운 語彙가 生成되고 옛 単語에 새로운 意味가 賦与되었다. 家族観도 亦是 変했다. 教育目的이 再規定되고 教育体制가 再組織되었다. 새로운 심볼, 伝説 그리고 儀式이 옛 것을 대체하였다. 이 期間中에 韓国에서 새로운 世代의 出現이 있게 된것도 역시 言及할 必要가 있다. 오늘날의 젊은 사람들은 分断된 韓国에서 자랐고 또한 強

力한 政治的, 文化的 바람의 影響에 내맡겨져 왔다.

그러나 34年이란 期間은 分断되지않은 韓国에서 태어나서 成長한 나이많은 계층의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긴 期間이 아니었다는 것도 역시 重要한 事実이다. 하나의 韓国에 대한 記憶이 그들의 마음속에 蓄積되며 하나의 韓国에 대한 옛 文化는 새로운 文化的 価値밑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統一運動에는 新·旧 두 世代가 모두 参与하게 된다. 이것은 역시 韓半島統一에 있어 重要한 側面이다.

1972年7月4日의 南北韓共同声明에서 言及된 것과 같은 統一로 向한 韓半島国民의 約束과는 달리 오늘날 韓半島状況에 있어 注目할만한 特徴은 韓半島統一에 더욱 有利한 国際情勢의 雰囲気가 存在하고 있다는 点이다. 한편 이 세상 어느나라도 美·日·中·蘇等 4大強国들에게 자신을 들어내놓은채 그들간의 相互競争作用에 露出되어진 적은 없으나, 継続 歴史를 통해서 본 現世는, 美·日間의 持続的인 友好関係는 말할 必要도 없이, 中·日間의 新友好条約과, 美·中間의 関係改善, 그리고 美·蘇間의 和解의 雰囲気로 特徴지워질 수 있다.

이러한 特異하게 調和的인 状況은 統一을 達成하기 위한 韓国의 自主努力을 強化하고 支援해 줄 수 있을 뿐이다.

또한 이들 強国中의 어느나라도, 그들이 国際分野에 있어서의 不干渉政策을 追求하려는 韓国의 意図를 確信한다면, 統一에 의해 威脅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도 事実이다.

그러나 統一의 問題는 主로 政治的으로만 생각되어지고 遂行되어질 危險이 있다.

国家의 分断은 軍事的이고 政治的으로 発生하였고, 国内外의 政治的 要因들이 統一過程에서 重要한 役割을 하는 反面에 文化的 要因들은 過少評価되는 傾向이 있다.

그러나 事実에 있어서 韓国이 直面하고 있는 統一의 論理에서 文化的인 要因들에 많은 関心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 強調될 必要가 있다.

그들의 重要性은, 南北韓이 分断時에 물려받은 文化体制가 分断期間中 相異한 理念과 制度에 露出되어 変貌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에서 나온다.

이러한 変貌는 内的인 理念의 差異와 外的인 社会的, 科学的 変化, 両者의 圧力으로 因해 加速化되고 있다.

事実上, 変化는 世界到処에서 엄청난 速度로 일어나고 있으며 이것을 行動으로 옮기는데 있어서의 遅滞는 엄청난 心理的 影響을 주고 있다.

두個의 韓国은, 우리가 오늘날 두個의 文化를 가지고 있다는 結果를 낳은 急速한 変化의 部分인 것이다. 따라서 南北韓의 統一은 두個의 文化体制間의 調和的인 状況을 生成하려는 努力을 包含하게 될것이다.

만약, 政治的 統一이 内外의 힘에 의해 成就된다고 할지라도, 文化的 相異性에 依해 생긴 問題들이 考慮되지 않는다면, 두韓国民들間

의 真正하고 協同的인 関係는 達成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文化의 同質化를 追求하는 어떤 努力도 長期間동안에도 成果를 거둘 수 없을 可能性이 있다.

이런 状況下에서 文化的 要因들은 두個体間의 理解와 友好関係에 影響을 끼치는 重大한 要因의 範疇에 属하는 것이다. 그러면 統一問題를 다루는데 있어서 文化的인것을 包含한 問題들은 무엇이며 또 어떤 方法으로 接近할 수 있겠는가?

不幸하게도, 本人이 確証하건대, 우리는 이러한 状況에 関하여 거의 無知에 가까운 ―理論的으로나 経験的으로나― 状態에 있다.

歴史를 通해 볼때 国家統一의 達成이나 維持는 오직 暴力에 依해서만 이루어져 왔다.

近代史의 여러 例들 가운데서, 비스마르크의 独逸과 美国南北戦争時의 統一維持는 오직 엄청난 流血을 통해서 達成되었다. 이것은 매우 長期에 걸쳐 影響을 주었으며, 이것에 대해서는 本人보다도 다른 사람들이 더많이 말해 줄 수 있을 것이다.

国家의 統一로 終熄되어진 越南에서의 最近 戦争은 아직까지도 우리가 거기에서 어떤 教訓을 얻기에는 時日이 가깝지만, 그러나 南北越南間에 아직도 커다란 差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社会内的 災難은, 個人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危険에 急速히 敏感한 反応을 일으켜, 再発을 防止할 수 있는 構造를 形成할 것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個人이 内傷을 입었을 경우와 마찬가

지로, 아무도 予測할 수 없는 変革을 招来할 수 있다. 그러나, 問題는 우리가 거의 이러한 経験이 없고, 또한 平和的統一에 따르는 社会-文化的 反応에 대한 아무런 理論도 거의 없다는데 있다. 그러나, 相異한 文化가 接触하게 될 境遇에 어떠한 일이 発生할 것인가에 대한 理論도, 経験的 資料도 우리는 가지고 있다.

위에서도 言及했듯이, 내 主張의 基礎가 되는 仮定은, 同質의 文化遺産이 유전됨에도 不拘하고, 南北韓이 이미 크게 異質化되었고, 앞으로도 分断이 継続될수록 더욱 異質化가 深化될 것이라는 것이다. 사실상, 두個의 韓国이 두個의 相異한 文化를 이미 形成했다는 것이다. 異質化가 発生하고 있다는 内容의 저널, 論文, 著書들이 벌써 経験的 証拠를 보여주고 있다.

이현복의 最近의 論文 "分断祖国의 分裂된 母国語 —두個 韓国의 言語異質化"에서 보면, 異質化実態의 具体的인 例를 볼 수 있는바, 그는 여기에서 30여년동안 急速히 変化에 따른 言語의 音声学的, 文法論的, 意味論的 差異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異質化가 전혀 予想밖이라는 事実이 興味롭다.

— 南韓이 北韓과 直接 接触을 한것은 1972年 南北対話期間이었는데, 그때 南韓사람들은 北韓側의 말이나 表現中에는 南韓側이 理解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음을 알고 놀랐다. 어떤 말과 表現은 전혀 理解할 수 없는것도 있었고, 또 確実히 낯익은 말도 完全히 그 어휘의 意味가 完全히 바뀐것이 있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처음에는, 南韓사람들은 이러한 言語異質化가 단지 方言일 것이라고만 생각했으나, 곧

南北韓間의 言語異質化가 方言 以上의 深刻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

言語란 文化의   変化하면 言語도 変化하기 마련이다. 北韓에서 発展시켜 自然스럽게 使用하고 있는 言語의 変化가 南韓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음을 깨닫지 못하고, 北韓사람도 南韓과 마찬가지로 그들이 같이 성장하고 자연스럽다고 생각했던 言語의 差異에 크게 놀랐으리라고 推測된다. 그러나 言語異質化의 事実은 잘 証明이 된 셈이다.

이문웅博士는 "北韓의 家族制度: 持続과 変化"라는 論文에서, 韓国의 伝統的 家族制度가 어떻게 変化했나를 指摘하고 있다. 아들은 이제 아버지를 非難하고 있다. 男便은 이제는 더以上 아내에 대한 権威가 없다. 兄弟間의 伝統的 関係는 더以上 存在하지 않는다. 그는 "結局 가장이 자기家庭의 伝統的 権威를 이미 喪失했으며, 그 経済的 役割도   잃어버렸고, 다만 労動者 個人에 不過하다" (p.37) 고 쓰고 있다. 또 다른 예를 들수도 있지만, 異質化에 대한 이러한 経験的 資料의 実際的 두가지 例, — 言語와 家族 —를 보면, 充分할 것이다.

이러한 変化가 韓国에만 局限되어 있거나 或은 韓国같은 特殊한 狀況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Honolulu Star-Bulletin and Advertise (1978.10.15.)의 日曜版 記事를 보면, 래리 크레이머가 쓴 패트리샤 허스트孃(랜돌프

허스트의 딸) 事件 — 共生解放軍이라는 이름의 急進的 集団에 의해 납치되었던 바 있는 — 에 대한 記事가 있다.

그는 이러한 테러리즘때문에 "허스트"家族이 겪었던 苦悩에 관하여 잠시 말하고 있다. 여기에는 몸값支払에 관한 깊은 見解差異가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心理学者, 精神病学者 및 医療界人士들이 "허스트"家族에 대해 걱정스러워하는 일련의 메세지들이 있었다.

"허스트 家族에 伝해진 이야기로는 만약 당신딸이 오래도록 납치되어있을 경우 그女는 강박에 의해서나, 또는 그女 스스로가 願하여 그女가 하고 있는것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지않을 것이다. 그女는 매우 混乱될 것이다"라는 것이다.

그같은 結果는 数年間의 어려운 経験에서 나온것이 아니라 "허스트"孃이 감금된 단지 수개월후에 이들 専門家들에 의해 予見되었다. 人間은 그들의 環境에 의해 변한다.

실로, 現実에 대한 우리의 認知 (perception)는 우리가 処해있는 곳, 우리가 処해있는 環境에 의해 影響을 받는다.

우리의 認知는 우리가 現実的으로 가지고 있는 이메지 또는 理論에 의해 条件지워지기도 한다. 이같은 現状은 自然科学처럼 経験的인데서 까지도 真理이다. "Pysics and Beyond"라는 最近한 著書에서 노벨物理学受賞者인 워너·하이젠버그는 "양자역학과 아인슈타인과의 対話"라는 에세이를 실었다. (pp.58-59)

그는 베르린大学의 어느物理学 콜로키움이 끝난後 아인슈타인과 가진

원자내의 전자궤도와 觀察 可能한 데이타에 여하이 훌륭한 理論이 뒷받침되어야 하느냐에 관한 対話를 回想하고 있다. 아인슈타인은 어느 物理学 理論에 觀察可能한 物体만을 包含시킬 必要性에 관해 그를 詰難했다. 하이젠버그는 아인슈타인이 相对性理論을 그같은 觀察可能한 데이타에 基礎하여 推理해 왔으리라고 恒常 생각해 왔노라고 말하면서 이 偉大한 사람의 発言에 놀라움을 表示했다. 그리고나서 그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勿論 나는 이같은 推理를 使用할수도 있었으나"라고 아인슈타인은 말했읍니다. (p.63 회선추가) 그러나 언제나 같은 推理를 쓴다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아마 누구나 実際로 觀察한것을 마음속에 記憶해 두는것이 '発見的으로' 有益할지 모른다고 말하는것이 보다 社交的인 말이 될것 입니다. 그러나, 原則的으로, 觀察可能한 物体만에서 하나의 理論을 찾아내려 애쓰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実際에서는 正反対의 結果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觀察할 対象을 決定해주는 것은 理論입니다…… 理論 即 自然法則에 関한 知識만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감각적 영상으로부터 숨어있는 現状을 推理해 낼 수 있게 해줍니다.

今世紀 初創期에는 한사람의 同僚物理学者가 아인슈타인의 말에 놀라긴 했으나 오늘날의 物理学者나 社会科学者들은 이같은 아인슈타인의 見解를 더한層 当然한 것으로 看做하고 있다.

다시말해서 무엇이 可能하고, 무엇이 現実인가에 대한 人間의 생각이 그들이 찾는것을 決定해주고, 어떻게 그들이 思考하고 行動할

것인가를 決定해 줄것이다. 이것은 특히 많은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갖고, 따라서 相互의 現實에 대한 認知를 補強하며, 어떤 行動에는 動議하고 餘他行動에는 反对 또는 処罰하는 社会에서 生活할 때 더욱 明白해진다. 만약 南北韓이 物理的 또는 地理的으로 分断되었을 뿐아니라 理論的으로 分離되었다고 (여기서 理論的이라함은 무엇이 可能하고 무엇이 現実인가에 관한 그들의 観念 또는 생각을 말함) 仮定한다면 그들이 서로 멀어져가고 있으며 異質化되어가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III. 文化란 무엇이며 왜 이것이 韓国의 統一을 생각하는 우리의 目的에 重要하다고 생각해야만 하는가?

文化란 한 社会의 成員들이 熟知하고 共有하는 패턴化된 行動, 信念, 価値, 말 그리고 삶의 보편화된 設計에 관한 全般的 体系이다.

人間性의 모든 慾望中에서 가장 根本的인 두가지 慾望은 安全과 지향 (orientation) 인듯하다.

우리는 一般的으로 危険으로 부터의 自由를 安全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他人들속에 있다고 느낄때와 適当히 処身해야 할바를 모르거나 環境에 対해서 認識할 수 없을 때는 당황하게 된다.

따라서 分明히 人間은 集団속에서 確信感과 親近感을 느끼며, 安定感과 期待感을 느끼고 不安과 疎外感을 回避하고 安全과 지향을

추구하는데서 패턴화한 (patterned) 行為를 発展시켜 왔다.

패턴화한 文化의 性格이란 行為, 思考, 言語등에서의 性格을 뜻하는 것으로서 굉장한 調和와 反復的인 同一性이 있다. 中国 中心의 文化圏인 東亜細亜社会内에서의 個人的인 関係는 軍臣有義, 父子有親, 夫婦有別, 長幼有序, 朋友有信의 儒教思想에 의해 形成되어 왔다. 이러한 모든 関係는 朋友有信을 除外하고는 모두 垂直的이다.

日常生活에서의 日本人의 行態를 볼 때—이 論文에서 나는 내가 태어나서 成長한 日本과 16年間 教育을 받은 美国의 文化에 대해서 가장 잘 알기 때문에 主로 美国과 日本을 実例로 들겠다—

나는 두사람이 길에서 만나 人事를 할 경우, 그들의 関係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한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욱 공손히 人事를 하는데서 이러한 垂直的 関係를 가끔 본다. 이러한 垂直的 関係는 個人의 代名詞와 말끝 (Verbal ending)에서도 나타난다.

나는 한 教授가 大学에서 그 학생들에 대한 特別한 規程을 만드는데 있어서, 그 과정에서 어떤 規則이나 規律을 無視할지라도 자기와 関係가없는 사람에 우선해서 자신의 제자들을 위하는것을 보았다. 아버지가 死亡함으로써 長男이 家族에 대한 責任을 질때 長男은 이와 꼭같은 文化的 役割에 따른다.

이러한 모든 行為는 꼭같은 패턴化한 行為이다. 한가지 意味에서, 그들은 모두 꼭같은 社会的 意味를 나타냈다. 모든 文化는 이러한 패턴化한 行為의 現状을 나타내며 각각의 정형은 우리가 文化라고 부르는 体制를 形成하도록 다른 定型과 連結되어 있다.

體制라는 말은 각각의 정형간의 相互関係와 一種의 全体를 일컫는 것이다.
全体속의 各 要素들의 相互関聯性으로 因하여 한部分이 変化하면 全体가 影響을 받기 쉽다.
이같은 짧은 이야기로서는 내가 뜻하는 바, 文化에 関해서 거의 說明할 수가 없으며 책이나 나의 一生을 통해서도 說明할 수가 없다.
그러나 美国을 実例로 提示함으로써 내가 뜻하는 바의 感情을 여러분에게 伝達할 수 있다. 이것은 아주 단순한 것이긴하나 体制의 한부분의 変化가 全体에 어떤 影響을 미치는가 하는 점을 說明할 수 있을 것이다. 伝統的으로 美国의 価値体制에서 볼때 結婚을 神聖한 節次로 看做함으로써 家庭은 中心的인 地位를 占하게 된다.

美国 農村의 work role은 男便은 "뒤양간의 主人"이고 아내는 "家庭의 主人"이라는 式으로 規定되어 있고 都市民의 경우에는 男便은 바깥사람 (Mr. Outside), 아내는 안사람 (Mrs Inside) 로 規定지워져 각각 独特한 役割을 하였다.
따라서 教育은 男性에게 必要한 것이지 女性에게 必要한것은 아니었다. 各 姓이 明白한 役割을 가졌었다. 性은 根本的으로 再生産의 手段으로 보여졌다. 法的인 体制나 信仰은 모두, 이 基本的 틀과 이러한 基本的 要素들(elements) 및 諸関聯性을 支持해 왔다. 그리고 이와 연하여 避姙藥과 다른 諸避姙手段이 登場하게 되었다.

이 새로운 要素는 美国文化 全般에 걸쳐서 波紋을 일으키는 効果를 가진다. 女性들은 어린아이들을 낳는 機能人으로써 그들 자신들을 統制한다. 女性들은 男性들과 마찬가지 水準의 同等한 教育과 社会的 役割을 担当하기를 願하게 되었고 結婚이란 것은 오늘날 하나의 지극히 制限된 家族関係를 形成하는 하나의 便宜為主가 되는것과 같은 경향성을 띠게 되었다. 또한 結婚이라는 関係가 없이도 共同으로 모여서 사는것이 이제는 더욱 흔한 現状이 되고 있다. 성 (性 : Sex) 이란 것도 주로 快楽追求의 手段으로 看做되고 있다. 또한 法的인 制度와 信仰까지도 이제는 주로 女性運動 展開에 適合하게끔 되어버렸다. 오늘날 男便과 아내는 結婚이라는 関係속에서 미스터와 미세스라는 用語로서 内外를 代弁한다. 이것은 내人生을 통해서 본 美国社会의 変化에 대한 가장 간단한 説明이다. 그러나, 내가 여기서 主張하고자 하는바는 文化는 한部分이 변하면 다른 部分들도 그 変化의 影響을 받는 즉 全体的인 概念으로써 相互関聯性을 가진 하나의 시스템 (体系) 이라는 点이다.

文化的 形態는 정형화된 行態인 同時에 全体의 한부분일 뿐만이 아니라 어떤 集団의 独特한 文化는 学習으로 因한 것이지 天性的인 것이 아니다. 즉 文化는 出生하는 그 순간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또한 自然的인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한 世代에서 다음 世代로 이어져 내려가는 社会속에서 人間에 의해서 形成되는 部分이다. 江이 自然的인 것이라면 運河는 文化的인 것이다.

돌 그 自体는 自然의 한 部分이지만 화살촉은 文化의 한部分이다. 바람이 나무사이를 通過할때에 나는 소리는 自然現状임에 반해 音楽을 소리내기 위해 사람이 楽器에 바람을 불어넣는 것은 文化現状이다. 苦痛으로 因한 신음소리는 自然現状임에 반해 言語는 文化現状이다. 즉 無分別하게 배우는것이 自然現状이라면 組織的인 学習은 文化現状인 것이다. 삶의 文化的 側面은 배워지는 것이며 正常的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떤 形態의 文化, 言語, 価値観이라도 배울 수 있는 天性的인 能力을 가지고 있다. 모든 사람이 러시아인도 되고 日本人, 中国人, 美国人 또는 韓国人이 될 수 있다. 코카시아人 父母로부터 태어난 아이가 푸른눈과 금발의 머리를 가지고는 있지만 어린時節을 中国文化圈에서 보내고 養育된다면 그는 文化的으로 中国人이 될 것이다.

내가 말하고 있는것은 個人差의 範囲가 正常的인 범주내에서라면 사람들의 (해부학적, 생리학적, 신경학적) 能力은 同一하다. 그들을 差異가 나게 하는것은 文化이다. 모든 사람들이 먹고, 子息을 낳고, 웃고울고, 幸福을 느끼고,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한다. 그러나 그들이 먹고 맛있다고 생각하는것, 적절한 性行為라고 생각하는것, 웃고 울고 하는것, 그리고 행복감을 느끼거나 화를 내는것은 바로 그들의 成長背景이라는 文化에 의해서 決定지워진다.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할것인가 그리고 서로 다른 사물과 行動에 대해 어떤 価値観을 부여할 것인가를 배우는 것이다.

더우기 初期의 幼児期의 文化社会化過程속에서 어린아이들은 주위

環境으로부터 자신도 모르는 순간에 거의 無意識的으로 사물을 배운다. 아이들은 또한 형이나 언니들을 모방하고 또한 그들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는다.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있어서는 適切한 行動을 했을때에 "좋다"고 하는 肯定的인 補償과 잘못된 일을 했을때 "나쁘다"고 하는 否定的인 補償이 따르기 마련인 것이다. 人間이 한 文化圈内에서 幼兒期로부터 成熟期로 나아가는동안 一般的으로 그 文化圈以外의 다른 価値観을 経験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배운대로 믿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양식을 絶対化 시킬려는 傾向이 있다. 이러한 모든 行動의 学習形態는 社会学的, 心理学的으로 매우 認定되고 보편화되기 때문에 学習者는 이것을 文化的인것이 아니라 自然的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文化人類学者 Ruth Benedict 氏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世界를 原初的인 눈으로 보는 사람은 없다. 사람들은 限定된 무음의 慣習과 制度 그리고 思考方式에 의해 編輯된 世界를 본다. …한 個人의 삶의 歷史는 自身의 共同体(社会)에 伝統的으로 伝来된 패턴과 標準에의 첫번째이며 가장 密着된 適応이다. 出生時부터 그가 태어난 곳의 慣習은 그의 経験과 行為의 모양을 形成한다.

그가 말을 할 수 있을 때부터는, 그는 自身의 文化의 조그마한 創造物이며, 그가 成長하여 社会活動에 参与할 즈음이면, 社会의 慣習은 그 自身의 慣習이 되고 社会의 信念은 그 自身의 信念이며, 社会의 不可能性은 그 自身의 不可能性이 된다. 集団속에 태어난

모든 어린아이는 그 集団과 共有케 되며, 地球의 正反対 쪽의 集団에서 태어난 그 어느 아이도 千分之一의 같은 本分을 行할 수 없다. (文化의 패턴 pp.2~3)

或者들은 上記와 같은 陳述이 지닌 極端性에 反論을 提起할 것이나, 나는 어느 文化에 속한 個人에 対한 文化의 影響이 얼마나 強力한 것인가를 指摘하기 위하여 윗 句節들을 여기에 引用하였다. 내 自身의 国際的 経験으로 비추어 보건데, 나는 文化의 影響力을 過小評価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배웠다.

勿論, 人間은 自身의 一生 내내 배워간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다. 思考와 行為上의 主要한 適応들이 年齢에 関係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出生後 첫 5年間에 이루어진 배움은 아마도 대단한 影響力을 지닐 것이다. 東西文化센터 Board of Governors의 멤버인 日本의 소니会社의 마사루·이부카氏는 最近 "유치원은 너무 늦다."라는 題下의 책을 著述하였는데, 氏는 이 책에서 零才부터의 組織的인 教育의 重要性을 主張하였다. 勿論, 배움이란 삶의 始作과 더불어 始作되며, 어린아이가 한번 태어났을 때, 그가 배우는 것의 基本的인 内容과 스타일을 形成하는 것이 自身이 태어난 곳의 文化이다. 事実, 한 人類学者는 文化와 精神 (mind) 사이의 強力한 関係를 指摘하고 있다. (이에 関해) Edward T. Hall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러나 精神과 脳(brain)間의 区分에 関한 유럽人들의 선입관

에 関하여 잠시 생각해 보기로 하자…… 相当한 期間동안 学者들 間에는 精神과 脳를 区分하려는 慣例가 있었다. 즉 生理学的 器官인 머리와 그 器官으로 人間이 行動하는 마음… 그러나 이 論理学的 器官은 経験에 의해 대단히 変化한다. 그 器官이 変化하기전에 脳의 計劃을 어떻게 記述할 수 있나? 나는 이러한 事態는 歴史的 事件, 즉 心理学과 人類学에 対한 人工的인 区分과 連累되고 文化理論으로 부터 独立되고 分離된 精神의 概念을 낳는 그러한 事件이다고 提言한다. 精神이라고 생각되는것은 事実上 内面化된 文化다. (pp.167-8, 밑줄친 部分은 筆者의 見解임.)

다시한번 많은 사람들이 否認할지 모르나, Hall 教授는 자기 自身이 主張한 바에 対하여 信頼를 줄 수 있는, 動物의 脳는 勿論 人間의 脳에 関한 많은 量의 데이타를 最近의 著作에서 提示하고 있다. 要点은 바로, 文化는 実在的이며 우리의 信念, 思考 및 行為를 基本的으로 決定한다는 점이다.

IV. 내가 방금 提示한 文化에 対한 分析은 個人 및 文化 両者가 지닌 保守主義를 説明하고 있다. 文化와 더불어 自身의 経験에 의해 人間의 脳에서 行為에 対한 計劃이 이루어지고나면, 그것은 変更하기 어려우며, 変更하기 위해선 많은 時間을 要한다. 이러한 傾向은 基本的으로 유일한 社会的 게슈탈트관이 存在하는 同質的 文化内에서 特히 事実이 된다. 이러한

文化的 保守主義는 한편으로는 하나의 韓国의 文化의 要因들을 分断에도 不拘하고 유지할 수 있게 一助가 되기는 하나, 反面, 調和로운 統一을 방해한 것이므로, 分断이 길어지면 길수록 그 統一의 課業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 論文의 마지막 部分으로 筆者는, 教育에 対해서는 挑戦으로서 이렇게 文化를 살펴보는 몇가지 一般的인 重要性과 韓国의 再統一을 위한 가능한 몇가지의 分技(結論)를 提示하고자 한다.

各 文化는 独特한 것이며 関係하는 文脈과 組織속에서만 理解되어 질 수 있는 것이다. 文化가 国民에게 주는 意味는 国民과 国民, 事物과 行態, 信念과 象徴間의 関係를 特徴지워주는 相互依存性의 複合体에서 由来된다. 다시말해서 모든 文化의 国民들은 그들 自身의 思考, 信念, 行動을 説明해주는 그들 나름의 方法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 独特性은 国民들의 同一性과 指導者들의 權力의 限界를 規定하는 깊은 흐름의 結果인 것 같다. 国民들은 종종 個人的 同一性을 社会的 象徴, 一旗, 公休日, 民族的 英雄들, 神話와 歴史 그리고 言語까지 — 等으로서 確認한다.

韓国의 경우에 있어 서로 다른 象徴들과 意味가 생겨났으나 일단 이뤄졌다가는 곧 分離를 正当化해 버렸. 이와 類似한 過程은 모든 国家들의 歴史에서도 分明하다. 美国 初期 歴史에서 美国人들은 그들의 象徴을 만들었으며, 노아웹스터가 美国英語辞典을 쓴 것은 歴史的 事件이었다. 近来에 윈스턴 처칠은 "미국과 영국은 같은 言語로서 分離된 두개의 国家"라고 말한 적이 있다. 독특

성에 대한 이러한 흐름은 2次大戰後 植民地主義에서 벗어난 여러 国家에서 오늘날 특히 보여지고 있다. 独特性을 向한 흐름은 同一性, 自負心과 品位의 흐름이다. 그것은 우리의 文化에 反映되고 있다. 그것은 두개의 韓国에 反映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物理的으로 類似한, 或은 同一하기까지한 行動과 行態도 주의깊게 試驗해보면 아주 다른 것으로 判断되어 질수도 있다는 것이다. 예를들면 어떤 国家에서 소년들이 손을 잡고 거리를 걷는다. 그 意味는 단순히 友情일 따름이다. 美国에서는 이 行動이 同性愛로 説明되어지는 것이다. 日本人들은 너무 머리숙여 人事하기 때문에 美国人들은 日本人들을 服従的이거나, 지나치게 親切하거나, 或은 아첨하는 사람들로 생각하는 傾向이 있다. 그들은 그 人事가 美国에서 握手와 같은 人事이고 또한 尊敬의 表示라는 事実을 모르고 있다.

더우기 그것은 公的으로 意図的인 対人接触이 不適合했던 文化에서 由来된 行態의 類型인 것이다.

反面에 美国에 있는 사람들은 작별한 경우에만 서로 包擁할 수 있다. 그 意味를 알기 위해 우리는 다음 事実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理致를 알아야 한다. 行動은 行動에 関聯되어 있다. 우리는 이미 같은 낱말, 특히 民主主義, 平等등과 같은 추상적인 概念을 가진 語彙는 다른 文化에서는 아주 다른 意味를 지닐 수 있다고 暗示해 왔다.

問題点은 같은 物理的 行為도 다른 文化에서 아주 다른 意味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注意가 아주 다른 南北韓에 "꼭같이" 주어져야만 할것이다.

세째로 筆者가 반복하고자 하는 것은, 文化란 全体組織内의 要素들과 相互関聯되기 때문에 全体의 한 部分이 変하면 全体는 影響을 받는다는 것이다.

筆者는 단순하게도 美国에서 받은 印象에 치우치고 있다. 그러나 모든 文化는 끊임없이 流動하고 継続해서 変化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世代差, 한 社会속의 相異한 集団間에 存在하는 理解의 差異, 過去에 執着하는 保守主義者와 変化를 歓迎하는 進歩主義者間의 一般的인 緊張의 理由이다. 그것은 또한 国際政治가 重要하게 부각되는 理由이기도 하다. 한 나라를 理解하였다고 해서, 항상 그 나라를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1978年의 韓国은 1948年이나 1908年 或은 1878年의 韓国과는 다르며 統一이 되면 南北韓은 文化的으로 変化할 것이기 때문이다.

韓国의 統一에 관하여서는 많은 具体的 問題가 挙論될 수 있겠으나, 나는 세가지 問題를 強調하고자 한다. 즉 一切感(Identity)과 平等(equality)과 특히 教育(education)의 問題가 그것이다.

文化와 民族을 保存하기 위해서는, 모든 韓国人은 새로운 統一韓国에 대한 一切感을 가져야 할 것이다. 分断되지 않은 国家에서도, 四寸이나 六寸과 친히 지내며 往来하는 사람이 그다지 많다고

볼 수 없는데, 南北으로 分断된 韓国에서는 相互 通婚은 거의 없는 状況이며 따라서 血緣的 유대는 점점 稀薄해질 것이다. 더군다나 人種的으로 단일한 사람들도 항상 일체감을 갖지는 않는 것이다. 화란에 사는 나의 친척은 그 나라와 그 文化에 일체감을 갖고 있지만, 나는 美国에 일체감을 갖고 있다. 反面에 다니엘·이노우에 (Daniel Inouye) 하와이주 上院議員은 日本에서, 그리고 나는 화란에서, 曽祖父때 移民온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같은 国家에 일체감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일체감은 人種과 無関하며 오히려 위에서 言及한 社会的 象徵과 関聯이 있다. 이러한 意味에서 提起되는 問題는, 누가 韓国의 歴史를 記述하며, 어떠한 観点에서 記録할 것인가, 누가 英雄이며, 누가 悪한 사람인가, 어느 国慶日을 지킬 것이며, 国旗는 어떤 것으로 할 것인가, 어떠한 심볼에 韓国人이 일체감을 느낄 것인가 하는 것이다.

同質性을 欠如한 統一 国家 — 即 多元主義 — 의 可能性도 고려의 対象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相異한 結婚制度, 家族関係, 信念, 行態가 認定될 뿐아니라 勧奨될 수 있는 것을 意味한다. 相異한 言語도 마찬가지로 取扱되는 것을 意味한다. 例를들면, 싱가포르와 스위스는 4個의 相異한 言語가 通用되고 있지만, 단일국가를 形成하고 있다. 나는 전에 취리히에서 온 独語를 使用하는 스위스사람에게 이 問題를 挙論한 적이 있다. 그는 仏語를 使用하는 제네바 친구와 소통하는 것이, 独語를 使用하는 오스트리아 친구와 소통하는 것보다 더 容易하다고 対答하였다. 그와 제네바

친구는 다른 말을 使用하였지만 概念的 틀과 준거는 同一하였던 反面에, 그와 오스트리아 친구는 비록 같은 言語를 使用하였지만 相異한 文化的 概念과 준거를 가졌던 것이다. 韓国도 스위스나, 美国처럼 多様性속의 統一을 期할 수 있을까? 相異点을 受諾하고 향수(享受)하는 것은 個人的, 社会的 成熟性을 要求하며, 劃一性에의 지향은 모든 社会에서 強力하게 作用하고 있는 것이다.

일체감은 또한 意味와 関聯을 맺고 있다. 象徵과 多元主義를 論議할 때 이미 意味의 問題가 内包되어 있던 것이다.

어떠한 象徵이 어떠한 意味를 지니는 것일까? 多元主義는 意味를 흐리게 하는 것일까?

多数 또는 大部分의 南北韓 사람들은 相対方을 反対하는데서 意味를 찾아왔다. 安保追求의 傾向은 一種의 文化的 敵対関係를 深化시켜 왔다. 그리하여 단조로운 工場일은 個人과 国家의 安保라는 더 큰 脈絡에서 認知될 때 보람을 얻을 수가 있다. 2次大戰中 美国民들은 機体内에 단지 大豆못을 주입하는 일을 하면서 8時間동안을 앉아있을 수 있었으며 권태로워 하지도 않았다. 独逸軍 로켓트의 進擊이 있는동안 英国民들의 士気는 높았고 事故者는 더욱 적었으며 모든 사람들이 기꺼이 이웃을 도우려고 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戰争이 끝나자 大豆못(riveting)을 주입하는것이 美国에서는 단조로운 것이 되었고 英国民들은 不平을 하기 始作했다.

全般的으로 戰争期間中에 意味있는 것으로 보였던 그런 活動이

平和를 回復한 以後에는 意味가 없는것이 되어버렸다는것이 明白하게 되었다. 韓国에서 統一이 이루어지고 다른 한편을 反対하는 것이 더 以上 必要없게 된 경우 하나의 空白이 発生할 것이다. 어느것으로 그러한 空白을 意味있게 채울 것인가? 나 자신의 見解로는 消極的으로 個人生活이건 社会生活이건 어느것도 否定위에서는 이룩될 수 없다는 것이다. 意味를 지닌 새로운 根拠(sources)들이 進行되어 나갈 肯定的인 目標들 속에서, 進行되어야 할 理想들 속에서 発見되어져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일체감과 함께 平等의 問題가 대두된다. 모든 人間의 本性에는 自国이 他国보다 優越性을 維持하며 差等을 두려는 傾向이 있다. 이것은 意識的. 無意識的으로 発生하며 가장 開放的인 마음을 지닌 관대한 一部 哲学者들에서조차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를테면 「東・西의 해후」라는 著書속에서 F.S.C. 노트롭(Northrop)은 다음과 같이 言及하고 있다.

우리 世界는 하나의 逆説的인 世界이다. 世界의 栄光이 되고 있는 成果들이 그 栄光을 破壊하려고 위협하고 있다. 최고의 生活水準, 経済的으로 그들 国民들을 잘 돌볼 수 있는 最大의 能力, 가장 幅넓은 教育, 가장 啓蒙된 道徳과 宗教를 가진 国家들이 戦争에서 相互間의 破壊를 避하려는 努力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우리가 発達된 文明을 가지면 가질수록 文明을 維持하는것이 더욱 어려워지는 것 같다. (p.1)

戰爭을 避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最善의 道德을 가진 것으로 보여지겠는가? 最高의 生活水準과 가장 啓蒙된 宗教는 반드시 併行되는것은 아니다. 人類의 歷史속에서 우리는 매우 흔히 物質의 進步와 道德的 優越性을 同一視하려는 傾向을 알아볼 수 있다. 나는 이런 傾向이 美国의 南北戰爭当時 工業的인 北部가 보다 農業的인 南部를 敗北시켰을 때 생긴 것으로 보고 있다. 나는 南北戰爭이 暴力的인 統一, 또는 단일체의 維持라고 보는 反面 韓国에서는 平和統一의 希望이 우리에게 있음을 認定하고 있다.

그러나 美国에서 훨씬 進步된 工業社会를 가졌던 戰勝国인 北部는 南北戰爭後 数年동안 美国에서 最高指導權을 행사하였다. 실로 南北戰爭以後 110年만에 비로소 南部出身의 지미·카터라는 사람이 美国大統領으로 選出되었던 것이다.

우리는 카터大統領의 当選이 南北戰爭의 終局的 結末을 뜻하는 徵表라고까지 말할 수 있다.

萬一 南韓사람들이 統一된 国家에서 指導權을 行事하게 된다면 北韓사람들은 二類市民으로 고려하게 될것이며 萬一 北韓사람들이 経済的으로나 工業的으로나 国際関係面에서 빠른 進步를 못했을 경우 특히 그런 傾向이 심할 것이다. 더욱이 性質이 다른 고충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 原因에 대해 각기 다른 認識들을 가지게 될 것이다.

疑心할 바 없이 많은 사람들이 韓国動乱과 現分断을 거치는 동안 원하지도 않는 많은 相異한 体験을 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이 苦難의 時代에 어떻게 対処하고 있는가? 本人은 마지막 9年을 国際基督教大学에서 봉직한 것을 합쳐 都合 16年間을 日本에서 보냈다. 이 大学 指導層의 한 분은 2次世界大戦中 日本人으로서 美国에 抑留된 바 있었다. 그는 収容所에서 日本人 및 日本系 美国人을 위로하고 돕는데 時間을 다 바쳤었다. 그는 그뒤 帰国했으나 海外에서 日本人들을 도와온데도 不拘하고 故国의 同胞들은 그가 東京과 日本内 다른 地方에서 그들이 겪은것과 같은 極甚한 爆撃에 시달리지 않았음을 들어 그를 敬遠했기 때문에 日本社会에 適応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또 다른 例로 한 日本人 青年도 美国에서 戦争이 터지자 収容되었었는데 美国에서의 기막힌 経験과 고초를 겪었음에도 不拘하고 역시 帰国後 疎外感을 맛보아야 했다. 本人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고난이 사람을 結束시킨다는 것이며 이들이 같은 고난을 겪고 그 고난의 原因을 同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한 서로를 同等하게 대한다는 것은 힘든 일인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당한 고통은 同等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끝으로 本人은 教育에 관해 간단히 말하려 한다. 本人의 教育観은 日本에서 교편을 잡고 있을 때의 経験과, 나아가 그보다 더욱 東西文化센타에 在職中 賦課된 業務에 의해 影響을 받아왔다. 이 자리에서 本人의 사사로운 것을 자꾸 말씀드려 죄송하다. 本人이 이와같이 私的인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다름아니라 당신네 韓国人들이 韓国版 南北文化센타를 세워 文化部門과 統一에 관한

여러問題를 研究하고 이에 관해 結局 南北韓 사람들이 서로 協力하며 이해하고 關係改善이 이루어 질 수 있기를 바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韓國人이 当面한 問題는 우리가 안고있는 것들과 다를 바 없으며 따라서 合理的으로든 非合理的으로든 또는 教育을 通하거나 아니면 그럭저럭 어떻게해서든 解決될 것이다. 여기서 分明한 것은 世界的으로나 韓半島에서나 모두 協力이 必要하다는 것이다. 協力을 위해 사람들은 우선 真実되고 信頼할 수 있으며 主体的이고 開放的이며 친화력이 있고 자애로울 것이 要請된다.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類의 사람들을 만들어 낼 것인가? 우리는 아직그方法을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方向으로 成功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確実히 우리는 学校에서 知的教育에만 置重했지 情緒教育은 疎忽히 해온것이 実情이다. 文化라는 것은 相互連関된 部分의 総和인 것이다. 이는 全体로서의 世界에도 마찬가지이다. 모든 文化와 그리고 世上은 随時로 変하고 있다. 教育은 어떤 目標를 必要로 하며 이들 目標의 設定은 一定한 価値体系를 基盤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東西文化센타가 지향한 教育制度가 어떤 것이어야 할까를 熟考하는 과정에서 本人은 다음과 같은 것을 自問해 보았다. 즉 学生이 学点을 위해 競争하고 教授는 学生을, 그리고 각과나 학부는 財政確保를 위해 競争하는 状況에서 우리는 어떻게 協力이라는 것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劃一的으로 指示된 教課科目으로 急速한 変化에 対処하여

国民들을 教育할 것인가?

部分的으로 조금씩 事実性이 単純化되거나 縮小되어 이루어진 教科過程에서 모든 것들의 複雑한 相互連繫性을 国民들에게 어떻게 認知시킬 것인가?

不偏不当한 客観的 環境에 있어서의 人間의 感情을 어떻게 教育할 것인가?

学者들이 没価値的 立場을 取하려는 状況에서 価値의 重要性에 대해 国民들을 어떻게 깨우칠 것인가?

国家建設이 가장 重要한 国家目標이며, 平和에 대해서는 아무런 教育過程도 없는 劃一的 唯一思想의 教育制度에서, 国民들로 하여금 他文化의 価値며, 国際主義 或은 平和등에 대한 価値를 認識할 수 있도록 어떻게 教育할 수 있을 것인가?

国民들이 생생한 世上事를 冊에서, 그것도 이미 結論이 주어져 있는 冊을 통하여 배울 수 있을까?

東西文化研究센터에서는 우리의 教育意図의 内容과 様式을 研究指向的 方法보다는 問題点 指向的 方法을 択해 왔다. "問題"란, 相異한 文化, 研究, 職業등으로부터, 国民들을 結集시키는 求心点이 되는것을 말한다. 世上事에 있어서 "問題"라는 것은, 学者들의 한 分野의 研究보다는 많은 여러分野의 研究를 통해서 밝혀질 수 있는바, 그럼으로써 이러한 綜合的 研究(多方面의 専門的 接近方法)를 통해서 教育의 全体的 連繫性을 把握할 수 있을 것이다. 萬若에 그 "問題"가 国民에게 깊이 影響을 주는 것이라면, 다른

文化的, 專門的 或은 個人的 観点으로 因한 反対見解가 表出될 것이며, 人間的 感情이 表面化될 것이다. 例를들면, 文化的으로는 相互 다르지만, 함께 일하기전에는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다. 人間関係의 感情的인 側面에는 約束을 맺고 그것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形成되는 相互 信頼라는것이 있다. 共通의 問題를 打開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은 相互間에 依存한다. 그러한 相互間의 믿음이 名誉롭게 지켜지고, 約束이 이행이 될때, 信頼感은 社会를 結束시키는 끈이 될것이다.

나아가서 우리는 어느 한 "問題"를, 存在와 当為 或은 可能性間에 存在하는 差異点으로써 定義내릴 것이다. 이러한 意味에서, 価値란것은 우리가 行하는 모든것들의 総集合体라고 할 수 있다.

또한, 世界가 変化함에 따라 "問題点"도 変化한다. 新知識이 発見됨에 따라 "問題点"도 새로운 展望을 갖게 되는 것이며, 한가지 "問題"의 解決은 또다른 "問題"発生의 起源이 된다. 그래서, 問題指向的 研究는 継続的인 하나의 흐름의 状態를 提示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予言할 수 있는 教科過程이란 하나도 없는 것이다. 或者는 이러한 局面을 念慮할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이것만이 教育의 全部이다.

이러한 類型의 教育方式은 여러분들이 処해 있는 状況에서는 妥当할 것으로 생각한다. 同質性의 和音속에서 生活한다는 것은 오히려 간단하고도 쉬운 일이다.

새로운 教育方式은 마땅히 国民들을 多様한 変化속의 不協和音속에

서 生活할 수 있도록 敎育해야 하는 것이다.

統一国家를 建設한다는 것은, 새로운 하나의 世界를 向하여 가는것과 같이, 不確実性과 우발성에 가득찬 오래고 힘든 課業이다. 그것은 継続된 오르막 길이다. 実際에 있어서 여러분들도 本人이 国際基督大学과 東西文化 센터에서 볼수 있었던것과 같은 좌절감과 심한 冷笑로 苦痛을 당할 수도 있다.

成就度가 아주 낮은 경우에는 이상이란 매우 높기 마련이며 現実은 規定된 目標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사람들은 낙담하게 되고 希望을 잃게 된다. 그러나 本人은 여러분이 平和的統一이라는 높은 이상을 抛棄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것은 위대한 이상이며 여러분은 韓国民의 特性인 모든 끈기를 다하여 매어달려야 한다.

여기에는 文化的 心理的 代価를 치루어야 할 것이나, 그 目標를 잃어서는 안된다. 本人이 여러분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것은, 내가 본것에 의한 한, 統一된 韓国은 分断된 韓国과 같은 것은 되지않는다는 것이다.

그것은 北韓일수도, 南韓일수도 없다. 또한 日本支配下의 韓国일수도 없으며 1900年 以前의 韓国일수도 없다. 統一된 韓国은 새로운 韓国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韓国임에는 変함이 없고 継続될 것이다.

이것이 成就된다면 우리는 모두 그것에 감사하게 생각할 것이다.

統一韓國의 未來像

○ 發表論文 ································· 371

發表 趙 璣 濬 (高麗大 敎授)

○ 討　　論 ································· 406

司會 洪 承 勉 (言 論 人)

討論 金 璟 東 (서울大 敎授)

林 鍾 哲 (서울大 敎授)

崔 禎 浩 (延世大 敎授)

洪 承 稷 (高麗大 敎授)

裵 茂 基 (서울大 敎授)

金 永 鎬 (慶北大 敎授)

〈発表論文〉

統一韓國의 未來像

趙 璣 濬

一. 統一의 前提

제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앞으로 統一될 韓国의 未来像을 占처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理想으로서의 統一의 未来像을 제나름대로 그려보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을 여러분들 한테 말씀드리고 여러분들과 더불어 統一韓国은 이제 어떤 像의 国家가 되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는 그런 機会가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우리가 統一韓国의 未来像 이렇게 말했을때에 우선 두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읍니다. 오늘날의 모든 与件으로 보아서 統一이 되는 韓国은 이런 像의 国家가 될 것이다 하는 그런 하나의 像을 생각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그와 더불어 우리가 바라는 像, 統一韓国이 될때에 우리는 이런 国家像이 되기를 願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像 즉 그것은 理想的인 像이 되겠읍니다마는 그런 두가지 面에서 생각할 수 있읍니다.

韓国이 統一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그것도 우리가 생각하여야 하겠기 때문에 그것도 생각은 해보았읍니다마는 제가 여기서

発表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그런 未来像이 될 것입니다. 그런 意味에서 어떻게 보면 너무 理想的인 것을 내세운 것 같아서 罪悚합니다마는 그것을 놓고 그렇게될 수 있도록 努力하는 것이 우리의 使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었읍니다.

우선 제가 여기에서 생각하는 것은 統一問題를 論할때에 첫째로 統一은 어떤 方式으로 統一을 達成하느냐 이런 問題가 있을 것이고 또 統一이 되었을때에 우리 国家像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두가지 問題로 생각하겠읍니다. 時間関係로 주로 제가 作成한 論文을 읽으면서 説明을 해보겠읍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南北韓의 分断이라는 것은 우리 民族이 願해서 된 것이 아니고 우리의 意思라든가 그런 것과는 아무 관계없이 国際的인 勢力関係에서 빚어진 결과이기때문에 分断韓国의 統一에 있어서도 国際的인 関係가 대단히 중요한 決定権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읍니다. 그러나 南北이 分断되어 있는 우리의 立場에서 본다면 統一은 우리 民族의 問題인만큼 統一하는 方法에 있어서도 우리가 願하는 方法과 願하지 않는 方法이 있어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統一되는 国家像도 역시 이와 한가지입니다.

우리가 願치 않는 그런 統一 国家像이 되어서는 우리가 이것을 容納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선 統一하는 方法으로서 우리 民族이 願치 않는 方法인데 그것을

絶対的인 명제로서 우리는 武力統一을 願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武力統一은 地理的인 統一을 達成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진정한 民族国家를 創建한다는 点에서 보아 오히려 民族国家를 破壞하는 結果가 되기때문입니다. 그런 뜻에서 北韓執權者들에 의한 6.25南侵은 이를 実証해준 歷史의 証言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民族이 願하는 統一이라는 것은 民族内部에서 民族끼리의 和解에 立脚한 平和統一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民族은 南과 北의 어느 地域에서 거주하고 있던간에 民族의 同質性을 意識하고 있는한 民族内部의和解라는 것은 可能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따라서 平和統一의 길은 아직도 열려있다고 믿는바입니다. 다만 問題되는 것은 民族의 同質意識이 民族의 가슴속에 언제까지 残存되고 있느냐 이것이 問題가 될 것같습니다.

二. 南北의 現住所

이 統一問題를 놓고 우리가 항상 民族의 異質化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것도 이때문입니다.

그러나 近来의 報告에 따르면 北韓社会에서는 青少年層의 意識이 우리 民族의 文化伝統으로 부터 점차 離脱해나가는 異質化現象이 대단히 深化되고 있다고 합니다.

北韓의 青少年들은 우리의 民族史를 이해하는데 있어서나 家族을 생각한다든가 社会 및 国家를 생각하는데 있어서 価値観 또는 倫理意識이 크게 바뀌어가고 뿐만아니라 民族의 理解를 媒介해 주는 言語까지도 最近에 와서는 상당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우리 民族文化로 부터의 異質化라는 것은 勿論 北韓에서만 나타나 있는것은 아닙니다.

南韓에 있어서도 青少年層의 意識속에도 伝統文化로 부터의 離脱은 深刻하게 抬頭되고 있읍니다.

다만 北韓에서는 閉鎖된 社会에서의 劃一的이고 計劃的인 教育과 訓練을 通해서 伝統文化로 부터의 脱出을 強要하는 反面에 南韓에서는 開放社会로서 青少年이 無批判的으로 西欧文化를 모방하는데서 일어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쨋든 어떻게 일어났든간에 北韓과 南韓의 青少年 사이에 民族文化認識에 대한 異質化現象이 深化되고 있음은 民族統一의 앞날을 어둡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統一을 達成다기 전이라도 감정을 소통할 수 있는 対話의 길을 여는 것이 절실히 要望됩니다.

이 対話는 政治人끼리의 協商도 必要하나 보다 절실한 問題는 民衆과 民衆과의 対話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유일한 統一의 希望은 바로 北韓民衆과의 対話속에서는 서로 理解할 수 있는 것이 반듯이 있을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機会를 만드는 것이 急先務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상대하는 것은 北韓 執權者層의 意識構造를 変更하는 것이 아니라 北韓民衆과 民族의 同質性을 같이 理解하는데 있다고 저는 強調하고 싶습니다.

다음 民族統一의 像을 問題삼는 것인데 統一韓国은 그러면 어떤 像의 国家가 되어야할 것이냐, 매우 어려운 問題입니다. 그러나 統一하는 方法에서 武力統一이 바람직하지 못한 것과 한가지로 어느 한 体制를 다른 地域의 住民에게 無条件 強要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南北韓의 우리 民族은 그간 30餘年을 다른 体制속에서 살고 있읍니다. 이 30餘年의 세월을 하루

아침에 뛰어넘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両体制에서 쌓아온 民族의 体験은 대단히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体制가 다른 社会에서 얻어진 体験이라고 해서 一考의 価値조차 없다고 버릴 수는 없을것입니다.

이러한 体験은 民族의 知性 저는 이民族의 知性을 強調하고 싶읍니다. 이런 民族의 知性으로 評価하고 選択하여 새로운 統一国家像을 定立하고 実現시켜야 하겠다고 봅니다. 우리가 바라는 統一은 分断되기전에 가졌던 바로그대로의 韓国像은 아닙니다. 우리는 現代라는 時点에 살고 있기때문에 이 現代에 적합한 統一의 国家像을 생각해야될 것같습니다. 이런 点에서 저는 다음과 같은 点을 특히 強調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願하는 統一国家라는 것은 우선 世界史의 理想에 副応해야한다는 点입니다.

人類歴史의 発展過程에서는 앞으로 追求하는 人類의 理想이라는 것이 있으며 우리의 国家像도 바로 이것을 具現해나가고 実現시켜야 할 것입니다.

人類歴史의 흐름에 눈감아버리고 鎖国的인 孤立国家가 되어서는 안되겠으며 現代史의 理想을 거부하고 独善的인 理想을 民族에게 強要해서는 안될것입니다. 北韓의 執権者가 固守하는 独裁国家를 배격하는 것은 이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뜻에서 우리 統一国家의 形成은 西欧羅巴에서 近代市民社会形成의 歴史過程에서 많은 教訓을 받아야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人類의 歷史는 큰 眼目에서 본다면 어떠한 큰 理想을 바라보고 항상 그것을 追求하고 오늘날까지 精進해 왔다고 하겠읍니다. 그것은 비단 現代에 들어와서뿐이 아닙니다. 古代와 中世에 있어서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人類는 항상 理想을 앞에놓고 거기에 接近하려고 보다 새로운 体制와 文化를 모색하면서 発展되어온 것입니다. 이런 意味에서 본다면 저는 歷史에 대한 하나의 楽観主義者라고 할 수가 있겠읍니다마는 사실 그러한 楽観主義者가 아니면 人類는 이미 질식하고 말았을것입니다.

20世紀 人類史는 서로 다른 体制속에서 進行되고 있읍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하나는 自由民主主義体制이고 다른 하나는 社会主義体制입니다. 이 두体制는 서로 容納하기 어려운 것이기는 하나 現代에 살고 있는 人類가 이 두体制속에서 서로 理想으로 내걸고 있는 目標에는 共通点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共通되는 理想이라는 것은 바로 福祉社会의 建設이 아니겠읍니까, 누구나 다 人間답게 福祉를 누리며 살수있는 社会 그것이 오늘날 人類가 다같이 바라는 理想이 아니겠읍니까.

다만 이러한 福祉社会를 建設하는 方法을 両体制에서는 서로 달리 選択하고 있을뿐입니다. 自由民主主義体制下에서는 私有財產制와 自由로운 経済活動을 바탕으로 하는 資本主義経済로서 社会福祉를 達成하고자 하고 그 反面에 社会主義体制下에서는 生產手段의 社会化 내지 国有化와 経済活動의 国家的 管理를 근간으로 하여 共產

主義의 經済로서 福祉社会를 建設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北韓社会를 생각한다면 共産主義가 무슨 福祉社会를 생각하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마는 지금 제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20世紀에 나타난 社会主義社会, 理想으로서의 社会主義社会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느 특정한, 北韓이라든가 中共을 対像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社会主義가 생겨나고 그들이 目標로 내세워온 理想을 말하는 것입니다.

理想과 現実에는 큰 갭이 있는것은 事実입니다.
이 갭은 両体制가 다 같이 갖고있는 弱点입니다. 資本主義経済体制下에서는 自由로운 経済活動으로서 豊饒한 社会에 接近하고 있으나 平等의 社会는 아직 実現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現実입니다.

오늘날 資本主義社会에서 試図되고 있는 社会保障制度는 이런 平等의 原理를 導入하기 위한 努力의 表現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편 共産主義体制下에서는 平等이라는 것을 내세우고 있읍니다만 그것을 너무 強調하는 나머지 私有財産制를 否定하고 生産活動을 社会 乃至 国家가 管理하므로서 経済成長을 오히려 鈍化시키고 豊饒한 社会를 이룩하지 못하고, 그 結果 그들이 내세웠던 平等의 原理마저 具現시키지 못하는 것이 現実이 아니겠읍니까.

三. 새로운 모색

이제 統一韓国의 未来像은 이러한 世界史의 基本潮流에 맞추어서 福祉社会를 建設한다는데 두어야 하며 이를 理想으로 삼고 지난 30年間에 南北韓 民衆들의 体驗을 土台로 하여 自由와 平等이 具現시켜야 할것입니다.

그러한 福祉의 民族国家 이것이 우리들이 내세울수 있는 그야말로 앞으로의 바람직한 統一国家像이다. 이렇게 前提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前提로 해서 앞으로 南韓과 北韓의 両体制속에서 実現되고 있는 現実을 評価해 보면서 理想에로의 接近을 試図할것입니다. 福祉社会建設이 20世紀를 살고 있는 우리 人類의 理想이라고 했읍니다만은 이런 認識을 얻기까지는 人類는 오랜時間이 必要하였읍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福祉社会의 概念에 到達하기 위하야 人類는 그간 많은 努力을 쌓아 올렸던 것입니다.

이제 그간 쌓아올린 人類의 努力을 歴史的으로 考察하면서 福祉에 대한 올바른 認識을 얻고 이를 土台로하야 앞날의 統一国家像을 생각하고저 합니다.

좀 지루한 이야기가 됩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現代社会에서는 福祉国家를 建設한다는것은 政治하는 사람이나 行政을 担当하는 官僚나 또는 一般 国民大衆까지도 国家의 最高政策目標로서 認識하고 그 実現을 追求하게끔 되고 있읍니다.

그것은 비단 自由民主主義体制下에서 뿐만아니라 共産主義体制下에서

도 이것은 역시 理想으로서 내세우고 있음은 앞에서 말한것과 같읍니다. 그러면 現代社会에서 追求하는 福祉国家의 内容을 이루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것은 모든 国民이 基礎生存権을 위한 生活条件과 基本人権을 保障하는 自由와 平等의 諸条件을 国家가 責任지고 実現시킨다는 것입니다.

国家의 責任이 막중하게되는 것이 現代社会의 하나의 特徵이라 하겠읍니다. 그것은 단순히 理想으로서의 表明이 아니고 具体的으로 法律로서 制度化하고 行政으로서 이것을 実現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福祉国家의 概念에는 다음과 같은 哲学이 깔려 있읍니다. 즉 貧困이나 失業으로 個人이 生計를 維持할 수 없게 된 것은 個人의 問題나 個人의 失敗의 所産만은 아닙니다 라는 것입니다. 勿論의 個人의 責任이 큰 것은 事実이나 그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個個人이 스스로의 힘으로 除去 또는 克服할 수 없는 社会制度 및 経済制度와 制度運営에도 큰 責任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国家는 各個人이 그의 先天的인 能力을 発揮할 수 있도록 制度를 改革하여 貧困과 失業을 없이하고 모든 国民은 基礎生存権과 基本権을 保障할 責任을 가져야 한다는 哲学이 뒷받침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같은 福祉国家의 概念이 定立되기 까지는 사실 近代社会가 形成되어서도 오랜 세월이 걸렸읍니다. 그것이 오늘날에 있어서 모든 社会的 共感을 얻게 되고 国家政策에 積極的으로 反映되는

것은 第2次大戰以後라고 생각합니다.

貧困을 없애고 豊饒하고 福된 社会를 이룩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바라는 人類社会의 理想입니다.
그러므로 貧困을 救済하는 事業은 東西洋을 莫論하고 試図되어왔고 또 伝統社会에서도 있었읍니다. 우리나라의 中世社会에서도 賑恤 또는 義倉制度가 있어 貧民救済事業이 実施된바가 있었읍니다.

英国의 例를 보면 엘리자베드女王時代에 救貧法이 発布되어 貧困을 除去하려고 한 것은 널리 알려져 있는 事実입니다.

그러나 이 伝統社会에서의 貧民救済에서는 貧困은 個人이 無能하고 懶怠하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고 貧民을 救済하는 것은 人間의 博愛心에서 慈善活動으로 実施되어 왔읍니다. 이 点이 現代的인 福祉社会에서의 哲学과는 다르다. 하겠읍니다.

엘리자베드女王時代에 救貧法은 人民의 懶怠를 防止하는데 主眼을 두었고 浮浪民의 取締法的 性格이 強했던 것은 이러한 思想에 根拠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도 「가난은 나라님도 救何할 수 없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도 따지고 보면 가난하다는 것은 가난한 사람의 責任이고 国家의 責任은 아니다 하는 思想을 뒷받침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近代에 들어와서 이런 思想이 漸次 変化합니다. 英国에서 産業革命이 일어나고 19世紀前半期에 西欧大陸에도 전파되면서 貧困한 労動者가 大量的으로 배출되고 構造的인 失業者가 배출됨에 따라 貧困에 대한 종래의 思想에 反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貧困이란 단순히 個人의 無能이라든가 意思와는 関係없이 資本主義의 社会経済体制속에서는 不可避하게 発生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反省이 나오게 된것입니다.

그리하여 19世紀 後半期에 와서는 産業化에 따른 貧困의 発生과 그 実態를 調査하는 各種 団体가 結成되고 특히 欧羅巴大陸에서는 그 対策을 研究하는 社会政策学会가 組織되어서 많은 学者들이 그 연구를 始作했읍니다.

独逸에서는 와그너와 슈몰러등 経済学者들의 社会政策에 관한 建議가 받아들여져 1880年代에 비스마르크 宰相에 의해 社会保険制度가 全国的으로 実施된 바 있읍니다.

勿論 비스마르크宰相이 이 制度를 採択하여 全国에 強制的으로 実施하게 된것은 다른 目的이 있었읍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19世紀末期에는 欧羅巴에서 社会主義思想이 굉장히 팽배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막는 手段으로의 目的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当時 社会主義者들의 労動者에 대한 呼訴力을 封鎖하기 위해서 健康하고 満足해 하는 労動者들이 独逸을 보다 強力하게 만들고 忠誠心으로 国家에 奉仕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비스마르크의 社会保障制度의 対策의 根本的인 目的이었읍니다.

따라서 이 保険制는 専制的인 性格이 強한 君主国家가 国民에게 強要한 政策이기는 했으나 그 政策은 좋은 成果로 나타났으므로 第1次大戦以後에는 欧羅巴의 여러 나라에 制度가 導入되어 採択拡大되었읍니다.

그러나 相対主義思想과 만체스터経済学의 自由主義経済学의 깊은 影響을 받아 온 英国에서는 이 救貧法時代의 思想的 基調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읍니다.

英国에서도 勿論 19世紀初 以来 貧民이 大量으로 発生하고 말사스등의 学者들의 거기에 대한 批判도 있고해서 1834年에 新救貧法이라는 것이 発布되었읍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個人의 社会保険을 為해서는 政府의 積極的인 干渉이나 介入은 反対했읍니다. 아직도 国家의 積極的인 介入으로 社会保障制度를 確立하는 것은 英国사람들의 伝統的인 自由的 経済体制에서는 容納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新救貧法에서도 現代의 社会福祉的 政策은 아직도 思想的으로나 実際的으로는 나타나지 못했읍니다. 英国의 社会福祉活動이 人道主義에 立脚한 民間人의 博愛事業으로 展開를 보게 된 것은 이러한 思想的 背景에서 理解되는 것입니다.

英国에서 貧困이 社会経済構造의 所産이라는 思想이 社会政策에 反映되는 것은 20世紀에 들어와서입니다.
이 때부터 비로소 救貧制度와 더불어 貧困을 防止하는 制度가 国家에 의해서 考慮되기 始作했읍니다.

그리하여 1905年에 王立救貧法調査委員会가 設立되고 여기서의 建議에 따라 1911年에 비로소 国民保険法이 制定됨으로써 社会保障이 法制化가 이루어졌읍니다. 美国에서는 大体로 英国의 救貧法의 精神이 그냥 美国에 継承되어서 美国에서도 대단히 拡大되었읍

니다. 美国에 社会保障制度가 導入된 것은 1935年代에 들어와서였읍니다.

이와같이 資本主義経済가 拡大됨에 따라 労動階層이 大量으로 배출되고 貧困의 経済가 社会問題로 등장하게 되자 社会保障制度를 各国에서 導入 実施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이 社会保障制度는 第2次世界大戦까지는 資本主義社会의 自律的인 特性을 前提로 하는 保障制度로서 極히 改良主義 漸進主義的인 그러한 発展을 해 왔던 것입니다.

現代社会에서는 이 社会福祉問題는 새로운 次元에서 論議되고 그 政策도 新紀元을 이룬다고 하겠읍니다. 第2次大戦後 産業技術의 高度한 発展과 資本 独占化의 急進展, 多国籍企業의 登場등으로 市場機構가 変形되고 公害 및 環境問題등으로 인한 一般大衆의 構造的 被害가 격심해짐에 따라 社会的 公正基準의 導入이 不可避하게 된 것입니다.

또 한편 現代 高度産業社会에서도 経済的 市民社会의 自律的인 規制가 이미 機能을 発揮할 수 없게 되었읍니다.

그러므로서 国家의 介入은 必要不可欠한 것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状況下에서는 国民福祉政策은 国家의 義務로 制度化하지 않으면 안되고 反面에 一般国民大衆의 側에서 본다면 国民福祉問題는 国民의 基本権으로 要求되는 権利関係로 부각되고 있읍니다.

이런 点에서 第2次世界大戦以後에 福祉問題는 国家가 遂行해야 할 큰 課業이며 同時에 一般大衆은 그것을 要求할 権利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福祉社会의 建設은 社会主義国家에서도 窮極的 理想으로 내어걸고 있는 것은 事実입니다. 西欧社会에서 社会主義以来 資本主義経済가 高度로 発展함에 따른 失業者群의 大量排出, 貧富隔差의 深化, 社会的 不平等으로 인한 階級間 対立의 激化 이것이 結局 西欧羅巴에서 社会主義를 発生하게 한 것입니다.

이러한 社会的 不条理는 資本主義体制에서는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属性이다. 이렇게 社会主義者들은 생각하고 이 体制自体를 否定하고 새로운 体制로서 생각해 낸 것이 社会主義体制였던 것입니다.

貧困이 없는 豊饒한 社会 貧富의 隔差가 없는 平等한 社会 이러한 것이 社会主義의 目的이었기 때문에 福祉社会建設은 一旦 社会主義의 理想目標라고 할 수 있을것입니다.

그리하여 社会主義가 目標하는 共産主義의 経済体制下에서는 能力에 따라 일하고 必要에 따라 分配한다 하는 分配原則을 내세웠던 것입니다. 勿論 이것은 하나의 理想으로서 내세운 것입니다.

그러나 社会主義가 目標로 내세웠던 福祉社会建設은 社会主義의 経済体制下에서는 実現되지 못하고 있고 그 可能性도 稀薄하다는 것이 오늘날의 共産国家의 実態에서 証明되고 있는 일입니다.

社会主義의 経済体制下에서는 生産手段의 社会的 所有와 経済活動의 集団的 管理를 基盤으로 한다는 것은 周知된 事実입니다. 経済活動의 自由가 否認되는 体制에서는 職業의 自由가 許容되지

못하며 職業의 自由選択이 容認되지 않는 社会에서 能力에 따라 일한다는 原理는 도저히 実現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하나의 理想으로 내 세운 口号에 不過하다고 하겠읍니다. 또 共産国家는 오늘날 資本主義国家에 비해 物質的인 豊饒의 面에서도 크게 뒤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이러한 状態에서 「必要에 따라 分配」한다는 것도 理想的인 口号에 不過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共産主義国家中에서도 가장 経済的 発展을 이룩하고 있는 소聯에서 조차 必要에 따라 分配하지 못하고 労動에 따라 分配한다는 按労分配의 原則을 取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労動에 따라 分配한다는 経済法則은 集団이나 個人의 不平等을 解消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것을 助長하고 있는 것이 現実입니다.

그렇게 되면 社会福祉를 為한 集団이나 個人의 負担, 또 그로부터 얻는 受恵의 不均等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帰結입니다.

그 밖에 社会主義体制下에서는 社会福祉가 国民経済에서 찾이 할 수 있는 量的側面도 保障되지 못합니다. 国民総生産에서 社会福祉가 占하는 比率이라든가 福祉基金에 대한 個人 또는 集団의 負担 受恵의 程度를 어느 線에서 긋을 것인가는 経済成長率이라든가 経済発展의 패턴이라든가 賃金所得등에 左右되는 것이므로 一義的으로 決定할 수는 없읍니다.

즉 社会的 공제의 量은 経済的 必要에 의하는 것이며 正義에 의해 算定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또 오늘날 世界의 모든 共産国家에서 보는 바와같이 経済開発에서

重工業과 軍需工業에 資源과 經濟의 모든 힘을 傾注하고 있는 狀況下에서는 그만큼 社会福祉의 量的後退는 불가피하다고 하겠읍니다.

이와같은 社会主義体制下에서는 福祉国家라는 것이 內在的인 目的으로 提示되고는 있으나 그 実現性은 資本主義体制下에서 보다는 크게 뒤떨어져 있다고 말할 수 있겠읍니다.

四. 兩體制의 優劣

그렇다면 다음에 우리가 지금 南北韓의 両体制로 볼 때에 어느 쪽이 福祉社会에 더 接近하고 있느냐 또 어떻게 接近을 하면 좋겠느냐 하는 問題에 到達하게 된것같읍니다.

福祉社会는 現代를 사는 사람들이 다같이 念願하는 理想이며 이것은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自由民主主義体制는 勿論이고 社会主義体制의 国家에서도 積極的으로 追求하는 目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分斷된 南과 北을 統一하고 建設하는 国家像도 福祉国家像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点은 앞에서도 論及한 바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30年間 南韓과 北韓의 両体制下에서 追求하여 온 福祉社会建設의 理念과 実態는 어떠하였던가. 여기서 福祉政策을 両体制에서 서로 내세우는 理念과 実態를 区別하고자 하는 것은 理念과 現実이 一致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福祉의 建設에 있어서 理念과 実態는 南北韓이 어떻게 달라져왔느냐 하는 이야기인데 우선 北韓을 보면 거기에서는 社会福祉에 대한 政策目標를 수다하게 羅列하고 있으나 現実的으로는 그를 뒷받침하는 財源調達이 없어 実践에 옮겨진 것은 적었던 反面에 大韓民国에서는 福祉의 経済的 基盤을 確立하고 하나 하나 実現可能한 것부터 実施해 나가고 있다는 点이 特色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法律에 나열해 놓은것을 보면 北韓에서는 굉장히

많으나 그것은 実現可能性이 적고 또 実際 実現할수 없는 形便이고 南韓의 경우에는 내거는 것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実現可能性이 있는 것부터 내세우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両体制下에서는 내놓는 目標나 또는 達成하는 方法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大韓民国의 政治体制는 自由民主主義를 基軸으로 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統一韓国을 생각할 때에 北韓보다 有利한 強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自由라는 것을 北韓住民이 가장 크게 念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経済的 側面에서 보더라도 南韓経済는 福祉国家에의 接近에서 밝은 展望을 보여줍니다.

福祉国家라는 것은 우선 一定 水準以上의 物質的 富의 蓄積과 継続的인 蓄積의 可能性을 前提로 할 때 비로소 그 実現이 達成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보면 韓国経済는 오늘날까지 높은 水準의 発展을 이룩하였고 所得水準도 向上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큰 成長의 潜在力을 갖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強点입니다. 그런 意味에서 福祉社会建設을 위한 物質的 基礎는 우리 南韓은 어느程度 確立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経済成長趨勢에 따라 社会保障制度도 近年에 와서 括目할만한 進展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의 発展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状況입니다.

韓国에 있어서의 社会保障制度의 導入過程을 보면 1963年의 産

業災害補償保險을 비롯하여 그후 一部職域에서 즉 公務員 軍人 年金制度를 採択했고 最近에 와서는 国民医療保険制의 導入実施등이 있으나 그 範囲와 水準에 있어서는 이제 겨우 始作의 段階에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은 것같습니다. 이것은 우선 経済成長을 達成하고 다음에 社会開発을 追求한다는 政策的 基調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970年代의 後半期에 접어들면서 부터 政府는 社会福祉에 대한 国民의 与論에 呼応하는 点이 나타나 있읍니다.

그간 経済成長을 基盤으로 社会開発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읍니다. 1979年度의 豫算案에서도 政府의 이러한 관심이 反映되고 있다고 하겠읍니다. 来年度의 豫算案에서 社会開発을 위한 支出은 前年度에 比해 41.1%를 增加했고 総豫算中에서 社会開発이 차지하는 比率도 今年度의 22.4%에서 来年度는 24.4%로 增加하고 있읍니다.

北韓과 대치하고 있는 現状況下에서는 社会主義体制보다 모든面에서 優勢하다는 点을 実証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도 우리의 福祉政策은 더욱 幅넓고 더욱 水準높게 追求되어야 할 것입니다.

産業化過程에서는 各種 社会的 弊害가 発生하고 있음은 西欧社会의 発展過程에서도 体験하여온 것입니다. 開発途上国家의 産業化過程에서도 例外일 수는 없읍니다. 그로인해 惹起되는 問題는 더욱 크게 드러나는 경우가 오히려 많습니다. 開発途上国家는 資本의 不足이라든가 技術의 落後라든가 이런 것으로 보다 심각한 問題가 発生하고 또 国民이 느끼는 問題意識이 그들과 다를 수가 있읍니다.

가령 賃金등 労動条件이나 労動環境에 관해서도 産業革命当時의 西欧人이 느꼈던 問題意識은 같은 段階의 工業化過程에서의 오늘을 사는 開発途上国家의 国民이 느끼는 問題意識과는 같을 수는 없읍니다. 開発途上国으로서는 先進国의 初期工業化過程에서의 体験에서 教訓을 얻을 수는 있으나 그들의 体験을 우리가 똑같이 걸어야할 必要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例를 들면 西欧諸国의 初期工業化過程에서 低賃金이 国民의 抵抗없이 許容되어 왔읍니다만은 그렇다고해서 現代를 사는 開発途上国에서도 그過程을 밟아야할 이유는 없고 또 容認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視角에서 보면 오늘날 韓国経済의 開発政策은 많은 問題点을 안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읍니다. 高度成長過程에서 発生하는 貧富의 隔差라든가 所得의 不平等으로 인한 低所得層의 疎外感 低賃金과 劣悪한 勤労条件으로 나타나게 되는 労動者들의 生産意欲의 減退 또 그밖에 人命軽視의 思想이라든가 黄金万能의 風潮라든가 社会正義感의 欠如라든가 이러한 여러 現象은 福祉国家建設의 阻害要因이 됩니다. 또 社会保険의 領域에서도 失業保険이라든가 最低賃金制度는 아직 完備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밖에 政治 社会面에서도 議会民主主義制度라든가 労動組合運動이라든가 消費者의 自体保護運動등도 高度成長의 優先政策에서는 뒤로 밀려나고 있는데 이러한 点은 社会不安을 惹起시키고 福祉国家로의 接近을 遅延시키는 결과가될 것입니다.

勿論 1970年代의 後半期에 접어들면서 高度成長過程에서 発生하는 各種 問題에 대해 政府나 企業人이나 国民大衆들이 問題의 所在를 옳게 認識하고 그 改善策이 論議되고 実践에 옮겨지고 있어 福祉韓国의 앞날에 밝은 展望을 약속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읍니다.

北韓의 境遇를 보면 南韓과는 많은 点에서 다릅니다. 우선 北韓의 政治体制는 그들의 新憲非 49条에 나타나 있는바와 같이 集団主義의 原則下에서 金日成 唯一思想体系와 소위 主体性의 論理를 骨格으로 하고 있읍니다. 이 政治体制는 소聯이나 中共과 한가지로 一党専制의 集権体制를 모방한 것이나 北韓의 境遇에는 現執権者의 唯一思想을 보다 더 強要함으로서 独裁国家의 支配像은 더욱 부각시키고 있읍니다. 이것은 現代를 사는 全世界의 人民大衆이 念願하는 「自由와 民主」를 拒逆하는 政治体制임으로 現代의 우리가 追求하는 福祉社会의 「모델」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할 수 있읍니다.

北韓의 経済体制는 生産手段의 社会化 또는 国有化와 国家 또는 社会의 集団管理를 原則으로 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体制下에서는 財産所有의 不平等은 理論上으로는 存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経済活動은 集団国家管理下에 놓여 있고 所得分配는 労動에 따라 分配하는 그런 段階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므로 所得의 不均等에서 오는 財産所有의 差異는 避할 수 없게 되어 있읍니다.
특히 北韓과 같이 職業選択의 自由가 전혀 許容되지 않는 곳에서

는 就業機会는 党에 대한 忠誠에 달려 있으므로 疎外階層이 発生하여 所得의 隔差에서 오는 生活水準의 不平等이 심하게 発生하는 것이 現実입니다.

社会的 不平等과 일체의 階級的対立을 一掃하고 平等한 福祉生活을 約束하는 것이 社会主義 社会形成의 歷史的 課題가 되었던만큼 北韓에 있어서도 福祉와 社会保障에 대해서는 広範하고 높은 理想을 憲法에 表明하고는 있읍니다. 現行 北韓의 新憲法中에 規定되고 있는 福祉 및 社会保障에 관한 중요한 条項을 추려보면 중요한 것은 多量를 羅列하고 있읍니다.

그것을 일일이 여기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마는 하여튼 社会福祉에 대한 最高의 理想을 憲法에 내걸고 있는 것이 北韓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規定된 福祉条項이 満足스러운 水準으로 実施되고 있지도 않고 또 実際 그것을 実現할만한 餘力을 갖고 있지 못한 것이 北韓의 実情입니다.

다만 北韓의 憲法속에 福祉 및 社会保障에 대해 広範囲하고 높은 水準의 条項을 規定하고 있다는 사실은 注目되어야할 것입니다. 北韓은 勿論 現在의 経済的 与件으로서는 위에 羅列한 福祉의 諸規定을 実現시킬만큼 財源은 調達되지 못하고 있읍니다. 最近까지 알려진 情報에 따르면 北韓은 거듭되는 経済政策의 失敗로 国民의 基礎生活権마저 満足시키지 못하고 있다. 합니다. 뿐만 아니라 北韓은 重工業建設과 軍需事業에 経済的 諸力을 傾注하고 있는데, 그런 政策이 継続되는限 福祉 및 社会保障을 위한 財源調達은 実現

되기 어려울 것은 分明합니다. 만일 北韓이 社会主義的 経済의 効率을 높이고자 資本主義諸国으로 부터 現代工業技術을 導入하고 経済管理面에서도 中央集権的 計劃経済「시스템」의 硬直化를 打破하기 為한 一連의 経済改革을 断行하는 西欧共産主義諸国의 先例를 따른다면 社会福祉의 財源調達이 어느정도 実現될 것이며 그렇게 되는 경우 憲法에 規定된 福祉 및 社会保障에 관한 諸条項도 国民에게 期待를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意味에서 대개 実現可能性이 없는 것을 羅列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단순하게 無視하기 보다도 이点에 注意를 기우려야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五. 結 論

以上에서 統一韓国을 念頭에 두면서 서로 体制가 다른 南北韓에서 追求되고 있는 理想과 現実을 考察해 보았읍니다.
위에서 考察한 것을 要約해보면 다음과 같은 結論이될 것같습니다.

우선 첫째 南韓과 北韓은 他意에 의해 分断되고 서로 다른 体制下에서 지난 30餘年을 보냈읍니다. 南韓은 自由民主主義의 体制下에 있고 北韓은 社会主義体制에 있다고 할수 있고 이 両体制下에서의 政治 및 経済体制를 보면 南韓에서는 議会民主主義를 基軸으로 하고 北韓에서는 集団支配体制를 根幹으로 하며 그 必然的인 結果로서 南韓의 経済는 資本主義의 基本原則이 되는 自由経済를 基軸으로 하면서도 하나의 큰 理想을 내세우고 이를 위하여 国家가 計劃을 세우고 그 計劃達成을 위하여 国家가 指導하고 監督하는 混合経済体制를 取하고 있읍니다. 그 反面에 北韓에서는 主要生産手段을 国有化 또는 社会化하고 일체의 経済活動을 国家 또는 社会集団이 管理하는 共産主義 経済体制를 取하고 있읍니다.

이렇게 南北韓은 政治 및 経済에서 서로 다른 体制를 択하고 있어 水火相克의 対立을 이루고 있으나 이 両体制가 追求하는 理想은 같아서 여기서 南北韓의 어떤 共通된 共分母를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 共分母가 바로 福祉社会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統一韓国의 国家像은 福祉国家像으로 帰結될 것입니다.

福祉社会의 建設方法에 있어서는 両体制下의 南北韓은 서로 다르다. 南韓에서는 福祉社会를 実現시키는데 前提가 되는 経済成長을 이룩하여 그 基盤을 다져놓고 実現이 可能한것 부터 採択実施하고 있으나 北韓에서는 羅列主義로 福祉社会의 諸条項을 憲法에 規定해 놓았으나 이를 実現시킬 수 있는 経済開発을 이룩하지 못하고 憲法条項은 거의 死文化되고 있다고 하겠읍니다. 福祉社会를 念頭에 두면서 統一韓国의 像을 構想한다면 어느 하나의 体制를 다른 地域의 住民에게 無条件 強要할 수는 없다. 이것이 아까 前提한 것입니다. 福祉社会라는 視角에서 両体制가 本来 갖고 있는 長短点을 択하여 弁証法의 合의 概念으로서의 새 韓国像을 実現시키는 것이 創造的인 韓国像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 韓国像이라는 것은 뭐냐 資本主義体制의 長点이 되는 「自由의 原理와 社会主義社会의 平等」의 原理를 補完하여 統一韓国의 未来像을 定立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우리大韓民国 経済에서는 所得不均等이 가장 큰 弱点이 되고 있읍니다. 이것을 是正하기 위해 社会保障制度를 強化하는 同時에 한걸음 더 나아가서 国民大衆의 経営参与 및 利潤参与를 期하도록 制度的인 改革을 断行해야할 것이다. 한편 北韓의 共産主義社会에서는 経済의 自由活動의 欠如가 가장 큰 弱点이 되고 있읍니다. 西欧共産国家에서 이미 試図하고 있는 経済的 自由의 原理를 導入하여 生産意慾과 技術의 革新을 期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끝으로 武力統一은 안된다. 勿論 北韓執權者들의 武力南侵의 野慾이 고집되고 있는 限 対話協商에 의한 統一은 대단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南北協商을 통한 対話의 努力은 継続되어야할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에서 統一이 되기前에 바라고 싶은 가장 重要한 것은 両 地域의 大衆과 大衆과의 和解라고 하겠읍니다.

앞에서 보아온 바와 같이 지난 30餘年間 両地域, 特히 北韓에서는 民族의 同質意識이 漸次 稀薄하여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民衆과 民衆의 対話는 時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뜻에서 両地域의 指導者들은 民衆이 交流할 수 있는 機会를 만들어 独逸에서 보는바와 같은 家族訪問이라든가 学術이라든가 体育이라든가 그밖에 一般 文化交流등 感情의 交換을 통하여 民族의 同質意識이 強化되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韓国의 統一의 앞날이 밝아질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보았읍니다.

대단히 미숙한 이야기를 너무 장황하게 늘어놓은것 같아 罪悚합니다. 또 어떤 意味에서 보면 너무 理想的인 것, 꿈같은 이야기를 한것 같아서 学者라는 것은 이런 꿈이나 꾸고 있는 것인가하는 叱責을 받지나 않을가하고 걱정도 됩니다. 다만 저의発表는 統一에 対한 問題提起로 받아주시고 이자리에서 여러분과 더부러 앞으로 統一이될 우리의 国家像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뜻으로 저의 発表를 받아주시도록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수)

<討　　論>

司　会：洪承勉

討　論：金璟東，林鍾哲，崔禎鎬

洪承稷，裵茂基，金永鎬

○ 司会（洪承勉）：지금까지 趙璣濬先生님께서 統一韓国의 未来像이라는 題目으로 福祉国家 그리고 自由와 平等의 原理 이러한 데에 焦点을 두고 主題発表를 해주셨읍니다.

이제부터 討論에 들어가겠읍니다마는 討論에 앞서 討論에 参加하실분들을 잠간 紹介해드릴까 합니다.

저기 계시는 先生님 부터 차례로 紹介해 드릴까 합니다. 저쪽에 계시는 先生님이 서울大学의 金璟東先生님，社会学이 専攻이십니다.

그다음에 역시 서울大学의 林鍾哲先生님 経済学이 専攻이십니다.

그다음 저옆에 계시는 분이 延世大学의 崔禎鎬先生님입니다. 新聞学이 専攻이십니다. 다음이 発表해주신 趙先生님 옆에 계시는 분이 高麗大学의 洪承稷先生님 社会学이 専攻이십니다.

그옆에 계시는 분이 서울大学의 裵茂基先生님 経済学이 専攻이십니다.

제일 끝에 계시는분이 慶北大学의 金永鎬先生님 経済史가 専攻이십니다.

그러면 討論은 반듯이 어떤 순서를 定할 必要는 없겠읍니다마는 우선 高麗大学의 洪承稷教授님께 첫 부탁드릴까 합니다.

○ 洪承稷： 감사합니다. 紹介받은 洪承稷입니다. 여러분 「스케줄」을 보실것 같으면 제 이름은 〃하〃字줄이라 제일 마지막에 있읍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을 補償하는 뜻에서 제일 먼저

저보고 討論者로 나서라는 그러한 意味도 있는것 같고 또 하나의 사실은 여러분에게 대단히 罪悚합니다마는 제가 4時半 부터 授業이 있읍니다. 그래서 일찍 失札를 해야될 그러한 일이 있고 겸쳐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게된 것같읍니다. 実은 제가 오늘 여기에 나와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에 여러모로 아까 趙先生님도 사양을 했다고 그랬읍니다마는 저도 많이 사양을 했읍니다. 問題가 워낙 어려운 問題이고 또 제가 여기에서 무슨 專門的인 硏究를 한 經驗도 많지못하고 해서 사실은 여기에 나올만한 그러한 용기가 없었읍니다마는 主催側에서 무엇이든지 여기에 와서 생각하신 것을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요. 이렇게 퍽 自由롭게 저한테 接近해 와서 글쎄 時間이 사실 授業도있고 한데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저는 그래도 꼭 좀 參席해 달라고 해서 왔는데 罪悚스럽습니다. 도중에 또 나가야 되고 해서……

제가 사실은 뭐 옆에 모시고 있는 趙先生님의 論文은 여러분이 다같이 읽으셨고 느끼셨읍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가 接近해야할 우리가 해야할 소망스러운 未来가 무엇이겠느냐, 福祉社会 이것을 中心으로 죽 槪念으로부터 歷史를 훑으시고 오늘의 南北韓의 状況을 죽 말씀하셨고 이렇게해서 뭐 저는 그 論文自体에 대해서 배운바가 많다. 그저 이러한 말씀을 전해드리고 저 나름대로 自由롭게 제가 생각하는 바를 말씀드리고 저의 責任을 免할까 합니다.

이 南北統一問題를 中心으로 해서 오늘날까지 사실은 많은 이야기가 学者들 간에 또는 一般市民들간에 있어왔읍니다.

異質化나 同質化까지는 아직 듣지못하고 제가 비로소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南北韓이 異質化 즉 점점 달라져가고 있다. 北韓은 南韓으로 부터 달라지고 南韓은 北韓으로 부터 달라지고 그러한 뜻이 거기에 內包되어 있읍니다마는 사람에 따라서 勿論 解釈이 다르겠읍니다. 과거로 부터 점점 달라진다 이런 뜻도 되겠고 여하튼간에 異質化의 問題를 놓고서 많은 討論이 또는 是是非非가 있어왔읍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統一을 한다고 하면 異質化되는 데에도 勿論 우리가 理解를 해야되고 分析을 해야 되겠읍니다마는 同時에 우리 南北韓이 共有하고 있는것, 무엇인가 同質的인것 이것이 없겠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必要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한번 여기에 나와가지고 이것 저것을 생각해보았는데 우선 南韓과 北韓이 서로 부르짖는 것가운데에 또는 그밖의 側面에서 이런 정도는 우리가 統一을 해서 좀 活用할 수 있는 뭐 同質이라는 말까지 붙여서는 무리가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어떤 忠告의 여지가 있지 않겠는가. 첫째는 以南과 以北이 똑같이 工業化를 試図하려고 努力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은 뭐 속일 수가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이런 意味에서 南이나 北이나 서로 工業化를 推進하겠다는 이유요. 여기에 우리의 共通点을 発見할 수 있겠고 둘째는 서로 잘 살아보겠다는 이러한 努力을 以北에서는 주로 오늘의 현상을 比較하는데 世界各国 잘사는나라하고 比較하지 않고 과거에 以北이 우리나라의 못살던 時節하고 比較를 한다고

그렇니다. 여하튼간에 그네들은 과거하고 比較해서 오늘은 잘 살고 있다. 이것을 내세우고 있는 모양이에요. 또 우리 南韓이 과거는 勿論 우리 周辺国家에까지도 比較해서 우리는 오늘날 잘 살고 있다. 서로 잘 살고 있다는 것을 主張한다는 이 자세 여기에 또 무엇인가 통하는 点이 있지않은가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以南과 以北이 똑같이 이제 戦争은 싫다. 平和統一 이것은 両쪽이 다 서로 아주 제일 重要한 것으로 이렇게 主張을 합니다. 이런 面에서 勿論 여기에 상당히 저쪽에 問題가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적어도 口号的으로 平和統一을 위한다는 자세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必要가 있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우리가 念頭에 두어야할 것은 以南 以北이 똑같이 強大国에 쌓여져 있는데 어느 強大国에 먹히지 않았다는 사실 勿論 여러가지 強度의 差는 있으나 周辺国家의 影響을 받고 있기는 있겠지요. 하지만서도 完全히 먹혀서 이제 完全히 꼼짝 숨도못쉴 그러한 状況에 있지 않다는 사실이 얼마나 앞으로 우리가 統一을 위해서 서로 이것이 하나의 통할 수 있는 피차의 理解를 위한 이러한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것을 앞으로 우리가 肯定的으로 活用을 하면서 統一의 努力을 하면 무엇인가 得이 되는 것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았읍니다.

또하나 우리가 앞으로 생각해야 할것은 以南 以北의 問題는 사실은 아까 趙先生님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結局은 이것이 体制間

의 싸움인데 社会主義体制와 資本主義 民主主義体制와의 싸움인데 소聯과 美国이 그렇게 体制를 달리하면서도 서로 무엇인가 共通点을 찾으려고 努力하고 있다는 事実 美国学者들이 社会主義学者들까지 包含해서 近代化가 주는 影響은 무엇이냐 社会主義도 近代化하고 工業化한다. 都市化한다. 그러면 무엇인가 비록 社会主義体制는 아니더라도 資本主義体制下에서도 近代化가 되고 都市化되고 이럼에 따라서 무엇인가 저쪽에 비슷한 現象이 일어날 것이 아니겠느냐 이 서로 비슷한 現象이 일어날 경우에 이것에 대해서 彼此 어떻게 서로 適応하느냐 이런 問題를 놓고 学者들간에 많은 論議가 되고 있읍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이러한 共通点을 中心으로 해서 世界的인 体系를 모색하려고 学者들간에 論議도 했고 그러한것으로부터 지금 배워가지고 以南과 以北間에 무엇인가 앞으로 工業化되고 産業化되고 보다 잘 살게 되는 同時에 平和를 부르짖고 統一을 부르짖고 이러한 것으로 무엇인가 통할 수 있는 이러한 얘기를 하는 가운데 거기에서 어떤 계기가 마련되어서 그것 積極的으로 肯定的으로 서로 잘못된데 서로 다른데 서로 헐뜯는것 이런 否定的인 側面에 만 主眼点을 두어서 우리 体制의 優秀性을 主張하지 말고 아까 趙先生님 말씀에도 한쪽이 한쪽을 強要해서는 안된다는 이런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이것이 사실은 高次元的인 말씀입니다.

아까 辨証法의 合의 理論 말씀도 있었고 한데 그러면 우리가 의연한 자세로써 南韓이 좀 더 잘살고 좀더 開放되고 있고 좀더

우수한 境地 이것을 利用해 가지고 좀 辨証法의 合의 次元으로 우리가 유도할 수 있도록 무엇인가 努力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試案으로서 느껴보았읍니다.

그리고 彼此에 우리나라의 統一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 威脅의 意識이 없어야 되겠고 以北에서는 쳐 올라온다. 이것이持續되는 한에 있어서는 平和統一을 아무리 부르짖어 보았자 이것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威脅의 意識을 弱化시키느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問題같고 또 하나는 오늘날 以南 以北이 異質化의 現象을 놓고 얘기를 할 때에 言語의 問題 이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같은 말을 쓰더라도 內容이 달라요.

제가 数年前에 어느 우연한 機会에 国際会議에 나갔다가 以北의 어떤 幹部級을 만났어요. 이 친구가 서로 얘기를 하는데 다릅니다. 서로 前提하는 思考方式이 달라요. 뭐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南北赤十字会談이나 調節委員会가 그 당시에 잘 안되던 그런 時期에 그 사람들을 만났는데 하는 소리가 아 그것 왜 南韓에서 競爭을 하자고 하느냐 善意의 競爭이 무엇이냐 이것이예요. 合作을 하지…… 合作이 더 좋지 무슨 競爭이냐 이것이예요. 善意는 무슨 善意냐 이것이예요. 그런 식으로 競爭의 뜻을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을 전혀 안 하더라 이것이예요. 競爭 즉 鬪爭 싸우자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해요 아무리 이쪽에서 說明을 해 보았자 納得을 못 하더라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보고서 하는 소리가 아. 서울 판자촌이나 撤去하지 이런데에 무엇하러 왔소? 그때 제가 간 곳이 「유고슬라비아」였는데 한 600名 오였어요. 그런데 우연히 東洋学者가 저 하나였어요. 이런데에 무엇하러 왔오. 그래서 여보세요. 판자촌 撤去는 原始時代에 分業이 잘 안 되었던 時代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런時代에는 몰라도 우리 南韓은 発展이 되어서 판자촌 撤去하는 사람 따로 있고 나같이 国際会議 参席하는 사람 따로있고 分業制度가 発展되어서 여기에 왔소. 이런 식으로 完全히 対話가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는 소리가 그 南韓은 빚 언제 갚을꺼요? 우리나라 팔아먹게 되겠수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여보세요 빚은 아무한테나 주는줄 아시오. 갚을 能力이 있어야 주지 응…… (웃음) 이런 식으로 結局은 서로 얘기가 안 되는 것이예요. 이런 状況이 서로 以南과 以北이 異質化되는 하나의 証拠인데 이러한 말하자면 서로 対話가 통하지 않는것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통하게 해야 되겠느냐 그것을 우리가 좀더 努力을 하고 그 다음에 英語로 「미스파셉숀」이라고 할까요. 서로 잘 못 본 것 이쪽에서 어떠한 信号를 하면 저쪽에서는 사실은 A라는 信号를 하는데 B로 본다든가 이러한 誤解에서 오는 잘못이 있을 수 있읍니다.

우리가 相互間에 威脅을 어떻게 弱化시키고 相互間에 理解를 어떻게 增進시키고 따라서 相互間에 「미스파셉숀」이 없도록 하는 그러한 契機를 以南 以北이 서로 調整을 하고 우리가 共通点을

또는 同質性을 되도록 좀 高次元的인 입장에서 서로 発見하는 그런 努力이 持続되고 同時에 民族意識이라는 것 우리의 祖上이 같다는 것 이것을 継続 의리가 심어주는 한에 있어서는 統一은 아무때이고 가까운 未来든지간에 꼭 오고야 말 것이라고 저는 確信합니다.

이것으로 제 말씀을 그치겠읍니다.

○ 司会 洪承勉 :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時間의 제한을 받고 있읍니다. 따라서 몇분 先生님의 論評 또는 討論을 더 듣고 그리고 趙先生님께서 거기에 다시 論評해 주실 말씀이 계시면 듣고 그렇게 하는 것이 時間節約上 어떨까 생각 합니다.

그러면 崔禎鎬先生님께 다음을 부탁 드리겠읍니다.

延世大学의 崔禎鎬先生님…… (웃음)

저는 専攻이 말을 専門으로 하는 新聞学을 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意味에서는 말 즉 言語라는 것이 統一問題에 있어서는 매우 重要하다고 생각합니다. 戦争을 하지 않는 限, 武力統一을 하지 않는 限 사실 統一問題는 말의 싸움 言語의 싸움 그런 問題에서는 아주 本質意味에 있어서 레토릭의 問題가 아니냐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戦争이 銃弾과 砲弾의 対話라고 하면 平和라는 것은 말의 戦争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意味에 있어서 統一과 関聯된 모든 말을 모든 言語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적어도 戦争을 하지 않고 武力을 使用하지 않고 앞으로 平和

的인 統一을 갖다가 기여하는데 있어서 매우 本質的인 重要性을 갖는 問題라고 생각합니다.

一例를 든다면 제가 마침 그 무렵에 유럽에서 한 7~8年동안 特派員生活을 했읍니다마는 過去 우리나라의 IOC委員이 말이지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南北이 같이 만나는 유일한 場所라 할 수 있는 国際올림픽委員会에서, 全世界의 스포츠맨의 閑良클럽이라고 할 수 있는 IOC에서 다른 나라 代表들은 世界의 名勝地에서 觀光도 즐기고 술도 먹습니다마는 韓国의 IOC委員이 과거 60年代부터 70年代初까지 했던 일이라는것은南北韓의 올림픽에서의 呼称問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大韓民国을 継続해서 올림픽에 大韓民国이라는 이름으로 代表해야 되고 以北에 대해서는 끝까지 노스코리아라고 하는 地域的인 限定詞를 붙인 이름으로 以北을 갖다가 格下시킬까 하는 것이 当時의 韓国의 스포츠外交의 가장 큰 問題였읍니다.

韓国의 IOC委員이 IOC総会에서 했던 가장 큰 役割이 그것이었읍니다.

어떤 意味에서는 우리나라의 그 当時에 있어서 対北傀 政策의 가장 큰 것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런 過去를 생각한다면 저희들 統一에 대해서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関心은 있으면서도 이것을 어떻게 말로 옮겨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그러한 百姓의 立場에서 볼 때에는 과거

統一問題에 관한 限 우리에게 두차례의 統一에 대한 큰 奇襲中 하나가 6.25입니다.

이것은 武力에 의한 統一方法論의 奇襲이었읍니다. 우리는 하루아침에 6·25날 武力南侵 人民軍이 南侵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어떠한 形態가 되었건 統一을 하겠다는 意志가 우리 등 잠자는 一般 百姓들을 奇襲을 했읍니다.

또 한차례 뭐냐 하면 1972年입니까? 7月4日 平和에도 奇襲이 있다는 것을 모두다 体験했읍니다. 7·4共同声明이라는 것은 그 때까지 北傀를 마치 없는 存在처럼, 있어서는 아니되는 存在처럼, 있다고는 하나 그것은 전연 傀儡라고 느껴왔던 우리들한테 하루아침에 韓半島의 北쪽에 우리와같이 対話를 나누고 우리와같이 어떤 文書에 署名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와 같이 存在를 갖다가 안팎으로 데몬스트레이할 수 있는 하나의 実 実体가 있다는 것을 그야말로 느닷없이 별안간에 6·25南侵 소식처럼 우리가 받은 奇襲이 아니었나 이것은 6.25가 銃弾의 奇襲이었다라면 7·4共同声明書에 羅列된 言語라는 것은 그 当時에 大韓民国의 어떤 한 사람도 7月3日까지는 내놓고 말을 못할 그러한 言語의 奇襲이 아니었나?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統一問題를 오직 平和的인 方法에 의해서 追求한다면 言語의 問題라는 것은 매우 本質問題다 하는 것을 強調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7·4共同声明이 저 個人의 느낌에서 매우 奇襲的인

그러한 쇼크를 주었다고 그런다면 그것은 괜히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와같은 分断된 두나라의 関係를 追求하는 다른 또 하나의 例와 견주어서 그런 意味에서도 매우 그것은 충격적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 先生님께서 듣고 계시는 것처럼 韓国말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말 재주가 없어서…… 그러나 独逸말은 더 못합니다.

그런데도 제가 独逸에 있을 때는 서투른 独逸말로 新聞을 보면서 한 6·7年동안 独逸에 있어서의 統一政策 独逸에서는 그것을 統一政策이라 하지 않고 独逸政策이라고 합니다. 独逸政策의 推移 独逸政策의 変化 그로부터 소위 오스트폴리틱 東方政策으로의 進化 이런 데를 저처럼 外国사람으로서 서투른 귀를 가지고 좇아와도 대충 그러한 政策이 追求되는 論理비슷한 것을 따라갈 수 있겠읍니다. 그런 것과 比較해 보더라도 1950年代 60年代 70年代 동안 韓国의 統一政策이라는 것은 言語의 飛躍이 더 많지 않느냐

이번 세미나의 큰 主題가 되고 있는 南과 北 理念과 展望이라고 할 때는 도대체 北이 뭐냐 하는 것 어떤 意味에서는 北이라는 것이 저 北쪽을 어떻게 불러야 될지 모르는, 어떻게 불러야 될까 하는 것을 아직 定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고민을 象徵하고 있는, 어떤 意味에서는 하나의 分詞가 아닌가 北韓이라고 부르기도 뭐하고 北傀라고 부르기에는 무엇인지

좀 낡은 것같고 그래서 그러지도 이러지도 못해서 北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냐?

統一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過去 우리가 統一을 생각할 때에는 統一自体를 좀 分析해서 볼만한 內容들이 있겠는데 모든 것을 一時에 줄지에 하다 보니까 統一하면 땅덩어리건 사람이건 다같이 한꺼번에 만난다는 이런 생각에서 이 統一問題를 論하게 된다면 統一 論議自体가 앞으로 進展을 갖기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參考삼아 제가 独逸에 있어서의 東方政策에 이르기까지의 推移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그저 조그마한 統一問題를 생각하는 하나의 參考資料로서 말씀드린다면 그렇습니다.

가령 우리들의 対話에 善意의 競爭에 相対를 뭐라고 부를 것 것인가 이것은 특히 過去에 있어서 우리가 北傀를 전연 国家的인 実体로 認定하지 않았던 그러한 過去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섯불리 함부로 以北을 별안간에 어떤 国家的인 것으로 承認을 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自体가 사실은 우리가 論議하여야 할 큰 問題를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独逸에 있어서 社民党 基民党 聯立政府에서 비로소 首相의 新年演說에서 最初로 東独을 東独 그 自体가 自称하고 있는 独逸民主共和国이라는 이름을 아무런 括弧도 없이 어떤 「所謂」라는 그러한 前置詞도 없이 東独의 国家이름을 그대로 부른 것은 그 전에 그에 이르기까지 数많은 우여곡절과 呼称에

작은 걸음의 漸進的인 変化가 있고난 뒤에 비로소 되었던 것입니다.

独逸에서는 勿論 처음에는 東独을 단순히 소聯占領地域이라고 불러왔댔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独逸의 다른 地域이라고 부르게 되었고 그러다가 소위 独逸民主共和国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그 다음에는 独逸民主共和国에다 括弧 치기도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括弧까지 풀어서 正式으로 独逸民主共和国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北傀를 그동안에 傀儡라고 했다가 하루아침에 北韓이라고 불렀을 때에 그러한 呼称의 変化가 앞으로 北과의 統一問題를 為한 論争이나 対決에 있어서 어떠한 問題를 안을 것인가 이런 것은 우리가 크게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統一이라는 것은 씨름이나 레스링처럼 단판승부가 아니라 마치 농구나 축구처럼 統一뒤가 問題가 아니라 統一될 때까지 南쪽과 北쪽이 어느 쪽이 点数를 많이 따느냐 하는 每日每日 日常的인 싸움이 아니겠느냐?

그런 意味에 있어서 특히 戰争에 있어서는 砲弾이 重要하고 火力이 重要하지만 平和時에 있어서는 言語의 問題가 레토릭의 問題가 매우 重要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이 세미나의 最終 主題発表로서 高麗大学의 趙璣濬先生님께서 統一韓国의未来像을 発表해 주셨다는 것은 이러한 統一韓国의 이메지를 우리가 먼저 내놓았다. 그

自体에 대해서는 매우 意味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以北에 있어서의 여러가지 福祉政策이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經済的인 実力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과는 아랑곳 없이 단순한 羅列主義라도 일단 그러한 화려한 福祉政策을 羅列했다는 그 自体에 意味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앞으로의 南北平和統一의 競争에 있어서 비단 以北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国内 統一을 熱望하는 国民들을 為해서도 우리는 이러한 統一韓国의 비죤을 이메지를 이러한 政府次元에서만 아니라 学界나 一般 民間人들 한테도 이러한 統一이라는 이메지가 있다. 다만 그러한 것을 내놓았다는 自体가 저는 매우 意味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읍니다마는 한가지 제가 이것도 단순히 言語의 問題입니다마는 좀 杞憂가 되는 것은 여기에 趙先生님 페이퍼의 마지막에 중요한 것은 両地域의 大衆과 大衆과의 和解이다. 그리고 民衆과 民衆의 対話는 時急하다고 하겠다. 両地域의 指導者들은 民衆의 交流의 機会를 만들어서 独逸에서 보는 바와같은 統一의 길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한 말씀을 하신 것같습니다.

그리고 누구인지 잊어버렸읍니다마는 어제 그저께 이런 것이 페이퍼가운데서도 우선 民衆水準의 南北交流가 重要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같습니다. 저도 거기에는 同感입니다.

다만 이것이 現実的으로 可能하겠느냐 하는 問題입니다. 民

의 立場에서 한 百姓의 立場에서 過去의 統一問題의 進展이 너무나 별안간에 느닷없이 우리 머리를 때린 奇襲이었다고 한다면 또 그러한 統一의 過去의 方式이 統治에리트 統治支配者들에 의한 지나치게 에리트主義的인 그런 統一問題의 接近方法이었다고 한다면 그것과 마찬가지로 民衆水準의 南北交流를 먼저 提唱하는 것도, 이것은 勿論 그런 뜻은 아닌줄로 십분압니다마는 만약에 이것이 잘못 誤解가 되거나 曲解가 된다면 이것은 또 지나친 포퓰리니스트크 아폴로치가 아닌가 잘못 이것이 지금부터 10餘年前에 그야말로 民衆들이 스스로의 이니시어티브에 의해서 板門店으로 가자는 運動으로 転換되면 困難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이러한 民衆水準의 交流라는 것이 그 본뜻에서는 理解를 합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言語의 問題로서 그러한 誤解를 避하기 위해서는 다른 무슨 表現의 方法이 없느냐 생각을 해보았읍니다.

이것도 역시 独逸의 오스트폴리티크에서 바로 問題가 되었던 하나의 테마입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날 政治에 있어서는 政治指導者의 介入없이 民衆水準의 国際交流도 어려울뿐더러 하물며 政治体制의 理念의 体制를 달리하고 있는 東西 南北間의 民衆水準의 交流가 自体의 이니시어티브로서 이루어 진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의 이니숀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勿論 그런 것을 意図하시는 것은 아닐 것이고 단순히 하나의 言語의 問題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오스트폴리티크에서 그렇게 表現한 것같아요.

結局 統一이라는 것은 별안간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무슨 妙方이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統一에 이르기까지의 方法이라는 것은 結局은 작은 걸음의 接近이다. 그래서 統一을 이야기할 때에도 여기에는 主權의 次元 領土의 次元, 住民의 次元 여러가지의 次元이 있겠는데 過去에 우리가 統一을 할 때에는 그런것의 모든 要素를 다 아울른 統一이어야 하는데 独逸의 東方政策이라는 것은 일단 統一에 있어서 領土와 住民 땅과 사람을 보지 않았느냐 오늘날의 国際情勢나 独逸에 있어서의 国内情勢가 独逸国土의 統一이라는 것은 不可能하다. 그러한 統一이라는 것은 스테이터스·폴리틱의 어떤 現象없이 不可能하다. 그러면 国土의 統一이 不可能할 때에는 달리 말하자면 国土의 分断의 克服이 不可能할 때에는 뭐가 可能하느냐?

비록 国土는 分断된채 있다고 하더라도 分断自体가 두가지 뜻이 있읍니다.

国土가 갈라진다는 뜻이 있고 民族이 갈라진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国土는 갈라졌더라도 民族은 再結合할 수 있다. 民族의 再結合이라는 것은 서로 国土는 갈라져가지고 境界線이 있다 하더라도 서로 過去에는 오고가지 못하고 있는 境界線을 서로가 넘나들 수 있는 境界線으로 바꾸어 놓는 国土는 갈라진채 住民들의 交流는 可能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統一에 앞서서 民族의 再結合을 위해서는 지금 民衆

과 民衆의 交流라고 表現하고 있읍니다마는 그러기 爲해서는 갈라진 거리의 再接近 再交流를 爲해서는 結局은 非政治的인 色彩에서 부터 始作을 하자. 南北統一을 위한 民衆大会를 연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가장 政治性이 적은 스포츠랄지 自然科学이랄지 東西백림을 연결하는 하이웨이 建設이라든지 非政治的인 分野에서 再接近을 시작하자 그래서 제 생각에는 趙先生님께서 말씀하신 民衆次元의 南北交流 그것도 아마 그런 問題가 아닌가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았읍니다.

매우 頭序없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 司会(洪承勉)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林鍾哲先生님께 부탁드리겠읍니다.

○ 林鍾哲 主題発表를 해주신 趙先生님은 제가 가르침을 받은 저의 스승입니다. 그래서 스승의 論文에 대해서 제가 이렇궁 저렇궁 말씀드린다는 것도 대단히 罪悚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趙先生님께서는 좀 楽観하고 계시지 않느냐? 統一에 대해서 즉 統一自体와 그 可能性 및 統一하는데 있어서의 韓国의 有利한 立場等에 関해서 좀 楽観的이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先生님은 당신의 故郷이 以北이시니까 失郷民으로서 빨리 統一되었으면 하는 깊은 念願때문에 그러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先生님은 항상 科学的이시고 客観的이시니까

先生님의 楽観論이라는 것은 歴史에 대한 깊은 理解에서 나온 것으로 보고 따라서 제가 歴史를 잘 모르는 자가 그런 立場에서 좀 말이 되지 않는 意見을 提示하지 않나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저 역시 人間의 良心에 대한 信仰은 가지고 있고 따라서 人類将来를 楽観은 하고 있기는 하고 있읍니다마는 現実을 볼 때에는 그렇게 先生님 같이 楽観을 할 수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가령 統一을 하는데 있어서의 韓国의 優位라고 할때 390페이지에 보면 福祉社会建設을 為한 物質的인 基礎가 確立되어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을 큰 長点으로 들고 계십니다.

사실 経済的 優位를 보면 가릴 수 없는 것이지요. 1人当 GNP가 以北의 한 2倍쯤 되는 것이고 GNP全体를 본다고 할것 같으면 한 4倍까지 되고 있으니까. 그런데 物質的인 基本物質的인 優位가 統一, 福祉社会를 中心으로 한 統一에 그대로 기여할 수 있느냐 오히려 마이나스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福祉를 내세운 統一이라고 하면 못사는 以北사람한테 南韓의 富의 상당한 部分을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한 精神的인 자세가 되어 있느냐 所得이 있는 곳에 반드시 税金이 있어야 하는데 株式에 대한 配当税를 안내겠다고 해가지고 얼굴에 철판을 깔고 왔다고 하

면서 国会로비活動을 하고 있다 말이지요. 이러한 사람들이 福祉社会라는 이데오로기를 中心으로 同質化가 되어 統一을 할 수 있겠느냐 저는 그런 面에서도 福祉社会를 中心으로 한 統一이라는 것은 物質的인 基本보다는 오히려 精神的인 姿勢가 問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精神的인 姿勢面에서는 나이가 많은 層은 지금의 南韓이 가지고 있는 經濟的인 優位로 말미암아 안락함에 빠져들고 젊은 사람들은 첫날인가 둘째날인가 있었던 어느学生 質疑처럼, 統一을 해서 뭐합니까? 統一을 왜 합니까? 하는 式의 생각이 적지 않은것 같습니다.

이 福祉社会를 中心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말씀을 조목조목 드려보겠읍니다.

福祉社会를 求心点으로 해가지고 統一되어야 된다는 것은 저도 全的으로 同感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매우 어렵지 않겠느냐 그 첫째 理由가 지금도 말씀드린 대로 南北 모두가 福祉라는 이데오로기를 가진 적이 없읍니다. 한번도…… 이 福祉社会建設을 이데오로기로 내세운 적이 없어요.

이쪽에서는 어떠냐 할 것같으면 高度成長이 되면 그대로 福祉가 実現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는데 高度成長 高所得하고 福祉는 一致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共産主義者들이 生産手段의 私的 所有만을 制限함으로써 平等이 이루어진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소聯社会가 얼마나 不平等한 社会냐 하는 것을 본다고 할것같으면 生産手段의 社会的 所有 이꼴 平等, 高所得 이꼴 福祉라는것이 말이 아니라는 것을 즉각 알 수 있을 것같습니다.

이것하고 關聯되어서 南北이 어째서 福祉를 最優先的인 価値로 받아들일 態度가 없느냐 할 것같으면 지금 적어도 50代 以上 저까지 包含해 가지고 満45歳쯤 된 사람들은 平等이라든지 福祉라든지 이런것을 마음의 糧食으로 먹으면서 자라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들 수 있읍니다. 富國强兵이라는 낱말에서 보듯이 마흔다섯 넘는 사람들은 一種의 그로스매니어 즉 成長狂들입니다.

그러니까 福祉보다는 成長을 앞세우는, 価値觀을 갖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뜯어고치기 前에는 안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南北韓이 혹 하루아침에 마음이 바뀌어 가지고 福祉社会를 共通의 이데오로기로 삼았다 하더라도 統一이 쉽게 되겠느냐, 이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역시 手段에 너무나 현격한 差異가 있다는 말이지요.

南에서는 호모에코노미크스 즉 私的 利潤의 極大化 追求를 理想的인 状態로 두고 政府가 市場에 介入을 한다 해도 重商主義的인 스킬풀핸드에 의한 介入을 強化하는 傾向이 짙어요.

그러니까 利己的인 人間이라는 것을 그대로 두되 거기에서 빚어지는 副作用은 政府가 強權的으로 介入함으로써 修正을 해

나간다는 福祉立国을 取하고 있지요.

그런데 以北은 어떠냐 할 것같으면 人間性을 改造하려고 듭니다. 社会的으로 責任感이 強하고 그리고 愛他的인 経済体制에서 말하는 뉴맨 새로운 人間을 만들려 합니다.

그러면 이 뉴맨하고 호머에코노미크스라는 相異한 経済的인 人間型을 가지고 経済的인 比重이 상당히 큰 福祉社会라는 것이 될 수 있겠느냐? 저는 상당히 懐疑的입니다.

그다음에 우리의 現位지요. 福祉社会에 우리가 조금 接近해가지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렇게 볼 수 있겠느냐? 경우에 따라서는 北이 더 앞섰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느냐 北에서는 적어도 貧困의 平等은 実現하고 있읍니다. (웃음)

그러니까 말하자면 百姓 全部를 갖다가 地獄으로 끌어내려가지고서 平等한 地獄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大韓民国은 어떠냐 하면 天堂과 地獄이 한꺼번에 併存을 하고 있읍니다.

以北에서는 TV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日製카메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세이코時計같은 것처럼 以北돈으로 한 4,500원하는 물건을 가진사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카메라나 테레비같은 것들을 갖는다는 것과 여기에 高所得層들이 캐비아로 샴펜먹고 하는 이런 것하고는 다릅니다.

그것은 経済財라기 보다는 올림픽참피온의 金메달이나 마찬가

로 社会的인 象徵이지 테레비 放送같은 것들도 시원치 않은 그 속에서 生活의 사치품으로서 意義를 못 갖는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面에서는 物質的인 平等이라는 것은 이루어져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平等을 바탕으로 하는 福祉社会라는 面에 있어서는 오히려 그 쪽이 가깝다고 볼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 쪽은 어떠냐 할 것같으면 最近 특히 그렇습니다. 生必品 供給이 상당히 不足하고 값이 다락같이 뛰어요.
70年以後는 勤労大衆들이 먹는 物件값이 뛰고 物件도 不足하고 이런 現象입니다.

그 代身 TV값도 떨어졌고 에어콘값도 떨어졌고 自動車도 더 좋은것이 나오고 生活의 便利品 내지 사치품은 生産增大가 顕著하고 값도 安定이 되어가고 있지요. … 그러니까 그런것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優位에 있지 못하다고 되어 있지 못합니다.

다만 제가 経済専門家니까 経済専門家的인 立場에서 볼 때는 그런 面이 있다. 다만 이것도 重要하기는 하지만 한 部分에 不過하다. 다른 部分을 본다고 할 것같으면 経済体制가 充足시켜야만 될 여러가지 義務, 그 中에서 가령 豊饒를 保障한다든지 資源의 効率的인 配分을 保障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国民들의 基本的 수요를 平等하게, 또 豊富하게 供給한다. 이러한 面에서 볼 때에는 우리가 앞서 가지고 있고 그밖에 政

治라든지 모든 面에서 우리가 앞서가지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지만 그래도 이런 基本的인 아키레스의 鍵이라고 할 수 있는 問題가 있으니까 덮어놓고 우리가 잘 살고 平等에 조금 더 가깝다. 따라서 福祉社会를 中心으로 하는 統一이라는 面에 있어서 圧倒的인 優位에 있다. 金日成이가 언젠가는 무릎을 꿇고 들어올 것이다. 하고 생각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우리가 福祉社会建設에 한발자욱 가깝다고 以北을 훨씬 앞서고 있다고 하는 根拠의 하나로서 趙璣濬先生님께서는 社会保障問題를 말씀하셨는데 이 社会保障이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北韓뿐만 아니라 南韓에서도 역시 装飾品에 지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비블렌은 富者들이 自己가 富者라는 것을 誇示하기 為해서 誇示消費를 한다. 고 하는데 우리도 역시 近代国家로서 20世紀後半에 사는 現代国家로서 福祉도 가지고 있다고 내세운 立場의 誇示生産的인 것이지 内容은 両쪽이 다 없는 것이 아니냐?

가령 産災保険 医療保険 이런 것을 例를 든다면 차라리 없는이만 못합니다. 그것을 안했으면 그 돈이 勤労者들의 所得으로 반드시 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의 生活을 조금 높였을 것이예요.

그런데 지금 어떠냐 할 것같으면 結局은 이것은 労動庁내지 社会保障当局은 방대한 貨金退蔵으로 남아가지고 있다 말이지요

그런데 百姓이 써야만 될 勤労者가 써야지만 될 돈이 政府

手中에 留保되어 가지고 있는 이런 넌센스를 빚고 있는데 이래가지고 社会保障을 한다고 우리가 福祉国家에 一步 가까이 왔다고 할 수 있느냐

統一院을 包含해가지고 政府에 계시는 분들은 상당히 싫어할 는지 모르지만 좀 깊이 생각을 해야지만 될 것이다. 특히 統一이라는 問題와 関聯해가지고서는 말이지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진정한 意味에 있어서의 社会保障, 福祉라는 것은 趙璣濬博士께서도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最低賃金制의 実施라고 보고 있읍니다. 最低賃金制야말로 모든 社会保険社会保障에 앞서가지고 民主社会에서 導入됐던 것입니다.

社会保障이라는 것은 趙博士 主題発表文에도 있듯이 父系적이었었고, 官僚的인 것이였던 프러시아帝国에서 먼저 導入한 것입니다. 英国같은 나라들이 最低賃金制를 먼저 導入하고 社会保険같은 것을 나중에 導入한다 말이지요.

그러니까 美国에서 社会保障支出이 가장 작다. 가령 欧羅巴平均을 보면 1960年代 GNP中에서 찾이 하는 社会保障 支出의 比重이 16.1%가 됩니다.

유럽 先進 11個国平均이 말이지요……

美国이 어떠냐 하면 7.2%밖에 안돼요. 日本은 6.0%이고…

그러면 美国이 国民들을 為하지 않는 政府냐 하면 決코 그렇지 않고 낫다고 하는 것은 달리 解決해야 될 것같습니다.

그래서 社会保障 支出比重이 높은 것이 福祉国家다 해가지고

서 이런 実効도 없는 産災保険 医療保険이나 잔뜩 해놓는 것이 福祉国家에 進一歩라 하고 생각하는 것은 큰 誤解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崔禎鎬博士께서 역시 言語의 問題다. 말씀하셨는데 그것과 関聯해가지고 저도 한말씀 드려야 할 것이 있을 것같습니다.

自由다 혹은 民主主義다 이것을 合해 가지고 自由民主主義다 하지만 自由民主主義하고 社会主義하고 어느쪽이 国民한테 어필하고 強点이 있느냐 할 때에는 自由民主主義가 절대적으로 그렇다고 이야기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自由나 民主主義 뭐 社会主義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것은 生活様式의 表現이며 異質的 言語圈 다른 文化圈에서 30餘年間 살고 나니까 南과 北에서 自由라든지 民主主義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内容이나 概念이 同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南에서의 自由로운 것은 北에서 볼때는 不自由하고 방종이다 하고 評価할 것이고 北에서의 自由라고 하는 것은 南에서 볼 때는 圧制에 不過한 것이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北의 青年들은 이런 세미나가 끝나고 나면 부지런히 党舎에 가서 하는지 어디에 가서 하는지 몰라도 또 学習会議에 나가가지고 党과 首領을 위한 自家批判을 하고 떠드는 것을 自由라고 생각하고 있는 반면 우리들은 끝난다음 커피 한잔 마시고 데이트 하면 自由라고 생각한다 말이지요.

그러니까 에이브라함링컨이 옳게 말했듯이 牧童의 行動을 보고 양들은 늑대로부터 自己네들을 지켜주는 自由의 守護神이라고 하지만 늑대는 뭐라고 하느냐 할것같으면 남의 生存의 自由를 박탈하는 自由의 圧制者라고 그런다. 말이지요. (웃음)

그러니까 이러한 式의 自由 또 以北式의 圧制 여기에 익숙해지고 나니까 이것이 별 매력을 못가지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이쪽에서 自由를 保障했으니까 압도적인 優位에 있다고

主題論文에 있읍니다마는 以北사람들이 絶対的으로 具現하고 싶어하는 最大의 価値가 뭐냐 하면 自由다 하는데 그 自由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自由하고 똑 같은 것이냐? 오히려 제가 생각할 적에는 그 自由라는 것은 베이식 니드의 充足의 自由 이 정도의 素朴한 것 밖에 안되지 이렇게 自由롭게 討論도 하고 이럴 수 있는 自由는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株式配当所得税도 안내겠다는 富者들이…… 너 自由롭게 떠들 수 있는, 富者도 批判할 수 있는 自由도 준다니까 以南하고 統一해버리자 할 때에는 나 그런 것은 싫고 너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주어 語지나 않았으면 좋겠다 할 때에 이런 差異가 있을 때에 이 福祉社会体制로 해가지고서는 統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쉽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런 것하고 関聯해가지고 순수히 経済技術的인 面에서 이런 것을 이야기안하는 것이 저 個人을 為해서도 좋고 政府自身을

為해서도 좋습니다마는(웃음) 大韓民国에 있어서 経済的인 좁은 意味에 있어서의 経済的인 自由가 그렇게 많으냐 할 때에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北은 強権的인 命令経済입니다. 南도 역시 相当한 정도의 命令経済입니다. 北은 中央党 政治局의 몇名과 그 꼭대기에 金日成이가 있어 가지고 이 사람들에 의해 모든 命令이 나오고 이 命令에 의해 経済가 이루어 진다. 말이지요

우리는 어떠냐 할것같으면 南企劃院長官을 頂点으로 하는 経済官僚들 몇사람에 의해가지고서 모든 経済計画이 세워져가지고 指令이 일일이 내려오는 것이지요.

어쨌든 経済企劃院에서 輸出은 125億달라를 하고 뭐 三星物産은 몇億달라를 輸出해야지만 되고 이렇게 일일이 다 指示되어 가지고 있다 말이지요.

経済움직임의 本質에서 볼 때는 후리인더프라사스시스템이라는 것 즉 뭐를 生産해가지고 어떠한 方法으로 生産하고 얼마에 파느냐 하는 自由가 大韓民国 企業家에게 주어졌느냐 할 것같으면 여기에도 大企業의 会長께서 나와계시지만 그런 自由는 우리는 자꾸 喪失해 나갔다 말이지요. 그 대신 이쪽에서는 自由는 뭐냐 할 것같으면 暴利를 할 수 있는 自由라고 하는 것은 企業家에게 마련되어 있을뿐이지요. (웃음) 이런 式의 自由를 保障하면서 福祉社会라는 것을 焦点으로 統一을 하겠다는 이것은 너무 염치가 좋은 이야기가 아니겠느냐?

先生님께서는 이러 저러해야 된다는 여러가지 処方을 말씀해 주셨는데 다만 제가 現実 그 為政者들이 하는 일을 볼 것 같으면 역시 碩学이신 趙璣濬先生님의 가르침을 안듣고 제멋대로 노는 것이 아니냐 (웃음) 좀더 앞으로 先生님의 講義를 듣기를 바라면서 제 말씀을 그치겠읍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 司会(洪承勉)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金璟東先生님께 부탁을 드리겠읍니다.

○ 金璟東 金璟東입니다.

여러 先生님께서 다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별로 말씀드릴 것이 없을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잘 모르시는 분들이 나와서 말씀을 하신다고 하는데 여기에 계신 분들이 모르시면 저는 더 모르는 사람인데 다만 제가 한가지 느낀 것은 이 프로그램을 보니까 発表하신 분들은 全部 政治学 아니면 経済学입니다. 저는 社会学하는 사람으로서 늘 社会科学 마찬가지로 2級市民待遇를 늘 받고 있는 그런 形便이기 때문에 이런데에 와서 社会学하는 사람이 와서 討論이라도 좀 해보아라 하는 것은 대단히 栄光스럽게 생각하고 그런面에서 나왔읍니다.

다만 지금까지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統一問題건 経済成長問題건 発展問題건 여러가지 우리가 오늘날의 時急한 問題를

이야기 할 때에 우리나라뿐 아닙니다. 대체로 全般的으로 經濟爲主로 생각하는 이런 思考方式이 짝 깔려 있읍니다. 뭐 經濟가 중요한 것은 틀림없고 누구나가 認定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經濟外的인 혹은 非經濟的인 그런데에 대해서는 經濟만 잘 되면 되는 것같이 그렇게 보통 이야기하는 思考方式에 대해서는 經濟學工夫를 잘 못한 사람으로서 어쩌다가 社會學工夫한 사람으로서는 한마디 해보아도 괜찮을듯한 그런內容이 좀 있을 것같이 생각이 되어서 그런 뜻에서 제가 조금이라도 기여를 할 수 있다면 하는 작은 所望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았읍니다.

趙先生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저도 배운 바가 많읍니다. 그리고 討論하신 여러 先輩님들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선 두가지로 저는 나누어서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하나는 統一을 한 뒤에 있어서의 韓國의 未來像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理想的인 모습에 대해서 그 自体를 가지고 한번 지금까지 말씀하신 內容을 中心으로해서 또 제 나름대로 이야기를 해보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 또 하나는 그 方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方法과 關聯이 되어서 거기에서 생긴 여러가지 問題点과 해결해야 될 争点이 무엇이겠느냐 이런 데로 한번 생각을 해 볼까 합니다.

이제 未來像입니다마는 우리가 未來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여기에 앉아가지고 이런 討論

을 碩学들이 다 모여서 한다고 해서 北韓에 있는 指導者들이 저희들 이야기를 듣고 이제 林先生님 말씀대로 碩学이야기는 우리나라에서도 잘 안들어 주는 분들이 있는데 以北에 있는 사람들까지 여기의 碩学들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대로 우리가 해보자 그대로 한번 해보자 그런 생각을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그쪽에 무슨 說得을 하겠다든가 그런 이야기보다는 統一이라는 将来의 問題를 생각하는 우리의 姿勢 우리가 가지고 있는 問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함으로써 오히려 저쪽에서는 그대로 따라오거나 혹은 屈服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焦点으로 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뭐 이런 이야기가 꼭 그런 効果까지 가져오리라는이야기는 아니고 다만 우리가 그렇게 잘 된다고 해서 저쪽에서 屈服한다고 楽観하는 그렇게 素朴한 사람도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問題는 우리쪽 있다 하는 것도 우리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이런立場에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勿論 그러기 위해서는 北쪽하고 이야기를 나누어서 하겠읍니다마는 그러면 福祉国家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것을 조금 概念을 넓혀서 福祉社会라고 하는 것이 어떠냐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단순히 제가 学問하는 사람의 쇼비니스틱한 생각으로 하는 말씀이 아니라 福祉国家하면 대개 政治

經濟的인 意味를 가지고 있는데에 비해서 福祉社会 그러면 좀 더 넓은 뜻에서 社会構造 全般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長点이 있읍니다.

그런데 이 福祉国家 福祉社会 理念 目標 理想 이런 말씀을 하실 적에 平等과 自由 말씀을 하셨고 貧困과 就業이라는 아주 政治的인 概念과 經濟的인 概念에 限定된 듯한 인상을 저한테 주는 것같습니다. 꼭 그러리라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印象을 読者들에게 혹은 저같이 좀 無知한 読者들에게 그런 이야기가 된다고 할 것같으면 이것은 좁은 解釈이 될 可能性이 있다. 그 말은 이제 經済学 하시는 옆에 계신 林先生님께서도 平素에 같이 모시고 계십니다마는 經済学하신 분중에는 상당히 人間的이고 社会問題에 関心이 있고 그런 분이라서 제가 부연할 것은 없지만 역시 福祉社会라는 理念 理想을 이야기할 때에는 人間問題를 이야기 해야 된다. 人間이 어떤 人間이 되어야 되겠느냐 그리고 그 人間들이 사는 社会는 어떤 社会가 되어야 되겠느냐 그 속에는 經済도 들어가 있고 政治도 들어가 있고 文化 各種의 것이 다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고 그런 사람을 結局은 그 속에서 自己가 타고난 모든 潜在力을 어떻게든지 가장 많이 実現하고 自己를 完成할 수 있는 이런 社会를 만들어주는 이러한 좀더 크고 넓은 그러면서 理想的이라

고 할 수 있을만큼 이야기는 사실 進行이 되어야만 기왕에 우리가 모르는 未来에 대해서 기왕에 모르는 理想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아마 그쪽이 타당하고 說得力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읍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과연 우리가 바라는 사람이고 어떤 社会가 바라는 社会냐 그것은 저한테 対答을 하라고 強要를 하신다면 저는 할 수 없이 몇마디는 하겠지만 그 이야기가 반드시 옳은 이야기라든가 說得力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안하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서 장황한 時間을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다만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할적에 그 사람이 자기의 타고난 潛在力을 가장 많이 発揮해서 自己를 実現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社会가 되어야 되겠다. 이럴 때에는 누가 뭐라고 딱 지적을 할 수 없읍니다.

가령 毛沢東人間이라든가 혹은 北韓에서 지금 하고있는 共産主義 新人間 이런 것도 누가 뭐라고 딱 못을 박아 버리면 그것은 사람의 自己実現을 도와주는 일은 못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딱 못박아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어떻게든지 個人이 자기가 전부다 모두가 다 自己를 完成할 수 있는 그러한 社会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보면 그다음에 그런 社会가 大体로 어떤 社会냐? 勿論 平等과 自由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 貧困으로부터 解放이 되어야 하고 就業할 機会가 있어야 된다. 이것은 勿論 事実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만 이야기를 해서는 추상적이고 그 社会의 構造的인 特性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必要性이 생깁니다. 그것은 다른 分野의 先生님들 보다는 제가 조금은 그 쪽에서 기여를 할 수 있는 分野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저는 몇가지 理論的인 問題를 가지고 생각을 늘 해오는 사람중에 하나입니다마는 提示할 수 있는 몇가지 말이 있읍니다.

뭐 외톨이 되어버릴 可能性이 있읍니다마는 역시 말이 重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構造가 融通性이 있는 것이라야 한다. 伸縮性있는 構造여야 한다하는 것하고 그 밑바닥에 自発的으로 福祉社会가 그 理想으로 깔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自発的 福祉社会란 과연 무엇이며 構造的 融通性이란 뭐냐 이것은 이야기가 추상적이고 복잡한 이야기가 되어서 길게는 말씀드릴 수 없읍니다마는 우리가 생각하는 좀더 理想的인 福祉社会라고 할 것 같으면 그 社会속에서 参与하는 모든 成員들이 自己의 基本的인 慾求를 充足시켜서 自己를 実現할 수 있는 그러한 機会를 最大限度로 누릴 수 있도록 決定에 参与하고 選択할 수 있는 그러면서 거기에 따르는 責任을 自己가 또 질 수 있는 이런 構造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꾸어서 이야기를 하면 自発的인 福祉社会를 이야기하는데 自発的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누가 強要를 하

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重要합니다. 첫째는 물론 둘째도 거기에 돈 経済的인 価値基準이 組織原理를 左右하는 決定的인 要因으로서 作用해서는 안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거기에 너무 매달려가지고 人間이 전부 삐뚤어져왔다고 하는 歴史的인 그러한 現実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은 상당히 복잡한 이야기가 되어서 더 길게는 말씀을 안드리겠읍니다마는 여기에 理想속에는 사람의 삶의 質, 삶의 質이라는 것은 우선 物質的으로 貧困에서 解放이 되고 豊饒를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이고 肉体的으로 건강한 삶이 되어야 할 것이고 또 그것만 가지고는 절름바리다.

精神的으로도 건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삶의 質의 概念이 있고 한편으로는 삶의 機会라는 것이 있읍니다.

그것은 社会의 資源을 끌어내서 모든 사람이 나은 物質生活 安定한 精神生活을 한다고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많이 누리고 어떤 사람은 적게 누린다고 하는 이런 原則이 되어서는 困難하다. 機会가 正義롭게 公正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과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삶의 機会를 自己가 選択할 수 있는 機会가 주어져야 한다. 이런 몇가지로 우리가 要約해서 말씀드릴 수 있읍니다.

그런 것이 可能한 社会가 融通性이 있는 社会이고 그런 것이 可能하려고 하면 融通性이 있어야하고 또 自発的으로, 強要에 의해서 돈의 原理에 의해서만 組織되지 않는 社会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어려운 이야기는 그만두고 그러면 具体的으로 우리가 이런 社会를 만들어 나가는데 있어서 南北이라고 하는 대치된 関係를 두고 그러면서 이것이 앞으로 두 다른 体制가 合쳐서 統一이 된 어떤 未来의 社会를 構成한다고 할 때에 大体로 어떤 問題点들이 있을 것인가?

저는 林先生님과같이 약간 現実的인 水準에서는 저는 理想은 대단히 높이 갖고 싶습니다마는 現実의 水準에서는 그렇게 楽観할 수 없는 쪽에 서 있읍니다.

그렇다고 해서 完全히 悲観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면 몇가지만 제가 말씀드린다면 時間이 制約되어 있을 줄 압니다마는 우선 간단한 文化的인 이야기를 잠간 하고 지나가겠읍니다.

北쪽의 教科書같은 것을 分析해 보면 勿論 美帝라든가 南韓의 무슨 뭐 이렇게 해서 대단히 악랄한 表現들을 많이 하고 있읍니다. 그렇게 해서 政治社会化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南韓은 그보다 훨씬 좋으나 勿論 그렇게까지 지독하지 않습니다마는 우리도 南北関係에 있어서의 政治 社会化에 있어서는 反省할 点이 있다 생각합니다.

저의 어린애가 1学年인데 와가지고 하루는 이런 質問을 했읍니다. 試験을 쳤는데 바른生活인가 社会生活인가 試験을 쳤는데 間諜이라는 것이 나왔다고 합니다. 저보고 아주 순진한 아이가 아주 심각한 얼굴로 뭐라고 묻는고 하니 間諜들이 사

람이요 아니요 그래요.

제가 한 10年前의 이야기입니다마는 어린이들에게 가르치는 道德冊을 分析을 해본 일이 있읍니다. 그 結果에도 보면 北傀라는 말이 쓰여 있고 거기에 늑대 얼굴을 그려놓고 良民들이 있는 데와서 侵攻을 하고, 勿論 6·25같은 것 우리가 侵略을 당한 것이니까 조금 어린 아이들에게 그것을 強하게 심어주기 위해서는 그런 表現이 쓰여질 수도 있겠읍니다마는 가령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다고 할 때에 이 文化的인 異質性이라고 하는 것에서 과연 어느쪽이든지 정말 願하는 바의 그러한 同質化를 얻을 수 있겠느냐 하는 政治 社会化問題가 여기에 한가지가 있읍니다.

다만 最近에 어떤 輿論調査에 参与한 일이 있읍니다마는 거기에서 나온 것은 재미있는 結果가 있읍니다.

南北이 異質化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統一이 되면 우리가 民族이 같기 때문에 同質的인 것으로 할 可能性이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한 半 조금 못되는 応答者들이 可能性이 있다고 対答을 했읍니다. 그렇지 않다고 対答한 사람보다는 10餘%가 많았읍니다마는 재미있는 것은 年齢層이 높을수록 그 可能性에 대해서는 比較的 楽観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政治 社会化의 問題와 지금 輿論調査에서 나온 結果하고는 약간 상치된 듯한 인상을 받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마 어느 水準에서 젊은 사람들이 自己들이 自己의 意識水準에서 合理化하는 水準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는지 모릅니다. 나이가 든 분은 이미 상당히 抛棄한 상태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지금도 이와같은 政治 社会化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 自身이 한번 돌이켜볼 必要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가령 統一의 方法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武力統一을 해서는 안된다. 바람직 못하다. 왜 바람직 못한가 하는것을 좀 分析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읍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統一해야 된다 統一은 武力統一이어서는 안된다 하는 것은 規範的인 言明입니다. 거기에 論理的인 分析이 따라야만 이것이 說得力이 있는 것이지 덮어놓고 해야만 한다 해서는 안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學問的으로는 勿論이겠지만 教育하는 立場에서도 조금 困難한 立場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면 武力統一해서는 안되느냐? 勿論 破壞가 되고 어쩌고하는 것 그것 좋지 않읍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武力統一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제가 앞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社会構造하고도 關係가 있읍니다마는 한쪽이 한쪽을 強要하는 그런 方法이기 때문에 안된다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論理的 說得力이 있어야 됩니다. 強要를 해서는 어느쪽이든지

안된다. 그것은 勿論 趙先生님께서 말씀하셨읍니다.

그런데 이 強要하는 것이 왜 그러느냐? 戰争을 하게 되면 한쪽이 집어먹어야 하니까 勝利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곧 어떤 理想的으로 끌고가는 좋은 길이냐? 그것이 아니다. 하는데 問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쪽이 어느쪽을 強要해서는 안된다는 論理는 南北間에서만 있는것이 아니라 各 社会안에서도 마찬가지다. 저는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各 社会안에서도 이와같은 社会組織의 原理에 어떤 식으로 問題가 되겠느냐 아까 洪先生님께서 몇가지 同質性의 可能性을 찾아보자 그랬는데 経済成長 工業化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工業化를 하게 되면 그 社会가 어느정도는 性質이 비슷한 構造를 띠어간다는 것은 一般的으로 社会学者들이 歴史上 여러가지 研究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늘날 와서 상당한 反対를 받고 있는데 그 理由는 뭐냐하면 工業化를 아무리 해도 비슷해 지지 않을 可能性이 있다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는 이제 말씀드린 政治 社会化도 関係가 있지만 바로 政治的인 要因이 介入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工業化를 하는데 그 目的이라든가 그 手段이라든가 하는 것에 있어서 그 社会組織의 原理가 政治的으로 選択되었다고 하는 이 現実을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北쪽에서는 工業化를 왜 하느냐 勿論 理想으로 말하

면 福祉社会를 해서 우리가 앞으로 다 잘 살게만 되면 전부 다 잘 살 수 있다. 必要에 따라서 다 나누어 먹을 수 있고 일한만큼 줄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안된다는 問題가 있읍니다. 그 社会는 아까도 林先生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가 貧困한데에서는 平等할지 몰라도 그것을 모두가 豊饒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러한 餘力을 体制自体가 抽出力이라든가 生産을 높인다든가 하는 이런 点에서는 体制自体가 가지고 있는 盲点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自由가 없이 平等을 한다 하는 것은 곧 組織을 통해서 統制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사람을 못살게 굴어야 합니다. 每日 学習을 시켜야 되고 労動을 시켜야 되고 생각할 수 있는 餘裕를 주지 않아야 됩니다.

이런 式으로 할 때에 問題는 우선 経済的으로 보면 物質的 誘引이 없기 때문에 生産性이 높아갈 수 없다 하는 이런 点도 있겠지만 사람이 그렇게 못살게 들볶일 때에는 뭐가 正義가 있고 어떻게 해서 社会라는 것을 自己와 同一視하고 이것이야말로 자기가 努力해서 犧牲할만한 価値가 있는 것이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느냐 하는 이런 問題에서 北쪽에 問題가 있읍니다.

우리쪽은 어떠냐 南韓의 경우에는 自由는 있읍니다마는 自由가 그것이 어떤 自由든지 林先生님 解釈이 여러가지가 있읍니다마는 일단 우리가 自由가 주어 졌다고 할 때에는 여기에 가장

심각한 問題가 正義問題입니다. 公平性의 問題입니다. 平等이라는 말을 꼭 안해도 좋을것입니다. 平等이라는 槪念 사실 모호한 槪念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社会正義의 問題인데 이것이 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어떠한 問題가 생기느냐? 이것은 사람들이 自由가 있어서라고 해도 結果가 늘 무엇인가 公平하지 못하다. 史記에도 옛날에 나온 말이 있읍니다마는 「비공정이면 불발분이다」 그런 말이 있읍니다. 公正해야만 될 意慾이 생깁니다.

서쪽에서는 너무 統制를 하니까 못뛰지만 이쪽에서는 自由가 있는 대신에 公正하지 못하다고 해서 될 意慾을 잃어버립니다. 그 대신에 消費経済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자꾸 사람들의 期待水準은 높아가고 TV 맨날 보는 것은 自己 生活보다 훨씬 더 잘사는 사람들 모습이 보이고 길가에 보면 자기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들이 수두룩하고 이런 狀態에서…… 그 어디서 제가 들은 말씀입니다마는 어느 国会議員께서 말씀하신 이야기라서 제가 한번 引用을 합니다마는 어떤 사람들이 뭘군들이 저녁에……

우리나라 妙하게 생겼어요. 언덕이 올라 갈수록 집이 조금 좋지 못한 집들이 많이 있읍니다. 그래서 위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장기를 두면서 저녁에 뭐라고 하는고 하니 한사람이 있다가 뭐 무슨 약차 해서 事件이 나면 저 집은 내가 맡은 것이니까 자네는 그 옆집을 해라 그랬다는 것입니다. 勿論

저 아래 거창한 큰집들을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心理라고 하는 것 相対的인 박탈감이라든가 期待水準은 높은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다든가 이런 問題는 바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問題의 하나입니다.

여기에 KDI의 報告書도 제가 引用한 것이 있읍니다마는 高度成長을 함으로써 앞으로도 지금까지도 그런 現象이 있었지만 앞으로도 結局 国際競争力 強化를 통한 輸出増大의 努力이 継続되고 規模의 経済를 수반하는 重化学工業을 積極的으로 育成함에 따라서 企業規模의 大型化가 일어날 것이고 重要産業에 있어서 독과점구조의 深化가 継続 豫想된다. 따라서 経済力의 絶対規模가 큰 大企業群은 혹은 財閥集団의 相対的 高度成長과 이로 因해서 富의 集中化 이것도 加速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中小企業의 破産率이 높아진다든가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이것은 高度成長하고 1991年代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継続간다고 할 때에는 이 成長이 가져올 수 있는 問題 이것은 곧 正義의 問題다. 이렇게 볼 때에는 우리도 또 우리식으로 問題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政治的 要素가 介入이 되는데 外国의 경우입니다마는 25個国에 대한 調査 研究를 한 結果가 이런 것이 있읍니다.

긴 말씀안드리고 가령 經濟成長을 하게 되면 富가 늘어나니까 그것이 上層에 있는 사람이 먹고서 남아서 물이 철철 흘러내려서 그다음에 다 나누어가질 餘力이 좀 생긴다. 대개 지금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읍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된다는 것이 지금까지 여러가지 調査 研究를 통해서 밝혀졌는데 거기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읍니다.
社会的인 政治体制, 이것은 共産主義를 빼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所謂 말하는 自由民主主義와 社会民主主義 두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읍니다마는 社会主義안에서는 經濟成長의 要因을 딱 統制를 하고, 이것은 테크니칼한 統計学的인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딱 常数로 만들어놓고 볼 때에 政府의 財政의 再分配指数와 最高所得層의 所得比率에서 平等程度가 상당히 높다 그것입니다.

社会主義的인 政党이 權力을 가지고 움직인 나라에서는 같은 民主主義를 해도 經濟成長과는 關係없이 所得配分의 均等化는 상당히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民主主義라고 해서 그러한 社会主義的인 政党이 없이한 나라들만 보니까 經濟成長하고 關係는 오히려 經濟成長이 높은 데에서 不平等程度가 상당히 심하게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 그것을 統制를 해 常数로 만들어 보니까 그때에는 政治하고 平等하고는 별로 關係가 없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 뭐 여러가지 어려운 이야기같습니다마는 간단히 이야기

를 해서 이런것입니다. 政治的인 액숀을 통해서 不平等은 甘受할수 있다는 可能性에 약간의 楽観을 던지는 것이고 또 政治的인 要因이 階層의 構造的인 面에서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하는 맑스主義者나 혹은 그밖에 保守主義 社会学者들이 이야기하는 理論을 일단은 일단 여기에서 조금 挑戰하는 그런 結論이라고 말할수 있겠는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民主的인 틀이 作用하는 그러한 社会에서 強力한 社会主義 政党은 그 社会의 不平等을 감소시키는 効果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結局 福祉国家 概念에서도 나왔읍니다마는 政府가 国家가 여기에 介入되어야 한다 하는 이야기가 되는데 저는 여기에 問題点을 하나 発見합니다.

政府가 介入해서, 여러가지 이야기를 하신 것처럼 羊을 保護할 그러한 義務는 있지만 政府가 너무 다 해버리겠다고 할 때에는 곧 새로운 問題가 発生합니다. 이것이 美国의 소위 福祉政策에 있어서의 問題입니다. 소위 웰훼어뷰로크라시 소시얼 시큐리티뷰로크라시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腐敗하고 이것이 괭대가 되어가지고 税金만 자꾸 잡아먹고 実際로 바닥에 가서는 별로 社会保障制度가 実施되지 못하고 있다는 問題가 생깁니다.

여기에 그 官僚組織体의 制度化의 問題와 病弊가 따라온다 하는…… 그렇기 때문에 저 생각은 이제 結論만 말씀드리겠읍니다, 時間을 너무 잡아 먹기때문에……

結局 正義와 自由 平等과 自由 이러한 것이 南北韓이 상당히

脈絡이 다른 가운데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에 어떤 同質性 또는 收斂 可能性을 찾으려고 하면 結局은 양쪽에서 다 犧牲하고 혹은 修正해야 될 그러한 要素들이 있다. 저쪽의 統制된 中央集權的 計劃管理 이것은 困難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쪽에서도 이것이 政府가 介入을 하되 이것이 官僚化되어서는 困難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결국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느냐 저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은 中央集權된 制度化된 官僚組織的 政治形態라고 하는 것 혹은 行政形態라고 하는 것이 止揚될 必要性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쪽에서 可能하느냐 하면 比較的 디센트릴라이제이숀 그 決定単位를 조금 分散시키는 이러한 方法으로 양쪽이 다 가야만 되겠다 이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構造의 融通性도 発揮할 수 있고 또 市民 各自가 自発的으로 누가 시켜서 強要해서가 아니고 自発的으로 参与해서 集合的인 全体的인 福祉에 자기가 서비스를 한다고 하는 이런 責任感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可能性이 있지 않겠느냐 저 나름대로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읍니다.

너무 抽象的인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罪悚합니다. 長時間 고맙습니다. (박수)

○ 司会(洪承勉)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일단 지금까지 進行되어 온 討論에 대해서 趙先生님께서 말씀을 해 주실 바가 계시면 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 趙璣濬 제게 좋은 助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全的으로 그 助言을 받아들이겠읍니다. 다만 거기에 몇가지 説明해 둘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 崔禎鎬先生께서 指摘해 주신 「大衆」내지 「衆」이란 用語問題에 대해서는 崔先生께서 대단히 好意的으로 解釈해 주셨읍니다. 바로 好意的으로 解釈해 주신 그런 뜻으로 저도 이말을 使用했읍니다만 생각해 보니까 역시 그렇지 않는 뜻으로도 大衆 또는 民衆과의 対話로 理解할 수도 있을것 같읍니다. 4.19 以後에 한때 提唱되던 大衆 또는 民衆과의 対話라는 用語는 誤解를 불러 이르킬 수 있는 解釈도 充分히 있을것 같읍니다.

그런 뜻에서 이 大衆이라는 用語에 대해서는 崔先生께서 好意的으로 解釈해 주신 바로 그런 뜻으로 使用한 것으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여기에 民衆과의 対話라는 것은 統一을 執權者들은 제쳐놓고 民衆과 民衆과의 対話로서 達成하자 그런 뜻이 아니라 政治的 統一에 앞서서 統一의 基盤을 民衆과 民衆과의 対話에서 만들자는 것입니다. 약간 말의 差異가 있읍니다만은 政治的인 統一이 되지 않는 現状況下에서는 그 統一을 沮害하는 要因을 없애는데 우선 民衆과 民衆이 対話하여 沮害要件을 제지하는데 努力하자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同質性을 沮害하는 諸要因을 民衆과 民衆과의 対話에서 없애자 줄혀나가자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文化的인 接触이라든가 家族의 訪問이라든가 혹은 非政治的인 問題에 관한 合意라든가 이런 것을 民衆과 民衆과의 사이에 다져놓자 그런 뜻으로 쓴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른 뜻이 있다고 하면 솔직한 이야기로 以北을 支配하고 있는 그 現執權者는 사실 相对하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그 執權者들을 相对해서는 統一이라는 것은 事实上 不可能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現実이기 때문에 以北의 民衆에게 呼訴하자는 뜻으로 말한것이기도 합니다. 勿論 統一은 政治的인 問題이니 南北協商이라든가 従来 試図해 왔던 以北의 執權者를 相对한 協商을 그만두어라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것은 継続하되 또 한편에서는 同質性을 沮害하면서 벌어져가고 있는 그런 것을 좁히는 方向으로 民衆과 民衆과의 対話가 必要하다는 뜻에서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用語에 대해서 다소 誤解의 可能性이 있었다면 그 点은 修正해야 하겠읍니다.

다음에 또 하나는 金崇東先生 말씀하신듯이 福祉国家보다 福祉社会를 해야 되지 않느냐 政治 経済만 생각하지 말고 역시 人間을 생각해야 되고 人間이 集団的으로 生活하는 社会를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인데 그点에 대해서도 全的으로 同感입니다.

다음 林鍾哲先生께서 한 말씀도 대단히 좋은 示唆라고 생각합니다. 林教授는 南北을 統一하는데 있어서 福祉国家라는 것

을 共分母로서 내세워 가지고 이야기가 되겠느냐 하는点 둘째로는 지금 우리의 現実 즉 経済 및 政治面에서 과연 福祉를 指向하고 있다는 것을 내세울 수 있겠느냐 하는 質問을 提起했읍니다.

제가 統一을 前提하면서 南北에서 福祉社会라는 것에 共分母를 둔 것은 南北만 생각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人類歴史를 생각하고 또 現代를 생각하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現代의 世界에는 確実히 두 体制 즉 社会主義体制와 資本主義体制가 共存하고 있읍니다. 이 두 体制가 서로 接近할 수 있는 길은 人類가 다같이 希求하는 하나의 共通의 理想일 것이며 이 共通의 理想이라는 것이 바로 福祉社会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흔히 社会主義와 福祉社会는 서로 容納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특히 北韓의 実態를 알고 있는 우리로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当然한 일이기는 합니다만 人類歴史에서 社会主義思想이나오게된 動機를 생각한다면 社会主義思想은 福祉社会建設과 相衝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읍니다.

元来 社会主義라는 것이 発生한 것이 資本主義의 弊害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읍니까. 다만 이 경우에 思想으로서의 社会主義를 말하는 것이며 오늘날 現存하고 있는 社会主義国家를 두고 하는말은 아닙니다.

資本主義社会와 社会主義社会를 둘을 놓고 이 両体制가 共通

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들의 目標라는 것은 뭐냐 福祉社会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南北韓을 統一함에 있어서도 人類歷史, 20 世紀 後半期의 現代의 人類의 理想을 우리도 내세울수 있지 않겠느냐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南北韓이 지금 이 目的에 接近하고 있느냐고 묻는다면 現在의 狀況에서는 肯定的으로 대답하기는 어렵겠읍니다 만은 接近할 可能性이 있다는 이야기는 할 수 있을것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쓴 것처럼 大韓民國이 지금 実施하고 있는 社会保障制度는 대단히 뒤떨어져 있는것입니다. 이것은 더 말씀드릴 것도 없이 이제 初步的인 段階밖에 안됩니다. 우리 政府에서도 福祉問題는 나중이다. 먹을 것이 있어야 分配도 생각할것이 아니냐고 했고 이点은 企業人들도 흔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物件이 많아질 때까지 더 참아라 이런 얘기도 있지요.
그러나 事実上 우리国民들은 오늘까지 잘 참아준 德分에 지금 韓国의 工業水準도 높아졌고 또 앞으로 成長을 持続시킬 潛在力도 갖게되었다고 하겠어요. 그런 点에서 南韓은 福祉社会를 実現할 수 있는 可能性을 갖고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지 지금 福祉社会를 実現시키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福祉社会로 接近하는 幅을 넓혀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南北韓이 対立하고 있는 状況에서는 더욱 福祉政策을 追求해야하며 社会不安의 要因이 되고 있는 貧富의 隔差를 언제까지 방

치할 수는 없다는 뜻에서 이야기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林鍾哲先生께서 지적하신 国家介入問題인데 이国家介入도 問題는 많읍니다. 国家가 반드시 옳은 일에만 介入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는 수도 勿論 많읍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国家라는 것은 19世紀初의 国家의 概念을 두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어느 社会階層의 利益을 代辨하고 擁護하고 어느 다른社会階層은 소외한다든가 그런 国家는 現実的으로 오늘날 全世界에 많이 널려 있읍니다.

그러나 그런 国家를 우리가 想定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고 그야말로 民衆을 代表하는 国家라는 概念을 前提로 하고 国家의 介 介入을 말한 것입니다.

다음 国家의 干渉이라는 경우 안뜻이 直接 介入이라든가 干渉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国家는 所得分配를 平等하게 하기 위해 税制를 바로 한다든가 또는 金融制度를 合理的으로 한다든가 하여 貧富의 隔差를 줄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執権者나 行政官僚가 내가 생각하는 것은 올바르니까 내가 이렇게 한다면 그것을 옳다고 믿어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을 百姓이 納得하도록 制度化해서 実施하여야 할것입니다.

또 그리고 分配均等 이것도 国家가 均等이 이루어질 수 있는 経営制度, 均等이 이루어질 수 있는 利潤 分配制度를 만들어라 그런

것입니다.

國家가 直接的으로 무슨 分配에 介入해라 혹은 生産에 介入해라 혹은 販売에 介入해라 価格에 介入해라 그런 것은 아니고 역시 그런 制度를 통해서 均等이 이루어질 수 있는 介入 그런 意味로 생각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할 수 있는 公正한 國家 그야말로 民衆을 代表하는 國家 이런 것을 想定한 것입니다.

그 外에 여러가지가 많습니다마는 끝으로 歷史의 樂觀主義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저도 現實을 생각하면 樂觀만 할 수는 없읍니다. 제가 아까 人類의 歷史는 항상 어떤 理想을 세우고 그를 向하야 接近하려고 制度的인 改革을 하면서 오늘날까지 몇千年동안 내려왔다고 했는데 사실 오늘날 우리 社会의 現實을 보더라도 반드시 樂觀만 할 수는 없게되어 있읍니다.

옛날 李朝時代에도 그렇고 結局에 있어서는 돈 번 사람이 第一이다 하고 思想이 팽배했고 日帝時代에도 그렇고 또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 人類의 歷史를 樂觀하기는 힘들것 같읍니다.

그러나 긴 眼目에서 보면 오늘날까지 人類는 좋은 面으로 発展해 왔지 歷史가 그렇게 나쁜 面으로 떨어지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数千年前의 歷史로부터 現代에 이르는 歷史, 적어도 政治体制에서는 漸次的으로 民主主義로 接近해 오고 또 經済的인 面에 있어서도 漸次的으로 豊饒와 均等을 向해서 걸어오고 있다고 하겠읍니다. 오늘날이 과거보다 더 추악한 經済社会 더 非合理的인

社会라고 断言할 수는 없읍니다.

그렇게 보면 歷史는 역시 人類의 最高의 理想을 向해서 항상 그 実現을 위해서 오늘날까지 数많은 사람들이 努力하고 있다. 이런 点에서 南北統一도 앞날을 보면 굉장히 암담한 点이 많지만 그러나 밝은 理想을 갖고 南北統一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人間이 너무 비참해서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그런意味에서 楽観主義를 좀 表明한 것입니다.

그 밖에 여러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고 거기에까지 研究가 미치지못했읍니다.

여러 분들의 이야기한 것은 全的으로 받아드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 司会(洪承勉)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裵戊基先生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읍니다.

○ 裵戊基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은 프로그램에도 안나와 있읍니다마는 원래 오늘 発表하신 趙璣濬先生님을 이 일에 대해서 조금 도와드렸기 때문에 혹시 또 討論이라고 할까 이런 立場에서 補充해서 말씀드릴 것이 있으면 나오라고 해서 나왔읍니다. 저는 그래서 말씀을 드려도 되고 안드려도 되는 立場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말씀중에 저 個人的으로는 굉장히 많은 것을 배웠읍니다마는 특히 崔碩鎬先生님께서 우리가 統一問

題를 長期的으로 생각해 나가야 된다. 또 그 過程이 중요하다. 또 가령 分断은 一時的으로 우리가 그대로 解決을 못하더라도 民族再結合 이런 것은 가령 地域的인 分断을 위해서도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은 굉장히 참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人間型이라든지 理想的인 社会像 이런 것을 통해서 대단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本 論文의 本旨에 제일 直接的으로 問題를 指摘하시고 하신 것은 林鐘哲先生님께서 많이 하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마는 저 역시 林鐘哲先生님의 弟子가 됩니다. (웃음)

그래서 이것을 林先生님 말씀이 다 옳다고 해야 제일 좋은 弟子가 되겠는데 사실 저는 거의 大部分 林先生님과 같은 立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는 지금 発表된 内容을 뭐라고 할까 좀 変化라고 할까 하면 語弊가 있읍니다마는 그 立場에서 말씀드릴 사정이기 때문에 林先生님께서 批判하시는 중에 가령 南과 北사이의 福祉社会의 理念을 共通으로 삼는 것은 좋다고 하더라도 手段의 差異가 너무나 현격하다. 그런 것은 저도 전적으로 同感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発表하신 趙先生님께서 그렇게 林先生님께서 느끼시기로 너무 楽観的으로 우리가 본 것처럼 그렇게 나타나겠느냐 그것은 애당초 出発하는 立場에서부터 統一韓国의 未来像으로서 우리가 現在 両体制를 생각하면서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겠느냐 생각하

니까 그것은 福祉国家라는 것이 제일 接近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展開하고 있는 福祉国家라고 하는 것은 우리 地域 南韓에 있는 이 社会 経済制度나 이런 것이 現在 이것이 그대로 福祉国家다. 그것이 絶対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이런 福祉国家로 가느냐 안가느냐 하는 것도 더 두고두고 討論이 되어야 되겠읍니다마는 만약 그렇게 간다고 할 때에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 스스로 멍에를 둘러메어야만 되는 그런 高度의 福祉社会를 생각해야 된다고 보겠읍니다. 가령 우리가 아까 林先生님께서도 적절히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우리가 과연 経済的 自由가 많으냐 暴利의 自由만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가령 이런 것 혹은 以北의 사람들이 우리한테 좀 달라고 할 때에 주느냐 그런 問題를 우리가 더 고려를 하고 가령 그런 国家役割이라든지 国民들이 統一에 대한 念願때문에 福祉国家쪽으로 우리가 発展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強力한 어떤 統一된 意志 이런 것이 있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福祉国家를 이루는 그것을 우리가 理想으로 말하자면 지금 統一을 위해서 우리가 提示하는 福祉国家의 段階이지 現在 우리가 日常 가지고 있는 이런 経済制度가 바로 福祉国家다. 이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差異가 전연 発表하신 趙学長님과 林先生님 사이의 큰 차이가 아닌가 또 우리가 여기에서 福祉国家의 가령 우리가 北쪽보다 南韓이 福祉社会 이런 面에서 앞섰다 하는 것도

가령 우리가 꼭 앞섰다는 것보다도 상당한 정도의 經濟的인 物質的인 基礎가 상당한 정도로 있고 또 成長의 潛在能力이 상당히 強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強調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한가지만 지금까지 너무 討論이 길었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간단히 끝내고 싶습니다마는 強調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福祉社会 혹은 福祉国家를 이렇게 提示하고 그 사람들이 남도 북도 그것을 다 찬성을 한다면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이쪽으로 잘 発展시켜야만 統一이 된다. 이렇게 된다면 가령 그것이 政府에 대해서도 하나의 圧力이라고 할까 要求라고 할까 이렇게 되고 国民들도 스스로 우리가 이쪽으로 가야만 결국 그것이 統一을 하는 길이다. 이런 쪽으로 우리가 더 強力히 느끼고 그렇게 共感을 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国家가 介入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가령 民間主導냐 政府主導냐 이런 것을 가지고 조금 論難이 되고 있읍니다마는 国家가 主導다 民間이 主導다 하는 것은 무슨 긴 旅行을 하는데 가다가 버스를 먼저하던 運転士가 내리고 다음 運転士가 가라타고 車를 몰고가는 그런 것이 絶対로 아니고 政府 혹은 国家가 맡아야 할 固有機能에 좇아가는 것이 가령 企業이라고 하면 民間企業이 맡아야 할 固有機能은 民間에게 주는 것 이런 것도 이 政府主導냐 民間主導냐 하는 그런 論議를 할 때에 基準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가령 우리가 앞으로 福祉国家를 向

해서 國家가 할 일이 뭐냐 그것은 굉장히많습니다.

勿論 우리가 社会保障制度를 確立한다든 무슨 最低賃金制라든지 무슨 独寡占 規制라든지 物価抑制라든지 기타 뭐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을만큼 많은데 그런 것을 철저히 잘 해주는 것 그것은 얼마든지 國家가 強力하게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提示하는 높은 社会 즉 福祉國家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 司会(洪承勉)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金永鎬先生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읍니다.

○ 金永鎬 저는 아주 말씀을 적게 하는 것이 여기에 계시는 분의 福祉에 도움이 될 것같아서(웃음) 한마디만 간단한 補充말씀을 하고 끝내도록 하겠읍니다.

아까 趙璣濬先生님 말씀에 前提가된다고 그럴까 骨子中의 하나가 이 南쪽의 自由와 또 北쪽의 平等을 調和하는 福祉体制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補充이라고 그럴까 약간 說明을 必要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어서 그것 한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경우에 南韓 資本主義 우리 自由体制下에서는 平等이라는 要因이 없고 北에는 平等要因이 있다 하는 式으로 平等이 마치 北의 固有한 어떤 專有物인양 하는 前提는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平等概念이 마치 그런 식으로 設定하는 하나의 思考方式과 또 하나는 平等의 增進이 지금 經濟成

長에 마이너스가 된다는 成長이나 平等이나 이것을 마치 両断択一的으로 選択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이 두個의 思考方式이 우리 南韓속에 平等要素의 增進을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래서 이 資本主義속에 아까 金環東先生님께서도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이 平等의 実質的인 内容은 正義이고 自由의 正義問題는 자연히 随伴되는 問題이고 지금 南韓의 自由의 体制속에서 당연히 지금 現在로서는 平等概念을 매우 強調해야 되는 마치 北의 혹은 中共이나 이런데의 資本主義 産業社会로부터 가령 借款導入이라든지 技術導入이라든지 이런 것이 資本主義的 自由要素의 導入이 임박하고 심각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南韓에서는 資本主義속에 원래부터 있는 平等概念을 다양하게 発展시키는 것이, 원래 資本主義体制는 다양한 体制니까 이 平等概念을 매우 発展시키는 것이 두가지 뜻으로, 하나는 우리의 多様性속에 北의 要素를 우리가 키워나갈 수 있는 北을 吸収할 수 있는 能力을 기른다는 뜻에서도 이 平等要素의 強調라고 그럴까 増加가 南北韓全体를 우리가 包摂하는 그러한 豊富한 能力을 갖는 뜻으로도 重要하고 뿐만 아니라 現段階로서 南韓의 現在 우리 体制의 経済成長을 為해서도 이제 平等이 成長에 마이너스要素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프라스要素가 되는 時代가 온 것이 아닌가 그만한 지금 段階에 온 것이 아닌가 이런 두가지 뜻에서 平等概念의 強調는 대단히 重要하고 또 이것은 아까 林鍾哲先生님 말씀가운데에서 北

韓나름대로 自由가 있다 하는 이야기도 했읍니다마는 또 南韓은 원래 資本主義世界에서 自由와 同時에 平等이 있는 것이고 지금까지 自由 側面만 너무 強調해 왔는데 自由側面만 強調해 가지고는 뭐 自由도 다시 말하면 資本主義의 自由競争能力 自体가 오히려 限界에 부딪치는 이런 点이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資本主義 우리속의 平等要素를 발전시키면 그러면 어떤 것인가? 이쪽에 없는 것과 또 저쪽에서 없는 것을 合쳐서 第3의 것을 만든다는 形態가 아니라 마치 一種의… 제가 説明하기가 힘듭니다마는 一種의 仏教에서 말하는 화정의 論理처럼 같은 속에 다른 것이 있고 다른 속에 같은 것이 있는 이런것이 蓄積됨으로써 그런 것이 쭉 蓄積의 과정을 우리가 発展시킴으로써 아까 崔先生님이 말씀하신 작은 것의 蓄積이… 작은 것을 통한 統一의 길이, 작은 것의 蓄積을 통한 統一의 길이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現段階로서 두가지 側面을 同時에 綜合해서 平等概念의, 지금 現在 平等要素의 強調가 대단히 重要할 것같다. 하는 것을 添付해 두고 제 말은 끝내도록 하겠읍니다. (박수)

○ 司会(洪承勉) 대단히 감사합니다.

林鍾哲先生님 더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林鍾哲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약간 伝達이 된 것같기도 하고

마침 長官께서 나와 계시니까 한말씀 더 드리겠읍니다.
福祉를 政府의 基本政策으로 삼으려고 하시는 李長官의 努力이 얼마나 장애를 받고 있느냐 하는데는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읍니다.

統一을 하는데 있어서 福祉社会라는 이데오로기를 共分母로 해 가지고 해야 된다는데 反対하는 것같이 들렸다고 하면 그것은 제 잘못입니다. 그것을 저는 절대로 賛成합니다.

다만 手段의 마련에 問題가 있읍니다.
手段에는 두가지가 있을 것같아요.
하나는 物質的인 面이고 하나는 人間的인 面인데 物質的인 것이라는 말은 豊富지요. 이것은 人間的인 要因에 変化가 없을 때에는 오히려 統一을 福祉社会建設을 沮害하는 要因이 된다는 것을 例를 들어서 말씀드렸읍니다.

그러면 人間이 問題인데 人間이라는것은 남에게 줄줄 아는 人間類型 이것을 만들어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읍니다.
그러면 福祉社会라고 했을 때에 가령 社会保障制度같은 것은 外皮 옷에 불과합니다. 개는 번드르르한 옷을 입고 온 사람에겐 꼬리 흔들고 허름한 옷을 입고 온 사람에겐 짖고 그렇지만 人間은 그렇지 않고 人間을 알아보니까 어떠한 옷을 입었느냐 하는 것보다도 속 알맹이가 어떠냐 하는 것을 가지고 評価를 하는데 福祉社会라고 하는 것도 이런 外皮, 制度的인 外皮보다도 人間을 더 잘 만들어야지만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

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해온 人間類型의 造成이라고 하면 어떠냐 할 것같으면 남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빼앗으려는 이러한 人間類型만을 만들어오지 않았느냐 만인의 만인에 대한 闘技場을 만들어논 것이 지금까지의 経済政策이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政府로서는 하루속히 人間을 尊重하는 社会로 넘어가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지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率先垂範하고 政策化해야지만 됩니다. 가령 아까 最低賃金制度가 時急하다고 했지만 그런 것도 導入을 하고 税制같은 것도 改善해야 합니다.

가령 5千万원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든지 土地를 가지고 있든지 해보세요. 여기에 財産税나오는 것이 年5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가령 우리가 30만원 月給받는다고 할 것같으면 3分利子라는 것은 요새 아주 形便없는 利子인데 3%로 30만원을 資本化하면 30만원 月給쟁이는 1천만원짜리 資本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누라는 나를 가지고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천만원 가지고 있든지 所得 30만원 받기는 마찬가지란 말이지요 (웃음)

1年 내내 뛰어가지고 얼마를 받느냐 하면 360만원을 버는데 여기에 대해서 税金이 얼마나 加해지느냐 할 것같으면 教授는

다행히 政府에서 깊이 配慮를 해주어서 手当이다 뭐다 研究費다 하는 것으로 해서 税金이 적어서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다른사람을 年間 30% 적어도 40만원이 넘을 것입니다.

그런데 土地라는 것은 가만이 놓아두면 인플레가 되어가지고 자꾸 增価가 됩니다.

人間이라는 것은 10年뒤면 노폐물이 되어서 보링해도 잘 안들어요. 所得能力이 없어지는 것이지요.

이런 人間한테는 디립따 비싼 税金을 매기고 일단 富者가 되어가지고 財産을 가지면 그것은 아주 편한, 즉 富者되기는 아주 힘든, 그러니까 人間보다는 物質을 尊重시키는 이러한 経済政策을 세워나갈 때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 후에는 物質的인 進歩가 오히려 福祉社会 建設을 통한 南北의 統一의 沮害要因이 되면 되었지 增進要因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以北의 同胞들이 우리의 所得의 半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倍라고 하더라도 하여튼 우리 所得의 한 20%정도는 주어야지만 평등하게 되는데 이를 어떻게 주느냐하면 結局은 政府에서 税金으로 걷어가지고 그쪽에 대해서 여러가지 救恤的 支出을 해야 될 것입니다. 또 民間慈善団体가 해야 될것이고 그런데 配当所得税조차도 안내려는 사람들이 以北民을 救済해 주기 為한 税金을 … 特別税지요 그것을 내려고 하겠느냐 오히려 統一을 北韓同胞에게 物件팔아 致富하고 工場払下받아 致富할 수 있는 機会로 생각하고 있는 (웃음) 이러한 社会에서 統

一이라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제가 그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자꾸 人間을 생각하지 않고 物質만 가지고는 안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 趙先生님 論文이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웃음) 政府의 政策態度가 平等을 外面하고 있는데 平等을 強調하시다가 (웃음) 우리 統一院長官께서도 괴로움을 당하신 에피소드도 있고 하니까 제가 굳이 이런点을 強調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 司会(洪承勉)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崔禎鎬先生님 더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崔禎鎬 말씀이라고 드릴 것은 없고 자꾸 言語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論議된 問題에 대해서 다시 言語에 関聯된 이야기를 더 하겠읍니다.
아까 지금의 段階에서 統一의 問題가 第1次的으로 그것은 現実的으로 오직 레토릭의 問題다. 그런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것과 関聯해서 지금 福祉国家의 具現을 통한 南北韓의 統一의 未来像에 관해서 趙先生님께서 発表를 하셨는데 여기에 지금 어떤 論争이 벌어져 있는고 하니 南의 自由 北의 平等이라는 그러한 分類가 可能하느냐 그런 것을 가지고 基本的으로 論争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이러한 論争이라는 것은 어떤 意味에서는

50年代的인 論争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웃음)

自由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쪽에는 있고 어느 한쪽에는 없는 有無両断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槪念이라는 것보다도 어느 한쪽은 보다 적은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現実이 아니겠느냐

過去에는 모든 것을 한쪽에는 平等이 있고 한쪽에서는 平等이 없고 한쪽에서는 自由가 있고 한쪽에서는 自由가 없다고 그렇게 보았는데 이러한 有無両断의 二分法이라는 것은 어떤 意味에서는 冷戦의 図式은 된다고 하더라도 가령 共存이랄지 接近하겠다는 世界에서는 통하기 어려운 槪念이 아니겠느냐?

사실 人間世上에 서로가 絶対的으로 区分되는 그런 世界라는 것은 아마 男女의 이야기밖에는 없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三綱五倫에서 따지는 가령 君臣의 関係도 옛날이야 勿論 어림없는 소리이지만 民主主義国家에서는 理論的으로 모든 사람이 大統領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父子関係도 그렇습니다. 저도 子息가지고 있고 장가를 들면 저도 애비가 되고 師弟関係도 마찬가지지요.

아까 여기 지금 3代째 스승하고 弟子가 있는데(웃음) 弟子가 되었다가 世代가 바뀌면 先生이 되는 것이고 하기는 요새 男女의 関係는 男子가 女子로 수술을 하고 女子가 男子로 수술을 한다고 하는데 이 自由問題라는 것은 大韓民国에는 自由가 있고 以北에는 自由가 없다 무슨 以北하고 소聯은 平等

이 있고 美国에는 平等이 없다. 이러한 概念으로 우리는 생각해 보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新聞을 專門으로 專攻하는 사람이 되어서 新聞의 例를 보더라도 과거 50年代에 있어서는 比較新聞学에서는 世界여러 個의 新聞을 갖다가 言論에 自由가 있는 나라 없는 나라 自由的인 言論 權威主義的인 言論 그렇게 둘로 갈랐읍니다. 그러한 二分法이 얼마나 現実과 동떨어진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反省에서 요새 와서는 自由의 概念이다.

平等의 概念이다 하는 것은 같은 컨티눔上에 있는 많고 적고 하는 정도의 差異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美国의 新聞에도 權威主義的인 傾向이 있고 소聯의 新聞에도 自由를 누리고 있는 그런 색타도 있다. 그래서 이것은 있고 없고의 両断으로서 二分할 수가 없다 다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굳이 그런 言語를 使用한다면 한쪽에서는 리버티 인텐딩 自由主義를 指向하는 그런 社会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오소리인텐딩 權威主義을 指向하는 그러한 社会가 있다. 모르겠읍니다. 韓国의 社会나 経済分析에 있어서는 제 곁에 세시는 李先生님께서 평생 專攻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정말 韓国에도 아까 林先生님께서 말씀하신대로 自由라는 것이 오직 暴利의 自由만 있고 또 以北에는 어떤 意味에서는 貧困의 平等 地域의 平等이 있다. 그러나 問題는 大韓民国社会가 뭐를 指向하느냐 또 以北社会가 뭐를 指向하느냐 하는

거기에 있어서는 趙先生님께서 그런 福祉國家의 理想과 같은 것도 充分히 우리가 納得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금 사실 저는 오늘 이 討論에 參加하면서 크게 느낀 것이 있읍니다. 과연 우리가 이 統一論爭을 갖다가 비록 그것이 레토릭의 次元이라도 統一에 관한 論爭을 한다는 意味가 뭐냐 그에 앞서서 南北이 分斷되고 있으면 勿論 그것은 우리들한테 커다란 悲劇이요 괴로움이요 안타까움이지만 그것은 그것 나름대로 南北韓의 가령 経済発展이랄지 여러가지 國家発展의 그 自体가 하나의 무슨 刺戟劑가 된 경우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도 생각해 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비록 口弁의 次元에서라도 이러한 統一論爭이 있음으로 해서 그것은 우리가 北에 대해서 우리를 体制自体의 정체를 아이덴티티를 찾기 위해서 이러한 体制論爭의 活性化가 우리 体制에 대한 反省을 촉발했다.

그런 意味에서 사실 오늘 林先生님의 우리나라의 経済랄지 社会 또는 金璟東先生의 우리나라 社会에 대한 分析은 이것도 역시 統一論爭 過程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 意味에서 혹시 統一에 관한 論爭이라는 것은 우리 自体의 内部의 発展을 為해서도 매우 意味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운데에서 좀 補充하고 싶었던 것은 1972年7月4日 지금까지는 傀儡로만 알았던 以北과

하루아침에 우리가 協商을 하고 文書에 署名을 하고 그랬는데 도대체 그러한 北傀가 뭐냐하는 것인데 또 그러한 北傀를 어떠한 北傀를 어떠한 이름으로 불러야 하는지 하는 問題와 関聯해서 우리가 비록 対内的인 次元에서라도 우리들의 対話나 協商의 파트너가 어느程度의 相対라고 하면 우리들의 対話의 相対로서 받아들일 것인가 이런 問題에 대해서도 저희들 나름의 어떤 資格規定같은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가령 独逸의 경우에는 東方政策이 具体化되기 전에 저는 政治의 次元은 아닙니다마는 哲学者 야스파스같은 사람이 이런 말을 했읍니다. 만약에 東独이 統一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오스트리아같이 하나의 自由로운 民主主義社会가 된다면 우리는 統一을 포기하고 独逸의 分断状態를 받아들이자 그러한 야스파스의 컨세트에 대해서 그 뒤에 오늘날 独逸의 社会民主党의 党幹部로 있는 웨너같은 사람은 유고스라비아 컨셉트 만약에 独逸이 東独이 비록 共産主義国家로 남았다고 하더라도 소聯의 헤게모니에서 벗어나서 人間主義的인 共産主義를 건는다고 하면 우리가 分断되고 그러면서 東独이 共産主義体制下에 있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자 그러한 段階를 거쳐서 그 다음에 東方政策이 追進될 때에는 설혹 東独이 오늘의 状態대로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들이 東独과 対話를 함으로 해서 우리들이 東独과 協商을 함으로해서 東独에 사는 住民들의 生活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할 수 있다고 하면 또 東独에 사는

住民들의 生活을 보다더… 지금 두분께서 強調하신 人間化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그 때에는 우리들이 東独과 모든 것을 그대로 놓아둔 状態에서 対話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언제 있을지 모르는 먼 将来의 独逸民族의 再結合을 위해서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統一問題를 저희들이 論議할 때에 그것이 단순히 비죤이고 레토릭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해야 할 問題는 과연 統一이 되었을 때에 또 統一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北과 対話를 할 때에는 우리가 北에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北에 이러한 対話나 統一論争을 통해서 또 統一을 통해서 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우리들 自体의 準備가 없으면 이 統一論争이라는 것은 매우 空論의 段階에서 또 잘못하면 以北의 페이스에 말려들기 쉽지 않겠는가 그러한 杞憂라고 할까요 비슷한 것을 느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읍니다. (박수)

○ 司会(洪承勉) 대단히 감사합니다.

時間이 豫定보다 상당히 초과했읍니다. 이렇게 豫定보다 상당히 초과된 時間을 가만이 듣고만 계시는 방청석가운데에서 어느분 한분 오늘의 主題와 또는 討論과 関聯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質問 1. 저희들이 이렇게 여러 学者님들을 모시고 좋은 이야기를 듣게 해 주신 統一院当局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所感을 한마디 말씀을 하고 所願을 말씀드리겠읍니다.

趙璣濬先生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은 여태까지 우리나라에서 있을 수 없었던 그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即 平和統一을 為해서는 우선 相対를 認定해주자 相対의 長点도 거기에서 認定하고 나오시는 이런 것을 느꼈읍니다.

南北問題의 반성이라고 하면 감정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長点도 같이 길러주는 方向으로 여러가지 討論이 계셨는데 저는 상당히 감명을 받았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또 南北이 平和的으로 統一을 하고 以北하고도 7.4共同声明 対話의 協商에 나와라 하는 이마당에서 우리 国内에서 이따금 対話가 안되는 階層이 있읍니다.

例를들면 某 国会議員이 말했는데 그 内容이 発表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것도 우리 国民으로서 상당히 궁금합니다. 왜 어떤 法에 저촉이 되어서 무슨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느냐? 経済的인 構造뿐만 아니라 言論에 관해서도 対話의 広場이 制限된 範囲内에서만 되는 것이 아니냐 그 問題에 대해서 시원하게 알려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가령 지난 明洞事件같은 것을 보면 상당히 法에 저촉이 되어 있읍니다마는 南北問題에 대해서 共同으로 経済나 政治問題에 대해서 순수한 宗教人들이 이야기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法에 걸려서 그렇게

되었는지 그런 것이 具体的으로 言論에 안나와 있어요

그런 것을 좀 開放해서 是正을 해가지고 보다더 自由民主主義답게 잘 해주셨으면 하는 所願이 있읍니다.

그동안 碩学들 國內 海外 日本 総長님 美国에서 오신 先生님 이야기 한것을 보면 民族의 統一意志가 얼마나 強하냐 民族의 統一의 意志가 있으면 언젠가는 統一이 될 것이다. 日本 総長님하고 하와이에서 오신 분도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또 우리 國內 여러先生님께서 自我反省 또는 失敗 이런 것을 가지고서 말씀을 해주셨읍니다.

이에 대해서 市民의 한사람으로서 상당히 감사합니다.

○ 司会(洪承勉)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다른 말씀해 주실 분이 계시면 서슴치 마시고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質問 2.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한가지 崔博士님에게 여쭈어 보겠읍니다

独逸에서 루마니아 軍部의 指導者가 美国에 亡命을 했을 때에 이야기가 独逸에서 한 그 秘密問題에 대해서 公開한 記事를 읽었읍니다.

独逸이 結局은 NATO에서 脫退하고 소聯과 不可侵条約을 맺는 親善条約을 맺는 条件으로 東独과 統一을 하겠다. 하는 그러한 記事를 본 일이 있읍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또 사실이 아니

면 그러한 可能性이 있는지 또 거기에 安保와 또 韓半島問題에 대해서 그러한 어떠한 考慮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쭈어봅니다. 고맙습니다.

○ 崔 鎬 제가 独逸問題에 대한 專門家도 아니고 더군다나 그런 諜報将校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제가 더군다나 答弁할 位置에 있지 않습니다.

한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独逸에서 東方政策이라고 할 때에 과거 비스마르크 이래 어떤 意味에서는 와이마르共和國의 슈트레스만 当時까지 独逸政策의 가장 큰 問題가 東西 두 世界를 왔다 갔다 하는 그네타기外交 이것이 独逸의 悲劇이고 欧羅巴의 悲劇이라고 그랬는데 적어도 独逸에 있어서 1960年代부터 70年代初에 展開되었던 東方政策은 独逸이 西方世界에 붙느냐 아니면 東欧羅巴에 붙느냐 하는 이것이냐 저것이냐 하는 論理에서 進行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2次世界大戦以後 아데나워 에르하르트 政權에 의해서 確立된 西方과의 同盟을 발판으로 하고 西方과의 同盟関係를 움직일 수 없는 것으로 하고 그러한 基礎위에서 東方政策을 展開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한 協商의 과정에서 일이 있었는지 推進한 사람 자기 경계에 밝히고 있는 것은 소련이나 東欧羅巴 政權当局의 그야말로 党이나 政府의 首脳者를 接近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그 近処에 있는 사람 또는 共産党과 関係하는 사람

의 어떤 中継가 必要했겠지요.

지금 確実히 밝혀지고 있는 것은 브란트가 東欧羅巴나 소聯을 接触하기 위해서 그 当時의 이탈리아 共産党 指導者를 中継로 해서 손을 냈다는 것은 밝혀졌읍니다마는 그 以上의 諜報的인 次元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제가 전연 答弁할 수 있는 資格이 있지 않습니다.

○ 司会(洪承勉) 그러면 時間이 너무 초과되었읍니다. 時間이 너무 늦었읍니다.

그리고 統一韓国의 未来像 결코 오늘 하루에 討論에 그칠 性質의 問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유리가 두고두고 討論을 해보아야 할 問題가 아닐까 또 그만큼 심각한 問題를 지닌 問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統一韓国에 대한 未来像이라는 主題発表를 해주신 趙瑛鎬先生님 그리고 討論에 参加해 주신 여러 先生님들 또 지금까지 방청해 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수)

○ 司会(洪承勉) 이로써 第4次 統一問題 国際学術会議를 끝내겠읍니다마는 이 会議를 閉幕하기에 앞서서 저희 国土統一院의 長官님께서 말씀이 계시겠읍니다.

○ 国土統一院長官(李用熙)

閉 會 辭

國土統一院長官 李 用 熙

国土統一院長官 : 제가 李用熙올시다. 실은 현재 国会가 開会中이라 이런 귀중한 모임을 開催해 놓고도, 국회에 갔다가 짬을 보아서 여기에 참석하고 그러다가 다시 국회로 달려 가고 하느라고 변변히 모임에 참석도 못한채로 사흘간을 보내고 말았읍니다. 이번에도 끝판에 달려온지라 죄송스럽기도 해서 암말 않고 앉아 있겠다는 것이 그만 林教授께서 저의 존재를 지적하신 탓으로 나와 閉会人事를 하게 되었읍니다. 하여간 저로서는 여기 계신 貴賓, 그리고 이번 모임에서 발표하여 주신 国内外碩学, 各界의 大家여러분에게 오로지 감사드릴뿐 아니라 그간 연 사흘동안 나와 주시고 지켜 보아주신 여러분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금할길이 없읍니다.

그간 모임의 진행을 저도 간간히 들러서 듣고 보았읍니다만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가 여러가지 각도에서 여러가지로 論究되고 또 자유스럽고도 솔직한 분위기에서 깊이 규명되어서 저로서는 저윽이 배운바가 많았읍니다. 오늘 오후만 하더라도 이모

임의 結論格인 統一韓国의 未来像에 대해서 趙璣濬 교수님의 発表와 여러先生님의 論議가 계시다고 해서 萬事를 제처 놓고라도 와서 拜聽을 하려고 노력을 하였읍니다만 오호라 그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고 討論끝판에 겨우 참석하게 되었읍니다. 제가 도착해서 들은 가운데 제가 평소에 생각하던 문제가 言及되는 것 같아서 討論의 내용과는 상관없이 —제가 듣지 못했으니 말입니다. —상관 없이 저의 所見의 一端을 敢히 말씀드리고 여러분에 대한 감사의 뜻에 가름코저 합니다.

제가 막 도착할 즈음에 討論에서 福祉社会에 대한 概念規定에 연관되서 自由와 平等이라는 말이 나왔고 또 인상으로는 어떤기회가 自由를, 어떤 社会는 平等을 理念으로 하고 그것을 実現시키려고 노력하는 것 같이 들렸읍니다. 아시다 싶이 自由와 平等이란 概念은 비유하자면 여러가지 탈(假面)을 쓴 말같아서 그 의미에 대해서 논의하기 시작하면 崔教授님이 이야기 하신 것 같은 결과가 될지모릅니다. 그리고 自由, 平等의 概念을 基準해서 판단 할때에 항용 이 사회는 이렇게되고, 저 사회는 저렇다하고 논의도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서 볼때 이는 自由, 平等의 문제는 사람의 權利, 사람의

선택행위에서 깊은 의미가 있는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람의 선택의 權利에서 얻어진 自由와 그 選択에서 채택된 平等이 아니라면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령—말이 좀 이상스럽게 들릴는지 모릅니다만—사람에게 강요된 自由, 強要된 平等이 과연 自由이며 平等일까 하는 의심입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지녀야 한 選択의 原初的인 權利이며, 그위에선 自由와 平等은 —概念으로서는 서로 対峙되듯이 보이지만 —실은 사람이라는 行爲者를 중심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며, 같이 선택의 대상이 되고, 原初的인 自由選択위에 설때만 비로서 의미를 갖는 그런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모두 아시다싶이 「잘산다」는 것은 첫째는 현실적으로 살고 있는 「나」, 곧 個人에게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마는 그 個人은 고립된 개인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같이 사는 사회안에 개인인 까닭에 남과의 관계에서 제약을 받기 마련이며, 또 내, 남이 같은 權利를 지닌다는 平等의 立場에서는 「잘 산다」는 것은 平等의 요인을 지니지않고는 社会에서 성립이 아니될것입니다. 요컨데 잘 살려면 權利가 平等한 사회 에서는 「같이」잘 산다는 것만이 통용될것이고 그러면서 동시에 「같이」잘

산다는 속에 「남보다 잘산다」는 個人의 의식이 곁드려져 있어야 될것입니다. 제가 이해하는 福祉社会의 基本概念은 사람의 原初的 基本権利로서의 自由選択위에선 社会自由와 社会平等概念이 어떻게 調和되느냐 하는것이 됩니다. 어떤경우에 어느말씀에는 以北에는 혹시 平等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論調로 들리는 수가 있읍니다만 저 개인의 생각으론 앞에 든 이유로 해서 그것은 사실이 아닐것으로 믿어집니다. 사람이 자유롭게 선택할 여지가 없다면, 그것은 平等일수가 없을것이며, 社会의 意志라는 것이 個人의 選択밖에서 형성된다면 그것은 虚構일뿐일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制度의 名分이 어떻든간에 選択의 原初的権利는 존중되어야되며, 그위에 社会에 있어서의 自由, 平等이 사람에게 의미를 갖게되고, 바로 이위에 福祉社会의 성격이 논의되어야 되지않을가 생각이됩니다. 그러므로 統一韓国의 未来像으로서의 高度福祉社会의 문제는 自由와 동시에 選択된 公平配分의 原理가 加味된것이라고 저는 믿는데 아마 이점은 여러 선생님께서 이미 아시는 일이라 부연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오히려 되지 않게 그런의미로 요약한 저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自由와 平等이란 개념은 福祉社会의 기본개념

을 設定하는데 援用된 말뿐이고 복지사회의 문제는 구체적으로 따질수록 복잡하고 다양한 면이 있게 마련인 것은 모두 아시는 일입니다. 하여간 統一院에서 생각하는 高度福祉社会의 개념에 포함되는 自由와 平等은 그 자체로서가 문제가 아니라 주인공인 사람의 選択行為와 연관된 의미에서 취급하고 있다는, 여러분이 잘 아시고 보통 취하고 있는 것을 장황이 말씀드려 高名한학자님에게 혹시라도 失礼가 되지 않았나 두려워합니다. 統一韓国의 未来像이라는 論題는 말할것도 없이 금년의 討議로서 단번에 결론이 나올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구명해주신 여러 先生님의 論議를 토대로 可能하면 来年도 계속 討議하고 검토하므로서 더 좋은 意見과 未来에 대한 더 밝은 展望이 보이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앞서 어떤분께서 独逸統一問題에 연관해서 新聞報道 말씀 하셨는데 제가 약간 들은바가 있기에 말씀드리겠읍니다. 내용은 아시다 싶이 루마니아의 高級情報를 가진 것으로 추칙되는 高級将星이 美国에 亡命해서 폭로했다는 것으로 西独首相室의 高位人士가 東独에 提案하기를 서로 나토와 와르소 軍事体制에서 나와 統一을 하자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마침 日

前에 西独外交의 責任있는 高位의 한 분이 제 事務室에 오셨던 계제에 저도 궁금해서 이 문제를 사담으로 물었읍니다.— 혹시 이 보도에 무슨 근거라도 있는지. 그랬더니 근거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있을수 있느냐는 反問이었읍니다. 제 생각에도, 아까 崔教授께서 말하셨듯이, 東西独関係의 安定은 形式上 여러개의 公的合意에 依한 것입니다만 그 内容을 결정하는 배후는 현실적으로 나토와 와르소條約軍의 均衡에 있는것으로 알려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軍事的均衡이란 要因을 除外한다면 東西独関係의 背景을 이루는 현실적인 힘의 関係는 대단한 不安定状態에 들어갈것이고, 그러한 不安状態를 가져올 提議를 했다는 것이 얼핏 이해가 아니 갑니다.

그러면 끝으로 다시 한번 発表者 諸先生과 이 모임에 참가하신 모든 분에게 감사를 올리면서 이 같은 人事답지 않은 人事를 마치겠읍니다.

会　議　日　程

第１部（１１月１日　水）　民族理念

○　開会式

主題(1)　南北의　民族理念－理論（１０：００～１３：００）

発表：金容九

討論：梁好民（司会），梁秉祐，李萬烈，崔相竜

主題(2)　南北의　民族理念－実際（１４：３０～１７：００）

発表：梁好民

討論：金容九（司会），具　常，金哲洙，南時旭

第２部（１１月２日　木）　民族의　異質化

主題(3)　南北　異質化의　実態（１０：００～１１：００）

発表：国土統一院

特講(1)　独逸에서의　分裂国家　成立과　統一의　課題（１１：００～１２：３０）

講演：하야시　겐따로（林　健太郎）

主題(4)　南北　同質化의　諸問題（１４：００～１７：００）

発表：洪承勉

討論：朴権相（司会），李箕永，曺大京，韓相福，趙徳松

第3部（11月3日 金） 民族의 展望

主題(5) 北韓社会의 長期展望（10:00～12:00）

発表：趙 淳

討論：趙璣濬（司会），朴東雲，徐相喆，呂井東

特講(2) 民族統一－그 文化的 背景（12:00～13:00）

講演：에버레트 클라이얀스（Everett Kleinjans）

主題(6) 統一韓国의 未来像（14:30～17:00）

発表：趙璣濬

討論：洪承勉（司会），金璟東，林鍾哲，崔禎鎬，洪承稷

裵茂基，金永鎬

○ 閉会式

会 議 参 加 者

具　常 (詩人)

金容九 (서울大　教授)

南時旭 (東亜日報社　論説委員)

朴東雲 (한국일보社　論説委員)

徐相喆 (高麗大　教授)

梁秉祐 (서울大　教授)

呂井東 (서울大　教授)

林鍾哲 (서울大　教授)

曹大京 (서울大　教授)

崔相竜 (中央大　教授)

韓相福 (서울大　教授)

洪承稷 (高麗大　教授)

裵茂基 (서울大　教授)

金璟東 (서울大　教授)

金哲洙 (서울大　教授)

朴権相 (東亜日報社　安保統一問題 調査研究所　所長)

趙徳松 (朝鮮日報社　論説委員)

梁好民 (朝鮮日報社　論説委員)

李萬烈 (淑明女大　教授)

趙璣濬 (高麗大　教授)

趙　淳 (서울大　教授)

崔禎鎬 (延世大　教授)

洪承勉 (言論人)

李箕永 (東国大　教授)

金永鎬 (慶北大　教授)

하야시　겐따로 (林　健太郎 : 前　東京大　総長)

에버레트　클라인얀스 (Everett Kleinjans : 하와이　이스트　웨스트 센터　総長)